

高陽 碧蹄館 建築遺蹟址 發掘調查報告書

2000

高 陽 市

京畿道博物館・延世大 建築科學技術研究所



벽제관지 발굴 전경 (공중촬영)

목 차

원색화보

I. 서론

- 1. 발굴조사 개요 11
- 2. 발굴조사 경위 11
- 3. 조사단 구성 13
- 4. 발굴 및 보고서 업무분담 13

II. 역사적 고찰

- 1. 고양군의 인문·지리적 배경 19
 - 1-1. 자연·지리적 환경
 - 1-2. 고고학적 배경
 - 1-3. 역사적 배경
- 2. 조선시대 지방객사 고찰 22
 - 2-1. 객사의 용도와 기능
 - 2-2. 객사의 입지
 - 2-3. 객사의 건물구성과 배치
- 3. 고양군 벽제관 26
 - 3-1. 연혁
 - 3-2. 벽제관의 입지 및 배치

III. 발굴조사 경과

- 1. 조사전 상황 43
- 2. 조사방법 46
 - 2-1. 발굴지역 구분
 - 2-2. 시굴 및 발굴
 - 2-3. 토사 처리 및 복토
 - 2-4. 유물 처리
 - 2-5. 실측 및 사진촬영
- 3. 조사경과 48
 - 3-1. 시굴 조사
 - 3-2. 주건물지 발굴
 - 3-3. 문지 발굴
 - 3-4. 마당 발굴
 - 3-5. 발굴 일지
- 4. 자문회의 56

4-1. 1차 자문회의	4-2. 2차 자문회의	
5. 총위		57

N. 유구 현황 및 분석

1. 주건물지		67
1-1. 정청	1-2. 동의헌	
1-3. 서익헌	1-4. 기단	
1-5. 계단	1-6. 기타	
2. 문지		90
2-1. 문지	2-2. 기단	
2-3. 계단	2-4. 흔들지	
3. 마당		99
3-1. 보도	3-2. 부석	
3-3. 월대	3-4. 기타	
4. 종합		109
4-1. 주건물지	4-2. 문지	
4-3. 마당		

V. 유구 해석 및 건축형식 고찰

1. 객사 형식과 규모		115
1-1. 객사 형식	1-2. 정청의 형식과 규모	
1-3. 익헌의 형식과 규모	1-4. 지방 행정구역과 규모와의 관계	
2. 세부 구성		125
2-1. 정청 바닥	2-2. 정청 벽체와 창호	
2-3. 익헌 내부구성		
3. 기단과 계단		131
3-1. 기단	3-2. 계단	
4. 마당 형식		134
4-1. 월대	4-2. 보도	
4-3. 부석		
5. 종합		140

Ⅵ. 복원계획

1. 복원 기준의 설정	143
2. 사용 영조척(營造尺) 검토	143
2-1. 정청	2-2. 동익헌
2-3. 서익헌	2-4. 삼문
2-5. 종합	
3. 복원계획설계	149
3-1. 건물배치	3-2. 평면
3-3. 초석	3-4. 기단과 계단
3-5. 기둥과 가구재	3-6. 벽체와 창호
3-7. 지붕	

Ⅶ.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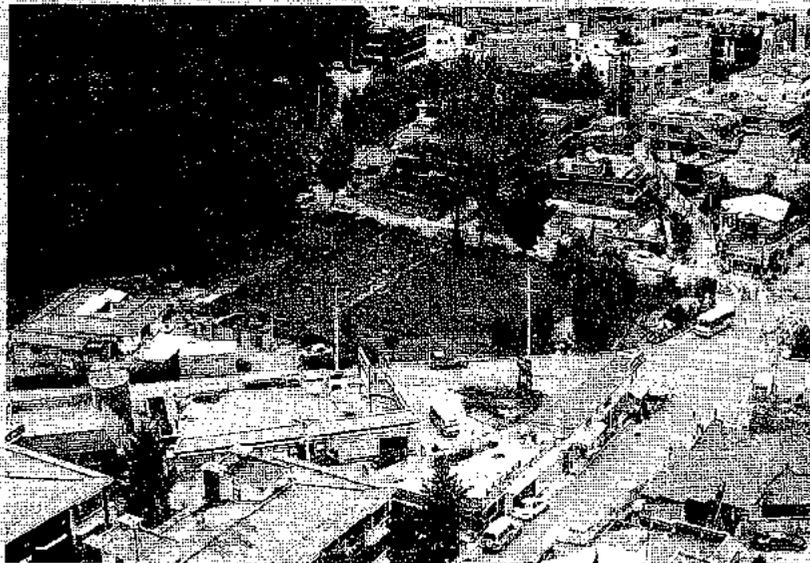
1. 주진물지	167
2. 문지	201
3. 마당	204
4. 지표	214
5. 종합	222
5-1. 와전류	5-2. 도기류
5-3. 자기류	5-4. 기타

부 록

사 진	258
도 면	287
참고문헌	303

I. 서론

1. 발굴조사 개요
2. 발굴조사 경위
3. 조사단 구성
4. 발굴 및 보고서 업무분담



I. 서 론

1. 발굴조사 개요

- 발 굴 조 사 명 : 고양 벽제관 건축유적지 발굴조사
- 발굴조사 수행기관 : 경기도 박물관 / 연세대학교 건축과학기술연구소
- 발굴조사 의뢰기관 : 고양시
- 발 굴 조 사 목 적 : 복원계획을 위한 건축유구 확인 및 기초자료 수집
- 발 굴 조 사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1번지
- 발 굴 조 사 기 간 : 1998년 9월 21일 ~ 12월 9일 (80일간)
- 발 굴 조 사 면 적 : 4,175㎡ (약 1,260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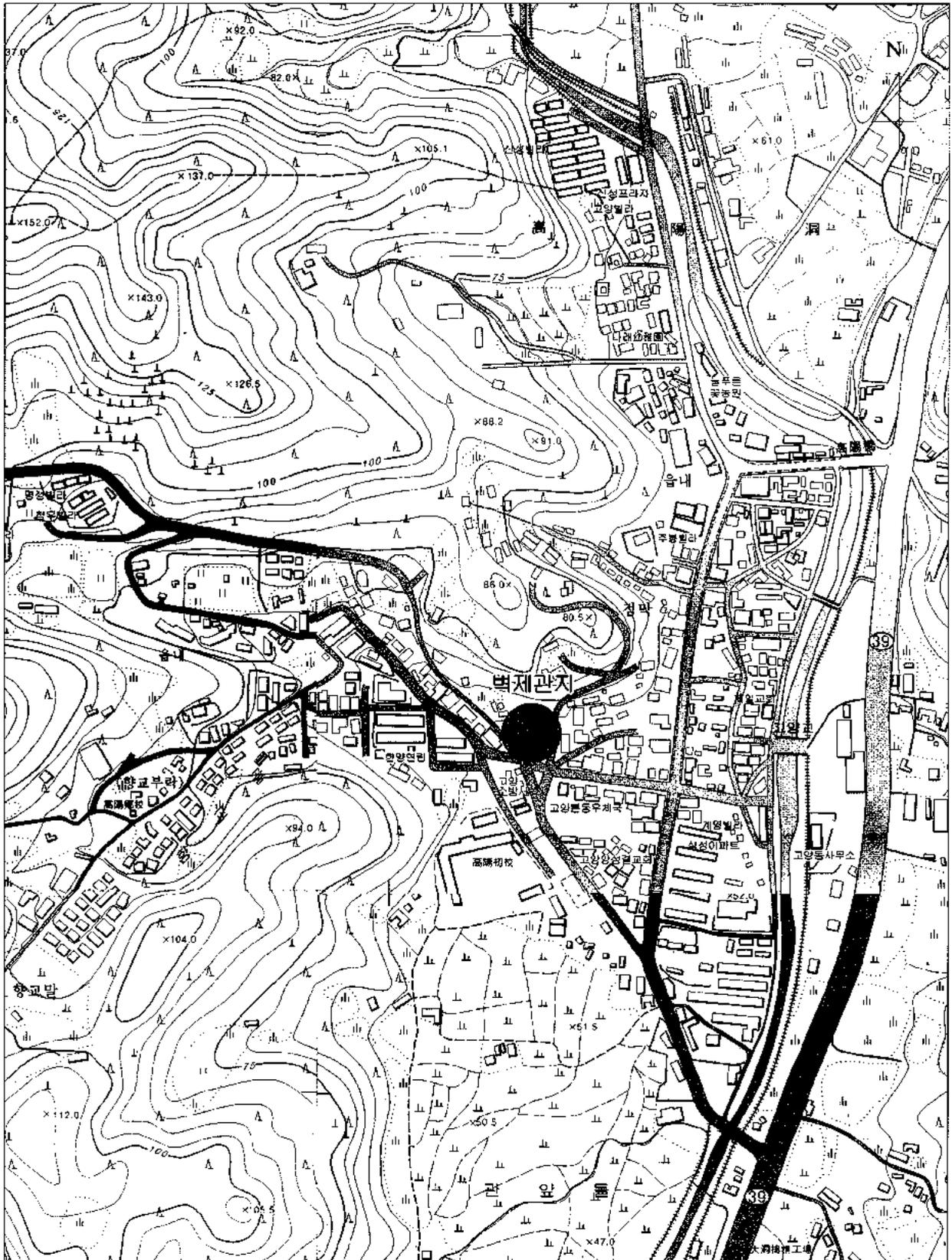
2. 발굴조사 경위

사적 제144호인 벽제관지(碧蹄館址)는 1625년(인조3년)에 고양군(高陽郡)의 읍치(邑治)를 옮기면서 지은 조선시대 고양군 객사의 건물터이자 벽제역(碧蹄驛)의 역관(驛館)터로 알려져 있는데, 벽제역은 한양에서 의주나 중국으로 가기 위한 역로(驛路)인 관서로(關西路)의 10여개 역 중 첫번째 역으로서, 특히 중국 사신의 영송(迎送)을 위한 중요한 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벽제관의 일부가 헐리고,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군을 물리친 왜군의 승전지로서 부각시키기 위해 벽제관 정화사업을 벌이는 등 그 원형이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그마저도 모두 전소(全燒)되었으며, 1960년 경에는 유일하게 남아있던 문까지 허물어져 그 터만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문화유산의 정비라는 행정적 차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라진 벽제관의 옛 모습을 실증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학술적 차원의 조사연구 작업 첫 단계로서 벽제관지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추진키로 결정하고, 1998년 6월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았다.

그 후 경기도박물관과 연세대학교 건축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 발굴조사기관으로 선정되어 1998년 9월 고양시와 벽제관지 발굴조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사전 발굴계획을 수립한 후, 1998년 9월 21일부터 1998년 12월 9일까지 총 80일간에 걸친 발굴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림 1-1〉 별제관지 위치도 (축척 : 1/6,000)

현장조사 후, 유물에 관해서는 경기도박물관의 책임하에 보존처리와 정리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런 중에 지도위원인 장경호 관장을 비롯하여, 실무책임을 맡았던 김성태 고고미술 부장과 실무담당이던 윤용희 조사원이 기전문화재연구원으로 이직함에 따라, 유물 정리작업은 기전문화재연구원의 지원하에 이루어졌다. 이런 까닭에 보고서의 조사단은 주로 기전문화재연구원과 연세대학교 건축과학기술연구소 소속 인원으로 구성되었지만, 조사기관은 경기도박물관과 연세대학교 건축과학기술연구소 공동명으로 보고서가 출간되게 되었다.

3. 조사단 구성

단 장 : 김 성 우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상임지도위원 : 김 동 현 / 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현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지도위원 : 장 경 호 / 전 경기도박물관 관장
 현 기전문화재연구원 원장/문화재위원
 김 동 육 /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책임 조사원 : 주 용 립 / 전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조 사 원 : 김 성 태 / 전 경기도박물관 고고미술부장
 현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김 무 중 / 기전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
 윤 용 희 / 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원
 박 창 열 / (주) 삼풍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이사
 유 기 원 /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조사 보조원 : 박 판 수, 조 지 혜, 박 은 정, 소 경 섭, 최 경 자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졸)

4. 발굴 및 보고서 업무분담

1) 발굴

- 현장 진행 총괄 : 김성우
- 현장 관리 및 감독 : 주용립, 김성태, 김무중, 박창열
- 현장 자문 및 지도 : 박충래 (연세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 현 장 진 행 : 윤용희, 유기원, 박판수

1. 서론

- 자료 조사 및 정리 : 김기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조지혜
- 발굴 작업 : 강문석, 박진우, 이원준, 김성진, 윤용희, 최인성, 이상돈, 김동희, 이상동, 박찬학 외 17명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등), 양인석, 이명한, 김종근, 장창진 (특별인부)
- 실측 조사 : 조지혜, 소경섭, 박은정 외 7명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원정일, 고민호, 김홍식, 이상수, 최춘기, 김구 외 9명 (대림대학 건축공학과), 윤용희, 이원준, 박진우
- 도면 정리 : 윤용희, 이원준
- 유물 정리 : 박진우, 이희준
- 사진 촬영 : 유기원, 박관수, 윤용희
- 사진 정리 : 민영선
- 공중 촬영 : 김지호 (한국무인항공 대표)
- 발굴장비 지원 : 연세대학교 박물관

2) 보고서

- 원고집필
 - I. 서론 김성우
 - II-1. 고양군의 인문·지리적 배경 김무중
 - II-2. 조선시대 지방객사 고찰 김기주
 - II-3. 고양군 벽제관 김기주
 - III. 발굴조사 경과 김성우, 윤용희
 - IV. 유구 현황 및 분석 김성우, 윤용희, 유기원
 - V. 유구 해석 및 건축형식 고찰 김성우, 유기원
 - VI. 복원계획 김성우, 박창열
 - VII. 유물 김무중, 윤용희
- 유구 도면 작업 : 윤소영, 이승연 (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원)
황선화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대학원)
- 유물 도면 작업 : 윤소영, 이승연, 황선화
이희안, 임진아, 조은혜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 복원 도면 작업 : 이정석, 김종태 ((주) 삼풍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유물 사진촬영 : 김웅신 (경기도박물관 보존과학실)
- 사진 정리 : 윤용희
- 교정 및 편집 : 유기원
- 협조 및 자문 : 박충래, 정동일 (고양시 민속전시관 전문직 연구원)
김영원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계)

보고서 작업 중 실무를 맡았던 경기도박물관 소속의 조사단원들이 기전문화재연구원으로 이직함에 따라, 그 후속 작업은 기전문화재연구원의 지원 하에 이루어졌다. 장경호 원장님을 비롯한 기전문화재연구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번 조사를 위하여 조사단 이외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발굴조사 완료 후의 행정처리와 유물의 보존처리를 도와주신 이인숙 경기도박물관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 지원과 자문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연세대학교 박물관과 박종래 선생님, 문헌자료 제공에 도움을 주신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김영원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박창열 이사님과 삼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분들의 도움도 작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발굴이 무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실무를 담당하신 고양시의 문화공보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고양시의 향토사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신 정동일 선생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현장에서 발굴과 실측을 도와주신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림대학 등의 여러 학생들과 작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II. 역사적 고찰

1. 고양군의 인문·지리적 배경

1-1. 자연·지리적 환경

경기도의 중앙으로부터 약간 서북쪽에 위치한 고양시는 동북쪽은 양주군, 북쪽은 과주군, 동남쪽은 서울과 인접하며, 서남쪽은 한강을 경계로 김포군과 마주하고 있다. 동경 126° 41' ~ 126° 56', 북위 37° 29' ~ 37° 41'에 위치한다. 1992년 2월 법률 제4417호에 의거 26개 동을 포함하고 있던 고양군이 승격하여 시가 되었다. 이 후 수차례의 시 조례에 따라 분동(分洞) 및 신설(新設) 동(洞) 등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고 현재에는 일산 신도시 등 35개 동을 포괄하는 거대한 시(市)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광주산맥의 말단부인 북한산(837m)의 인수봉과 노적봉 등 험준한 산지가 동남부에 세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 남서쪽으로 발원한 곡릉천과 창릉천이 남서쪽으로 흘러 한강으로 들어간다. 주변에는 낮은 구릉과 두꺼운 퇴적층으로 형성된 곡저평야가 펼쳐져 있다. 남서부의 한강유역, 특히 창릉천이 한강과 만나는 하구와 중면 신평리의 한강연안에 낮은 충적지로서 범람원을 이루고, 넓은 하중도(河中島)가 발달되어 있다. 지형은 남부가 화강편마암으로, 북동부가 결정편마암으로 되어 있다.

기후는 서울과 큰 차이가 없으며, 연평균기온 11.8°C, 연교차 25.5°C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며, 강수량은 1,214.8mm이다.

1-2. 고고학적 배경

지금까지 고양시 일원에서 구석기 유적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살펴보면, 고양시 화정지구에서 석영제 암석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고,¹⁾ 일산 신도시 개발지역 발굴조사에서 주먹도끼가 찾아졌으며,²⁾ 최근 일산 가좌동에서 굽개 1점이 지표채집된 바 있다.³⁾ 구석기는 주로 후기 갱신세에 속하는 지층에서 출토되었다. 따라서, 고양 일대도 구석기시대부터 선사인의 생활터전이었음을 알려준다.

신석기 유적은 지영동(芝莢洞), 가시동(加柴洞), 오부자동(五富子洞)에서 즐문토기(櫛文土器)가 확인된 바 있으나⁴⁾ 출토유구에 대한 확실한 상황은 알 수 없으며, 현재 그 위치를

1) 서울대학교박물관, 『高陽郡花井地區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991

2) 한국선사문화연구소, 『일산 신도시 개발지역 학술조사보고 I』, 1992

3) 고양시·한국도지공사 토지박물관,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토지박물관 학술조사총서 제3집, 1999

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横山將三郎 자료, 金元龍, 『韓國史前遺蹟遺物地名表』, 서울大考古人類學叢刊 第2冊, 1965

II. 역사적 고찰

확인할 수 없다. 최근 단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일산 대화리토탄층 발굴조사에서 즐문토기가 출토되었다.⁵⁾

이제까지 조사 또는 확인된 청동기 시대의 유적은 15개소에 달하며 유구로서는 8기의 지석묘가 확인되어 있고, 화정동 동북쪽의 국사봉(國祀峰) 아래에 산재한 암석들 가운데 일부도 지석묘일 가능성이 지적된 바 있다.⁶⁾ 그리고, 토기와 석기가 채집된 지역이 다수 분산, 분포하고 있어,⁷⁾ 청동기 시대에는 주민들이 고양시 내의 넓은 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원당 성사리(星沙里)에서 발견된 동모주범(銅鉞鑄范)은 이 지역내에 자체적인 청동기 생산기반이 있었음을 반영하는 자료로서 주목되며,⁸⁾ 오부자동에서 발견된 반월형석도와 국사봉 주변에서 군부대의 참호를 파다가 발견, 수습된 유경식석검(有莖式石劍)도 고양시 청동기시대 문화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⁹⁾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 유적으로는 덕양구 행주의동 유물산포지 1, 일산 가좌동 유물산포지 2,3, 덕이동(德耳洞) 산포지, 덕양 동산동 유물산포지 2 등이 확인되었는데,¹⁰⁾ 이 중 덕이동 유물산포지는 구릉지대 전체에 걸쳐 우각형과수, 단경호 구연부편, 대옹편, 시루편, 타날문토기 동체부편 다수가 채집되어 비록 지표조사이지만 규모나 입지상으로 보아 고양시의 원삼국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유적으로는 용두동 유물산포지 1, 고봉산성(高峰山城), 고봉봉수(高峰烽燧), 덕양 화정 유물산포지, 향동동 유물산포지 3, 행주의동 유물산포지 2, 가좌동 유물산포지 1 등이 확인되었다.¹¹⁾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유적으로는 행주산성 토성지,¹²⁾ 덕양 동산동 유물산포지 3, 일산 풍동 유물산포지, 일산 문봉동 유물산포지 등이 최근 확인되었다.

5) 윤내현 외, 「일산 3지역 고고학조사」, 『일산 새도시 개발지역 학술조사보고 I』, 1992

6) 서울대학교박물관, 주1)의 책

7) 우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橫山將三郎 자료로서 토기, 석기가 채집된 유적은 벽제면 관산리(官山里), 내유리(奈遊里), 문봉리(文峰里), 시기동(侍基洞), 신도면 오금리(梧琴里), 지유리(紙杻里), 중면 백석리(白石里)이며 원당면 신원리(新院里)에서는 지석묘가 알려져 있다. 이 중 내유리 채집유물에 대하여는 아래 글에 소개되어 있다.

李白圭, 「奈遊里 遺蹟 - 橫山資料 5 -」, 『全北史學』 第7輯, 1983

그리고, 해방이후 성석리(城石里)에서 지석묘가 확인되었고, 신원리에서 다두석부가 채집된 바 있다.

金武龍, 「坡州 交河里의 支石墓」, 『考古美術』, 第2卷 1號(通卷 6號), 1961

또한, 최근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고양 일산 사리현동 유물산포지, 설문동 유물산포지에서 무문토기편이 채집되었다. 고양시·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주 3)의 책

8) 梅原木治, 「朝鮮出土 銅劍銅鉞の新資料」, 『人類學雜誌』 48-4, 1933

9) 서울대학교박물관, 주 1)의 책

10) 고양시·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주 3)의 책

11) 고양시·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앞 책

12) 서울대학교박물관, 『幸州山城』, 1991

1-3. 역사적 배경

삼한시대(三韓時代)에는 진국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한 문헌자료가 없는 실정이므로 향후 고고학적 조사에 의한 자료가 보완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고대국가 초기에는 백제의 영역이었을 것이지만 본격적으로 행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흔적으로는 475년 장수왕(長壽王)이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키고 달을성현(達乙省縣), 개백현(皆伯縣)을 설치한 기록¹³⁾이다.

이후 신라(新羅)가 한강유역을 장악한 진흥왕 16년(555년) 북한산 순수비(巡狩碑)와 북한산주(北漢山州)가 설치되었다가 선덕여왕 15년(646년)에 앞의 달을성현, 개백현이 한산주(漢山州)에 편입된다. 통일신라기에 이르러 경덕왕 16년(757년) 한산주는 한주(漢州)로 개칭되며, 이 때 달을성현은 고봉현(高峰縣)으로 개백현은 우왕현(遇王縣, 일명 王峰)으로 개칭되어 한양군(漢陽郡)의 영현이 되었다.¹⁴⁾

후삼국시대(後三國時代)에는 태봉(泰封)에 편입되었다가 고려시대 태조 23년(940년)에 이르러 한양군은 양주(楊州)로 우왕현은 행주(幸州, 일명 德陽)로 개칭되었다¹⁵⁾가 성종 14년(938년)에 양광도(陽廣道)에 소속되고, 현종 9년(1018년)에 다시 고봉현과 행주현이 양광도 양주의 속현으로 예속되었다.¹⁶⁾ 문종 21년(1067년) 고봉현이 남경의 속현으로 예속되었고 이후 남경유수관(南京留守官)이 한양부(漢陽府)로 격하됨에 따라 충렬왕 34년(1390년) 고봉현의 지위도 격하되었다.¹⁷⁾ 공양왕 2년(1390년)에 고봉현이 경기좌도(京畿左道)에 소속되었다.¹⁸⁾

조선시대에 이르면 태조 3년(1394년) 속현에서 탈피시키고 고봉감무(高峰監務)를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¹⁹⁾ 태종 13년(1413년) 고봉(高峰)과 덕양(德陽)을 합하여 고양현(高陽縣)으로 명명하였고,²⁰⁾ 성종 원년(1470년)에 현(縣)에서 군(郡)으로 승격시키고 군수(郡守)를 배치하였는데,²¹⁾ 이러한 상황은 조선말 8개면 40개리로 편제(編制)되기까지 유지되었다.

13) 『三國史記』 卷 37, 地理 4

14) 『三國史記』 卷 35, 地理 2

15) 『高麗史』 卷 56, 地理志

16) 이회권, 「고려의 군현체도와 지방통치 정책」, 『고려사의 체문제』, 삼지원, 1986

17) 高陽郡誌編纂委員會, 『高陽郡誌』, 1987, pp.54-55

18) 『高麗史』 卷 56, 地理志

19) 『太祖實錄』 卷 6, 3年 9月 乙丑條

20) 『太宗實錄』 卷 16, 8年 9月, 辛酉條

21) 『成宗實錄』 卷 8, 元年 10月, 丁巳條

2. 조선시대 지방 객사(客舍) 고찰

2-1. 객사의 용도와 기능

조선이 국가의 통치이념으로서 유교를 내세우고 개국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고려말에 원(元)을 왕래하던 신진사대부들에 의하여 수용되었던 성리학은 조선시대에 들어 새로운 사회질서의 수립을 위한 측면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성리학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강조되었던 것은 유교적인 방식에 의한 의례(儀禮)의 시행이었다. 그리하여 유교적인 방식에 의한 의례체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吉·凶·嘉·賓·軍의 오례(五禮)에 관한 기준을 성종 5년(1474)에 완성하여 『國朝五禮儀』로 편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집권사대부계층을 비롯한 일반민들의 의례체계 역시 유교적인 방식에 따르도록 강요하여 冠·婚·喪·祭 등의 의례를 주자(朱子)의 『家禮』에 따라 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조선중기에 이르러서는 유교적인 방식에 의한 의례의 행용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반화되기에 이른다.

조선시대 지방의 객사는 이상에서와 같은 의례체계의 제도화 과정에서, 그리고 중앙집권화의 확립에 따라 전국의 각 府·牧·郡·縣·鎭 등에 건립된 국가의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고려의 경우에 있어서도 객사의 건립이 있었음은 『高麗圖經』과 『高麗史』 등에 나타나는 객사의 명칭과 현존하고 있는 강릉 객사문을 통하여 알 수 있으나 조선의 지방 객사는 고려조의 것과는 성립배경을 조금 달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객사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대외관계와 지방관제가 제도화되면서 건립되었으며, 경중(京中)에 있었던 객관의 경우 주로 외국 사신을 대접하는 역할을 하여 조선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으나 지방 객사의 경우에는 중앙집권화의 정도가 조선조에 비하여 미흡하였으므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유숙하는 장소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조선조에 들어서는 국가의 권위를 표시하는 전패(殿牌) 혹은 꺾패(關牌)를 모시고 마치 궁중에서 신하들이 임금에게 하례(賀禮)를 행하듯 의례를 행하도록 하는 기능이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의 숙소 기능보다 더욱 중요시 되었다. 그만큼 국가왕실의 권한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초 세종대에 제정된 오례에는 객사에서 치르는 지방관의 의례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날 殿牌를 正廳의 중앙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內香案을 전패 앞에 설치한다. 온 사신이 장차 이르면 여러 사신과 외관이 평상복 차림으로 客舍의 문밖에 나가서 자리를 달리하고, 鞠躬하여 내향을 맞이하고 지나가면 몸을 바로 한다. 내향을 따라 중문을 지나 들어와서 정청에 이르러, 내향을 안에 놓고 조금 뒤로 물러나서 서향하여 선다. 여러 사신과 외관이 서문을 지나 뜰로 들어와서, 사신은 동쪽에 있고, 외관은 서쪽에 있어 서로 상대하여 머리로 하고, 자리를 달리하여 격주로 북향하고 계수하여 네 번 절하는 예를 행하고 나가며, 온 사신과 더불어 행례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其日 設殿牌於正廳堂中南向 設內香案於殿牌之前 來使將至諸使臣及外官 以常服 出客舍門外 異位鞠躬 迎內香 過則平身 來使至隨內香 由中門入至廳 以內香置于案 少退西向立 諸使臣及外官由西門入庭 使臣在東 外官在西 相對爲首異位 重行北向 行稽首四拜 禮出 與來使行禮 如常)

『世宗實錄』卷132 五禮 嘉禮儀式

이와 같이 규정된 의례가 지방 객사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행하여졌음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

“使臣이나 外官이 正朝·冬至·誕일에 (멀리서 賀禮하는 의식은 이러하다) 殿牌·香卓·儀禮를 베풀고 使臣은 동쪽 뜰에서 外官은 서쪽 뜰에서 풍악이 시작되면 네번 절하며 香을 올리고 叩頭하며 山呼한다. …… (중략) …… 朔望에 멀리서 賀禮하는 의식은 위의 의식과 같되 叩頭하고 山呼하는 것은 아니한다.”²²⁾

“外官이 觀察使를 맞을 때에는 敎書案을 설치해 놓고 멀리 정자 앞까지 나가서 맞아들이기를 법식대로 한다. 敎書를 案에 놓으면 觀察使가 廳에 올라서고, 外官이 네번 절하고 香을 올리면 班의 우두머리가 觀察使 앞에 나아가 네번 절하게 한다.”²³⁾

“使臣과 外官이 內香을 맞을 때에는 內香案을 殿牌 앞에 설치하고 몸을 굽혀 內香을 맞는다. 도착한 使臣이 廳에 올라 內香을 받들어 案에 놓으면 많은 관리들이 네번 절하기를 법식대로 하는데……”²⁴⁾

한편, 이상에서와 같은 방식에 의한 의례를 행하였던 지방 객사의 용도와 기능을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권10. 振威縣 河崙의 重修記

“……館舍라는 것은 使臣을 供饋하고 임금의 威德을 선포하는 곳인데……
(……賞謂館舍所以供使命宣上德威者也……)”

권17. 韓山郡 李穀의 記文

“……무릇 여기에 오는 賓客은 크게는 天子의 綸音을 띠고 작게는 국가의 명령을 반포하여 백성을 생각하는 것인즉……
(……凡賓客之來大則布天子之德音小以頒國令而邦本是恤則茲館宇之設其究爲民也……)”

권19. 洪州牧 曹偉의 客館記

“廡宇는 賓客을 접대하는 곳이며, 大廳은 곧 朔望으로 조회받는 正衙인데……
(……廡宇所以待賓客而大廳乃朝朔望之正衙也……)”

22) 『增補文獻備考』第 75卷 禮考22 賀禮條

23) 앞책, 第 77卷 禮考24 朝儀條

24) 앞책, 第 77卷 禮考24 朝儀條

권24. 醴泉郡 尹祥의 記

“……客舍를 설치하는 것은 使臣이 王化를 선포하는 때를 기다려 行禮할 곳을 준비하기 위한 곳이다.…… (……客舍之設所以待使臣宣王化以備行禮之所……)”

권35. 光山縣 成倪의 重修記

“한 道에서 중요한 곳은 州와 같은 곳이 없고, 한 고을(邑)에서 간요한 거처지는 館舍만한 것이 없으니 州는 고을의 큰 것이고, 館舍는 손님들은 대접하고 여행자를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館舍에는 동서에 軒이 있어 東軒에는 귀인들이 우거하고 觀察使가 재판하기 위하여 송사를 듣는 곳이다. 牙旗와 節鉞이 세워지고 文案과 簡牘이 놓여져, 백성들이 모이면 반드시 그 구조와 뜰을 장하게 하여 위엄을 느껴 바라보고 두려워하게 한다. 그리고 使華와 賓客들이 연회하는 곳이므로 가무가 베풀어지고 술잔들이 넘쳐져 위로는 擗讓과 周旋하는 것이 응납되어야 하고 아래로는 進退와 步武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반드시 그 마루와 집이 넓어야 합당하다.…… (一 道之重莫如州 一 邑之居莫如館舍 州者邑之大者而館舍所以待衆賓庶群旅也 然而館有東西軒 東乃貴者所寓而觀察使聽訟之所 …… (중략) …… 使華賓客 讌飲之地則張歌管羅樽疊上可以客擗讓周旋下可以容進退步武必廣其堂宇……)”

이상에서와 같은 객사의 성격과 기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궁중에서 신하들이 임금에게 하례를 하듯 전패(殿牌)와 궐패(闕牌)를 놓고 임금에게 요배(遙拜)하는 전당으로 삼아 고을의 수령이 새로 부임해 왔을 때, 초하루와 보름, 또는 국경일에 향궐망배(向闕望拜)함으로써 임금을 지척에 모신듯 충성과 복민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던 곳이다.

둘째, 중앙에서 파견된 빈객(賓客)을 맞이하여 조서(詔書)와 명령을 받들어 임금의 위덕(威德)을 선포하고 행례(行禮)하던 곳으로 이들을 위한 연회와 가무가 베풀어지기도 하고 숙식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셋째, 중앙에서 파견된 관찰사(觀察使)가 소송(訴訟)을 듣고 판결하는 재판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순무(巡撫)와 안찰(按察)의 임무를 행하였던 곳이었다.

2-2. 객사의 입지

조선시대 지방 객사의 용도와 기능이 국가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것이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에 따라 각 지방의 객사는 그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그러한 상징적 권위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장소가 고려되었고, 행정적인 기능과 중요성에 비추어 수령의 직무처인 관아(官衙)²⁵⁾와 더불어서 읍내의 중앙 혹은 중앙에서 북쪽

25) 조선시대 각 고을의 수령(首領)이 맡은 바 임무를 행하던 곳을 총칭하는 것으로 객사(客舍)와 구분하여 아사(衙舍)라 표기하기도 하였다. 크게 통치상의 임무가 이루어지던 외아(外衙)와 거주처로서의 내아(內衙)로 구분이 되며, 이중 외아(外衙)만을 독립하여 동헌(東軒)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으로 치우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리고, 고려시대 이래 읍치(邑治)의 선정에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하였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풍수지리사상이었음을 고려한다면 객사와 관아는 각 읍의 최길지(最吉地)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읍내에 있어서 객사와 관아의 배치는 진산(眞山)을 등지고 남향함으로써 가장 좋은 좌향(座向)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읍내의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던 객사와 관아의 위치관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서로 인접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이때 어느 건물이 차서체계(次序體系)에 있어서 상위(上位)로 볼 수 있는 동쪽에 위치하는가 하는 것은 대체로 객사가 빈도수에 있어서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읍내의 시설 중 관아와 객사가 모두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조선시대 지방 객사가 관아와 더불어 국가통치의 상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시설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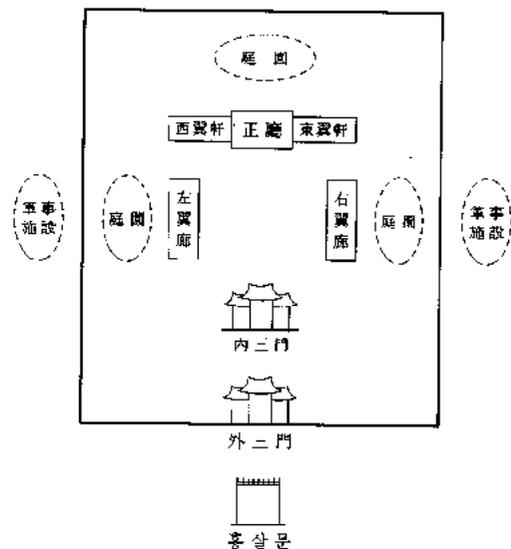
2-3. 객사의 건물구성과 배치

객사는 앞서 보았듯이 국가권위의 상징물로서의 전패(殿牌) 혹은 궐패(闕牌)를 모시고 의례를 행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유숙하는 장소였다. 따라서 객사를 구성하는 건물 역시 기본적으로 이러한 두가지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였을 것이다.

현존하는 객사와 각 읍지(邑誌) 혹은 『輿地圖書』 등에 보이는 기록을 통하여 객사를 구성하는 건물을 살펴보면 우선 3칸 정도의 정청(正廳)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각각 2-3칸 내지 그 이상의 동·서익헌(東·西翼軒)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청 좌우의 동·서익헌에는 운동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 주(主)건물이 앞에서 기숙한 객사의 용도와 기능에 부합하는 가장 중심적인 건물이었다.

이러한 객사의 중심건물을 구성하는 공간들은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어졌는데, 기록상으로는 중앙부를 대청(大廳) 혹은 벽대청(壁大廳)이라 하고 좌우 부속공간을 동헌(東軒)과 서헌(西軒)이라 하는 것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高麗史』에서부터 『國



〈그림 11-1〉 객사의 배치개념

柳泳秀, 『朝鮮時代 客舍建築에 관한 研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9.12., p.73 참조

『朝五禮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용한 정청(正廳)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²⁶⁾ 그리고, 그 좌우의 공간은 관아의 동헌(東軒)과는 구분되게 동익헌(東翼軒), 서익헌(西翼軒)으로 부르기로 한다.²⁷⁾

그 외에도 중앙부를 전대청(殿大廳), 전패봉안대청(殿牌奉安大廳), 정전(正殿) 등으로 칭하고 있기도 하는데, 이는 정청(正廳)이 국가와 왕권의 상징인 전패(殿牌)나 궐패(闕牌)를 모시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인 것으로 공간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 준다.

그리고, 정청 좌우 공간은 상방(上房), 협실(狹室) 등으로 칭하기도 하였으며, 이때 중앙의 정청이 동·서익헌보다는 높게 구성되는 것이 보편이었다. 이와 같은 주건물 외에 기본적인 시설로서 객사로의 출입을 위한 문을 객사의 남쪽에 배치하였는데, 이때 객사의 출입문은 객사 본관의 형식에 맞추어 솟을삼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대부분의 읍지에 표시된 도면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객사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건물 외에 그보다 격식을 갖춘 경우에는 본관의 동·서익헌 전면으로 남북방향의 부속공간을 배치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이들 건물의 명칭은 익랑(翼廊) 혹은 낭무(廊廡)로 불리었다.

또한 출입문으로서의 삼문 역시 격식을 갖춘 경우 내삼문과 외삼문으로 나누어 종층적 공간구조를 갖기도 하였으며, 외삼문의 전면에 홍살문을 배치하여 신성한 공간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사신(使臣)을 접대하고 향연(饗宴)을 베풀수 있도록 정원을 꾸며놓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건물을 갖추고 있던 객사를 도식화하면 <그림 II-1>과 같다.

3. 고양군 벽제관

3-1. 연혁

벽제관의 초창이 언제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는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그 연혁을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렵다. 다만, 조선시대 왕조실록에 등장하는 벽제관에 관한 몇몇 기록과 조선시대 후기 지방 군현지(郡縣誌)에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 벽제관의 연혁을 추론해 볼 수는 있다. 그 외에도 당시의 군현 등의 상황을 표기한 지도 등을 통하여도 벽제관의 연혁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1) 벽제관의 초창

26) 安城市, 『安城客舍 解體·重建工事 報告書』, 2000. 4., p.42

27) 柳泳秀, 『朝鮮時代 客舍建築에 관한 研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9. 12., p.60,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정청(正廳) 대신 전청(殿廳)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벽제관의 초창년대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세종 원년 8월 15일의 기사에 벽제관에서 중국의 사신인 황엄을 영접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세종 01/08/15(정해)

호령대군 이보(李補)와 영의정 유정천, 찬성 이종무를 보내어 벽제관에서 황엄을 영접하게 하였다.

【원전】 2 집 332 면

이 기록에 의하면 세종 원년(1419년)에 중국의 사신을 영접할 수 있었던 객관(客館)으로서 벽제관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벽제관의 초창은 세종대보다 앞선 시기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는 태종 연간인 태종 11년(1411년)으로부터 태종 18년(1418년) 사이의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조선의 한양 정도과정은 태종 10년 11월에 가서야 비로소 마무리되었으며,²⁸⁾ 조선의 대중국관계의 시작도 이 무렵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한양으로의 정도과정과 벽제관의 초창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벽제관은 고려의 국도였던 송도(松都)와 조선의 국도였던 한양(漢陽)과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한양으로의 정도 이후에야 비로소 중국의 사신을 영접하는 객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송도에 국왕이 머무르던 태종대 이전에는 벽제관의 건축은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실제로 왕조실록에서도 벽제관에 관한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이후 세종조의 왕조실록에서만 모두 8차례의 벽제관에 관련된 기사가 확인되었는데,²⁹⁾ 그 모든 기록에서 벽제관은 중국의 사신을 영접하고 전송하는 장소로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의 실록의 내용과 정황적 상황은 벽제관의 초창이 태종대에 이루어지고, 이후 세종대에 이르러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벽제관이 큰 역할을 하였음을 말하여 준다.

2) 벽제관의 중건 및 수축

태종대에 초창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벽제관은, 그러나 『新增東國輿地勝覽(중종 연간 간)』의 기록에 의하면 초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세종 10년(1428년)에 새로이 중건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즉,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고양군에 관한 기록 중 궁실조(宮室條)에

28) 김성우, 「漢陽의 定都過程」, 『건축』 제35권 제2호, 1991.3., pp.17-18

29) ·세종 02/04/21(을미) 【원전】 2 집 380 면
·세종 05/09/05(계미) 【원전】 2 집 555 면
·세종 08/03/10(갑진) 【원전】 3 집 13 면
·세종 08/05/29(임술) 【원전】 3 집 30 면
·세종 08/06/26(부자) 【원전】 3 집 34 면
·세종 15/11/16(을미) 【원전】 3 집 526 면
·세종 15/12/07(병진) 【원전】 3 집 530 면
·세종 17/07/25(갑오) 【원전】 3 집 643 면

II. 역사적 고찰

는 객관의 중건역사가 이루어진 후 정이오(鄭以吾)라는 인물이 찬한 기(記)의 내용이 실려 있어 벽제관 중건의 내력을 알 수가 있다. 여기에 그 내용을 원문과 함께 그대로 옮겨보면,

“정이오(鄭以吾)의 기(記)에 …… 전략 ……

흥희 기원 갑진년 8월에 현감 하군³⁰⁾이 처음 와서 공관이 무너지고 더러워도 수리하지 않는 것을 돌아보고, 군은 ‘이렇게 되어서는 왕인을 예대할 수 없다’ 하였으며, 다음 병오년 봄에는 거의 다 무너졌으므로 감사 심도원에게 고하여 조정에 전문하게 하여 윤희하는 교지를 받들었다. 재목을 모으고 공장을 불러서 그 해 가을 8월에 역사를 시작하였다. 집이 웅려하고 제도가 정장하매 질서가 있게 단단하여 한 가지도 빠진 것이 없다. 담장을 두르고 꽃나무를 섞어 심어서 무성하였다. 동헌 앞에는 못을 파서 연을 심었고, 서헌 앞에는 돌을 빼고 우물을 팠다. 여름과 봄 사이에는 햇볕이 명랑하고 연꽃이 향기로우며, 샘물이 차고 맑으니 이것은 또 다른 현내에는 없는 것이다. 문묘와 학교를 건립하고 남별관과 옛 관청도 옛 제도에 보태기도 하고 새집을 창건하기도 하여 차례로 이루니 웅장한 모습이 서로 바라 보인다. 무신년 11월에 공사를 마치고 하군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어 기문을 청하였다. …… 후략 ……”

(客館 鄭以吾記 …… 전략 ……

洪熙紀元甲辰仲秋 縣監河君始至 顧瞻公館壞陋不治 君曰有是哉非 所以禮接王人也
越丙午春 頽圯無幾控于監司沈公道源轉聞奉旨 鳩材庀工 始事於其秋八月
棟宇崇麗規制宏敞 秩秩馮馮一或遺 繕以垣墻 雜植花木謫如也
東軒之鑿池種蓮 西軒之拔石浚井 夏春之際天日融朗 荷香泉冽 是又他赤縣之所無也
至於廟學之建 南別館古官廳 或增其舊制 或創其新屋 次第俱舉輪奐相望
訖工於戊申十有一月 河君走書於予而請記焉 …… 후략 ……)

이 기록에 의하면 현감 하군이 부임하던 흥희 원년(세종 6년, 1424년)에 공관은 이미 일부가 무너지고, 2년후(세종 8년, 1426년)에는 거의 다 무너지게 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왕의 윤희를 받아 그 해 가을 8월에 새로 중건의 역사를 시작하였으며, 공관 외에도 문묘와 향교를 새로 건립하고 남별관과 관아도 증축 및 신축하여 2년이 지난 세종 10년(1428년)에 이르러 전체적인 공정을 마치게 되었다. 이는 객관을 포함한 읍내의 주변 관아건물들에 관한 대대적인 중건과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하다.

한편, 위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세종 7년(1425년)의 벽제역(碧蹄驛)에 관한 다음의 기사와도 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 세종 7/08/22(무자)
호조에서 계하기를,

30) 기(記)의 말미에 “하군(河君)의 이름은 전(傳), 고려조의 재상이었던 원정공(元正公) 집(執)의 후손이다.”라 하였다.

*삼가 전지를 받드옵고 경기도에 민폐를 구제할 조건을 다음과 같이 갖추어 기록합니다.

1. 고양현 벽제역(碧蹄驛)에 있는 동별관(東別館) 행랑(行廊)과 신연청(新宴廳) 등은 집 재목이 변변하지 못하고 지붕도 초개(草蓋)로 되어 있습니다. 매양 사신이 올때면 각 고을 군인을 시켜 재료를 모아 보수하게 하므로 여러 해로 큰 폐단입니다. 유후사(留後司)나 벽제역 근처에 헐파되어 비어 있는 절간의 재목과 기와로써 농한기(農閑期)를 타서 보수하도록 하고 그 밖의 각 참(站)도 이 예에 따라서 하기를 청합니다. …… 후략 ……”

위의 기록은 세종 7년(1425)의 기록으로서 앞서의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이 세종 6년에서 10년까지의 전반적인 중건과정을 찬한 것임을 고려하면 거의 동시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들 두 기록을 통하여 세종 8년 이전에는 벽제관이 상당히 쇠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통하여 벽제관 혹은 벽제역에 관한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을 추정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건물의 지붕구조에 관한 것인데, 기와가 아닌 초가로 되어 있었다는 기록이다. 물론 전체 건물 모두가 초가로 되어 있지는 않았을 터이지만 일부 중요한 건물조차도 초가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국의 사신이 올 때면 의례 건물을 보수하도록 하였고, 그 보수는 군인들이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조선초 중국과 조선간의 사신왕래는 실록에 의하면 상당히 빈번하였는데, 그 때마다 그들을 접대하기 위한 벽제관 주변건물의 수리가 뒤따랐으므로 그러한 수리가 경기도의 큰 민폐로 여겨져 농한기를 이용하기를 청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로부터 70여년이 지난 후 조선왕조실록에는 벽제관의 수축에 관한 간단한 기록이 남아 있다. 즉, 연산 5년(1499년) 9월 11일의 기사에 다음과 같은 수리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연산 5/09/11(무진)

전교하기를,

“풍양궁(豐壤宮)³¹⁾과 벽제관(碧蹄館)을 다 수리한 후에 병조로 하여금 사감을 수직하여 거동[行幸]이 있기를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 【원전】 13 집 376 면

이 기록에 의하면 연산 5년(1499년)에 벽제관을 수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어느 정도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세종대의 대대적인 중건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수리한 것으로 미루어 지붕의 수리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당시의 수리는 앞서의 기록들이 중국사신의 영접 및 전송을 위한 것이었음에 반하여 왕의 행행(行幸)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31) 『世宗實錄地理志』 楊州都護府 조에는 豐壤(離)宮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부(府)의 남쪽에 있으니, 곧 풍양현(豐壤縣)의 옛터이며, 또한 태종이 거동하여 계시던 곳이다”

3) 고양군의 변천

한편, 연산군 대에 와서 고양군 일대는 황폐일로(荒廢一路)를 걷게 되었다. 연산 10년(1504년) 왕은 고양군을 포함한 한성(漢城) 인근 군(郡)의 주민 5백여 호를 모두 몰아내고 내수사(內需司)의 노비를 살게 한 후 금표(禁標)를 세워 출입을 금하였다.³²⁾ 이러한 조치는 왕의 유행(遊幸)과 수렵(狩獵)을 위한 것으로 왕의 폭정(暴政)을 대표하는 사실이다. 비록 금표 내에 무덤이 있는 경우 2일에 한하여 제사를 위해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기는 하였으나 2년여간 지속된 이 과정에서 군치소(郡治所)인 읍내의 관아를 비롯한 객사 등의 건축물 역시 황폐화되었으며, 이의 복구는 중종대 후반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중종대에 들어 고양군의 관사(官舍)가 복구되었음은 중종 32년(1537년)의 실록기사에서 승려들의 도성출입에 관한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고양의 관사를 지움에 승군을 역사(役事)시키고 있음이 군사들을 대신 시킬 수 없기 때문인가를 묻는 왕의 전교(傳敎)가 있다.³³⁾

연산군 대에 황폐화된 고양의 관사를 복구하는데 3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으며, 벽제관 역시 함께 복구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연산군 대에 혁파(革罷)되고 중종 대에 복치(復置)되었던 고양군은 인조년간에 이읍(移邑)이 이루어진다. 영조 31년(1755년)에 당시의 군수였던 이석희(李錫禧)에 의하여 간행되었던 사찬읍지(私撰邑誌) 『高陽郡誌』³⁴⁾의 고봉군지(高峯郡誌) 건치연혁(建置沿革)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전략 …… 天啓五年乙丑自移邑碧蹄站”³⁵⁾

여기서 천계(天啓)는 명(明)나라 희종(熹宗)의 연호이고, 조선 인조 3년(1625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당시의 군수는 심창(沈昶)으로서 인조 2년에 부임하였고, 그 이듬해에 군치소(郡治所)인 읍내(邑內)를 벽제참(碧蹄站)으로 옮겼다. 그러나, 당시의 이읍(移邑)이 어느 곳으로부터 이루어졌으며, 또 군치소를 옮기면서 관아와 객사를 비롯한 건물들을 함께 옮겼는지에 관해서는 위의 기록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위의 기록 이후에는 군치소의 이읍 혹은 벽제관의 이전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벽제관은 인조대에 이루어진 이읍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32) · 연산 11/07/01(갑신) 【원전】 14 집 9 면

33) · 중종 32/10/28(갑술) 【원전】 18 집 120 면

34) 중종 25년(1530년)에 성종 17년(1484년) 편찬되었던 『東國輿地勝覽』을 바탕으로 증보(增補)된 『新增東國輿地勝覽』 전55권이 완성되어 인문지리서가 집대성되었다. 그렇지만 이후 250여년간 지리서의 간행은 없었으며, 비로소 영조대에 이르러 『輿地圖書』가 편찬되었다. 하지만 그 규모에 비하여 읍별 내용이 빈약하였으므로 수정으로 재제하는 과정 중 읍지를 종종 편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윤두수(尹斗壽)의 『西京誌』, 정구(鄭逵)의 『咸州誌』, 이덕무(李德懋)의 『木川誌』, 그리고 이석희(李錫禧)의 『高陽郡誌』 등이 그러한 사찬읍지(私撰邑誌)를 대표하고 있다.

35) 『高陽郡誌』 영조 31년(1755년) 간, 건치연혁조(建置沿革條)

4) 벽제관의 변화

앞서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조선조 세종대~중종대에 이르는 기간 벽제관은 일반적인 후대의 조선시대 객사와는 그 성격을 조금 달리하여 중국의 사신들을 영접하고 전송하기 위한 장소로서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신영접의 중요성은 다음의 조선왕조실록 문종 원년의 기사에서도 드러난다.

• 문종 원년/07/23

의정부(議政府)를 불러 성절하례(聖節賀禮)와 영명절차(迎命節次)를 의논하였다. 임금이 하연(河演) 등의 의논에 따르고 인하여 하교하기를,

“궐패(闕牌)를 벽제역(碧蹄驛)에 보내서 사신하례의 소용에 대비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이 기사의 내용 중 벽제역은 벽제관이 위치한 지역을 통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선시대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역로(驛路)에 위치한 역원(驛院)에 중국 황제의 신분적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궐패(闕牌)를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에서 궐패를 보내고 이를 모시게 되었던 벽제역은 중국사신을 영접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벽제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이전의 세종대까지는 벽제관에 궐패를 모시고 있지는 않았으나 문종대 이후에 비로소 궐패를 모시고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와 같은 벽제관에서의 중국사신 영접 및 전송은 이후 조선조 중기까지는 대체로 변함이 없었다. 이는 실록에서의 기사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세종 이후 중종에 이르는 총 15회의 기사내용(세종대 9회, 성종대 2회, 연산대 2회, 중종대 2회) 중 중국사신의 영접과 전송에 관계되지 않은 기사는 이미 살펴보았던 연산군의 행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 뿐이다.

이후 선조대에 기사화된 벽제관에 관한 내용은 모두 7회인데,³⁶⁾ 이는 모두 임진란 중의 벽제관과 관련된 기사로서 주로 왕의 피난 및 명군과 왜군의 벽제관 전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벽제관 전투는 일제강점 기간 중 일본의 벽제관에 대한 성역화작업의 근거가 되는 전투로 왜군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 당시 벽제관 역시 큰 전화를 입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피해상황은 알 수 없다. 다만 현종대에 우의정 홍명하가 벽제관에 이르러 왕에게 상소하여 아뢰는 실록기사³⁷⁾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벽제관 전체가 피해를

- 36) · 선조 25/04/30(기미) 【원전】 21 집 484 면
· 선조 26/01/12(정묘) 【원전】 21 집 603 면
· 선조 26/04/01(을유) 【원전】 21 집 678 면
· 선조 26/04/21(을사) 【원전】 21 집 691 면
· 선조 26/09/29(경진) 【원전】 22 집 104 면
· 선조 26/10/01(신사) 【원전】 22 집 105 면
· 선조 28/07/08(기묘) 【원전】 22 집 527 면
37) · 현종 05/02/19(임자) 【원전】 36 집 399 면

II. 역사적 고찰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현종대 이후 벽제관에 관한 기사는 조선왕조실록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양란 이후 중국과의 관계 변화에서 해석되어진다. 즉, 벽제관은 앞서 보았듯이 중국사신의 영접 및 전송의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 주된 기능이었으며, 이때 중국이라 함은 명나라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임란 이후 국세가 쇠한 명나라는 1644년에 멸망하였고, 뒤를 이어 중원을 점령한 청나라는 조선측에서 보면 중국 변방의 일쪽에 불과하였으므로 비록 그 세에 눌러 입장표명이 모호하였으나 이전의 명과의 관계와 동일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명나라의 멸망 이후 대중국 관계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벽제관의 그 의미와 기능이 변화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벽제역에 관한 기사는 조선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으로 통하는 주요 역로로서의 의미까지 상실하였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전의 명나라와의 관계에서 자니고 있었던 상징적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벽제관의 이러한 변화는 고양에 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고양은 성종대에 창릉(昌陵)과 경릉(敬陵)이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縣)에서 군(郡)으로 승급이 되었다.

그 이후 숙종대에 이르러서는 모두 8개의 능이 있음으로 인하여 고양의 백성들도 영구히 전세(田稅)를 감하여 왕의 진혈(賑恤)을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영·정조대와 순조대에는 왕의 치제(致祭)를 위한 고양으로의 행행이 빈번하였으며, 이때 왕의 유숙(留宿)은 행궁



〈그림 11-2〉 『高陽郡邑誌』와 벽제관

(行宮)에서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³⁸⁾

여기서 왕의 유숙이 이루어졌던 고양의 행궁은 『高陽郡輿地勝覽』의 관사조(官舍條)에 기록된 바³⁹⁾에 의하면 관아의 외동헌(外東軒)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왕의 행행시 함께 하는 관속(官屬)들의 수가 매우 많았음을 고려한다면, 외동헌만으로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이때 벽제관이 함께 유숙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에서와 같은 조선왕조실록에서의 기록을 통하여 볼 때 벽제관은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더이상 중국사신의 영접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 의미가 축소되어 중앙에서 파견된 빈객(賓客)을 위한 공간으로, 그리고, 고을 수령의 왕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행례(行禮)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1899년에 신증(新增)된 『高陽郡邑誌』의 도(圖)에 읍치(邑治)의 동남쪽으로 관우(館宇)라 하여 벽제관이 솟을지붕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객관조(客館條)에 관우(館宇)는 자좌(子坐)하고 있으며 읍의 동망현(東望峴) 아래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⁴⁰⁾으로 보아 19세기 말까지 벽제관은 그 외관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 38) · 영조 07/08/16(병오) 【원전】 42 집 274 면
...정오에는 청담(淸潭)에서 휴식하고, 저녁에는 고양(高陽) 행궁(行宮)에서 유숙하였다.
- 영조 42/08/09(병오) 【원전】 44 집 228 면
...인하여 경릉(敬陵)·익릉(翼陵)에 나아가서 예를 행하고, 대신(大臣)에게 봉심(奉審)하기를 명하였으며, 고양관(高陽館)에 나아갔다...
- 정조 02/08/01(무오) 【원전】 45 집 52 면
...외읍(外邑)에서 식읍(植邑)하는 것이 많은 폐단이 되고 있으니, 날이 밝을 때에 궁에서 나가 농침에 전알하고 고양(高陽)에서 유숙하겠다...
- 정조 02/08/19(병자) 【원전】 45 집 56 면
명릉(明陵)에 배알하고 익릉(翼陵)·경릉(敬陵)에도 두루 배알하였다. 대가(大駕) 고양군(高陽郡)에서 유숙하였다.
- 정조 08/08/17(경자) 【원전】 45 집 464 면
임금이 영릉(永陵)을 배알하고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공릉(恭陵)·순릉(順陵)에 두루 전배(展拜)하고, 고양군(高陽郡)에 돌아와 묵었다.
- 정조 11/08/15(경술) 【원전】 45 집 663 면
명릉(明陵)에 전알(展謁)하고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국내(局內)에 있는 제릉(諸陵)과 순희묘(順懷墓)에 들러 배알(拜謁)하고 고양 행궁(高陽行宮)에 돌아왔다.
- 정조 11/08/16(신해) 【원전】 45 집 663 면
소녕원(昭寧園)에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고양 행궁으로 돌아왔다.
- 정조 13/02/11(무술) 【원전】 46 집 27 면
고양 동헌(東軒)의 편액(扁額)을 향춘헌(向春軒)이라고 명명하였다. '양지쪽 꽃나무엔 봄이 쉬 찾아드네. 「向陽花木易爲春」'라는 시구의 뜻을 취한 것이었다.
- 순조 08/08/08(신축) 【원전】 47 집 608 면
고양군(高陽郡)의 행궁(行宮)에 나아가 경숙(經宿)하였다.
- 순조 08/08/10(계묘) 【원전】 47 집 608 면
소녕원(昭寧園)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잔히 제사하였다. 이어서 수길원(綏吉園)에 나아가 전배하고 다시 고양군의 행궁에서 유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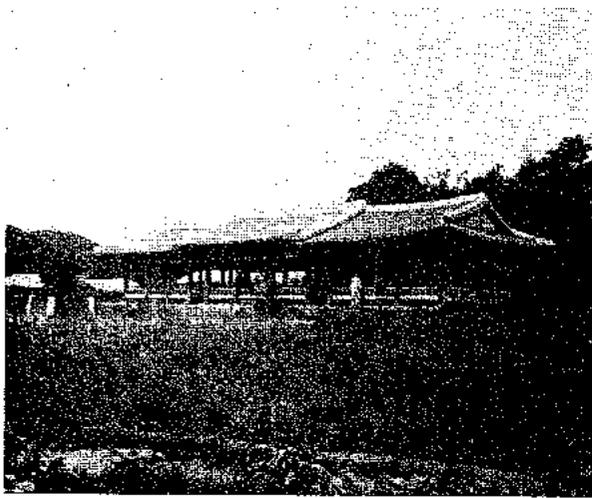
39) 『高陽郡輿地勝覽』 관사조(官舍條) '內東軒 政閣 外東軒 行宮'

40) 『高陽郡邑誌』 객관조(客館條) '館宇子坐 在邑東望峴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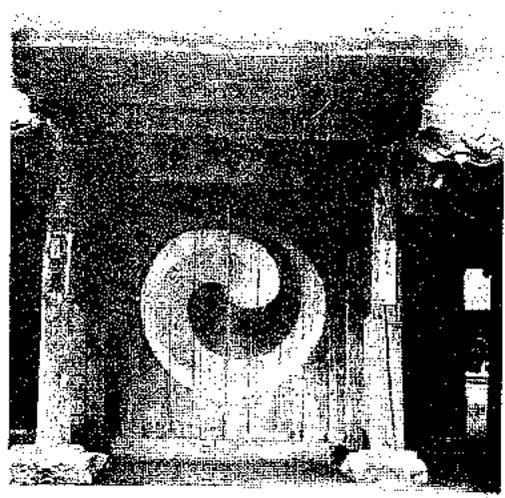
5) 일제강점기 이후 벽제관

이상에서와 같이 19세기말까지 그 외관과 형식을 유지하였던 벽제관이 어느 시기에 현재와 같이 폐허화되었는지는 그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으므로 알 수 없다. 하지만 객사의 특성상 그 성망(盛望)은 조선왕조의 궤적과 함께 하였을 것이다. 1906년 일제의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후 1909년 일제강점기를 맞이하여서는 더 이상 왕조의 중앙집권적 특성을 지닌 객사의 의미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벽제관이 위치한 곳은 임진왜란시 왜군과 명군이 일전을 벌여 왜군이 크게 승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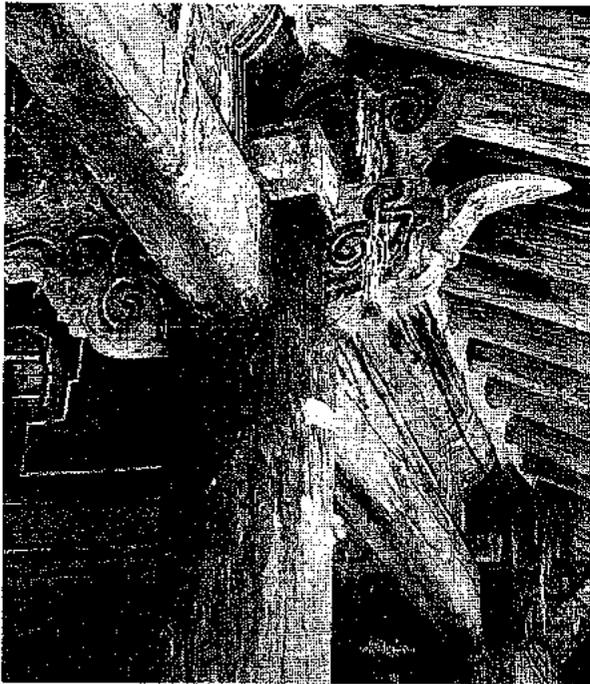
〈사진 II-1〉 정청과 익헌 (『高陽案内』)



〈사진 II-2〉 삼문 (『高陽案内』)



〈사진 II-3〉 정청과 익헌 (『朝鮮古蹟圖譜』)



〈사진 II-4〉 익헌의 공포 (『朝鮮古蹟圖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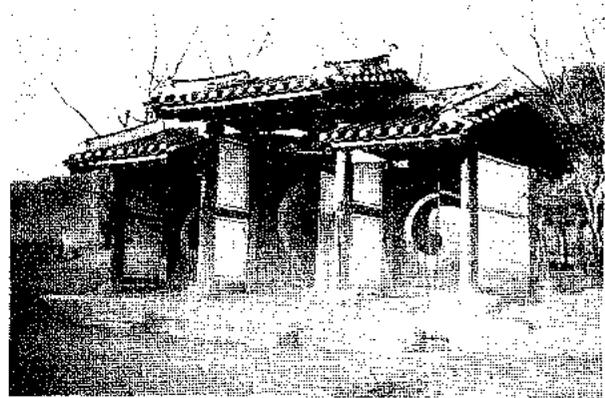
지역으로서 일제는 강점초기부터 이곳의 성역화 작업을 벌이게 된다. 이러한 와중에 벽제관을 구성하고 있었던 50여 간의 건물들이 훼손되었다고 한다.⁴¹⁾

1915년 간행된 『高陽案內』에 수록된 사진에는 기타 부속건물이 없이 정청과 익헌, 그리고 삼문만이 보인다. 이미 폐허화된 벽제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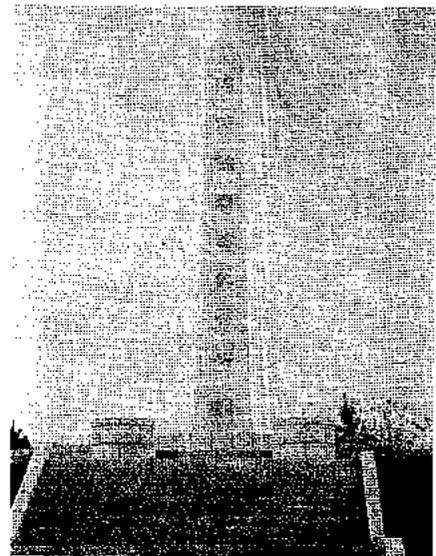
1931년의 『朝鮮古蹟圖譜』에는 벽제관의 정청과 익헌의 공포가 사진으로 실려있다. 여기에서 보면 정청과 동·서익헌의 전면이 모두 각각 3칸으로 전형적인 객사의 모습과 같다. 또한 정청의 전면 3칸에는 모두 홍살로 되어 있고, 중앙 어칸(御間)에는 문을 달아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어칸 중앙에 섬돌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청 내부가 마루가 아닌 전들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동·서익헌은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구성방식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사진을 통해서 짐작컨대 익헌의 정청에 접하는 1칸에 중



〈사진 II-5〉 정청과 익헌 (『碧蹄館』)



〈사진 II-6〉 삼문 (『碧蹄館』)



〈사진 II-7〉 벽제전적기념비 (『碧蹄館』)

41) 한국문화유산답사회, 『경기북부와 북한강』 답사여행의 길잡이9, 돌베개, 1997., p.57

II. 역사적 고찰

인방의 상부로 벽체가 시설되고 하인방의 하부 고매이가 밀폐된 것으로 보아 이곳에 은돌을 들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부분에는 마루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공포사진은 익헌의 것으로 짐작되는데, 초익공으로 초각이 되어 있는 살미와 양봉형식으로 다듬은 보머리에는 모두 단청이 입혀져 있다.

이후 1938년의 『碧蹄館』이라는 책자에서도 역시 벽제관은 정청과 삼문의 사진만이 있을 뿐이고, 성역화 작업이 완성되었는지 벽제전적기념비에 대한 사진이 전하고 있다. 여기 사진에서는 정청과 동·서익헌이 『朝鮮古蹟圖譜』에서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전한다. 즉, 정청과 동·서익헌 모두를 개방형 평면으로 구성한 후 마루를 설치하고 주위에는 난간을 두르고 있다. 이 시기에 또 한 차례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의 골격이나 공포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그 골격이나마 유지하고 있던 벽제관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불에 타 형체가 사라졌는데, 삼문은 전쟁 중에도 남아 1960년대 초반까지는 있었으나 그나마 돌보지 않게 되어 무너져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벽제관터는 1965년 2월 2일 사적 제144호로 지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3-2. 벽제관의 입지 및 배치

1)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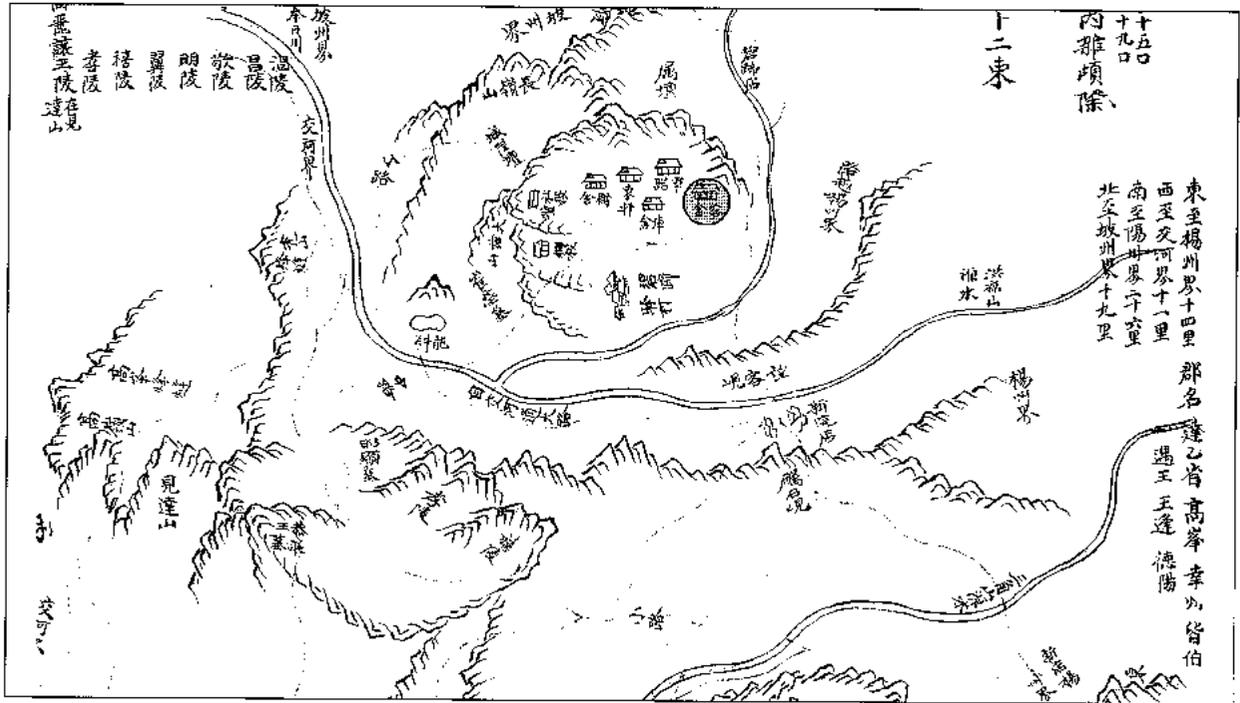
인조 3년(1625년) 고양군의 읍치를 옮기기 이전에 벽제관이 위치하였던 고양군의 입지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다. 읍치의 위치는 물론 벽제관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인조대에 이루어진 이읍 이후 자리한 현재의 벽제관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에 제작된 지도와 군현지 등의 자료를 통하여 그 입지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의 자료들은 그러한 지도의 일부로서 당시 관아, 객사, 향교 등의 위치관계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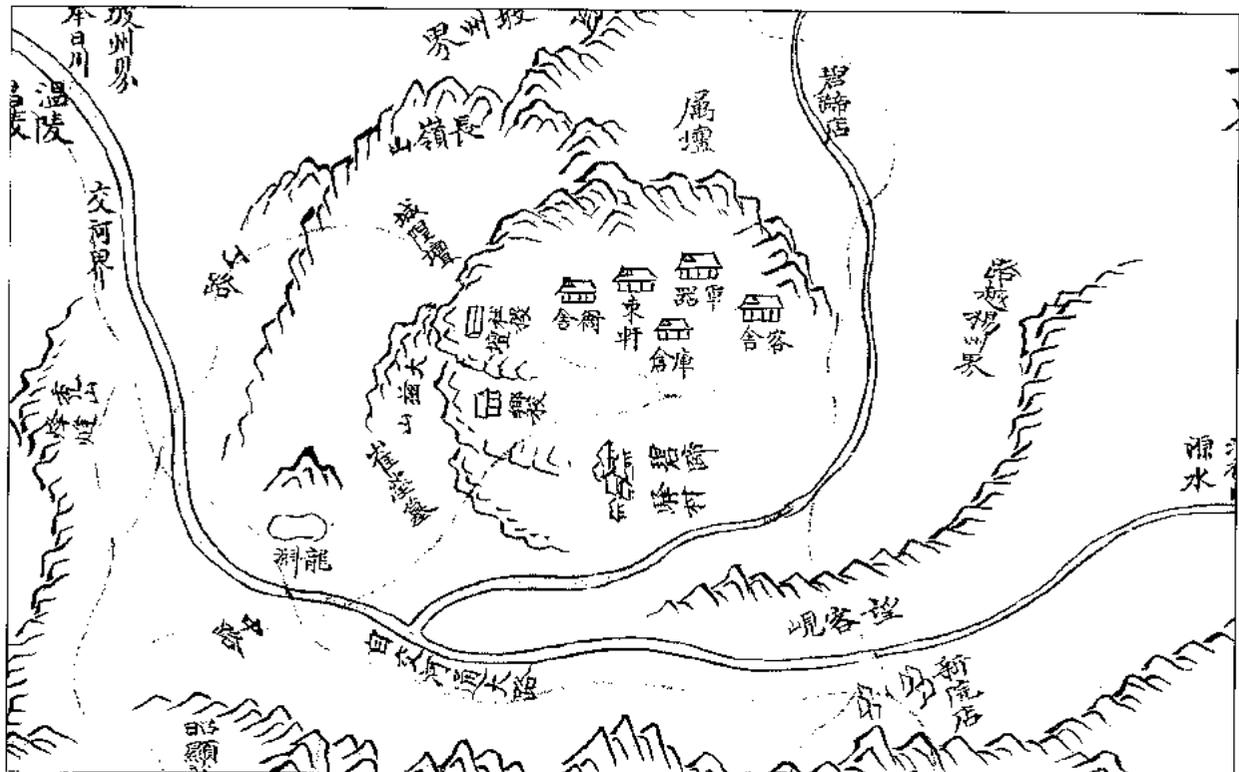
당시의 입지 및 건물들의 배치에 관한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자료로는 『海東地圖』가 있다. 그림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혜음령(惠陰嶺)이 위치한 장령산(長嶺山)을 주산(主山)으로 동서로 좌청룡(左靑龍)과 우백호(右白虎)가 읍을 감싸고 있으며, 남으로는 한강의 지류를 접하여 망객현(望客峴)을 안산(案山)으로 삼아 전체적으로 읍내를 겹으로 감싸고 있다. 이러한 입지구조는 조선조에 성행하였던 풍수(風水)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벽제관은 객사(客舍)로 표현되어 있으며 좌청룡의 끝자락, 한양에서 의주에 이르는 서북로의 분지점에 위치하여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아는 아사(衙舍)와 동헌(東軒)으로 분리되어 객사의 서쪽에 군기(軍器)와 창고(倉庫)를 지나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구조는 차서체계(次序體系) 상 객사를 관아에 우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향교와 사직단은 우백호를 형성하는 대자산(大慈山)의 동쪽 기슭에 위치하고, 읍의 남쪽으로 강화로 이어지는 중로(中路)를 사이에 두고 벽제역촌(碧蹄驛村)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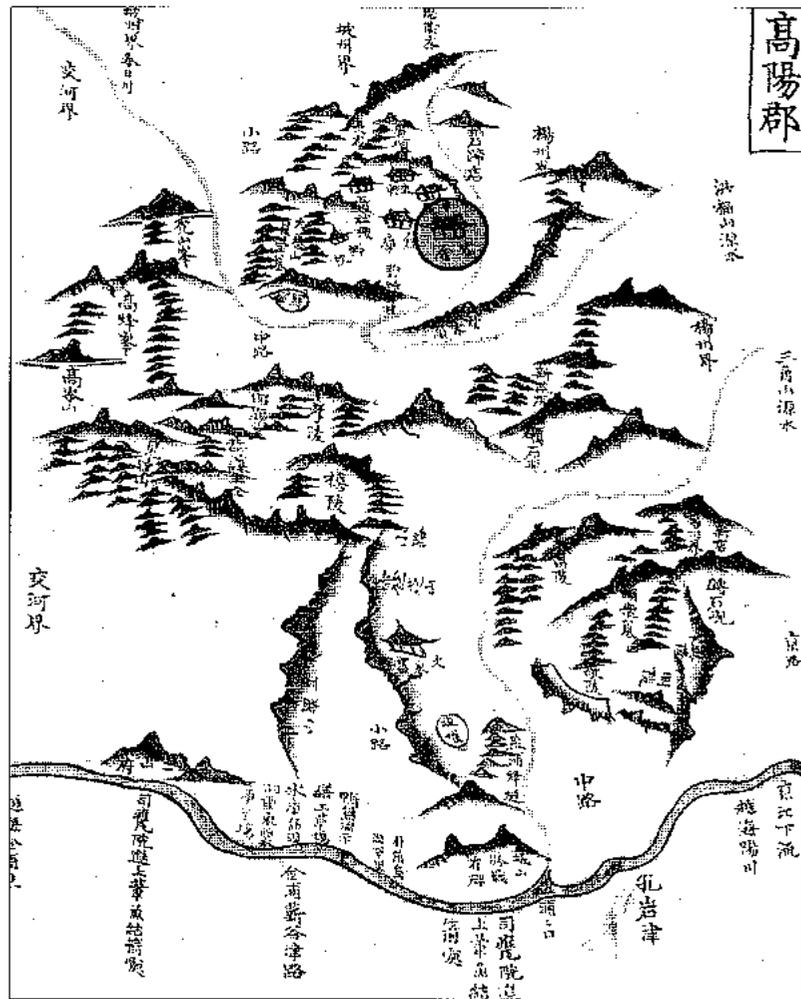
이상에서의 같은 입지구조과 배치관계는 표현정도 및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이후 군현지의 지도에 대체로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림 II-3〉『海東地圖』에 나타난 고양군의 입지



〈그림 II-4〉『海東地圖』의 고양군 부분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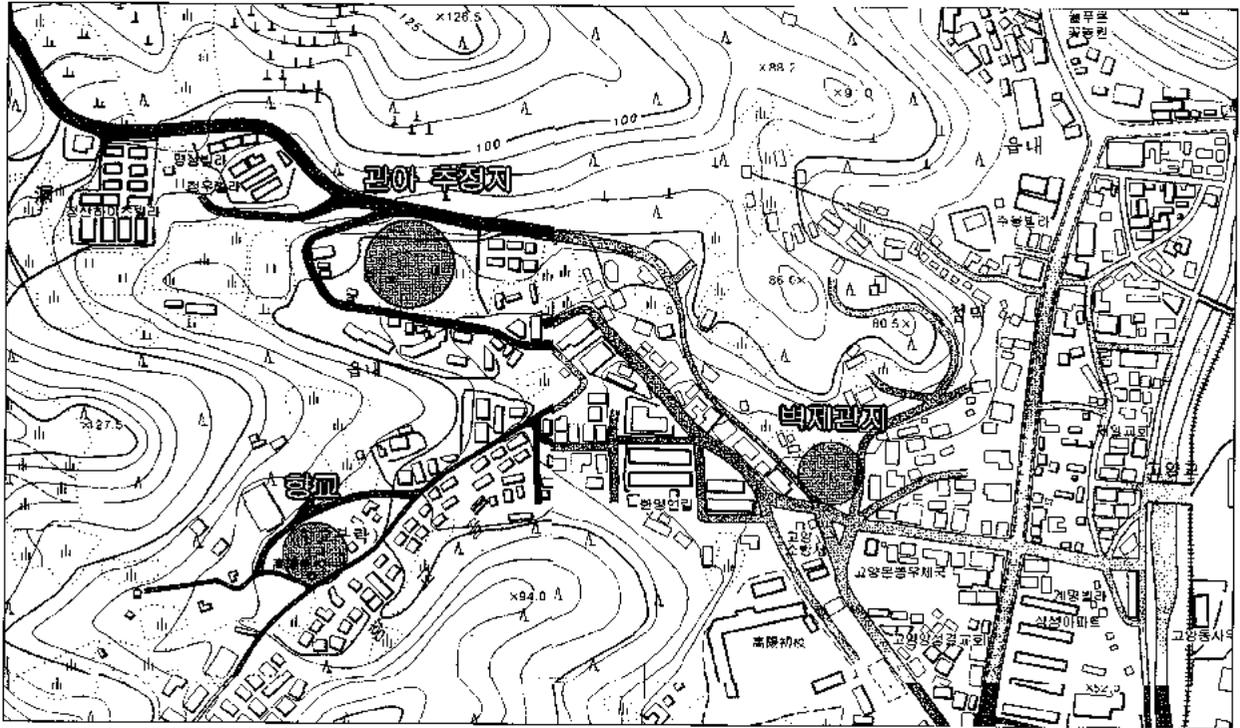


〈그림 II-5〉『輿地圖』 고양군 지도에 표현된 고양군과 벽제관



〈그림 II-6〉『輿地圖』 고양군 지도 부분 상세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벽제관의 위치를 기준으로 관아와 향교의 위치를 비정하여보면 <그림 II-7>과 같다.



<그림 II-7> 관아와 객사, 향교의 위치관계 (축척 : 1/6,000)

2) 건축물의 구성 및 배치

벽제관의 초창시 벽제관을 구성하고 있던 건축물의 구성과 그 배치가 어떠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현재의 벽제관지 역시 전체의 경역을 발굴해 보지 않은 상황이므로 건축물의 구성과 배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는 기록에 남아있는 자료를 토대로 중건단계에 벽제관을 구성하는 건물들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세종조에 중건이 이루어지고 작성된 정이오(鄭以吾)의 기(記)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집이 웅려하고 제도가 정장하매 질서가 있게 단단하여 한 가지도 빠진 것이 없다. 담장을 두르고 꽃나무를 섞어 심어서 무성하였다. 동헌 앞에는 못을 파서 연을 심었고, 서헌 앞에는 돌을 빼고 우물을 팠다. 여름과 봄 사이에는 햇볕이 명랑하고 연꽃이 향기로우며, 샘물이 차고 맑으니 이것은 또 다른 현내에는 없는 것이다. 문묘와 학교를 건립하고 남별관과 옛 관청도 옛 제도에 보태기도 하고 새 집을 창건하기도 하여 차례로 이루니 웅장한 모습이 서로 바라 보인다.”

라는 내용이 있어 중건 당시의 벽제관의 건물구성을 짐작케 한다.

II. 역사적 고찰

즉, 조선초기 각 군현에 객관(혹은 객사)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에 정청을 두고 그 좌우에 동·서익헌을 연하여 건축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의 기록으로 보아 벽제관의 경우도 그러한 제도와 구성을 비교적 충실하게 따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객관을 구성하는 건축물의 경우 중앙에 정청을 두되 그 좌우에는 동익헌과 서익헌을 연결하였고, 동익헌과 서익헌에는 각각 연못과 우물을 두었는데, 이는 다른 객관에서는 볼 수 없는 벽제관의 특성이라 하였다. 그리고, 벽제관을 둘러싸는 담장을 두르고 주위에는 꽃나무를 심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외에 벽제관과 관련된 남별관(南別館)이라는 건물이 있었음을 역시 위의 기록으로써 알 수 있는데,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별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벽제관의 일부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세종 7년 8월 22일의 왕조실록 기사⁴²⁾를 통해 동별관(東別館)과 행랑(行廊), 그리고 신연청(新宴廳) 등의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동별관은 앞서의 남별관과 마찬가지로 별관의 성격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숙사(宿舍)의 공간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신연청의 경우는 사신의 영접에 사용되었던 건물로 볼 수 있으며, 행랑 등과 함께 벽제관의 경역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의 기록을 종합해 당시의 건물배치를 추정하면 정청과 그 동·서익헌이 중심축을 형성하고 동·서익헌의 전면 또는 정문의 좌우로 행랑이 위치하여 중심영역을 형성하는 전형적인 객사건축의 배치구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중심영역의 동쪽이나 남쪽 등에 동별관, 남별관, 신연청 등이 배치되어 중국 사신의 영접과 유숙에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의 경역에 비하여 상당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큰 경역에 많은 건물이 배치되어 있었던 벽제관은 연산군 대의 군혁파(郡革罷)와 중종대의 복치(復置), 또 인조대에 이루어진 이읍(移邑)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면모가 점차 축소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규모의 축소는 이미 살펴보았던 조선 중기 이후 명의 멸망에 따른 대중국관계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과의 사신왕래가 끊어짐에 따라 조선후기의 실록에서 이미 벽제관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며, 이는 중국사신의 영접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별관과 신연청 등의 공간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는 임진왜란 당시 이곳 벽제관에서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한 성역화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부속건물들이 훼손됨으로써 경역이 현재의 규모 정도로 축소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한국전쟁 기간 중 중심영역을 구성하고 있었던 정청과 동·서익헌마저 소실되어 사라지고, 삼문 또한 1960대 들어 무너져 사라짐으로써 벽제관의 전체적인 면모를 알 수 없게 되었다. 뒤늦게 사적으로 지정되고, 중심영역을 구성하고 있던 정청과 동·서익헌 및 삼문의 흔적을 찾을 수 있게 되었음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겠다.

42) 세종 7/08/22(무자)

호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전지를 받드옵고 경기도에 민폐를 구제할 조건을 다음과 같이 갖추어 기록합니다.

1. 고양현 벽제역(碧蹄驛)에 있는 동별관(東別館) 행랑(行廊)과 신연청(新宴廳) 등은 집 제목이 변변하지 못하고 지붕도 초개(草蓋)로 되어 있습니다. …… 후략 ……”

Ⅲ. 발굴조사 경과

1. 조사 전 상황

2. 조사 방법

- 2-1. 발굴지역 구분
- 2-3. 토사 처리 및 복토
- 2-5. 실측 및 사진 촬영

- 2-2. 시굴 및 발굴
- 2-4. 유물 처리

3. 조사 경과

- 3-1. 시굴 조사
- 3-3. 문지 발굴
- 3-5. 발굴 일지

- 3-2. 주거물지 발굴
- 3-4. 마당 발굴

4. 자문회의

- 4-1. 1차 자문회의

- 4-2. 2차 자문회의

5. 총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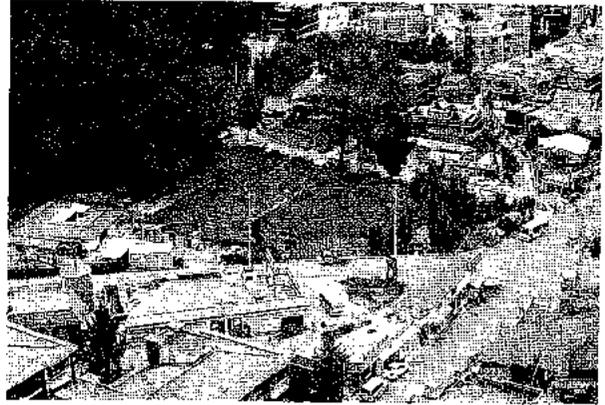


Ⅲ. 발굴조사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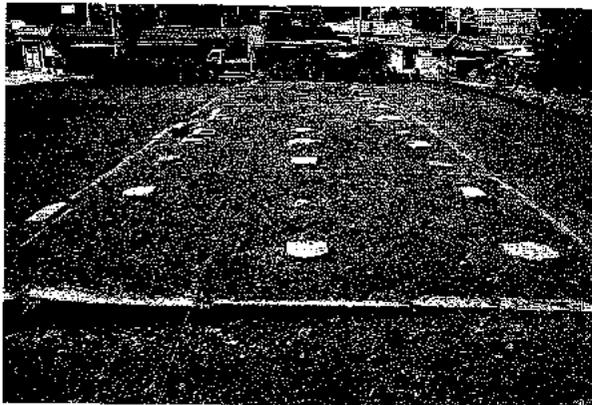
1. 조사 전 상황

벽제관지의 규모는 약 1,260평(4,175㎡)이나, 실제로 보호철책 내에 잔존하는 유적의 면적은 약 540여평(1,800㎡) 정도로 축소되었으며, 현재 유적의 주변에는 도로 및 주택, 상가가 들어서 있다. 그러므로, 금번 발굴조사에서 조사범위는 현재 남아 있는 보호철책 내의 구역(동서 약 40m, 남북 약 50m)과 그 북쪽 약 10m까지의 공지를 포함하는 구역으로 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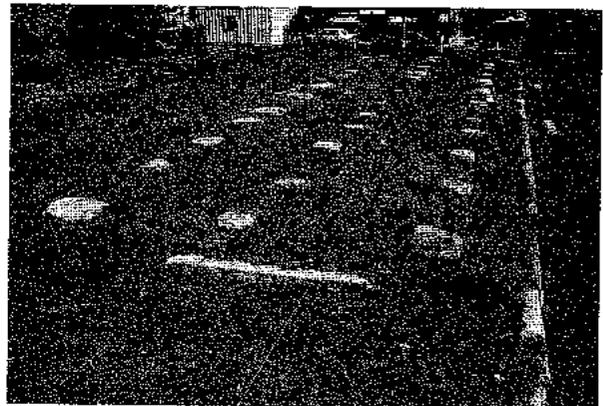
조사 전 지표 위에 노출되어 있었던 유구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조사구역 북쪽에 동서 약 32m, 남북 약 9.2m의 건물지가 위치한다. 건물지의 기단 안쪽에는 동서 12열, 남북 3열의 초석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남동쪽 끝의 초석만이 유실되어 모두 35개의 초석이 남아 있었다. 이 건물지에는 기단 장대석이 동서남북 4면에 한 단 정도의 높이로 노출되어 있었는데, 북쪽 기단의 1/2에 해당하는 서쪽 부분과 서쪽 기단의 대부분, 그리고, 남쪽 기단의 일부가 유실된 상태였다. <사진 Ⅲ-2>, <사진 Ⅲ-3> 남쪽 기단의 중앙쪽에는 같은 한 단 높이의 기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기단들에 비해 높은 부재를 사용하였고, 그 양쪽은 보다 낮은 한 단의 기단으로 보호철책까지 이어져 있었다. <사진 Ⅲ-4>, <사진 Ⅲ-5> 또한, 건물지 전면 중앙에는 계단이 한



〈사진 Ⅲ-1〉 발굴 전 전경 (남서→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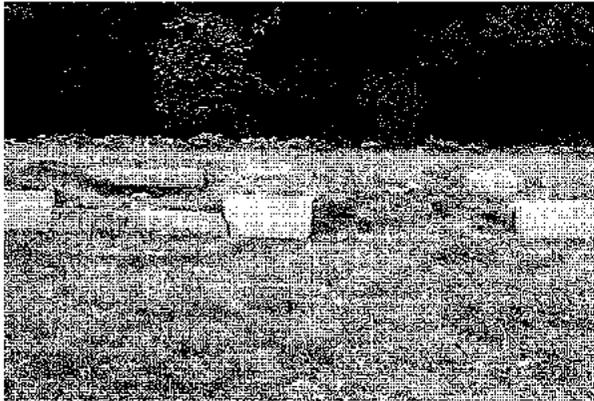


〈사진 Ⅲ-2〉 발굴 전 주거물지 (동→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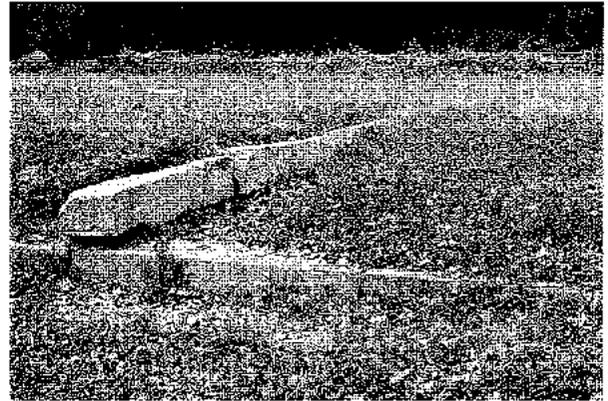


〈사진 Ⅲ-3〉 발굴 전 주거물지 (서→동)

III. 발굴조사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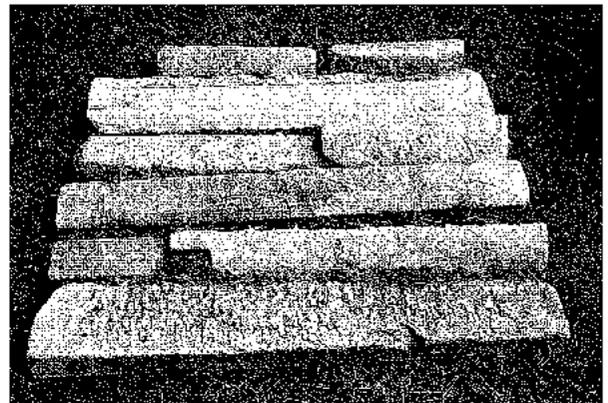
〈사진 III-4〉 발굴 전 주건물지 남쪽 기단 중앙 부분 (남→북)



〈사진 III-5〉 발굴 전 주건물지 남쪽 기단 및 동쪽 기단 (남동→북서)



〈사진 III-6〉 발굴 전 문지 (동→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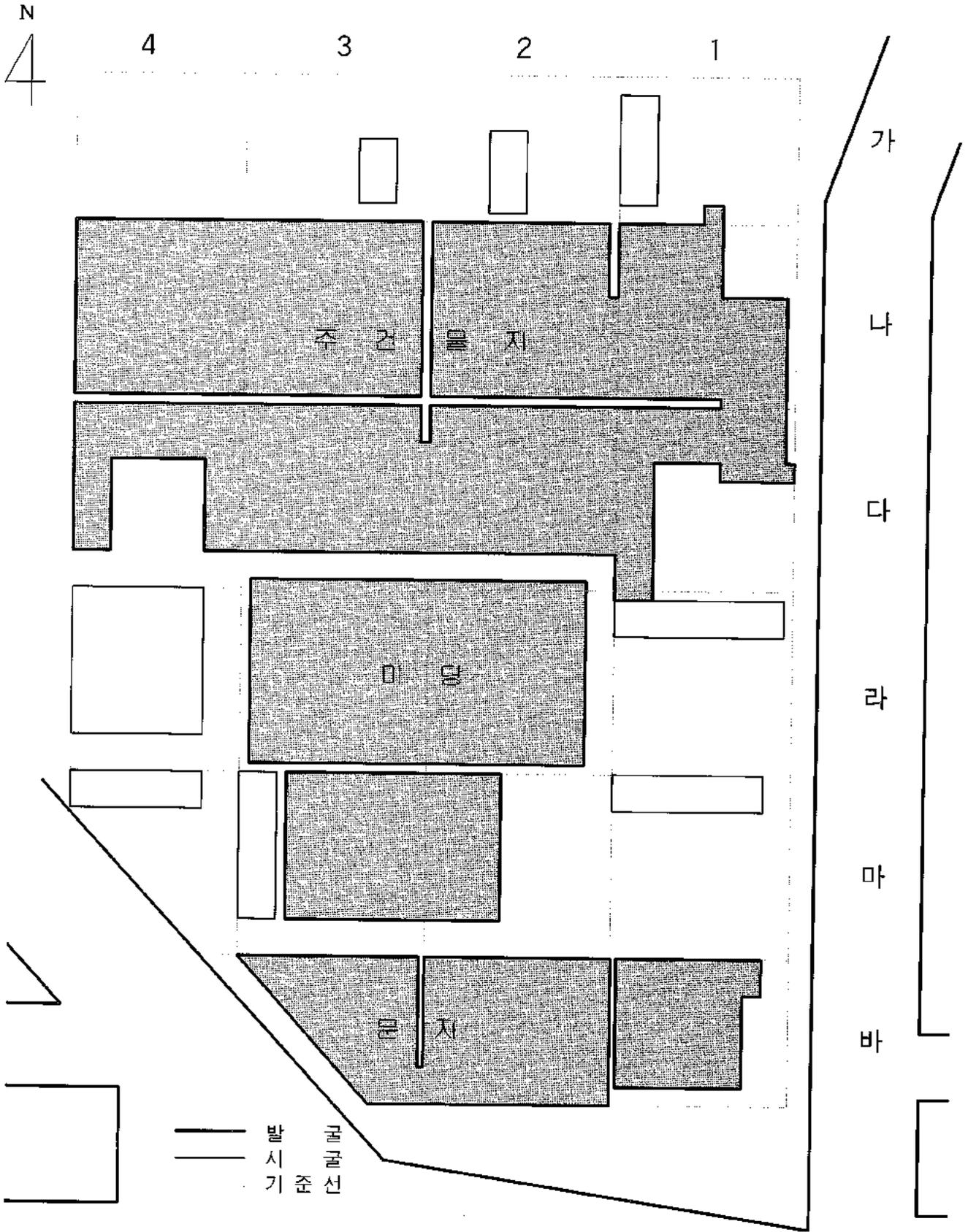


〈사진 III-7〉 벽제관지 내의 장대석들

단 노출되어 있었고, 그 북쪽 초석 사이에는 계단석과 같은 형태의 석재가 동서방향으로 놓여 있었다.

조사구역 남쪽에도 건물지 1동이 남아 있었는데, 기단의 남쪽 장대석이 노출되어 있었고, 그 장대석 북쪽으로 동서 4열, 남북 2열의 초석열이 노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동서방향의 석재가 길게 노출되어 있었으며, 기단 장대석에 면해서 계단으로 보이는 석재가 건물지 중앙에 기단보다 한 단 낮게 노출되어 있었다. 〈사진 III-6〉 또한, 동쪽에는 벽제관 건물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장대석 9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사진 III-7〉 2개의 건물지를 포함하여, 건물지 사이의 공간은 평지로서 전체적으로 잡초가 나 있었고, 유적 주위로 철책을 따라 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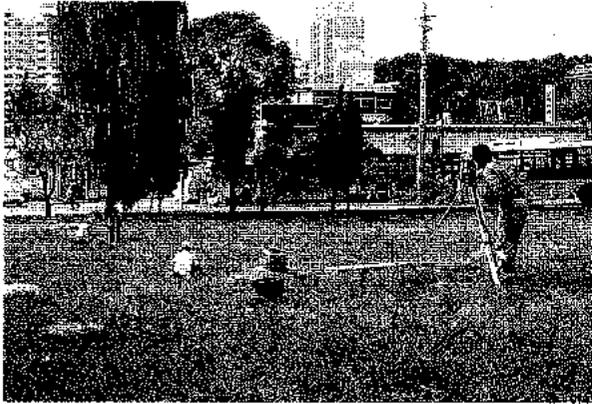
이상 조사 전 유적의 현상을 정리하면, 보호구역 내에 2개의 건물지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건물의 좌향은 남향으로 두 건물은 서로 동일한 축선 상에 놓여 있었다. 그 중에서 북쪽의 건물지에는 주건물인 정청과 동·서익헌이, 남쪽의 건물지에는 삼문이 각각 자리잡고, 그 사이 공간은 마당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도면 III-1〉 발굴 구획도 (축척 : 1/300)

2. 조사 방법

2-1. 발굴지역 구분



〈사진 Ⅲ-8〉 구획 작업

주건물지와 문지는 남북 방향으로 거의 같은 축선(軸線)에 위치한다. 두 건물지의 중심부를 연결하는 임의의 선을 남북 기준선으로 하여, 주건물지의 중앙 부근에 기준점을 정하고, 이 점을 기준으로 10×10m의 그리드를 구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조사 외곽지역(가, 바, 1, 4지역)은 10m로 구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조사 가능한 지역까지 그리드를 구획하였다. 발굴 그리드는 보호철책 내의 구역과 북쪽의 공지를 포함하여, 모두 23개가 설치되었다. 그리드의 명칭은 동에

서 서로 1, 2, 3, 4, 북에서 남으로 가, 나, 다, 라, 마, 바로 정하여, 북동쪽 끝의 그리드의 경우 '가 1'로 명명하였다. 〈도면 Ⅲ-1〉

또, 조사 전에 드러난 유구에 따라 편의상 주건물지(主建物址), 문지(門址), 마당 세 구역으로 나누어 부르기로 하였다. 주건물지는 주건물지의 전면기단을 기준으로 그 북쪽 지역인 나1-4와 다1-4의 북쪽 약 3m 지역을, 문지는 문지 유구가 있는 곳과 그 동쪽 지역인 바1-3 지역을, 마당은 주건물지와 문지 사이의 지역인 다1-4의 남쪽 약 7m, 라1-4, 마1-4 지역을 가리킨다. 그러나, 주건물지에 시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단들은 마당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기술(記述)의 편의상 주건물지에 포함시켰다.

2-2. 시굴 및 발굴

각 그리드 내에는 별도의 시굴트렌치 구획을 하였는데, 서쪽과 북쪽변에 접하여 폭 2m의 트렌치를 '┐' 형태로 두고 그 사이에는 2m의 간격을 두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트렌치 형태에 약간의 변화를 주기도 하였다.

그 후 시굴과정에서 드러난 유구에 따라 트렌치의 확장 방향과 규모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발굴에 착수하였다. 주건물지와 문지에서는 일단 적심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굴토한 후, 더 조



〈사진 Ⅲ-9〉 시굴 작업

사가 필요한 곳에 탐색트렌치 작업을 하였다. 주거물지에서는 기단 축토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주거물지 동서쪽에 2개의 탐색트렌치를 두고, 건물지 내부의 토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동서로 길게 건물지를 관통하는 탐색트렌치를 두었다. 또, 주거물지 북서쪽에서 노출된 장대석 유구의 확인을 위해 뜯들을 제거한 후, 장대석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깊이까지 발굴하였다. 문지에서는 시굴과정에서 드러난 계단 유구의 전모와 토층상태의 확인을 위해 문지 남쪽에 탐색트렌치 작업을 시행하였다. 마당은 주거물지의 전면기단 최하단부가 드러나는 수준까지 굴토하였고, 일부 토층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탐색트렌치 작업도 시행하였다.

2-3. 토사 처리 및 복토

조사 중 굴토과정에서 나온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 여건상 조사지역 내에서 토사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굴과정에서 유구의 흔적이 없거나 교란이 심한 지역으로 판단되는 마당면의 동서쪽 지역(라1,4와 마1,4), 그리고, 담장지의 흔적이 없는 주거물지의 북쪽(가1-3)을 우선 조사·실측하고, 그 지역에 토사를 적치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작업이 진행되면서 토사량이 많아지게 되자,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사의 적치 높이를 높여 다른 지역에까지 토사가 쌓이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며 작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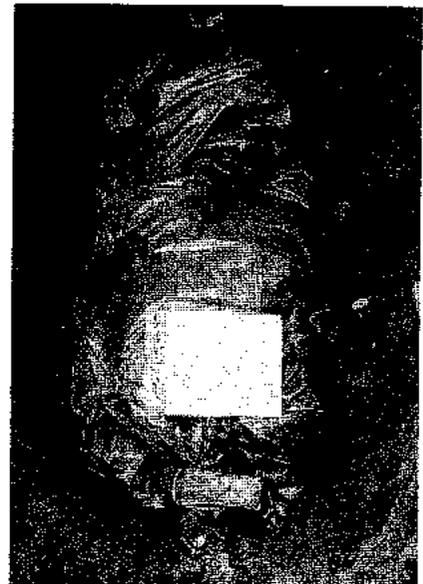
조사 완료 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복토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주거물지와 문지의 경우 굴삭기를 이용할 때 초석이나 기단과 같은 유구의 파손이나 위치 이동을 염려하여 수작업을 병행토록 하였다.

2-4. 유물 처리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은 출토된 지역과 날짜를 명기하여 분류·정리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 많은 양이 출토된 기와편은 명분와와 비교적 완형의 것 등 중요한 것들을 분별하여 수습하였으며, 그 외의 기와편들은 조사 중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복토시 주거물지 동서쪽에 조사한 탐색트렌치에 비닐을 덮고 기록을 남긴 후 붙였다. 현장에서는 주로 1차 세척과 정리를 위주로 하였으며, 현장 철수 후 사진촬영과 실측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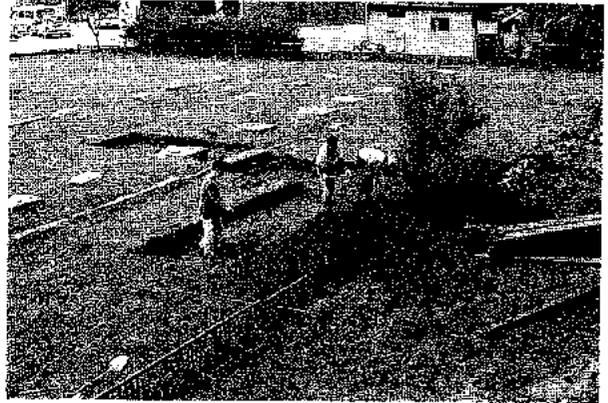


〈사진 III-10〉 복토 작업



〈사진 III-11〉 기와 문기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앞서 조사지역의 전체적인 상황과 유구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굴(試掘) 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사의 기본 방향은 우선 나2, 다2, 라2, 마2, 바2 지역에 걸쳐 남북 방향의 시굴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전체적인 토층(土層)을 조사하면서 동시에 주거물지와 분지의 유구 상태 확인을 위한 조사를 병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거물지 뒷편의 공지인 가1-3 지역에 대해서도 시굴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여, 담장 유구의 유무를 확인하기로 하였으며, 마당의 동·서쪽에 해당하는 다1, 라1, 마1 지역과 다4, 라4, 마4 지역은 익랑(翼廊) 유구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마당 유구를 확인하기 위해 다2,3, 라2,3, 마2,3 지역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사지역 동쪽의 길과 텃밭, 서쪽의 주택지에 대해서는 민원을 우려한 고양시의 권유로 조사를 추후로 미루었다.



〈사진 Ⅲ-13〉 시굴트렌치 작업 (나2·북동→남서)

9월 25일까지 제초작업 및 그리드 구획을 마치고, 9월 25일에 주거물지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나2의 시굴트렌치를 굴토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다. 〈사진 Ⅲ-13〉 시굴트렌치 조사 결과, 북쪽 보호철책 너머의 가1, 2, 3 지역에서는 유구가 발견되지 않았다. 〈사진 Ⅲ-14〉 주거물지와 분지 사이의 마당인 다2, 라2, 마2 시굴트렌치에서는 남북 석렬이 노출되어, 계속 확장 조사하였다. 〈사진 Ⅲ-15〉 이 석렬은 길이 25.4m, 폭 1.6m이며, 중앙 계단과 분지의 북쪽 기단을 잇는 보도석렬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구역의 동쪽과 서쪽



〈사진 Ⅲ-14〉 가1 시굴트렌치 (북→남)



〈사진 Ⅲ-15〉 보도석렬 노출 (라2, 마2·남→북)



〈사진 Ⅲ-16〉 라4 시굴트렌치 (동→서)

III. 발굴조사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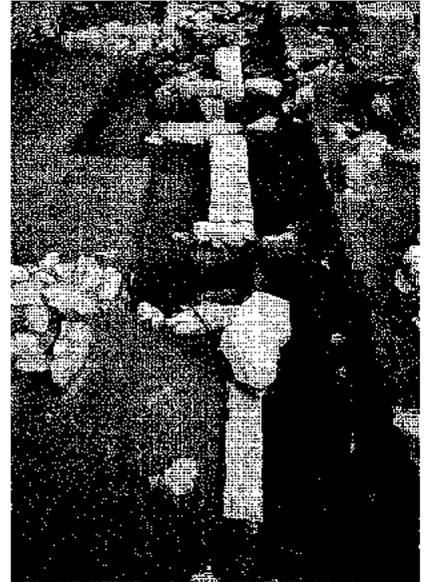
마당인 라1, 마1, 라4, 마4 시굴트렌치에서는 불규칙하게 놓여 있는 석재가 노출되었는데, 적심의 형태를 띤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형성이 없고, 모두 흑갈색 부식토층 위에 불안정하게 위치하며, 파괴와 교란이 심하게 진행되었다. <사진 III-16>

3-2. 주건물지 발굴

주건물지에 대한 조사는 9월 25일~10월 18일까지 건물지 내외의 시굴트렌치 조사를 마치고, 10월 23일부터 유구 노출 및 확인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적심면까지 굴토하여, 아궁이 또는 굴뚝으로 추정되는 유구와 함께 온돌과 관계 있는 시설로 추정



<사진 III-17> 기와열 (다2·남→북)



<사진 III-18> 선대 아궁이 (L134·서→동)

되는 기와열을 동익헌과 서익헌에서 각각 확인하였다. <사진 III-17> 초석의 배열상태 및 초석이 놓인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주건물지가 중앙에 전면 3칸, 측면 2칸의 정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전면 3칸, 측면 2칸의 동·서익헌이 대칭으로 배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노출된 주건물지의 적심석렬보다 낮은 레벨에서 이 적심석렬과는 축이 다른 적심석이 일부 확인되어 선대(先代) 유구로 판단하였다. 또한, 건물의 뒤쪽에서는 불규칙하게 석재가 깔려있었는데, 그 사이로 장대석이 일부 노출되었다. 장대석의 용도를 알기위해 그



<사진 III-19> 주건물지 계단 (다2-4·동→서)



<사진 III-20> 주건물지 전면계단 동쪽 부분 (대·서→동)

위의 석재 일부를 걷어내고 조사해 보니, 2개의 아궁이 유구로 밝혀졌다. <사진 III-18> 건물의 전면에는 중앙계단 이외에도 3개의 계단이 추가로 노출되어 모두 4개의 계단이 확인되었다. <사진 III-19> 주건물지의 전면기단은 보호구역의 동서철책 밖으로까지 연결되는데, <사진 III-20> 이 기단의 규모 확인을 위해 동쪽 주택가 앞의 텃밭을 조사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와 민원을 우려한 고양시 측의 권유로 시행하지 못하고, 추후과제로 미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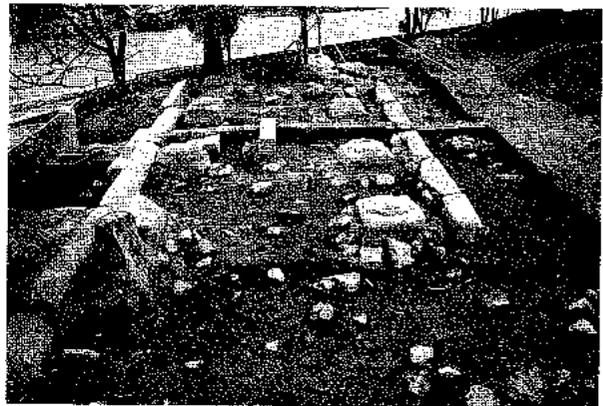


<사진 III-21> A12 초석 남쪽 탐색트렌치 (나1·남→북)

주건물지의 유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동서로 길게 건물지를 관통하는 탐색트렌치 조사를 하여 건물지 내부의 토층 확인 및 추가로 선대 유구를 확인하였고, <사진 III-21> 기단의 축토상태 확인을 위한 탐색트렌치(나1, 나4 트렌치) 조사에서는 기단 기초부의 점토다짐층을 확인하였다.

3-3. 문지 발굴

문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주로 10월 22일~10월 30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적심면까지 굴토하여 문지는 전면 3칸, 측면 1칸의 건물지로서 삼문(三門)의 형식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지의 남쪽과 북쪽 기단은 확인되었지만 동·서쪽 기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 III-22> 문지 동쪽에서는 온돌시설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되었다. <사진 III-23> 문지 전



<사진 III-22> 문지기단 (바2, 3·동→서)



<사진 III-23> 문지 동쪽 온돌추정 유구 (바1·남→북)



<사진 III-24> 문지 남쪽 계단 (바2·남→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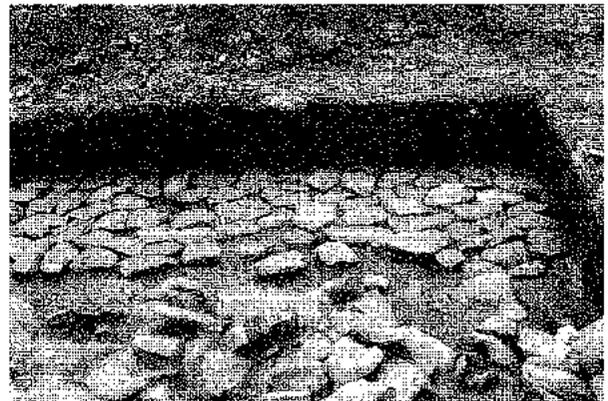
면, 즉 남쪽 기단 바깥면에 대한 조사에서는 2개의 계단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서 문지 중앙의 계단은 5단으로 되어 있으며, 높이가 약 1m로서 당시의 지표면이 현재의 도로면보다 훨씬 낮았음을 알게 되었다. <사진 III-24>

3-4. 마당 발굴

마당의 동쪽에서 석재가 일부 노출되었으나 서쪽에 비해 교란의 정도가 심하고 전혀 정형성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발굴여건상 불가피하게 라1의 북벽에 접한 동서트렌치를 사진 촬영하고, 실측한 후에 토사의 적치장소로 사용하였다. 보도석렬의 주변을 확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도석렬의 중간 지점에 보도석렬과 직교하는 동서 석렬(월대 추정)이 발견되었으며, <사진 III-25> 이 석렬의 남쪽에 지름 20cm 내외의 얇은 박석이 조밀하고 넓게 깔려 있는 부석(敷石)유구가 확인되었다. <사진 III-26> 부석이 깔린 구역의 전체 규모는 동서 14m, 남북 13m 정도이다. 한편 동서 석렬은 길이가 약 14.6m이며 석렬 끝부분에서 북쪽으로 다시 남북 석렬이 연결되는데, 남북 석렬은 길이가 약 9.4m로 주거물지의 전면 기단 부근까지 이어져 원래는 14.6×12m 규모의 월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월대 내에는 북쪽에 주거물지의 남쪽 기단을 따라 지름 1.5~1.6m의 적심 4개가 노출되었으며, 주칸길이는 3.7~4.0m로 측정되었다. <사진 III-27> 또한, 이 공간의 남쪽에도 여러 개의 석재군이 노출되었는데, 그 중에는 소형의 적심 형태를 한 것도 파악되었다. <사진 III-28>



<사진 III-25> 보도석렬과 직교하는 동서석렬 (라2, 3·북→남)



<사진 III-26> 부석 (마3·동→서)



<사진 III-27> 월대 내 적심석 (다2·남→북)



<사진 III-28> 소형의 적심 형태 유구 (라2)

3-5. 발굴 일지

날 짜	내 용
1998. 9. 21. (월) 맑음	· 현지에서 발굴계획 회의, 사전 준비 착수
9. 23. (수) 맑음	· 발굴 전 사진 촬영, 컨테이너 설치
9. 24. (목) 비/겉	· 발굴 장비 이동, 비품 구입
9. 25. (금) 맑음	· 옹다리 설치, 제초 작업 및 현장 주변 정리
9. 26. (토) 맑음	· 그리드 및 트렌치 구획, 트렌치 폭은 2m로 결정
9. 27. (일) 맑음	· Tr 나2 시굴 · Tr 가1, 나2 시굴 및 정리
9. 28. (월) 맑음	· Tr 가1, 나1, 다2, 라2 시굴, Tr 가1, 나2 정리 · Tr 다2, 라2에서 석렬 일부 노출 · Tr 가1, 나1,2에서 자기편, 와편, 철제 출토 · Tr 라2, 마2 시굴, Tr 나1, 다2, 라2 정리 · Tr 마2에서 보도석렬 일부 노출
9. 29. (화) 흐림/비	· Tr 바1,4 시굴, Tr 라2, 마2 정리 · Tr 라1,4 바1은 동서방향으로 먼저 작업하기로 함
9. 30. (수) ~ 10. 6. (화)	- 우천 및 추석연휴로 인해 작업을 중단함 -
10. 7. (수) 맑음	· Tr 라1, 마1 시굴
10. 8. (목) 맑음	· Tr 다1, 라1,4, 마1, 바2,3 시굴, Tr 라1, 마1 정리 · Tr 라1은 교란된 것으로 보임
10. 9. (금) 맑음	· Tr 바2의 묻지 초석이 시멘트로 고정된 채 노출됨 · Tr 바1-3 시굴, Tr 다1, 라2, 마1 정리 · Tr 라4에서 적심 형태의 유구 노출
10. 10. (토) 맑음	· Tr 가3, 바1 시굴, 가3 그리드 설치 · Tr 라4, 마1,2,4, 바1-3 정리 · Tr 다1에서 명문와 출토
10. 11. (일) 맑음	· Tr 가3, 나1, 다4, 바3 시굴, Tr 가3, 라4, 바2 정리 · 주변물지의 남쪽을 먼저 조사하여 적심 배열상태를 파악하기로 함
10. 12. (월) 맑음/비	· Tr 나3, 다4, 라1, 마3-4 시굴, Tr 라1,4, 바3 정리 · 토사 처리문제 협의
10. 13. (화) 흐림	· Tr 나3, 바3 시굴, Tr 라4, 마4 정리 · Tr 마3에서 부석 유구 노출
10. 14. (수) 비	· 유물 세척 및 정리
10. 15. (목) 맑음	· Tr 나3,4 시굴, Tr 나1,3, 다4, 라4, 마1,4 정리 · Tr 나1의 주변물지 초석이 시멘트로 고정된 채 노출됨
10. 16. (금) 맑음	· Tr 가2, 나4 시굴, Tr 나1, 다4, 라4, 마1,3 정리 · 1차 자문회의 준비
10. 17. (토) 맑음	· Tr 가2, 나1-3, 다4, 라4, 마1 정리 · 1차 자문회의 준비
10. 18. (일) 맑음	· Tr 다1, 라1 시굴, Tr 나1-3, 다1, 라1, 마4 정리 · 유물 세척 및 정리
10. 19. (월) 맑음	· Tr 나3에서 '口' 符銘 와편 출토 · Tr 라4 확장, Tr 라3,4 정리 · 유물 정리, 토사 적치 장소 이동 · 라4 지역은 교란된 것으로 추정됨
10. 20. (화) 맑음	· 1차 자문회의 · 문지쪽 담장지 유구의 확인과 보호철책 밖 배추밭 지역 조사를 추진하기로 함
10. 21. (수) 맑음	· Tr 가1 시굴, Tr 다3, 라3, 마3 확장, Tr 나3, 다1,3, 라1,4, 마1 정리 · Tr 마3에서 부석 노출, Tr 라3에서 월대 석렬 노출 · Tr 가1에는 담장지 흔적 없음
10. 22. (목) 맑음	· Tr 다2, 라4, 마3, 바3 시굴, Tr 다1-3, 라1,3, 마1 정리 · 바1 지역에 모아놓은 장대석 옮김 · Tr 라1의 뜬돌 제거 · Tr 마3에서 부석 노출
10. 23. (금) 맑음	· Tr 나4, 다2, 라2, 바1,3 확장 및 전면 굴토 · Tr 가1 뜬돌 제거, Tr 나4 정리

III. 발굴조사 경과

날 짜	내 용
10. 24. (토) 맑음	· 나1, 다3, 바1.3 지역 굴토 나4, 다2, 라1.2, 바3 지역 정리 · Tr 가1의 뜬돌 제거 및 정리, 마1 실측, 유물 정리 · Tr 다3에서 계단석 노출 · Tr 나1, 다2-4, 라2, 바1 확장, 나4, 바4 지역 정리
10. 25. (일) 맑음	· 라1의 뜬돌 제거 · Tr 라2에서 부석 노출 · 다2.3, 바1-3 지역 굴토 나4, 다3, 라2, 마1.2 지역 정리
10. 26. (월) 흐림	· Tr 가1 토층 실측 · Tr 바2.3에서 문지 계단석 노출 · 바1.2 지역 굴토, 라1, 바1 지역 정리, 마1 실측 · 유물 세척 및 정리
10. 27. (화) 비/갬	· Tr 바2에서 문지 동쪽 계단 노출 · 바1.2 지역에서 은돌 유구 노출
10. 28. (수) 맑음	· 나1.4, 라2, 바2 지역 굴토, 바1, 나4 지역 정리 · 나1.4 지역에서 적심석 노출, 나4 지역은 교란이 심함
10. 29. (목) 맑음	· 나1, 바2 지역 굴토, 나1, 다2, 라2, 바1-3 지역 정리 · 라2 지역에서 부석 노출, 나4 지역에서 적심석 노출
10. 30. (금) 흐림/갬	· 나1.3.4, 다1.4 지역 굴토, 라2.3, 마2, 바2.3 지역 정리, 마2 실측 · 나1.3.4, 다1-4 지역 굴토, 라1, 바1.2 지역 정리
10. 31. (토) 맑음	· 라1의 뜬돌 제거, 마1 레벨 실측 · 나4, 다4 지역에서 초석 연결 석렬 노출 · 나3.4, 다2.3, 라3, 마2 지역 굴토, 라1, 바1.2 지역 정리
11. 1. (일) 맑음	· 토사 적치 장소 이동 · 라3 지역에서 라2 지역과 연결되는 월대 석렬 노출 · 마3 지역에서 남북방향의 보도석렬 노출
11. 2. (월) 비/갬	· 유물 세척 및 정리
11. 3. (화) 맑음	· 나3, 마3 지역 굴토, 나1.3, 라1 지역 정리 · 나3 지역에서 연도로 추정되는 유구 노출
11. 4. (수) 맑음	· 라3, 마3 지역 굴토, 나1 지역 정리 · 라3, 마3 지역에서 넓게 부석이 노출되어 추가 확장 조사가 필요함
11. 5. (목) 맑음	· 나1, 다2.3, 라3 지역 굴토, 나4, 라2.3, 마2.3 지역 정리 · 유물 정리
11. 6. (금) 맑음	· 나2, 라3 지역 굴토, 나1.3.4, 다1.4, 라1.3, 마2 지역 정리 · 라3 지역에서 부석 위로 새로운 석렬 유구 노출 · 나2 지역 굴토, 나3.4, 바1-3 지역 정리
11. 7. (토) 맑음	· 나3 지역에서 가와로 만든 연도 추정 유구 노출 · 나3.4 지역의 주전몰지 북서쪽 기반석이 유실되었으므로 토층을 확인한 후 굴토하기로 함
11. 8. (일) 맑음	· 나2-4, 마3 지역 굴토, 나2.3 지역 정리 · 유물 정리
11. 9. (월) 맑음	· 나2.4, 라3, 마3 지역 굴토 · 다2.3, 라3 지역 굴토, 나2.3, 다2, 마3 지역 정리 · 라3 지역에서 초석 노출
11. 10. (화) 맑음	· 배추밭 지역 조사는 사정상 추후로 미루기로 함 · 라3 지역의 부석 유구 위치에 따라 마3 지역의 확장 여부를 결정하고, 라4 지역은 더 깊게 굴토하기로 함
11. 11. (수) 맑음	· 다2.3, 라2, 마3, 바1 지역 굴토, 나2.3, 다2.3, 라3, 바1 지역 정리 · 다2.3 동서방향 석렬 및 적심석 노출, 다2 계단석 노출
11. 12. (목) 맑음	· 다3, 라2.3, 마3, 바2 지역 굴토, 다2.3, 바1 지역 정리 · 문지 그리드 작업 및 실측 · 나3.4, 다2, 라2, 바2 지역 굴토
11. 13. (금) 맑음	· 유물 정리 · 마3 지역 그리드 작업
11. 14. (토) 맑음	· 라2 지역 굴토, 나4, 다1-4, 라1-4 지역 정리 · 토사 적치 장소 이동 · 마3, 바2.3 실측, 건물지 그리드 작업

날 짜	내 용
11. 15. (일) 흐림	· 나1,2 라2 지역 굴토, 라2,3 지역 정리, 나4 지역 탐색 Tr 굴토 · 바2,3, 마3 실측
11. 16. (월) 비	- 우천 관계로 작업 중단 -
11. 17. (화) 맑음	· 나1-4, 라2 지역 굴토, 나1 지역 탐색 Tr 굴토 · 라4 지역의 뜬돌 제거 · 건물지 그리드 작업
11. 18. (수) 맑음	· 나4, 다1, 라1 지역 굴토, 라2,4, 마2,3 지역 정리 · 나1 지역 탐색 Tr 굴토, 라4 지역의 뜬돌 제거 · 나4 지역 그리드 작업, 마2,3 실측 · 나3,4 지역 굴토, 나1-3 지역 정리
11. 19. (목) 맑음/눈	· 토사 적치 장소 이동 · 건물지 그리드 작업, 라2,3, 마2 실측 · 다1 지역 굴토, 나1,3 지역 정리
11. 20. (금) 맑음	· 다1-4, 라2,3, 마2,3 실측 · 다1 지역에서 조사지역의 동쪽 도로로 연결된 장대석 유구가 노출되었으나, 작업 여건상 중단함
11. 21. (토) 맑음	· 그리드 작업 및 실측
11. 22. (일) 맑음	· 그리드 작업 및 실측
11. 23. (월) 흐림	· 그리드 작업 및 실측
11. 24. (화) 흐림/맑음	· 그리드 작업 및 실측
11. 25. (수) 맑음	· 2차 자문회의 준비, 그리드 작업 및 실측
11. 26. (목) 맑음	· 나1 탐색 Tr 굴토 · 2차 자문회의 준비, 실측
11. 27. (금) 비/맑음	· 2차 자문회의 준비, 실측 · 2차 자문회의
11. 28. (토) 맑음	· 나4 탐색 Tr 굴토 · 그리드 작업 및 실측
11. 29. (일) 맑음	· 나2,3, 라2,3 토층 정리 · 그리드 작업 및 실측
11. 30. (월) 맑음	· 마2 굴토, 주건물지 내 돌 제거 및 탐색 Tr 굴토 · 실측 및 정리
12. 1. (화) 흐림	· 주건물지 내 및 북서쪽 탐색 Tr 굴토 · 그리드 작업 및 실측
12. 2. (수) 흐림	· 주건물지 내 및 북서쪽 탐색 Tr 굴토 · 그리드 작업 및 실측 · 모형헬기를 이용하여 공중촬영함
12. 3. (목) 맑음	· 주건물지 내 및 북서쪽 탐색 Tr 굴토 · 그리드 작업 및 실측 · 나3,4 지역에서 청자, 암막새 출토
12. 4. (금) 맑음	· 주건물지 내 및 북서쪽 탐색 Tr 굴토 · 실측 · 나2-4 지역에서 선대 아궁이로 추정되는 유구 노출
12. 5. (토) 흐림	· 실측
12. 6. (일) 맑음	· 실측, 유물 정리
12. 7. (월) 흐림/비	· 실측, 유물 정리
12. 8. (화) 맑음	· 복토 작업
12. 9. (수) 맑음	· 현장 정리 및 철수

4. 자문회의

4-1. 1차 자문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유적에 대한 시굴조사가 마무리되었던 10월 20일에 1차 자문회의가 벽제관지 발굴 현장에서 개최되어, 조사된 내용을 검토하고 이후의 조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참석자는 김동현(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현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장경호(전 경기도 박물관장, 현 기전문화재연구원 원장), 장용재(전 고양시 문화공보담당관), 정동일(고양시 민속전시관 전문직 연구원), 김성호(전 고양시 토목과) 등이며, 김동욱(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자문위원은 당일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고, 10월 28일 방문하여 자문하였다.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Ⅲ-29〉 1차 자문회의

- 마당면 좌우에 동·서익랑이 있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이 구역에 대한 조사는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하도록 함.
- 문지의 주변, 특히 좌우의 담장 등의 유무를 확인한 것.
- 주건물지에서는 기단의 축토 상태 및 적심석의 축조 상태를 확인할 것.
- 중앙의 진입로 부분은 전부 노출시킬 것.
- 울타리 밖의 조사는 이번 발굴에서 제외하되, 농쪽의 텃밭은 땅주인과의 협의 하에 발굴하는 쪽으로 추진함.
-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에서 방침을 세우고 차후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4-2. 2차 자문회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2차 자문회의가 11월 28일에 벽제관지 발굴 현장에서 개최되어, 발굴성과에 대한 토론과 추가조사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는 김동현, 장경호, 김동욱 자문위원과 송성근(경기도 문화정책과), 장용재, 정동일, 김성호 등이다.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주건물지 뒷편의 담장지는 확실한 유구가 출토되지 않았으므로 없었던 것으로 추정됨.
- 벽제관지에서 벽제관 유구와는 다른 여러 적심석들이 노출되는 것으로 보아 선대에 이미

다른 건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주건물지 동·서익현의 온돌시설로 보아 건물 내부 공간의 쓰임새와 칸수 추정 가능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침에 전돌이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바닥은 전돌로 마감한 것으로 추정됨.
- 주건물지 전면에는 5개의 계단과 보도 및 월대와 같은 돌출형 기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앞마당에는 부석을 깔 것으로 추정됨.
- 분지 동쪽에 온돌 유구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행랑이 3~5칸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1칸 정도는 헛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주건물지의 연도(煙道)로 추정되는 기와열과 분지 동쪽의 온돌 유구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함.



(사진 III-30) 2차 지문회의

5. 층위

벽제관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층위는 크게 5개의 기본층위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I 층 : 표토층
- II 층 : 흑갈색 부식토층
- III 층 : 갈색 사질점토층
- IV 층 : 적갈색 점토층
- V 층 : 회색 사질층

I 층은 표토층으로서 10cm 두께 정도로 유적지 전역에서 확인되었다.

II 층은 흑갈색 부식토층으로 조사지역에 따라 불규칙하게 나타나지만 대략 30cm 두께로 역시 유적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층은 건물이 폐기된 이후에 심하게 교란된 것으로 파악되며, 대량의 외편 등 유물과 함께 못, 철조망 조각과 같은 현대의 폐기물도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III 층은 갈색 사질점토층으로 유적 전반에서 확인되는데, 주건물지와 분지의 적심석 상면이 이 층에서 노출되었다. 이 층은 벽제관의 기단을 축조할 때 쌓았던 주건물지 기단의 기

III. 발굴조사 경과

단토로서 구(舊)지표면으로 파악되었다. 일부 단단하게 다진 부분이 확인되고는 있지만, II층의 심한 교란으로 말미암아 대체로 토양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전체적으로 바닥면을 치밀하게 다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건물지 내의 주요 유구인 적심석 외에도 많은 석재군들이 깔려 있었는데, 이 석재군들이 건물의 기반을 보강하는 기능을 한다면 특별하게 바닥면을 정리하지 않았더라도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고 유지하는데는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건물 내부의 토층조사를 위한 탐색트렌치 조사에서도 선대의 적심석 외에 부정형의 석재들이 많이 깔려 있음이 확인되어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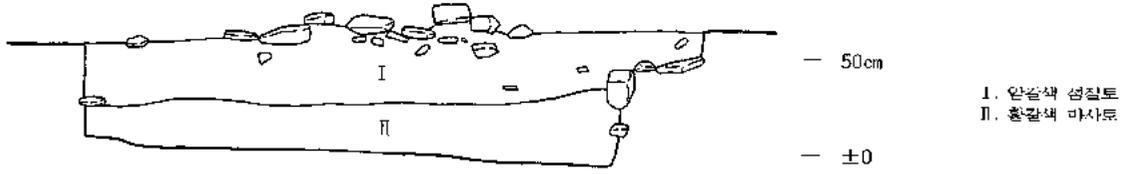
〈사진 III-31〉 A11 초석 남쪽 탐색트렌치 (내·남→북)

IV층은 적갈색 점토층으로 주건물지의 적심열과는 축이 다른 선대 적심석과 문지의 일부 적심석이 이 층에서 노출되었다. 주건물지의 적심석과 선대의 적심석과의 레벨차는 약 10cm로서 선대의 적심석이 약간 낮으며, 매우 단단하게 잘 다져져 있는 적갈색 점토층 위에 노출되었다. 벽제관 이건 당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에 이 점토다짐층을 기반으로 그대로 활용하면서, 건물이 들어설 부분에만 장대석을 돌리고 새로 기단토를 깔아 주건물지의 기단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적갈색 점토층은 입자가 치밀하고 고르게 정선되어 있었으며, 매우 단단하게 다져져서 선대 건물지 조성 당시에 건물의 기반공사에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으로 파악된다. 문지의 경우는 적심석 노출 작업 중에 적심석 사이에서 적갈색 점토층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적심을 만들 때 적심석 간의 접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석재 사이에 점토를 충전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 두 개의 건물지 외에도 보도석렬에서도 적갈색 점토층이 확인되었다. 보도석렬은 일단 점토를 한 번 깬 후에 11~24cm 크기의 잡석을 올려 전체 마당면보다 약간 돋우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쓰인 점토는 석재 간의 접착력을 강화하여, 석렬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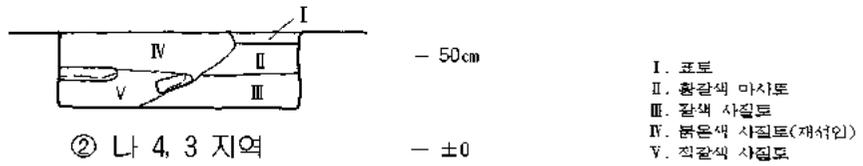
V층은 회색 사질층으로 보도석렬 노출지역에서는 적갈색 점토층 아래에 깔려 있었으며, 보도석렬 주변에 넓게 형성된 부석이 이 층에서 노출되었다. 보도석렬 노출지역의 회색 사질층과 부석이 깔린 회색 사질층의 레벨이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두 개의 층은 동일한 층인 것으로 파악되며, 마당면의 구(舊)지표면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당면에 모래를 깬 것은 부석을 고정시키면서 동시에 배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도면 I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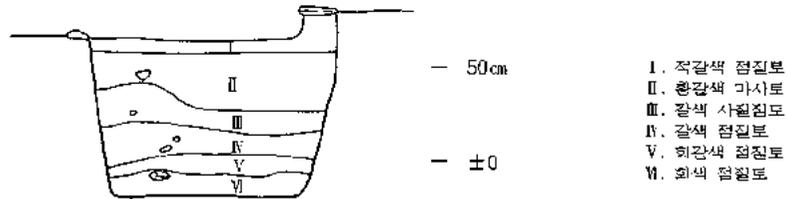
주건물지 주변의 토층 파악을 위한 탐색트렌치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보호철책 북쪽의 산사면에 대한 남북방향의 트렌치 3개와 주건물지 기단 밖 동서에 각각 하나씩 트렌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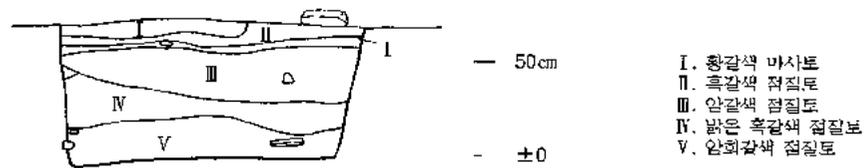
① 나 4 지역



② 나 4, 3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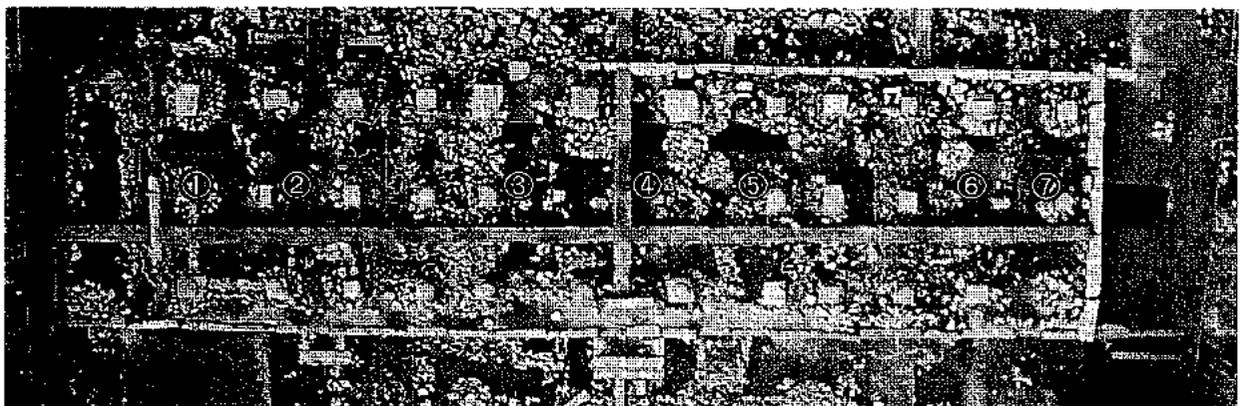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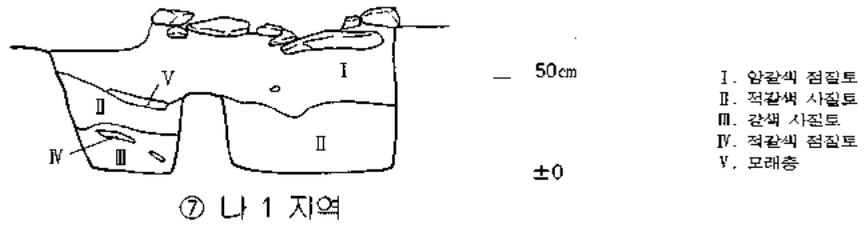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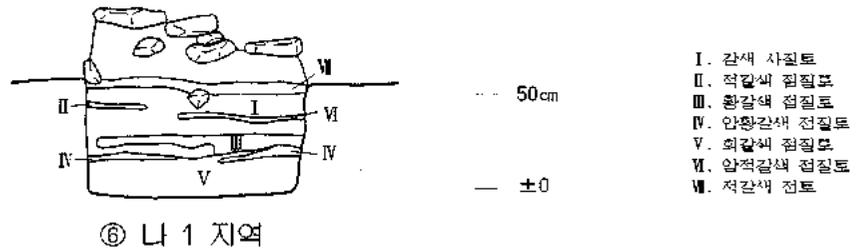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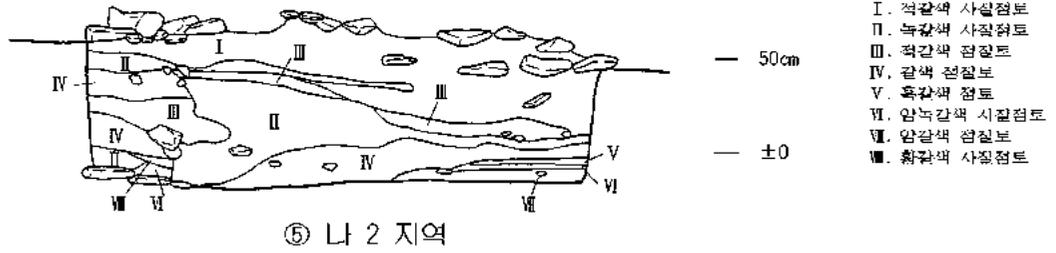
③ 나 3 지역



④ 나 2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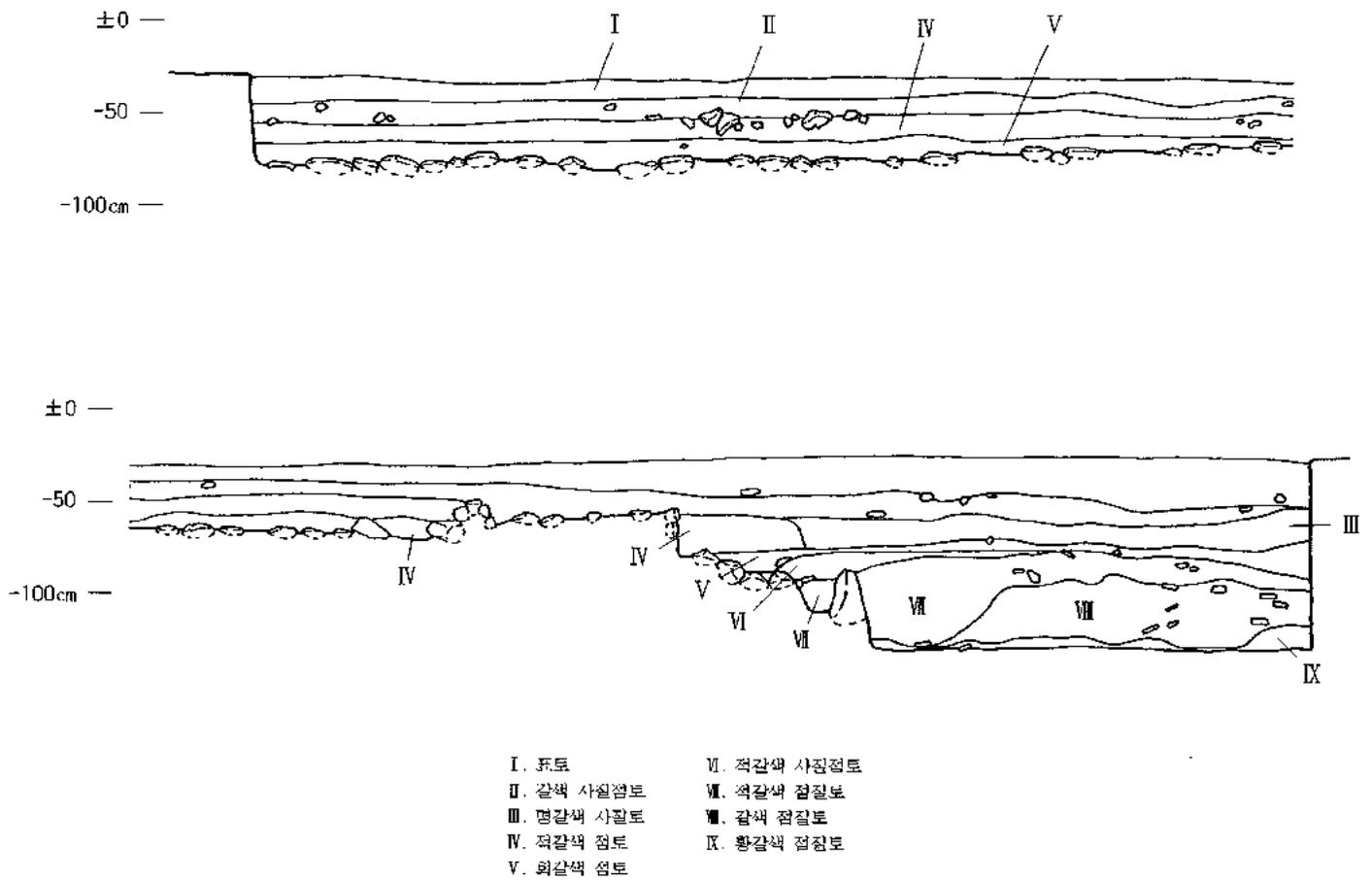
<도면 III-2> 주거유지 내 동서 탐색시 북벽 토층도 (축척 : 1/40)

III. 발굴조사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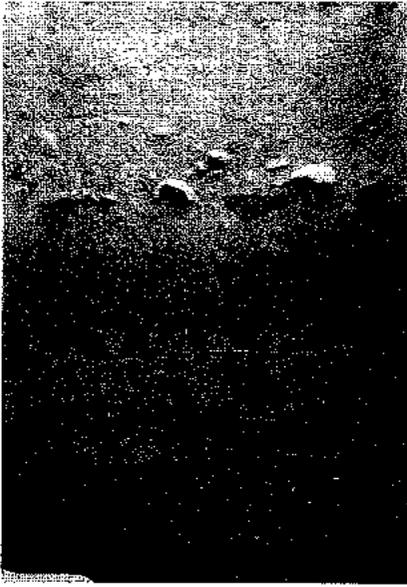


주건물지 내 동서 탐색Tr 위치

<도면 III-2> 주건물지 내 동서 탐색Tr 북벽 토층도 (축척 : 1/40)



〈도면 III-3〉 마2.3 북벽 토층도 (축척 : 1/40)



〈사진 III-32〉 주건물지 밖 동쪽 탐색트렌치 서벽 토층 (동→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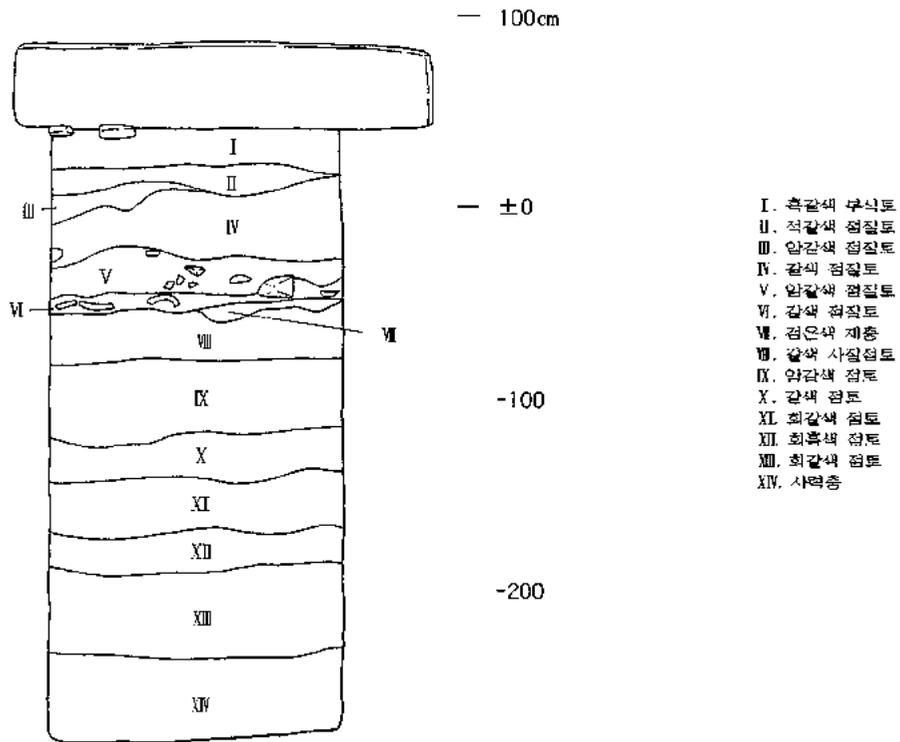
〈사진 III-33〉 주건물지 밖 서쪽 탐색트렌치 남벽 토층 (북→남)

시굴하여 조사하였다. 산사면에 대한 조사에서 유구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토층조사에서 풍화암반층이 수직으로 절개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건물 조성시에 건물이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풍화암반층을 'L'자 형태로 절개하여 평탄면을 만든 것으로 건물 후면의 경우 별다른 보강을 하지 않고 풍화암반층을 절개한 상태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건물지 기단 밖 동서의 트렌치 조사에서는 2m 이상의 깊이까지 점토 및 석재를 이용한 다짐층이 확인되었다. 동쪽의 트렌치에서는 1.8m 두께의 점토다짐층이 노출되었으며, 그 위로 외편 및 토기편이 포함된 갈색 계열의 점질토층이 있고, 그 위로 주건물지 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는 적갈색 점토층이 깔려 있음이 확인되었다. 점토다짐층은 모두 6개로 구분되며 각각 20~40cm 두께로 고르게 다져졌다. 〈사진 III-32〉, 〈도면 III-4〉 서쪽의 트렌치에서는 1m 두께의 다짐층이 노출되었는데, 적갈색 점질토와 황갈색 사질토를 10여 차례 교대로 깔면서 다지고 중간 중간에 석재를 보강하였다. 그 아래층은 미세한 입자의 실트층이며, 최하층은 사력층이다. 〈사진 III-33〉, 〈도면 II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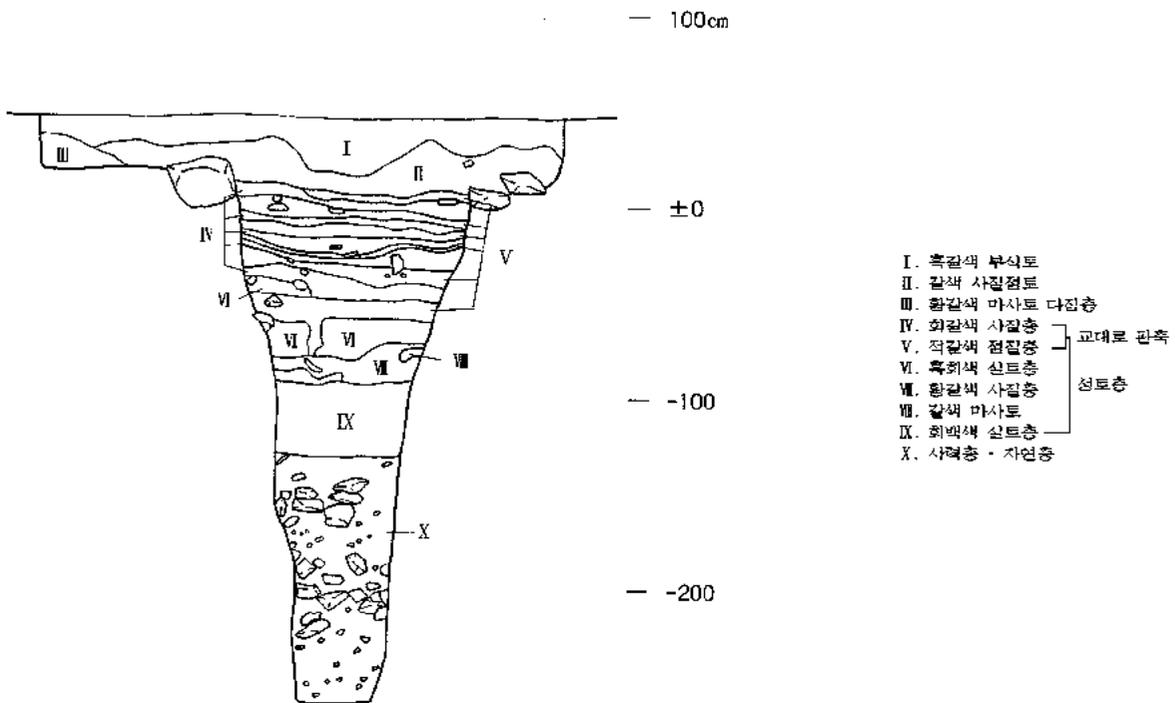
이상 유적 전반에 걸친 토층조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물이 세워질 당시 북쪽의 산사면을 타고 완만하게 흘러 내리는 풍화암반층을 이용하여 이를 일부 절개하고 평탄면을 조성한 후 건물을 세웠다. 주건물지의 경우 동서 32m, 남북 9.2m 정도의 대형 건물지로서 전면 11칸, 측면 2칸의 규모인데, 이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지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점토를 다져가면서 건물의 기단 내부를 단단하게 보강하였다. 이러한 기초공사 후에 적심석과 초석을 놓고 건물을 올렸는데, 벽제관이 이 건될 당시에는 선대에 이미 마련된 건물 지반을 그대로 활용하되, 기단을 쌓아올릴 때 많은 양의 석재를 바닥에 깔아 보강하여

구지표면을 조성하고 건물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마당면의 경우는 자연 상태의 평탄면을 약간 정비하여 이용하되 배수를 고려해 부석과 함께 사질층을 깬 것으로 해석되며, 보도석렬을 놓을 때에는 보도석렬의 기능을 고려해 마당면보다 약간 돋우어 설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III-4〉 주거물지 밖 동쪽 탐색트렌치 서벽 토층도 (축척 : 1/40)



〈도면 III-5〉 주거물지 밖 서쪽 탐색트렌치 남벽 토층도 (축척 : 1/40)

IV. 유구 현황 및 분석

1. 주거물지

1-1. 정청

1-3. 서익헌

1-5. 계단

1-2. 동익헌

1-4. 기단

1-6. 기타

2. 문지

2-1. 문지

2-3. 계단

2-2. 기단

2-4. 온돌지

3. 마당

3-1. 보도

3-3. 월대

3-2. 부석

3-4. 기타

4. 종합

4-1. 주거물지

4-3. 마당

4-2. 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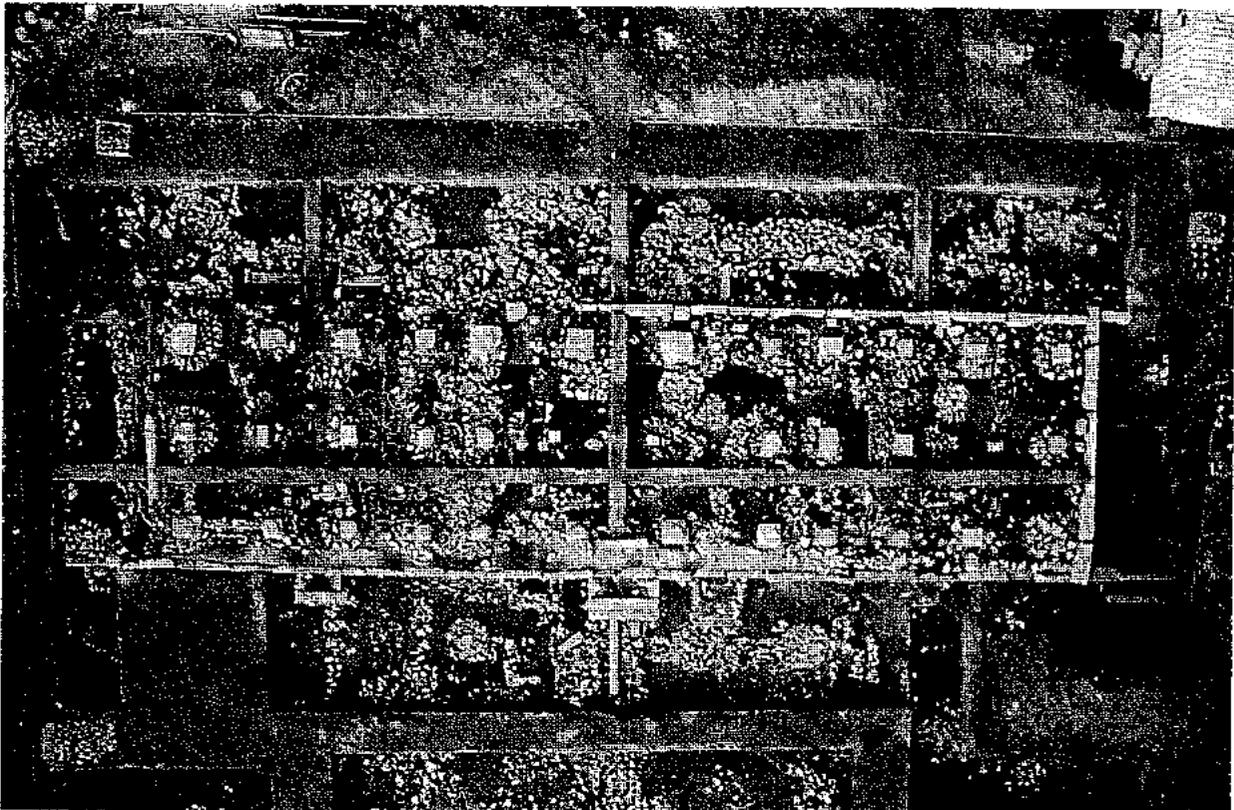


IV. 유구 현황 및 분석

1. 주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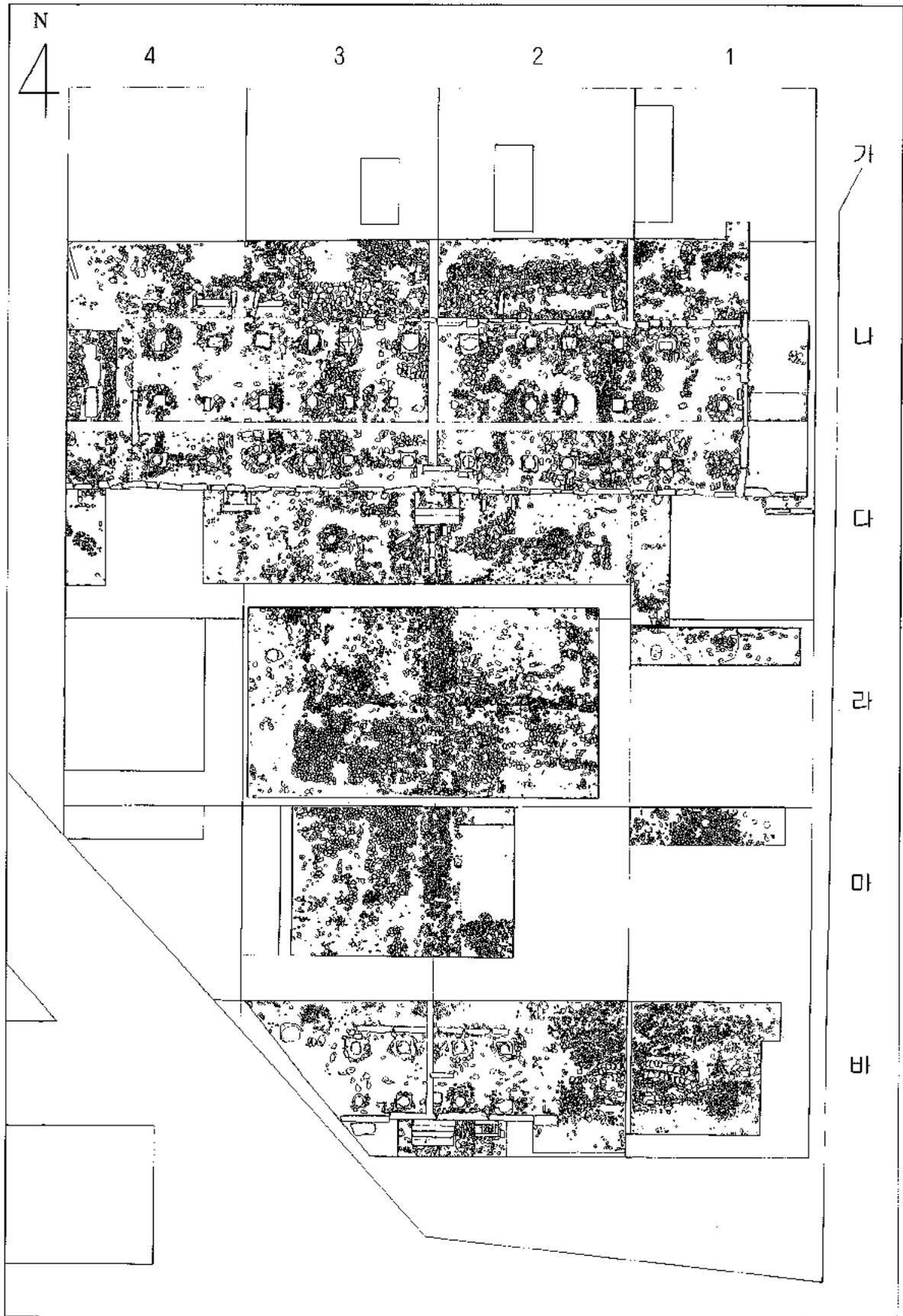
주건물지에 대한 조사는 적심의 상부 적심석이 완전히 노출되는 깊이까지 전면 제토하였다. 조사 결과, 초석이 유실된 C12를 포함하여, 모두 32개의 적심석이 노출되었다. 적심석은 A열과 C열에서 각각 12개씩 모두 확인되었으나, B열 중에서는 B2, B6, B7, B11에서 적심석이 나타나지 않았다. 적심석은 원형의 잡석으로 지름이 120~140cm이며, 대체로 초석 한 변 길이의 두 배 정도이다. 40~50cm 정도 크기의 석재를 원형으로 돌려 깔았는데, 단단하게 다져진 적갈색 점토층을 파내고 설치한 후에 갈색 사질점토를 깔아 건물의 바닥면을 조성하였다. 적심석을 3~4단 정도 깔았으며, 적심석의 깊이는 약 30cm 내외로 적심 넓이에 비해 얇은 편이다. 적심의 가장 바닥면에서는 외편이 일부 보이는데, 처음 적심을 만들 때에 보강재로 간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IV-2>

초석은 주건물지 내에 35개, 마당(라3)을 조사할 때 발견된 1개까지 포함하면 모두 36개의 초석이 주건물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초석의 형태는 크게 방형 초석(A2, 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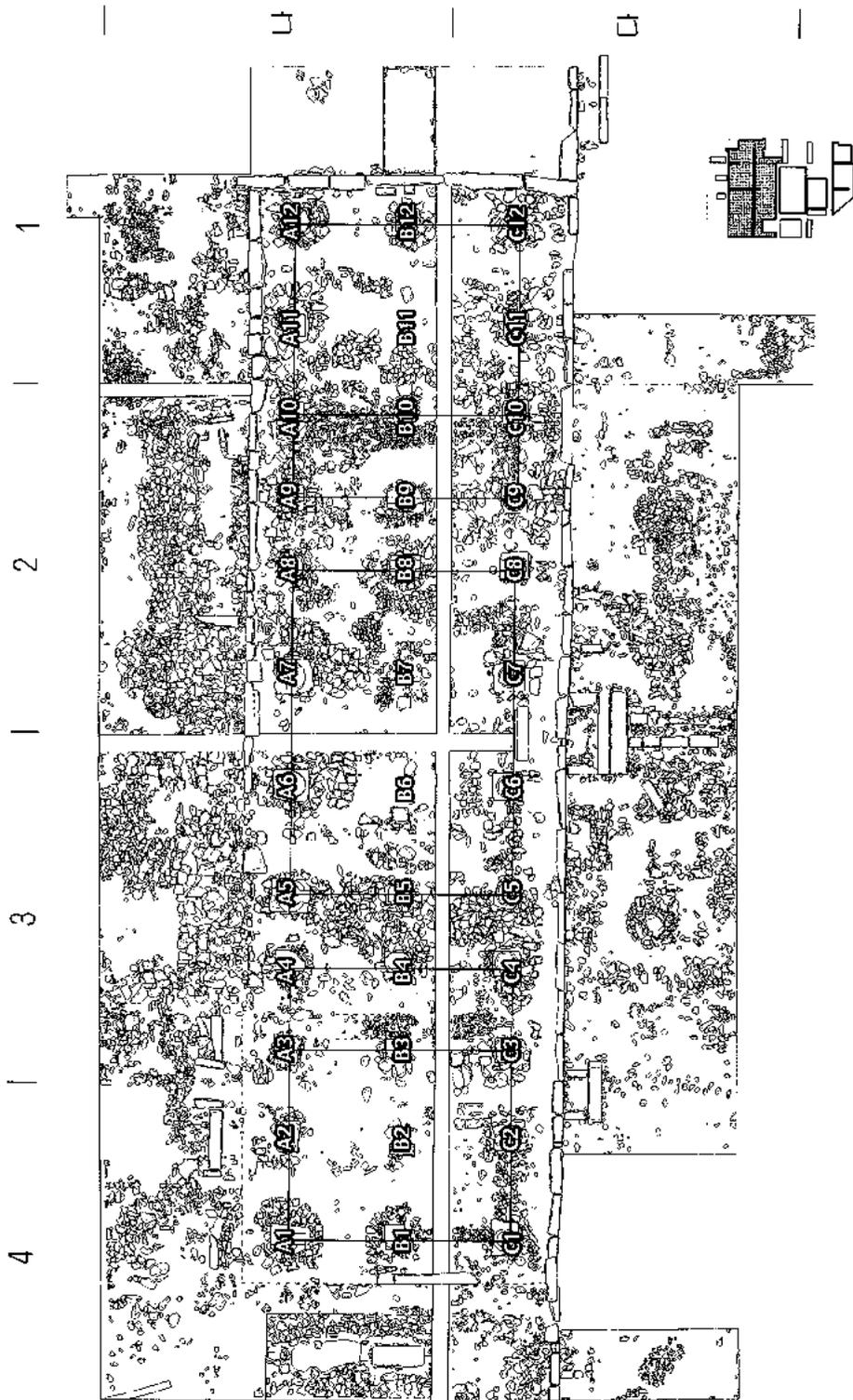
<사진 IV-1> 주건물지 유구 (공중촬영)

IV. 유구 현황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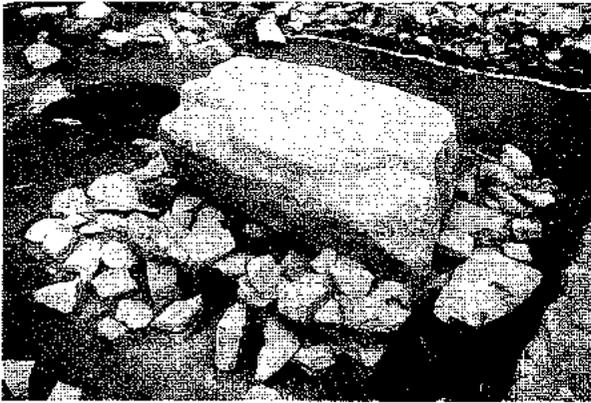
〈도면 IV-1〉 벽제관지 전체 유구 배치도 (축척 : 1/300)

N 4



〈도면 IV-2〉 주민복지 유구 (축척: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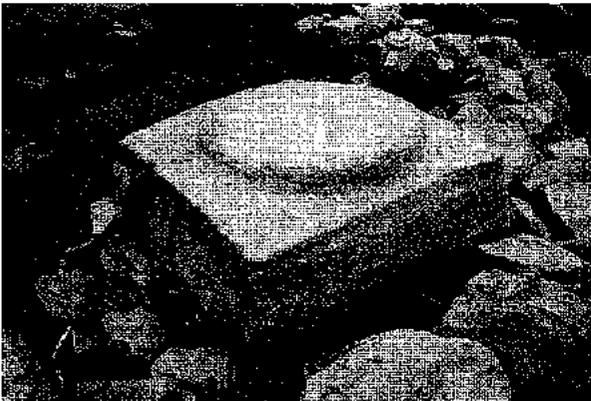
IV. 유구 현황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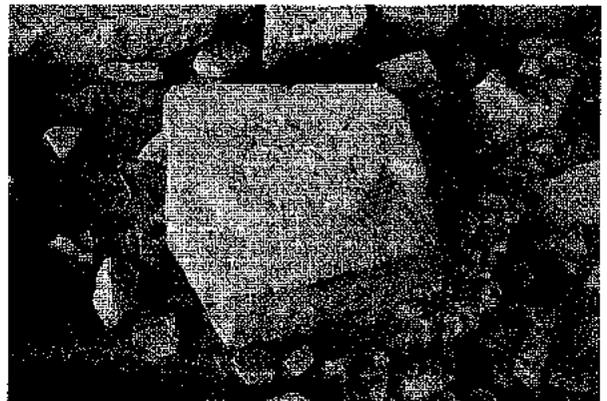
〈사진 IV-2〉 B9 초석 및 적심석 (L12·남서→북동)



〈사진 IV-3〉 B3 초석 (L13·남서→북동)



〈사진 IV-4〉 C7 초석 (D12·남서→북동)



〈사진 IV-5〉 A7 초석 (L12·남→북)

A4, A9, A10, A11, B2, B3, B6, B7, B10, B11 12기) 방형 초석 위에 원형의 주좌를 돌을 새긴 초석(A8, A12, B1, C1, C3, C4, C5, C6, C7, C9, C10 11기), 주좌와 함께 고막이까지 돌을 새긴 초석(A1, A5, A6, A7, B4, B5, B8, B9, B12, C2, C8, C11 12기) 세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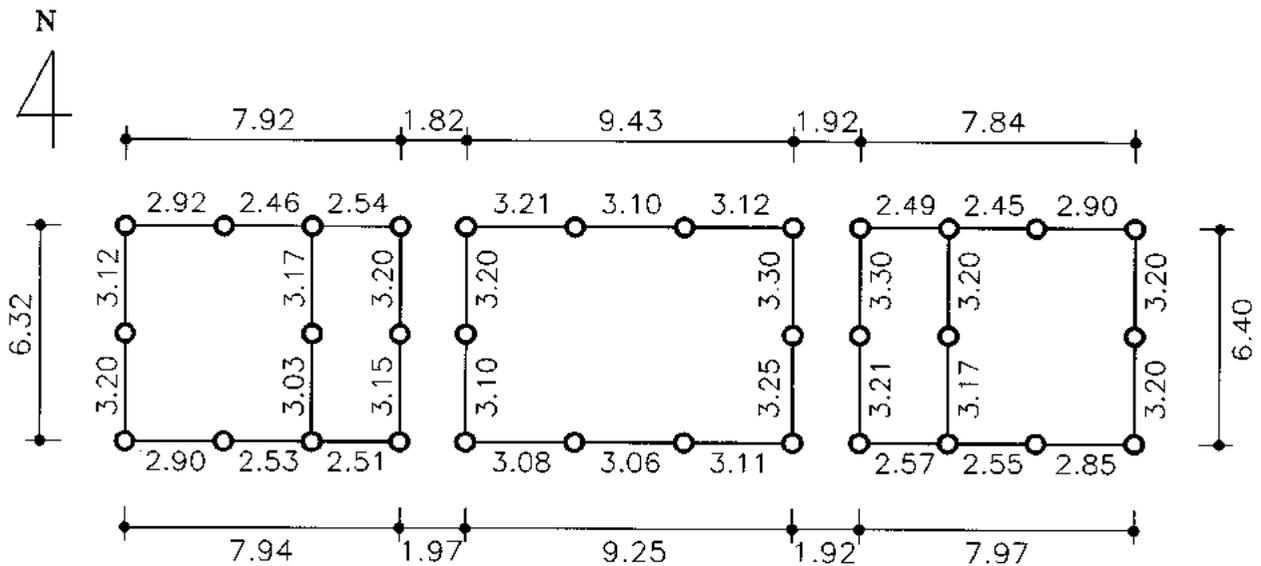
〈사진 IV-3〉, 〈사진 IV-4〉, 〈사진 IV-5〉 초석의 크기도 다양한데, 한 변의 길이가 60~80cm의 것이 가장 많으며, 1m가 넘는 대형의 것도 있다. 또, 같은 형태의 초석이라도 주좌면의 지름이나 석시리의 형태 등 치석수법이 다르고, 고막이를 돌을 새긴 초석의 일부(A1, A5, C2 등)는 그 방향이 건물의 평면 형태와 맞지 않는 등 처음부터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기 힘들며, 따라서, 이건시 여러 건물에 사용되었던 초석을 골라 함께 재배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배열에 있어서도 당시 조영자의 일정한 원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면에 해당하는 C열의 모든 초석(C1-11)과 B열 중 각각의 건물 측면 가운데 기둥에 사용된 초석(B1, B4, B5, B8, B9, B12), A열 중 정정 후면에 해당하는 초석(A5-8)에는 모두 주좌를 돌을 새긴 초석을 배열하였고, 후면에 해당하는 A열 중 동·서익헌의 안쪽 초석(A2-4, A9-11)과 B열 중 건물 내부에 위치한 초석(B3, B10)은 방형 초석을 배열하였다.

즉, 동·서익헌의 후면 초석 중 안쪽에 배치된 초석은 방형 초석을 사용하였으나, 정청은 후면에 위치한 초석일지라도 주좌를 돌을 새긴 초석을 사용하였고, 방형 초석은 후면과 내부기둥에 위치한 곳에서만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두가지의 위계적, 의장적 원칙을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정청이 동·서익헌보다 위계적으로 높은 건물이라는 사실이고, 둘째는 전면과 측면이 후면이나 내부보다 의장적 서열에서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객사 건축 또는 전통건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위계적, 의장적 원칙으로 초석의 배열에까지 이 원칙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방형의 초석 중 다른 초석들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으며, 적심석이 없는 B2, B6, B7, B11의 초석은 마루를 놓을 때 사용된 동바리돌로 추측된다. 이 돌들은 적심석이 없어 원래 위치에 놓여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현재 남북방향보다는 동서방향의 열을 대체로 따르고 있는 상태이다. 『朝鮮古蹟圖譜』와 『碧蹄館』의 사진자료를 비교해 보면 정청의 B6, B7은 일제 강점기 때 마루를 설치하면서 놓은 것으로 추측되나, 동·서익헌의 B2, B11은 원래 벽제관에 사용된 동바리돌인지, 정청의 것과 같은 시기에 놓인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사진 IV-6>, <사진 IV-7> 그리고, A11의 초석은 적심석과의 사이에 시멘트가 발라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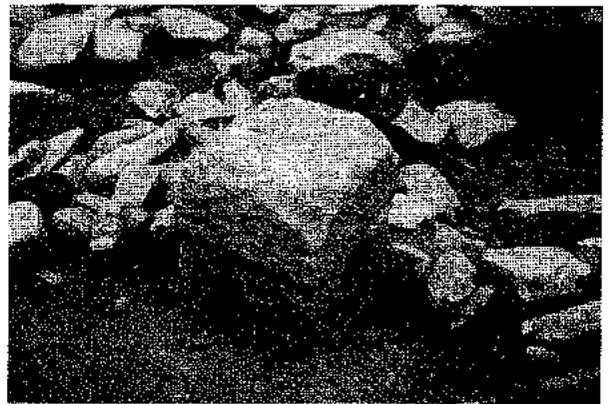
주건물지의 주칸길이는 <도면 IV-3>과 같이 측정되었다. 주칸길이에 대한 계측차를 통해 주건물지의 배치가 중앙에 전면 3칸의 정청을 중심으로 동서로 약 1.9m의 간격을 두고 동·서익헌이 배치되는 평면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서익헌의 정청 쪽 각각 1칸에서 연도시설로 추정되는 기와열 및 아궁이 또는 굴뚝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되어 이 칸이 온돌방의 구조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IV-3> 주건물지 주칸길이



〈사진 IV-6〉 B2 초석 (L4·남서→북동)



〈사진 IV-7〉 B7 초석 (L2·남서→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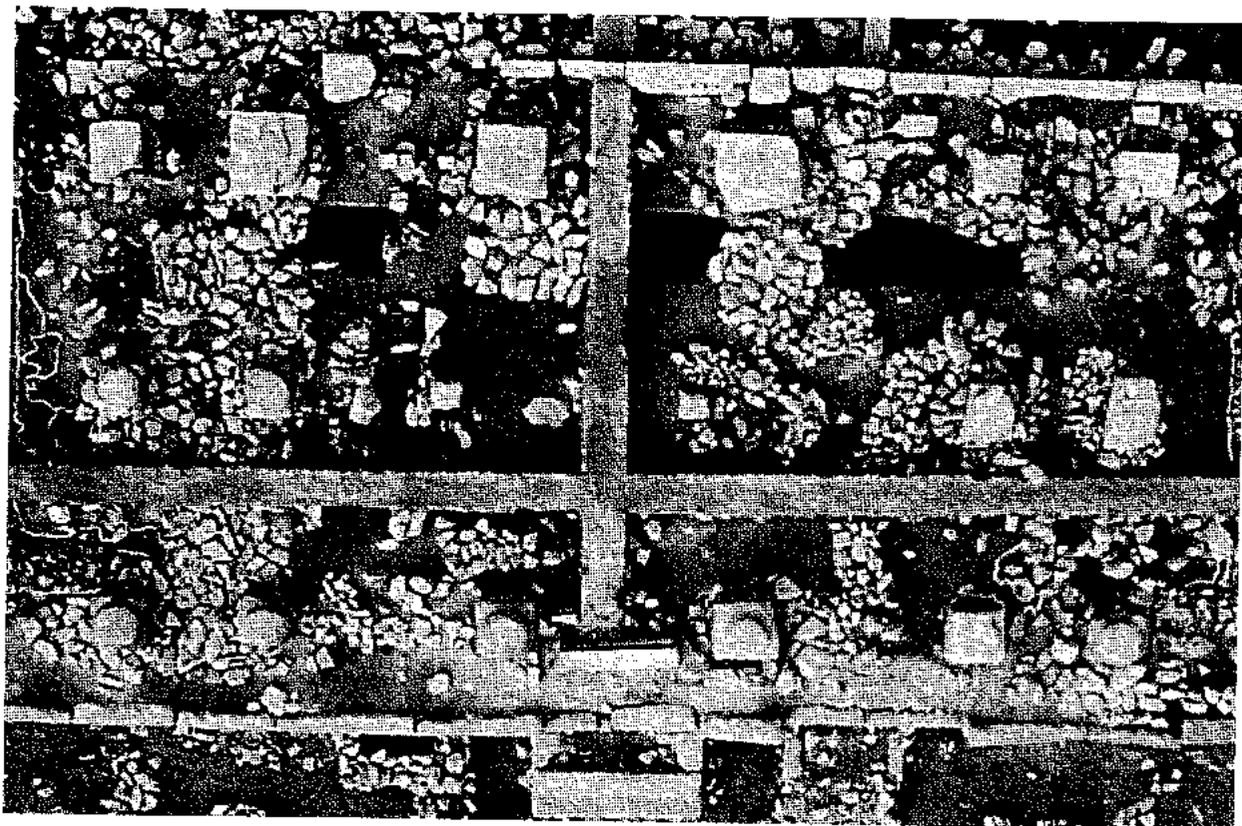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정청은 전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로서 통칸이며, 동·서익현은 전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로서 정청에 가까운 1칸은 온돌이 있는 방이고, 나머지 2칸은 마루를 깔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건물지에서 출토된 주요유물은 '口肖' 銘 수키와와 '平禎' 銘 수키와 등 명문와 2점과 초화문 박공막새 1점 등의 기와류와 어문 발 1점, 국화문 병 1점 등의 자기류, 침동 족집게 1점, 상평통보 1점 등이다.

1-1. 정청

정청은 전면 3칸, 측면 2칸으로 전체 규모는 약 9.4m×6.4m이다. 동·서익현에 비하여 대형의 잘 다듬어진 초석을 사용하였다. 정청 바깥쪽의 초석 10개(A5-8, B5, B8, C5-8)는 모두 적심석이 받치고 있으나, 안쪽의 초석 2개(B6-7)는 적심석을 두지 않고 소형의 방형 석재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동서방향의 열은 대체로 맞추었으나, 남북방향의 열은 맞추지 않고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 놓여진 상태인데, 이 초석들은 마루를 놓을 때 사용된 동바리돌로 판단된다. 〈사진 IV-7〉 이러한 전체 초석배치로 볼 때, 정청은 내부 기둥이 없는 통칸구조이며, 내부는 마루를 깔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마루는 일제 강점기에 시설된 것으로 원래 정청에는 마루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마루가 놓이면서 C6-7 사이의 디딤돌(도면 IV-4 ㉔)도 함께 놓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디딤돌의 형태를 살펴보면 잘 치석된 장대석에 윗면의 북쪽을 단으로 처리하였는데, 이와 같은 처리방법은 돌계단이나 기단의 최상부의 부재인 갑석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마루를 설치하였을 때 새로 치석한 것이라기 보다 기존의 석재를 옮겨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IV-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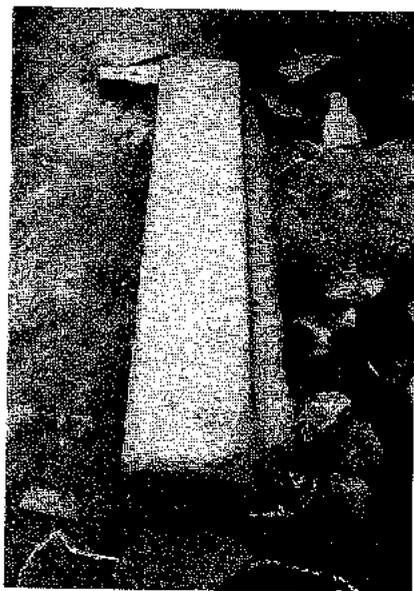
한편, 적심석을 노출시키는 과정에서 건물 후면의 서쪽 헐간인 A5-6 사이에 깔려 있는 전돌(도면 IV-4 ㉕)이 노출되었다. 전돌은 모두 7개로 건물 후면의 A5 초석 주위 및 A6 서쪽에 일렬로 늘어선 상태로 노출되었는데, 초석의 초석면보다 약간 낮은 레벨에 깔려 있다. 〈사진 IV-10〉 많은 부분이 유실되어 정청의 바닥구조가 전돌이었다고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만 전돌이 발견되는 점으로 미루어 정청의 바닥구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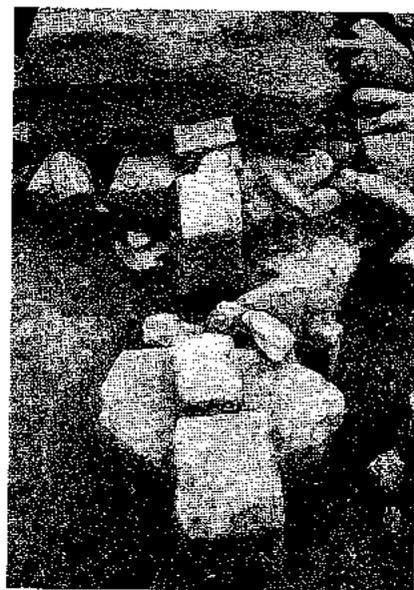
〈사진 IV-8〉 정청 유구 (공중촬영)

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정청에서 노출된 전돌은 한쪽 면이 거칠지만, 반대 면은 비교적 매끄럽게 되어 있고, 그 위에 황색점토를 덧발라 의장효과를 낸 것이 특징인데, 정청 바닥에서 발견될 당시 거친면이 위를 향하여 놓여 있었다. 〈사진 IV-11〉 정청 바

닥에 전돌을 깔 당시에는 매끄럽게 된 부분이 위를 향하던 것이 후대에 정청의 구조 변경시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A6 초석 서쪽에 일렬로 늘어선 전돌들은 그 크기나 위치, 노출상태 등으로 미루어 정청의 바닥으로 시설된 전돌이라기 보다 교막 이용 전돌로 보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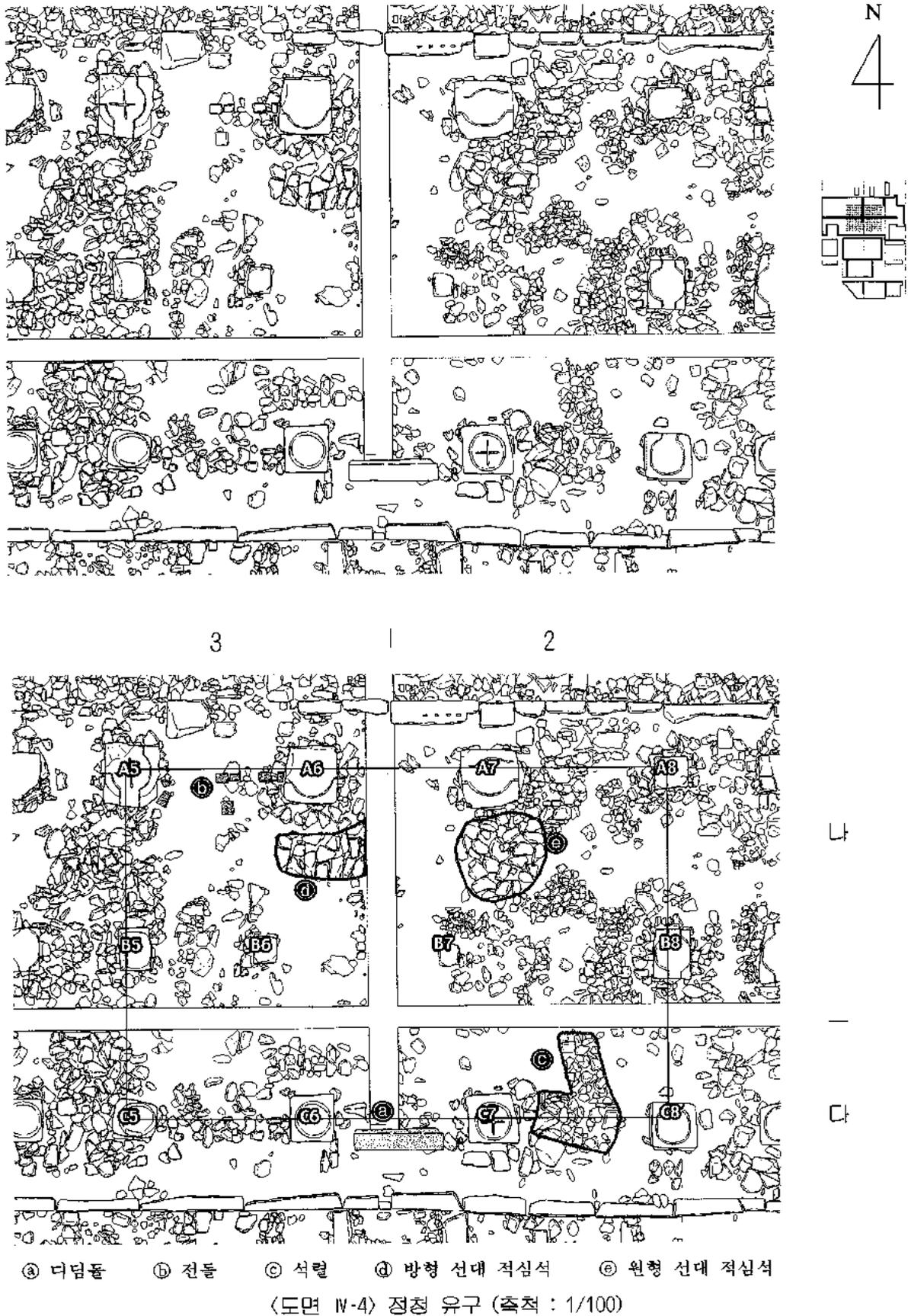


〈사진 IV-9〉 C6-7 사이 디딤돌 (다2-3·동→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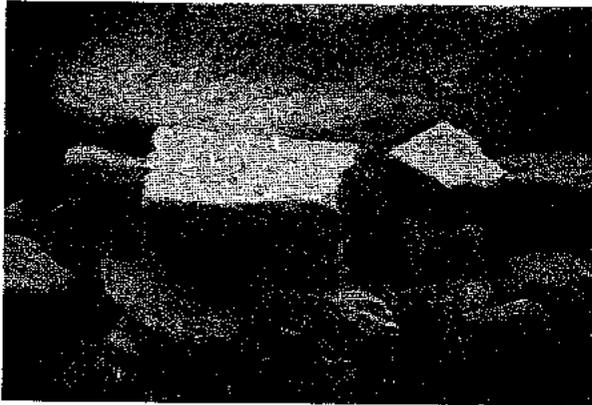
〈사진 IV-10〉 A6 서쪽 전돌 (다3·서→동)

IV. 유구 현황 및 분석



며, 이는 정청의 후면이 전면이나 측면과 같은 홍살문이 아닌 심벽 구조임을 암시한다. 즉, 정청의 내부는 처음 바닥에 전돌이 깔려 있다가 나중에 마루를 깔았으며, 이때 동바리들이 놓여진 것으로 해석된다.

초석과 적심석처럼 건물의 하중을 직접 받는 유구 외에도 부정형의 석재군 및 석렬이 노출되었다. 석렬<도면 IV-4 ㉔>은 건물 전면의 동쪽 협칸인 C7-8에 위치하는데, C7 초석과



〈사진 IV-11〉 A5 남동쪽 전돌 (L13·남동→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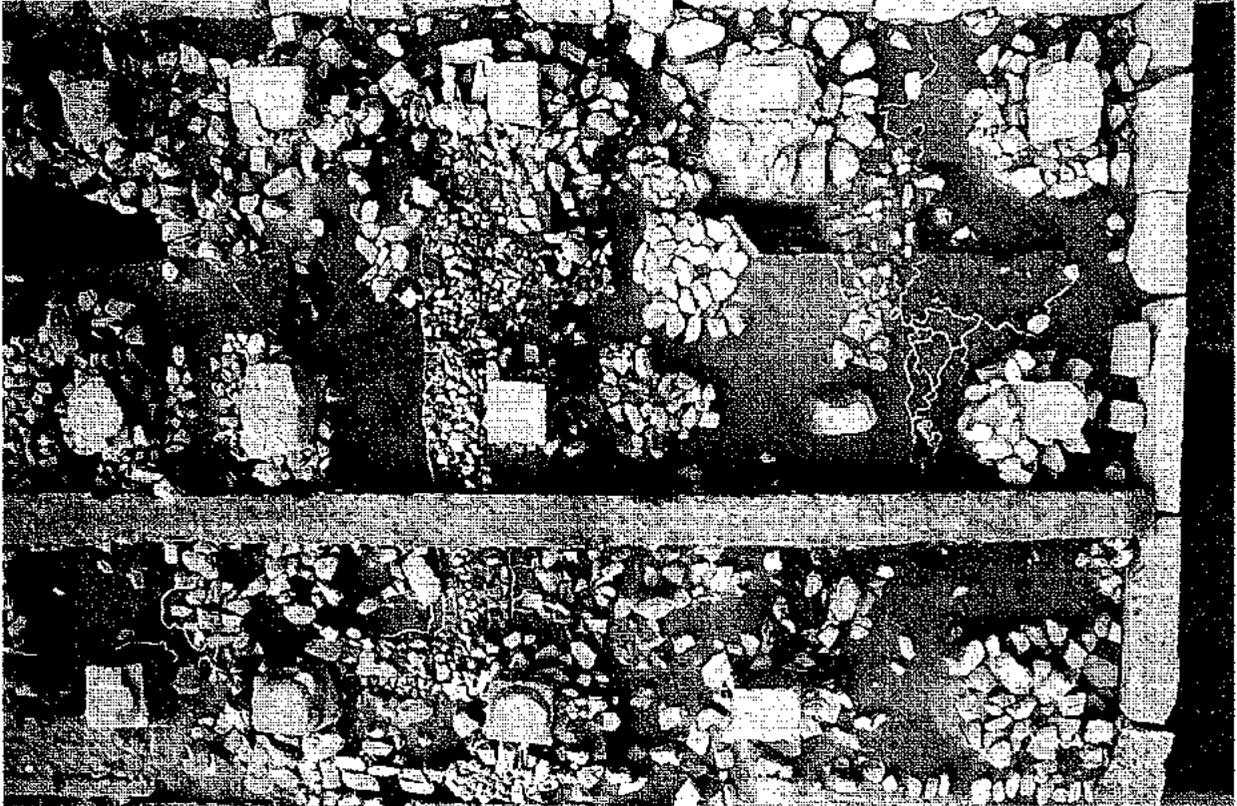
〈사진 IV-12〉 C7-8 사이 석렬 (D2·남→북)

접하여 동쪽으로 이어지다가 다시 북쪽으로 꺾여 이어지고 있다. 〈사진 IV-12〉 이 석렬의 정확한 용도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또한 건물 후면의 A6-7 초석 남쪽에 초석열과는 다른 축의 적심석이 노출되었는데, 초석열의 적심석보다 약 10cm 정도 낮은 레벨에 위치한다. 서쪽의 것<도면 IV-4 ㉓>은 방형이고, 동쪽의 것<도면 IV-4 ㉔>은 원형이다. 이들 적심석은 단단하게 다져진 적갈색 점토층 위에 노출되어 있으며 선대 유구로 판단된다.

1-2. 동익헌

동익헌은 전면 3칸, 측면 2칸이며, 약 8m×6.4m의 규모로서 정청보다는 약간 작다. C12 초석은 망실되었는데, 마당에서 또다른 초석이 발견되어 원래 주건물지에 있던 것이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며, 마당 초석의 주위가 교란된 상태임이 확인되어 이와같은 추정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사진 IV-14〉 동익헌의 초석들은 정청에 놓인 초석들보다 약간 크기가 작다. B11 초석은 전체 초석열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적심석이 없고, 크기도 작은 것으로 미루어 마루를 놓을 때 사용된 동바리들로 판단된다. 〈사진 IV-15〉 이러한 초석배치를 놓고 볼 때, 어칸과 좌협칸인 10-12칸에는 마루가 놓여졌던 것으로 파악되며, 우협칸인 9-10칸은 온돌방의 구조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A10과 A11 초석 사이의 남쪽에 초석열과는 다른 축의 적심석<도면 IV-5 ㉑>이 노출되었는데, 10cm 정도 낮은 레벨에 위치하며, 원형이고, 단단하게 다져진 적갈색 점토층 위에 놓여 있었다. 이 적심석은 벽제관이 이 건되기 이전의 선대 유구로 판단된다.

IV. 유구 현황 및 분석



〈사진 IV-13〉 동익현 유구 (공중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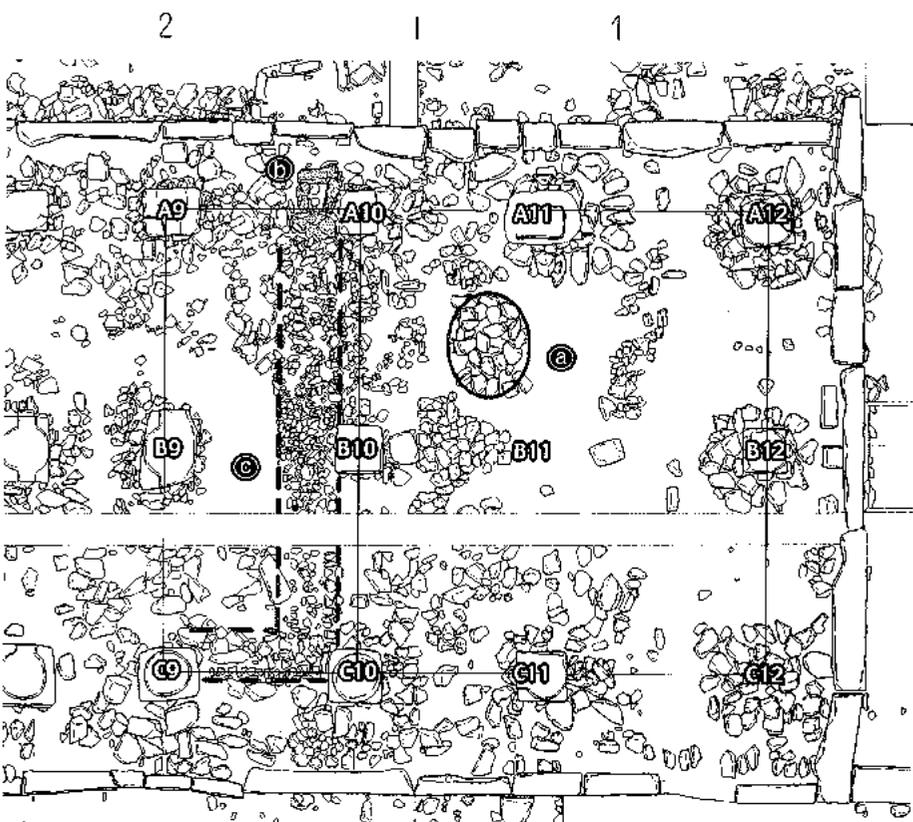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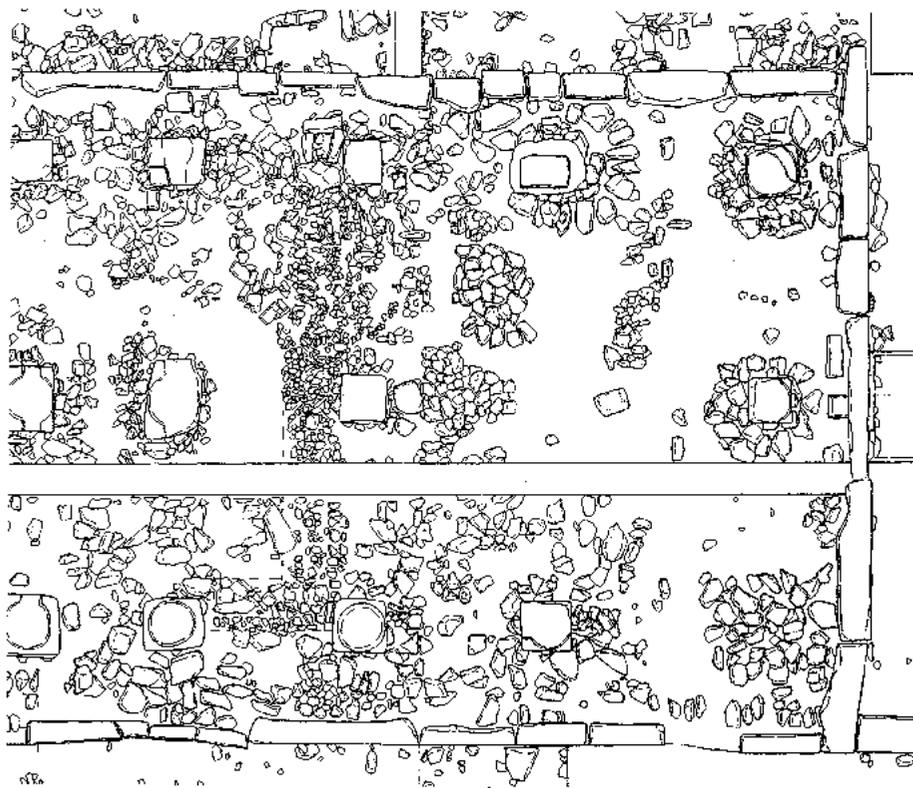
우협칸에서는 온돌시설로 추정되는 유구가 노출되었다. 〈사진 IV-16〉, 〈사진 IV-17〉 아궁이 또는 굴뚝으로 추정되는 유구〈도면 IV-5 ㉞〉는 '┌' 형태로 A10 초석의 서측면에 접하여 위치하며, 이 유구로부터 기와열〈도면 IV-5 ㉟〉이 남쪽으로 이어지다가 건물 전면에서 다시 '└'자 형태로 꺾어지면서 C9 초석까지 연결된다. 아궁이 또는 굴뚝으로 추정되는 유구는 길이 20cm의 치석한 장방형의 석재 3매로 이루어졌으며, 동서 방향의 석재 상면에는 치석하지 않은 56×40cm 크기의 판석을 놓았다. 그 내부에는 검게 그을은 제충이 강하게 남



〈사진 IV-14〉 마당 초석 노출 (리3·서→동)



〈사진 IV-15〉 B11 초석 (나1·남동→북서)



ⓐ 원형 선대 적심석 ⓑ 아궁이 또는 굴뚝 ⓒ 연도

〈도면 IV-5〉 동익헌 유구 (축척 : 1/100)

아 있었다. 기와열은 연도 혹은 고래의 기초부로 추정되지만 다른 사례가 없어서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다. 기와열의 잔존 상태는 길이 6.4m, 폭 70~80cm이며, 바닥에 황색 점토를 깔아 기와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점토 위에 8~16cm 크기의



〈사진 IV-16〉 온돌 추정 유구 (L12·북→남)



〈사진 IV-17〉 온돌 추정 유구 (L12·남→북)

기와편을 바깥면이 위로 오도록 2열 1단으로 깔았으며, 그 사이 공간은 기와편 4~6매가 세워진 상태로 채워져 있었다.

〈사진 IV-18〉 이 기와열 위에 흩어진 채 노출된 와편들로 볼 때, 기와편 몇 매가 더 위로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원래의 높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2열의 기와열 사이 공간으로 화기(火氣)가 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와열의



〈사진 IV-18〉 B10-C10 사이 기와열 (L12·동→서)

상부 구조물이 남아 있었으면, 동익헌의 난방체계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겠지만, 현재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익헌의 전면 3칸 중 정청 쪽 1칸을 온돌방으로 사용하였으리란 점이다.

1-3. 서익헌

서익헌은 동익헌과 마찬가지로 전면 3칸, 측면 2칸이고, 약 8m×6.4m의 규모이다. 건물 내부의 구조는 좌협칸인 3-4칸이 방이고 나머지는 마루로서 정청을 중심으로 동익헌의 내부 배치와 대칭된다. 동익헌에서 발견되었던 아궁이 또는 굴뚝으로 추정되는 유구는 남아 있지 않으나, 기와열<도면 IV-6 ㉓>이 대칭적으로 같은 위치에서 일부 노출되었다. <사진 IV-20>, <사진 IV-21>, <사진 IV-22>

기와열의 북쪽 부분은 많이 파괴되어 기와열의 윤곽만이 바다 트층에서 확인되며, 일부 남아 있는 기와열 상면에는 구들장으로 판단되는 불에 그을은 석재<도면 IV-6 ㉔> 1매가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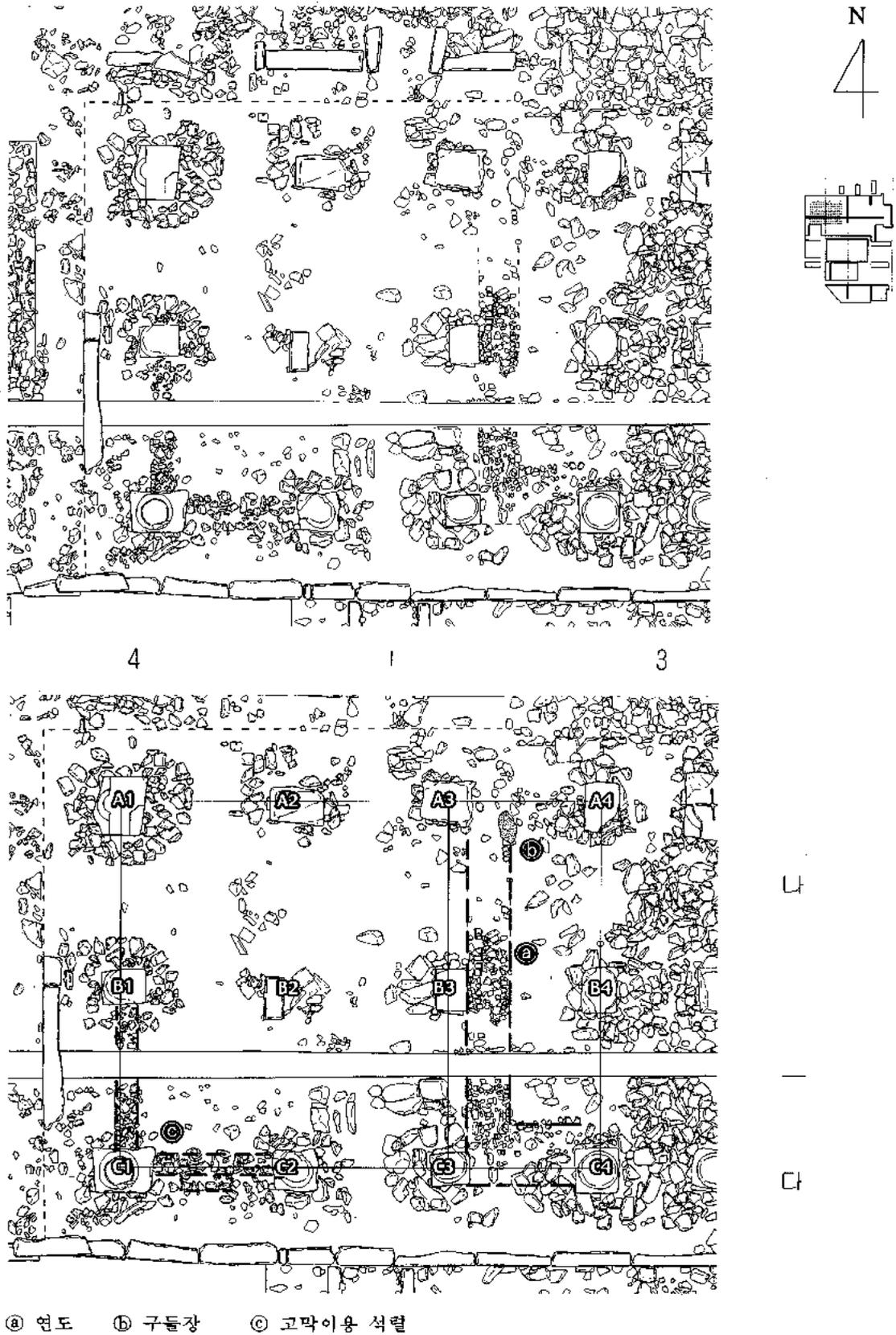
석재는 30×54cm 크기의 자연석이며, 남북 장축으로 놓여 있다. <사진 IV-23> 기와열<도면 IV-6 ㉓>은 B3 초석의 동쪽에 일부 잔존하고, B3과 C3 사이에 남아 있다.

C1과 C2 사이, C1과 B1 사이에서 초석면보다 낮은 레벨의 'L'자 형태의 석렬<도면 IV-6 ㉔>이 노출되었는데, 석렬의 폭은 50~70cm이며, 15cm 내외의 잡석을 2열로 놓았다. 이 석렬은 현재로서 고막이와 비슷한 용도의 석렬로 추정되며, 이 칸이 마루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마루 밑 벽체의 기초로 판단된다. <사진 IV-24>, <사진 IV-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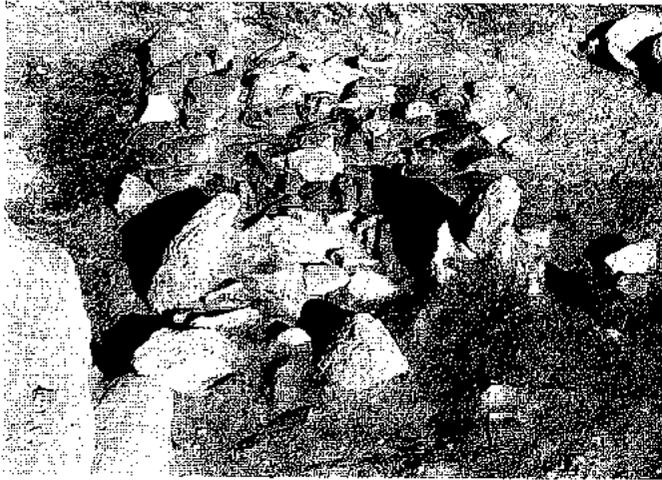


<사진 IV-19> 서익헌 유구 (공중촬영)

IV. 유구 현황 및 분석



〈도면 N-6〉 서익헌 유구 (축척 : 1/100)



〈사진 IV-20〉 B3-C3 사이 기와열 (나3·남→북)



〈사진 IV-21〉 B3 동쪽 기와열 (나3·남→북)



〈사진 IV-22〉 서익헌 은돌 유구 (공중촬영)



〈사진 IV-23〉 추정 구들장 (나3·서→동)



〈사진 IV-24〉 B1-C1 사이 석렬 (나4·서→동)

1-4. 기단

주건물지의 기단은 전면으로 길게 기단을 쌓고 건물이 놓인 부분은 그 보다 한 단 높게 하여 단차이를 둔 형식이다. 건물이 놓인 부분의 기단 동서길이는 약 32m이고, 남북길이는 약 9.2m로 측정되었다. 기단의 전면은 장대석을 3단으로 쌓아 올렸으며, 후면과 좌·우측면은 1단으로 마무리하였다. 전면 기단<도면 IV-7 ㉔>은 3장의 장대석을 쌓아 올린 세벌대이며, 장대석을 따로 두지않았고, 맨 아랫단의 장대석 하부에 잡석 및 폐와를 다져 넣어 지반을 강화하였다. 기단의 축조방식은 수평줄눈을 일직선으로 맞춘 바튼층 쌓기로 하였고, 수직줄눈은 막힌 줄눈으로 하였다. <도면 IV-8>, <사진 IV-26>

1931년도의 『朝鮮古蹟圖譜』에 전하는 사진자료에 의하면 장대석 위에 턱을 내어 갑석을 올린 기단 양식이었음이 확인되는데, 현재 잔존하는 갑석은 없다. 다만 초석의 주좌 상면과 면석 상면에 대한 레벨 측정치가 약 40cm 정도 차이가 나고, 초석면과 면석 상면의 레벨차는 30cm 가량 나므로 대략 20~30cm의 높이를 가지는 갑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IV-9> 기단 전면의 잔존 높이의 최대치는 1.4m로 측정되었다. 건물 전면의 기단 장대석은 일부 없어지고 현재 2개가 잔존하는데, 건물 전면 기단의 장대석 축조방식에 비추었을 때, 모두 2장이 없어진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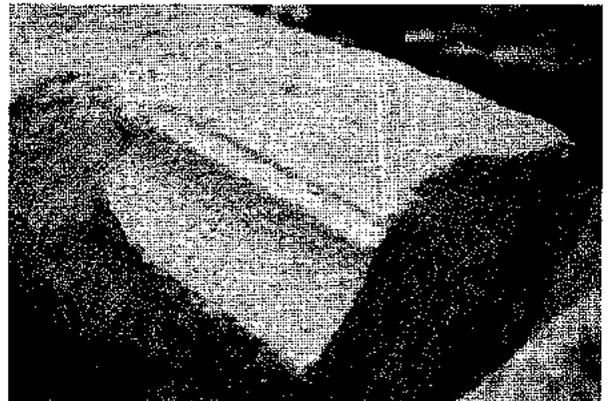
<사진 IV-25> C1-C2 사이 석렬 (D4·남→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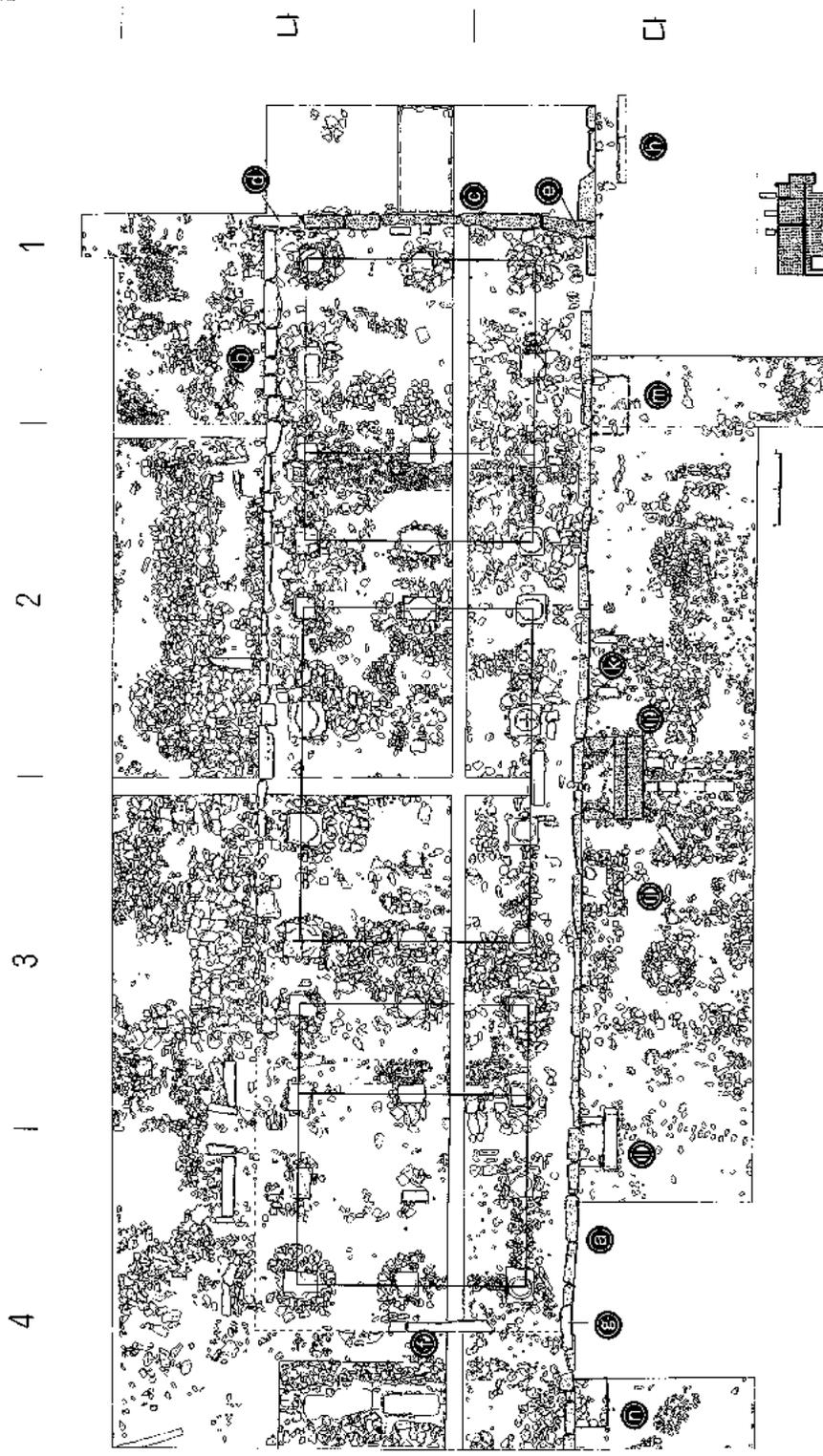
<사진 IV-26> 주건물지 전면 기단 부분 (D3·남→북)



<사진 IV-27> 주건물지 기단 (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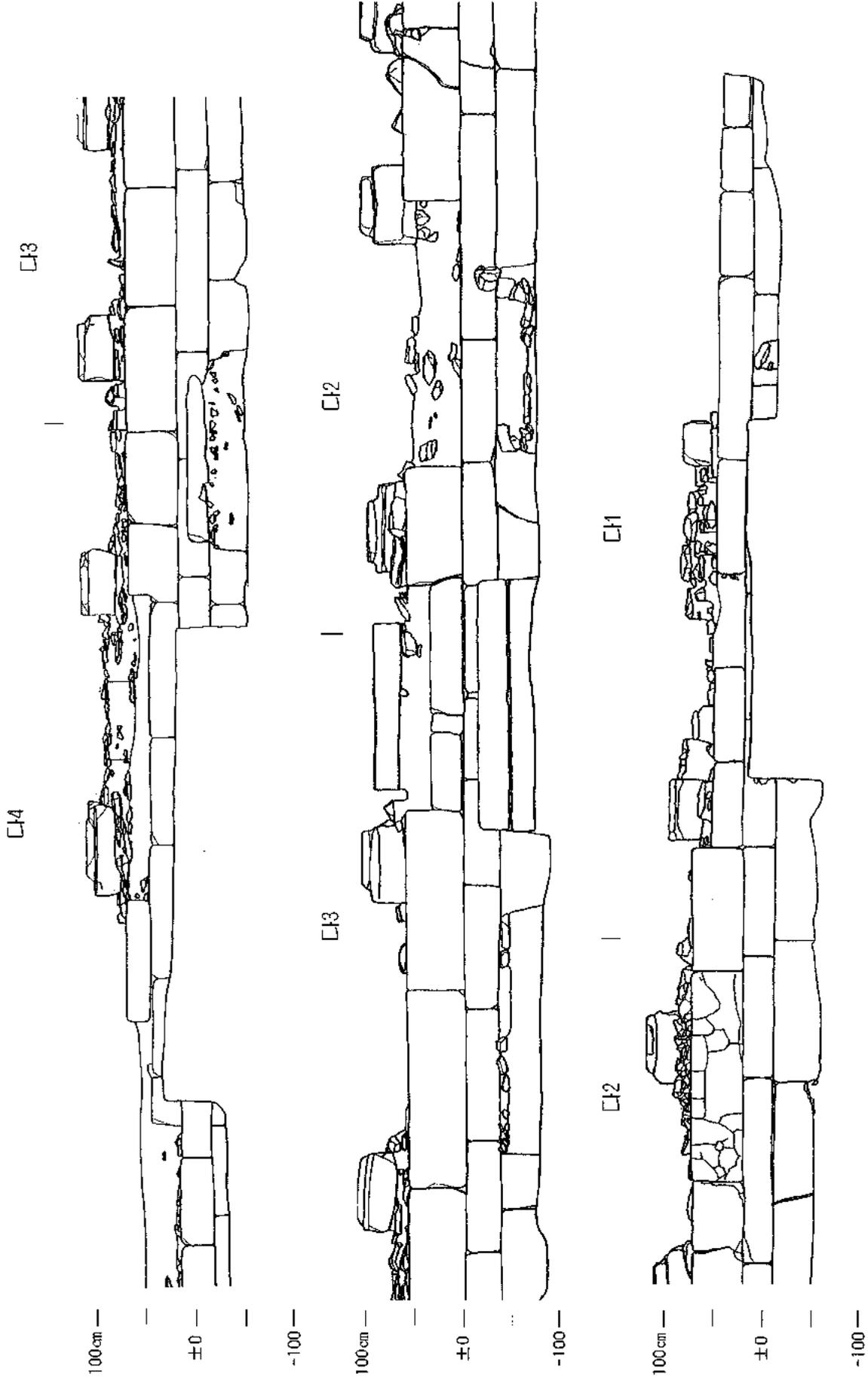


<사진 IV-28> 주건물지 후면 기단 일부 상세 (남동→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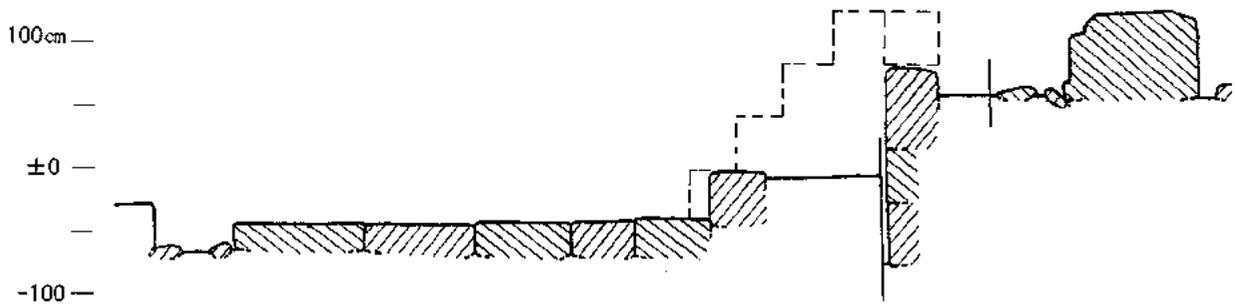


〈도면 N-7〉 주민몰지 기단 및 계단 유구 (축척 : 1/200)

- ㉓~㉔ 기단
- ㉕ 장대석
- ㉖~㉗ 계단



〈도면 IV-8〉 주건물지 기단 및 계단 유구 입면도 (축척 :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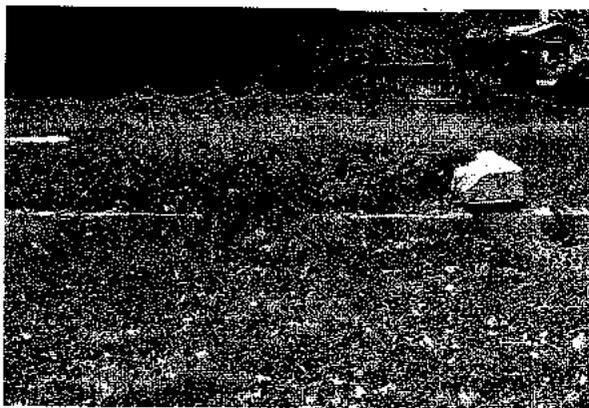
〈도면 IV-9〉 주거물지 정청 앞 중앙 계단 단면도 (축척 : 1/60)

로 보이며, 원래는 26매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대석의 길이는 1~1.5m의 것이 15개로 가장 많으며, 1.5m가 넘는 것도 5개가 된다. 장대석의 두께는 28~35cm이고, 장대석의 높이는 30~55cm의 범위에 드는데, 상단의 경우 대부분이 55cm이다.

전면 기단이 3단의 장대석입에 비해 후면과 좌·우측면의 기단은 1단의 기단 장대석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전면과 후면의 축조방식에 차이가 나는 것은 북쪽의 산사면을 등지고 있는 건물의 입지조건 때문이다. 즉, 건물 조성 시에 이러한 지형 여건 때문에 건물이 들어설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산사면의 일부를 절개하여 지반을 조성하고, 기단을 쌓을 때 건물 전면은 높은 기단을 두어 건물의 위엄을 유지하고, 건물 후면은 자연 경사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품을 덜 들이면서도 전체적인 지형과의 조화를 꾀한 것으로 여겨진다.

후면의 기단〈도면 IV-7 ㉞〉 중 A6 초석 북쪽 부근에서 동쪽 끝까지의 기단은 잔존하나, 나머지 부분은 유실되었다. 〈사진 IV-27〉 잔존하는 기단장대석은 17개로 70~140cm 내외의 비교적 작은 석재를 사용하였다. 그 중에는 쇠시리를 새긴 장대석이 보이기도 하며, 그 쇠시리의 방향이 건물 안쪽으로 향하여 놓인 것으로 미루어 다른 건물에 사용되었던 구(舊)부재를 이용하여 기단을 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IV-28〉

동쪽 기단〈도면 IV-7 ㉟〉은 5개의 장대석이 이어진 형태인데, 1단으로 되어 있다. 장대석은 1.5×0.3m 내외의 크기이며, 치석된 석재이지만 장대석의 다듬은 형태가 균일하지 못하



〈사진 IV-29〉 주거물지 기단 전면과 동측면이 만나는 부분 (대·남→북)



〈사진 IV-30〉 주거물지 기단 전면과 서측면이 만나는 부분 (대·남서→북동)

고, 기단 북동쪽 모서리의 경우 장대석<도면 IV-7 ㉔>이 북쪽 기단의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반듯하게 마무리되지 못하였고, 남동쪽 모서리의 경우 장대석<도면 IV-7 ㉕>의 마구리면이 기단 전면과 나란히 놓여져 있어 현재의 상태가 원형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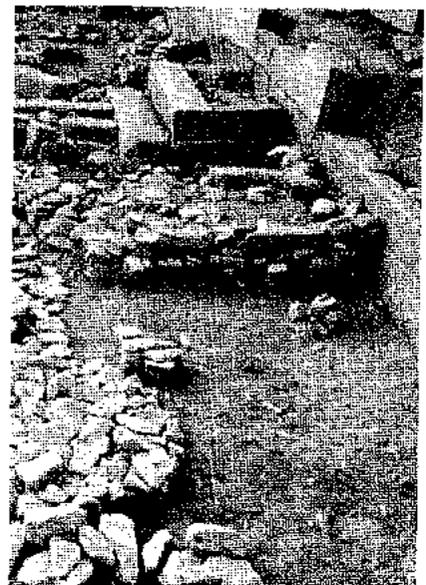
반대편의 서쪽 기단<도면 IV-7 ㉖>은 장대석 1개 만이 남아있었고, 남서쪽 모서리의 경우, 동쪽 기단과는 반대로 기단 전면과 나란히 하는 장대석<도면 IV-7 ㉗>이 놓여 있었다. <사진 IV-29>, <사진 IV-30> 앞에서, 기단 전면에 갑석이 유실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동·서쪽 기단과 후면의 기단이 전면과 같은 높이로 시설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1단이 아닌 2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건물지 전면 기단의 동쪽 끝부분에서 보호철책 밖으로 이어지는 장대석 유구<도면 IV-7 ㉘>가 발견되었는데, 전면 기단 유구의 일부인지 아니면 다른 유구의 일부인지는 이번 발굴 조사에서는 밝힐 수 없었다. <사진 III-20>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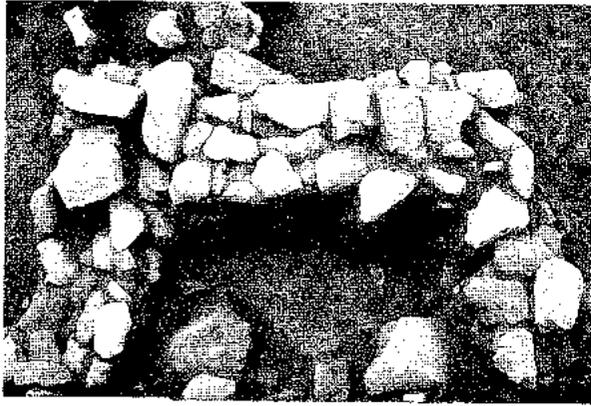
1-5. 계단

건물 전면에는 4개의 계단이 노출되었는데,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까지 포함시키면 모두 7개의 계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청 앞에 3개와 동·서익현의 어칸 앞에 각각 1개, 그리고, 전면 기단 동서 양끝쪽에 2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청 앞의 중앙 계단<도면 IV-7 ㉙>은 2단이 노출되었는데 계단의 잔존 높이는 50cm이다. 잔존 계단의 상단 디딤돌은 240×38×28cm의 크기이고, 하단 디딤돌은 240×48×20cm 크기의 장대석을 놓았다. 계단 측면 상단의 옆막이돌은 80×32×28cm의 크기이고, 하단의 옆막이돌은 120×32×20cm의 석재를 놓아 평면에서 보았을 때 '□' 형태로 남아 있다. 노출된 계단의 상면과 면석 상면의 레벨 차이가 60cm 이상 나고, 계단 디딤돌의 높이가 25~30cm 정도이므로 위에 갑석이 1장 더 있었을 것까지 감안하면 현 노출면 위로 3단 정도 더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IV-9>참조, <사진 IV-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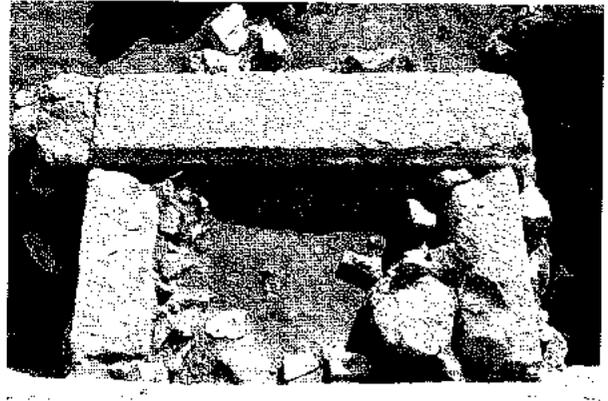
중앙 계단 서쪽 계단 유구<도면 IV-7 ㉚>는 계단의 적심석으로 추정되는 유구로 계단석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중앙 계단보다 더 높은 레벨에서 계단이 시작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계단 조성 시기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동쪽 계단 유구<도면 IV-7 ㉛>는 계단석 옆막이돌과 그 적심석 일부로 추정되는데, 서쪽 계단<도면 IV-7 ㉜>과 같이 중앙 계단보다 한 단 정도 높은 레벨에서 계단이



<사진 IV-31> 정청 앞 중앙 계단과 동측 계단 (D123·동→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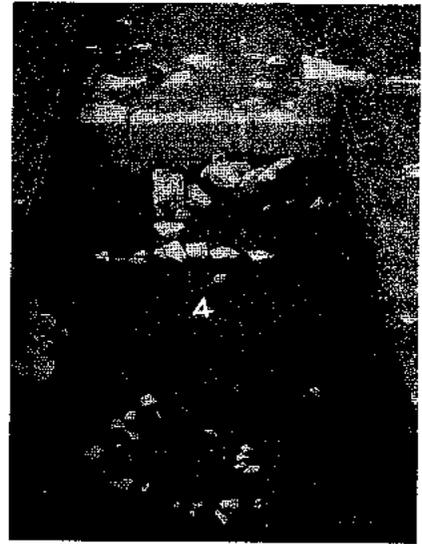
〈사진 IV-32〉 정청 앞 서측 계단 (다3·북→남)



〈사진 IV-33〉 서익헌 앞 계단 (다3-4·북→남)

시작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IV-8〉참조, 〈사진 IV-31〉, 〈사진 IV-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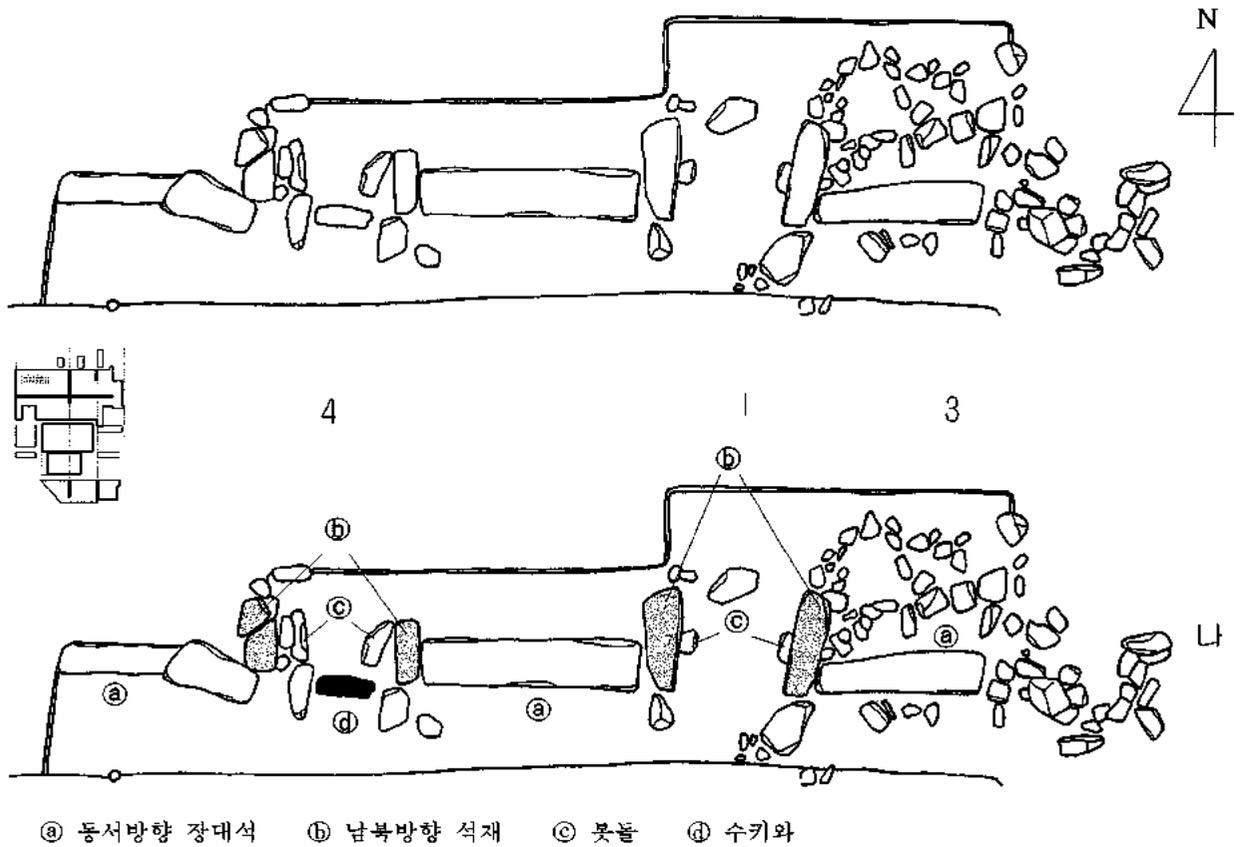
서익헌 앞의 계단〈도면 IV-7 ①〉은 중앙 계단과 동일한 평면 형태로 노출되었는데 계단의 잔존 높이는 60cm이고, 사용된 석재는 디딤돌의 크기가 175×40×20cm이고, 옆막이돌의 크기가 60×20×20cm로서 중앙 계단에 비해서 현저히 작다. 〈사진 IV-33〉 2개의 계단 모두 계단의 기초부까지 조사하였는데, 중앙 계단의 기초부는 기단 면석의 기초부와 같은 레벨에 위치하지만, 서익헌 앞 계단의 기초부는 중앙 계단보다 약 40cm 높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계단의 조성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동익헌 앞의 계단〈도면 IV-7 ②〉은 기단 면석과 80cm의 거리를 두고 디딤돌 1개만이 노출되었다. 전면 기단의 서측 앞에서도 계단의 흔적〈도면 IV-7 ③〉이 확인되었는데, 계단의 기초부로 생각되며, 잔존 계단 기초부의 전체 크기는 90×90cm이다. 〈사진 IV-34〉 이와 대칭되는 지점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장대석 유구〈도면 IV-7 ④〉가 노출되었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사진 IV-34〉 주건물지 밖 서쪽 앞 계단 (다4·남→북)

1-6. 기타

건물 후면의 기단 바깥 부분에는 넓게 석재가 깔려 있었는데, 대부분 자연석으로 암질과 석재의 크기가 균일하지 못하며, 부분적으로는 현대의 적벽돌과 같은 폐기물들이 다수 섞여 있어서 교란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장이나 배수시설 같은 부속시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석재가 깔리지 않은 지역을 굴토하여 조사한 결과, 건물 후면의 기단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70cm의 범위까지 적갈색 점토층이 노출되었으며, 그 바깥 부분은



〈도면 IV-10〉 선대 아궁이 유구 (축척 : 1/60)

갈색 사질층이 깔려 있었다. 토층조사 결과 적갈색 점토층은 갈색 사질층을 파내고 채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물지 조성시 기단 장대석이 놓일 자리를 먼저 파내고, 적갈색 점토를 채운 뒤 장대석을 올려 놓음으로써 장대석을 지면에 잘 고정시키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불규칙하게 깔린 석재들 사이에는 남북방향으로 놓인 장대석이 노출되어 있었다. 장대석 주변의 석재를 일부 걷어내고 장대석의 하단까지 노출시키는 과정에서 동서 방향의 장대석 3개〈도면 IV-10 ①〉가 일정 간격을 두고 나란히 놓여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장대석은 길이 172cm, 폭 36cm의 크기이며, 장대석 사이의 폭은 약 136cm인데 각 장대석의 동서 끝부분에 길이 50cm, 폭 20cm 내외의 석재〈도면 IV-10 ②〉를 남북방향으로 놓아 동서 폭 86cm의 공간을 만들었다. 남북방향의 석재 안쪽에 길이 44cm, 폭 40cm, 두께 12~14cm 내외의 판석을 세워서 아궁이의 붓돌〈도면 IV-10 ③〉을 만들고, 남쪽에 완형의 수키와 1매〈도면 IV-10 ④〉를 동서방향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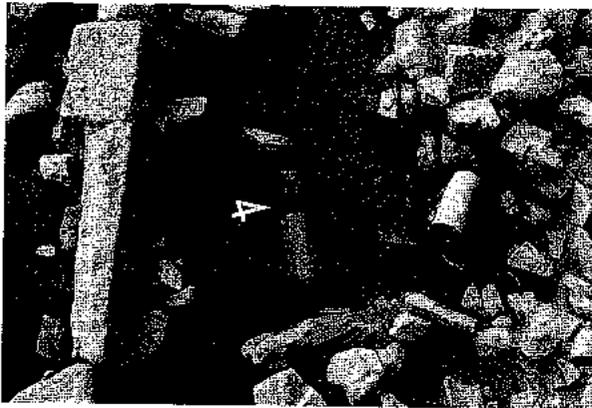
〈사진 IV-35〉 선대 아궁이 (L3-4·동→서)



〈사진 IV-36〉 선대 아궁이 (나4·남→북)



〈사진 IV-37〉 선대 아궁이 (나3·북→남)



〈사진 IV-38〉 선대 아궁이 (나2·동→서)



〈사진 IV-39〉 선대 아궁이 (나4·북→남)

로 바깥면이 위를 향하도록 놓아서 막았다. 붓들 사이의 바닥면에는 검게 그을은 재층이 강하게 남아있다. 〈사진 IV-35〉, 〈사진 IV-36〉, 〈사진 IV-37〉 아궁이는 주건물지 뒷편의 서쪽에서 2개가 노출되었으며, 동쪽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놓인 완형의 수키와가 노출되어서 같은 형태의 아궁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IV-38〉

아궁이와 주건물지의 난방체계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주건물지 후면의 기단과 아궁이 사이에 동서로 탐색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아궁이의 남쪽, 즉 완형의 수키와로 막은 부분의 남쪽에서는 불에 그을은 토층이 확인되지 못하였고, 아궁이가 노출된 암갈색 사질점토층 위로 잡석이 섞인 갈색 사질토가 두텁게 깔려 있다. 단면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갈색 사질토는 수평으로 균일하게 깔려 있는데, 이것은 건물의 기단을 조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일시에 깐 것으로 보이며, 그 위에 갈색 사질점토가 덮여 건물의 지표면을 이루고 있다. 〈사진 IV-39〉

이상과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아궁이는 벽제관이 현재의 장소로 이전되기 이전에 있었던 건물에 사용되었던 선대 아궁이로 판단되는데, 지금의 장소에 벽제관의 주건물지가 들어설 때, 아궁이가 폐기되면서 잡석이 섞인 모래를 깔아 건물 뒷편의 공간에 평탄면을 만들고, 그 위에 장대석을 놓아 건물 후면의 기단을 만든 뒤 기단토를 쌓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주건물지 뒷편에서 노출된 아궁이를 선대 유구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아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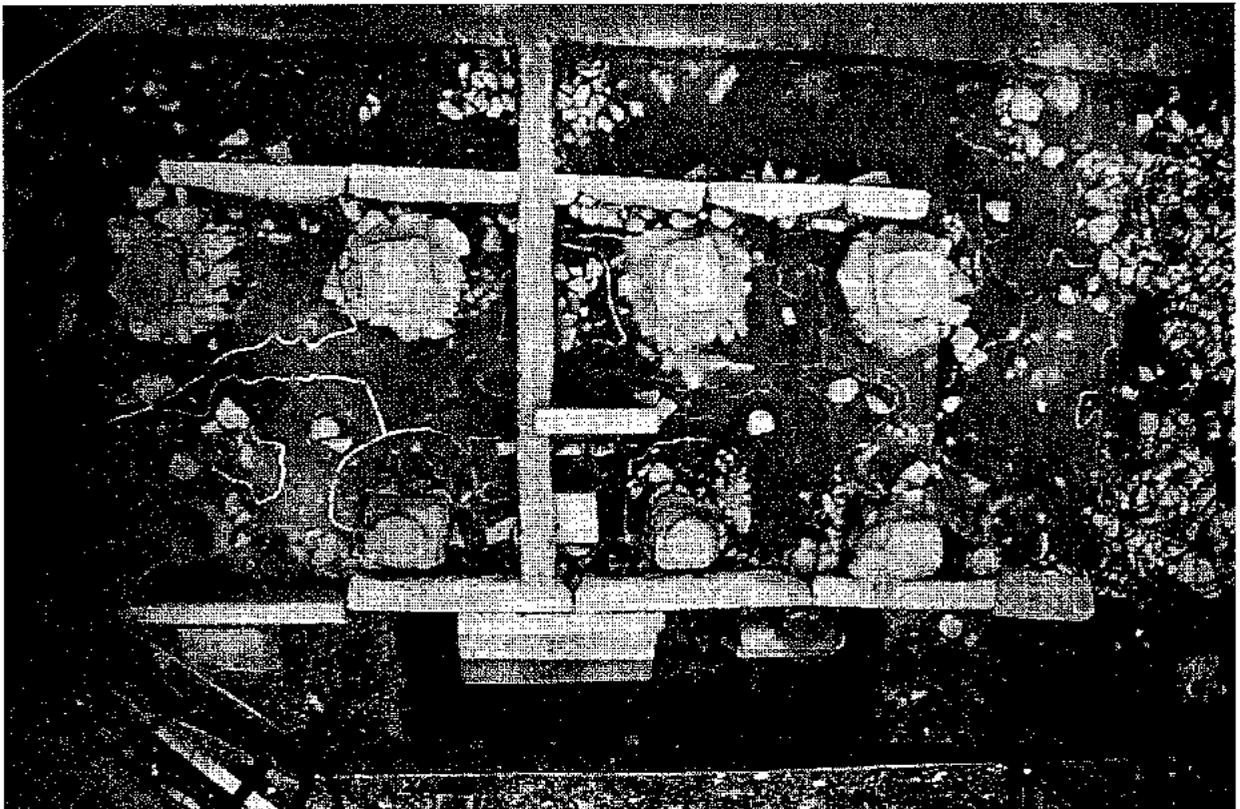
IV. 유구 현황 및 분석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분청사기가 수습되었고, 벽제관지에서 수습된 총 15점의 분청사기가 모두 아궁이 내부 혹은 아궁이 주변에서만 발견되었다는 점과 아궁이에 사용된 수키와가 주건물지의 동쪽 탐색트렌치 조사시 발견된 기와와 동일한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뒷받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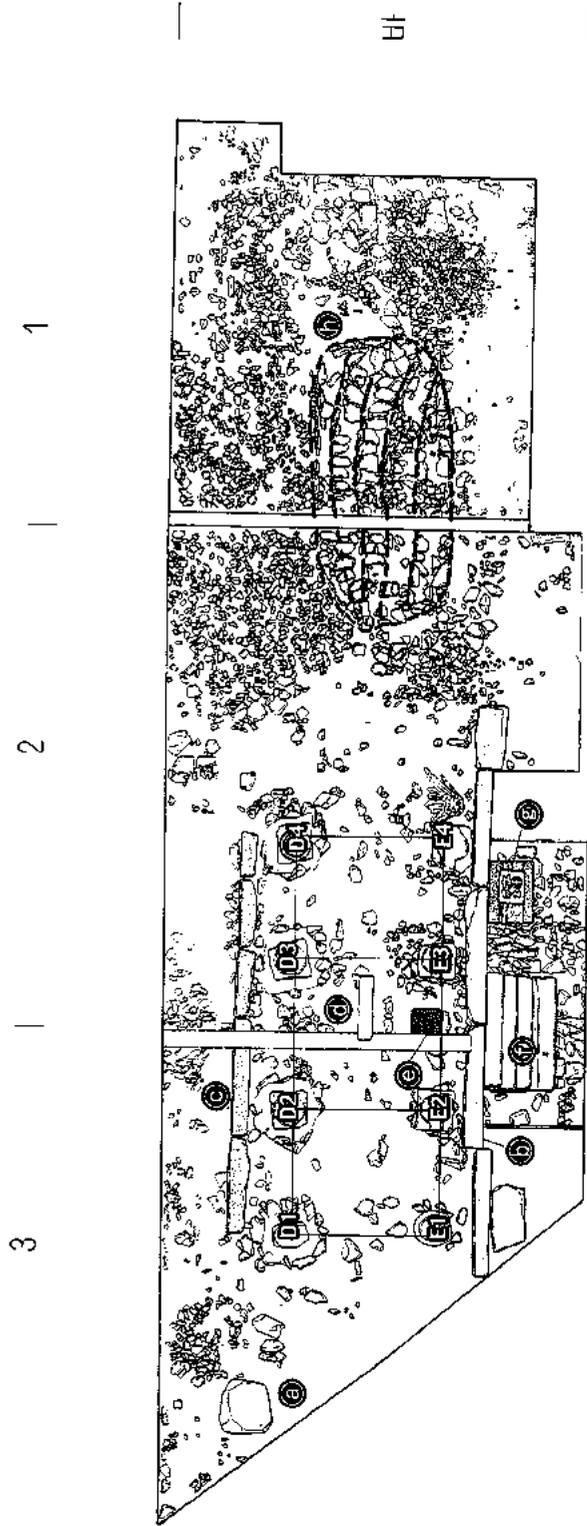
2. 문지

문지에 대한 조사는 적삼면까지 굴토하여 유구의 잔존 상태를 확인하였고, 문지 좌우측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8개의 초석과 적삼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문지 남북의 기단 장대석은 확인되었으나, 문지 동서에서는 기단으로 추정될 만한 유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문지 전면 중앙에는 높이 1m의 계단이 노출되었는데, 모두 4단이 확인되었다. 또, 그 동쪽에는 모두 3단으로 추정되는 계단의 유구 중 2단이 확인되었다. 문지 서쪽은 도로변에 가까이 접하고 있어서, 파괴와 교란이 심하여 담장 등의 유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문지 동쪽에서는 온돌로 추정되는 유구가 노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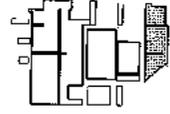
문지에서 출토된 주요유물은 '상' 銘 압기와 1점, '甲申' 銘 압기와 1점 등 명문와의 '蹄' 銘 석물 등이다.



〈사진 IV-40〉 문지 유구 (공중촬영)



- ㉑ 초석 형태의 석재 ㉒~㉔ 기단 ㉕ 동서방향 장대석 ㉖ 방형 석재 ㉗~㉘ 계단 ㉙ 은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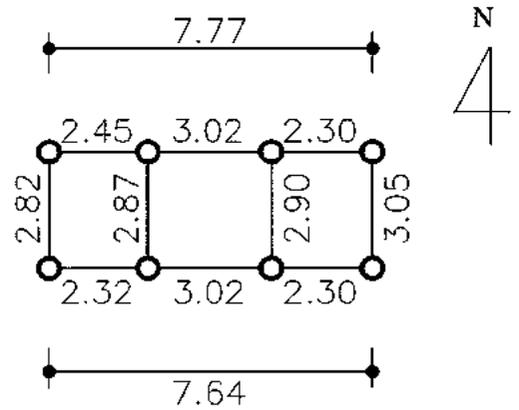
〈도면 W-11〉 문지 유구 (축척 : 1/150)

2-1. 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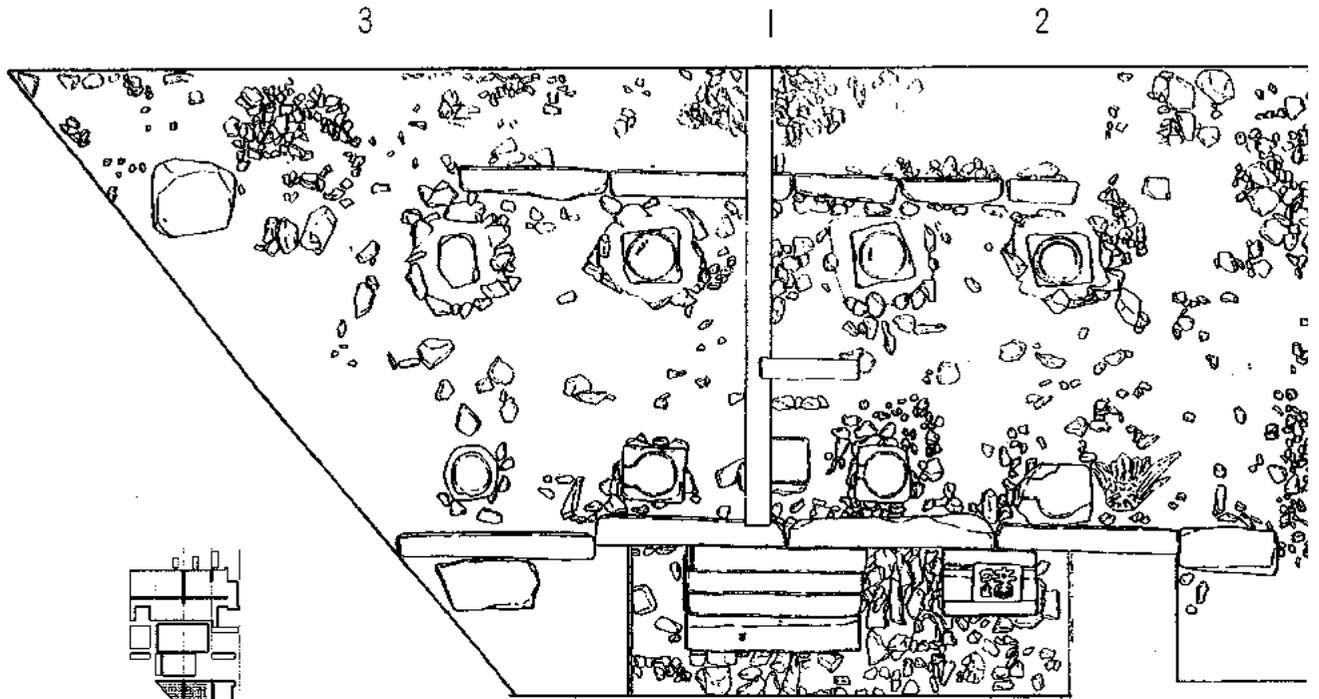
문지는 동서 3칸, 남북 1칸으로 약 7.8×2.9m의 규모이다. 건물의 주칸길이는 어칸이 3m 정도로 가장 크며, 좌·우협칸은 모두 2.3m 정도로 비슷하고, 측면의 주칸 길이는 약 2.9m 정도이다. <도면 IV-12>

초석은 E1 초석을 제외하면 모두 방형 초석으로 주건물지 초석과 마찬가지로 원형의 주좌를 돌을새김한 것(D2-4, E1 4기)과 고막이까지 돌을새김한 것(D1, E2-4 4기)이 있다.

<사진 IV-42> 초석의 크기는 70~80cm 내외이며, 주좌의 지름은 60cm 정도이다. E4 초석은 전체 초석열에서 10cm 정도 남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D1 초석도 남북축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후면의 초석은 적심석과의 사이에 시멘트가 발라져 있어서 후대에 유적보수 과정에서 손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지 서쪽에서 1.1×1m 크기의 석재<도면 IV-11 ㉔>가 노출되었는데 문지의 초석열과는 다른 축에 있고 적심석도 없어 초석인지 알 수 없다.



<도면 IV-12> 문지 주칸길이



<도면 IV-13> 문지 유구 (축척 : 1/100)



〈사진 IV-41〉 문지 (바2. 3·동→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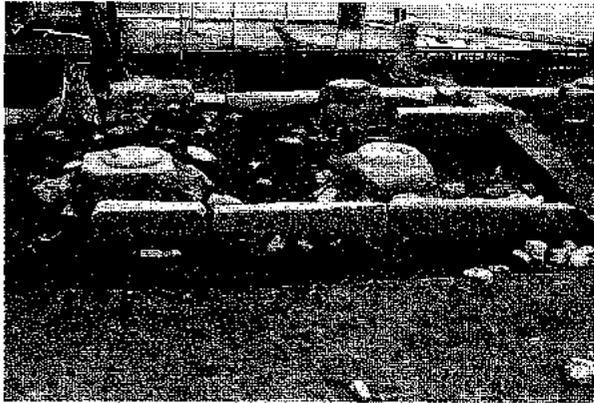


〈사진 IV-42〉 문지 초석 (바2·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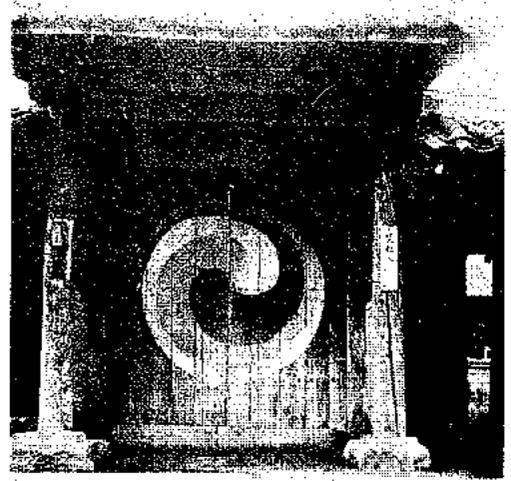
적심석은 원형의 잡석적심으로 지름 140~160cm의 크기이며, 대체로 초석의 2배 정도이다. 문지의 바닥면은 상당 부분 유실되었지만, 일부 잔존 층위에서 확인된 것은 10cm 두께의 갈색 사질점토층이 적심석 상단 높이에 깔려 있어서 구(舊)지표면을 이루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심석은 기둥이 들어설 부분을 파내고 40cm 내외의 잡석을 채워 만들었는데, 적심석 간의 점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적갈색의 점토를 충전시켰다.

2-2. 기단

문지의 기단은 남쪽과 북쪽의 기단만이 확인되었고 동쪽과 서쪽의 기단은 발견되지 않았다. 건물 전면의 기단(도면 IV-11 ㉔)은 장대석을 3단으로 쌓아 올린 세벌대이며, 주건물지와 같이 갑석을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장대석을 따로 두지 않고, 최하단의 장대석 하부에는 잡석 및 폐와를 다져 넣어 기단을 받치도록 하였다. 기단 축조방식은 수평줄눈을 일직선으로 맞춘 바른층 쌓기이며, 수직줄눈은 막힌줄눈이다. 전면 기단의 높이는 약 1.2m이며, 길이 2.5m 내외, 두께 0.6m, 높이 30~40cm의 장대석을 사용하였다. 전면 기단 석렬의 잔존 길이는 10m로 모두 4매의 장대석을 이은 형태인데, 서쪽 끝의 기단석은 남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 기단 석렬의 동쪽 끝에 연결되는 장대석 1개가 노출되었는데, 기단 석렬의 높이보다 약간 낮은 레벨에 위치한다. 건물 후면의 기단(도면 IV-11 ㉕)은 동쪽 끝과 서쪽 끝부분이 유실되었으며, 모두 5개의 장대석이 잔존한다. 길이 1.4~2.3m, 폭 30cm의 석재가 사용되었다. 한편 전면 기단과 후면 기단의 간격은 4.8m로 측정되었다. 건물의 동서기단을 마무리하는 기단 장대석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건물 전면의 기단 석렬이 끝나는 지점에서 건물지의 기단토와 건물 외부의 토층이 변화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기단 안쪽의 적갈색 점토층이 건물 전면의 기단석 동쪽 끝에서 북쪽으로 건물 후면의 기단 부근까지 이어지며, 이 점토층을 경계로 동쪽에는 암갈색의 점질층이 약간 낮은 레벨에서 노출되었다. 이 경계면을 따라 기단석렬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문지 기단의 대략적인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문지 기단의 전체 규모는 10×4.8m 정도로 파악된다. 〈사진 IV-43〉



〈사진 IV-43〉 문지 기단 (B12·북-남)



〈사진 IV-44〉 심문 (『高陽案內』)

어칸인 2-3칸 가운데에는 동서방향의 장대석 1개〈도면 IV-11 ㉔〉가 놓여 있는데, 이는 문이 놓여질 위치와 거의 비슷하게 놓여진 것으로 미루어 이와 관련된 유구로 추정되며, 『高陽案內』의 사진자료를 보면, 문 밑에 보이는 부재가 이 유구가 아닌가 생각되나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또, 그 남쪽 E2-E3 사이에는 방형의 석재〈도면 IV-11 ㉕〉가 놓여 있는데, 앞의 같은 사진에서 분명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위치에 이 유구로 추정되는 것이 보인다. 그러나, 이 유구의 용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사진 IV-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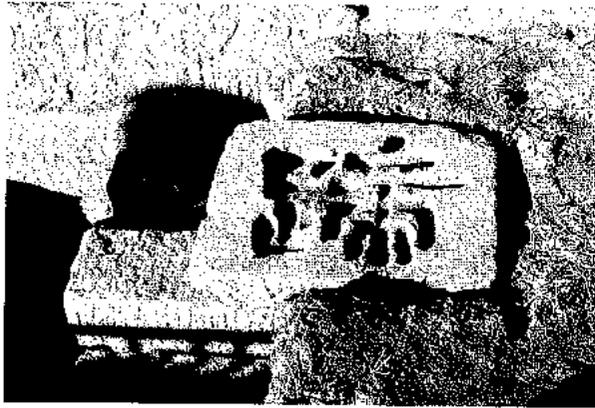
2-3. 계단

문지 전면에는 2개의 계단이 노출되었는데, 건물 어칸과 좌협칸의 전면에 위치한다. 미노출 지역까지 포함시키면 모두 3개의 계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 계단〈도면 IV-11 ㉑〉의 경우 계단석으로 모두 4개의 장대석을 사용하였고, 상단의 기단석을 포함하여 5단으로 구성되었다. 〈사진 IV-45〉 계단의 총높이는 1m이며, 길이는 230cm이다. 계단높이는 아랫단부터 차례대로 20, 28, 20, 30cm이며, 각각의 폭은 아랫단부터 차례대로 40, 20, 30, 30cm이다. 계단의 측면에는 1단부터 3단까지 각각 70cm, 48cm, 23cm 길이의 석재로 옆막이돌을 놓았고 4단은 1개의 디딤돌이 기단 장대석과 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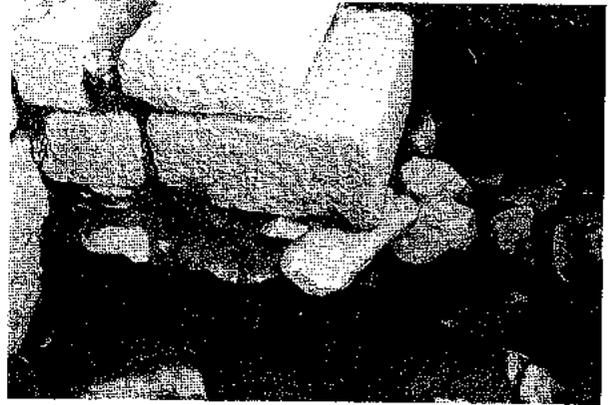
동쪽 협칸 전면의 계단〈도면 IV-11 ㉒〉을 노출시키는 과정에서 계단의 상면에 놓인 ‘躡’銘 석물이 발견되었다. 〈사진 IV-46〉 동쪽 협칸 전면의 계단〈도면 IV-11 ㉒〉은 모두 2단이 노출되었는데 길이 130cm, 폭 14cm



〈사진 IV-45〉 문지 중앙 계단 (B12-3·동-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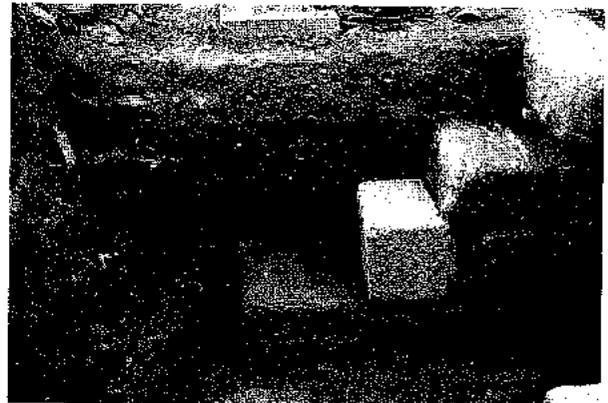


〈사진 IV-46〉 문지 동쪽 계단 위 踰銘 석물 (비2·남→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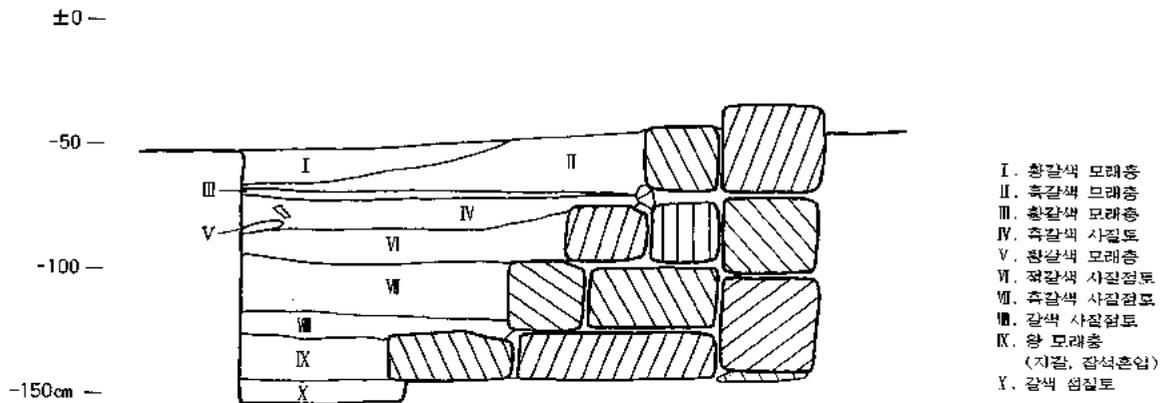
〈사진 IV-47〉 문지 동쪽 계단 하부 기초 (비2·서→동)

내외의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각 단의 높이는 1단이 26cm, 2단이 20cm이다. 가장 윗단은 유실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래는 모두 3단의 계단인 것으로 추정된다. 계단의 아랫단까지 굴토하여 계단의 기초부를 확인하였는데, 바닥면에 잡석 및 와편을 깔아 계단을 받치도록 하였다. 계단 기초부의 레벨 차이는 28cm로 중앙 계단에 비해 동쪽 협칸 전면의 계단이 약간 높는데, 이것은 계단의 조성 시기의 차이로 해석된다. 〈사진 IV-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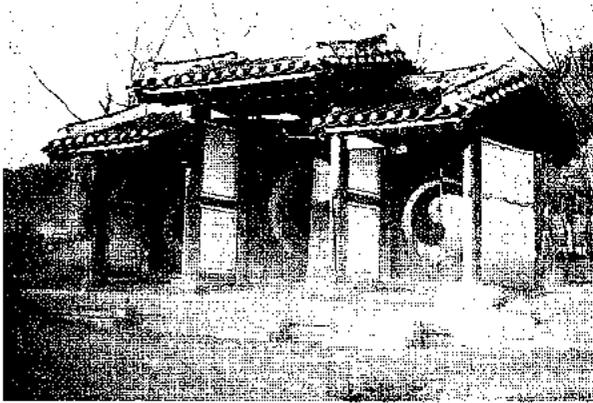


〈사진 IV-48〉 문지 남쪽 트렌치 서벽 토층 (비2·동→서)

계단을 노출시키면서 트렌치 서벽의 토층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는데, 모두 10개의 층으로 파악되었다. 〈사진 IV-48〉 X층은 갈색점질토로 계단의 가장 아랫단을 받치는 계단의 기초부이다. IX층은 자갈 및 잡석이 섞인 굵은 모래층이며, 그 위로 와편이 다수 노출되었다.



〈도면 IV-14〉 문지 계단 서벽 토층도 (축척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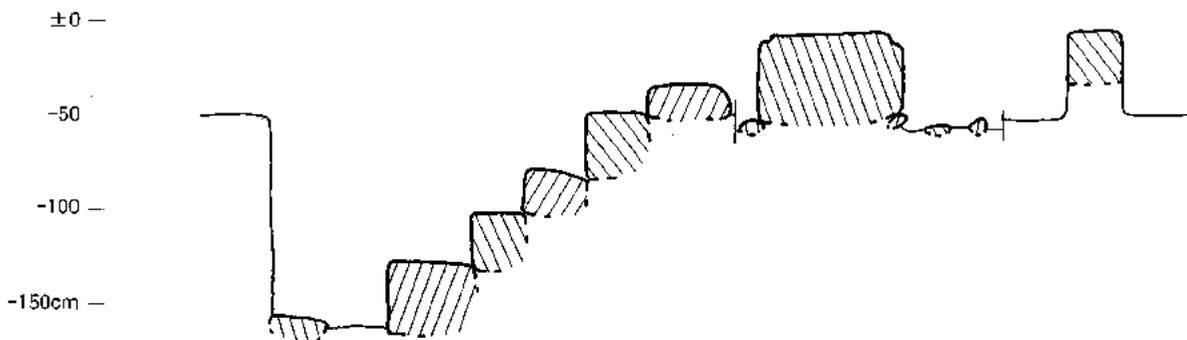
〈사진 IV-49〉 삼문 (『碧蹄館』)

Ⅷ층은 2단의 바닥면으로 단단하게 다져진 갈색 사질점토층이다. Ⅵ층은 검게 부식된 흑갈색 사질점토층이며, 2단의 상면 높이까지 깔려 있다. Ⅴ층은 적갈색 사질점토층이며, 외편이 섞여 있다. V층에서 I층까지는 색깔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모두 모래층이며, 4단의 상면 높이까지 덮여 있는 현 지표면으로서 병뚜껑과 같은 현대의 폐기물이 다수 섞여 심하게 교란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토층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X단과 IX단은 계단을 놓을 때 석재를 잘 고정시

키기 위해 깔았던 계단 기초부로 파악되며, Ⅷ층은 계단이 만들어질 당시의 사용면으로서 문지로의 통행 등에 의해 단단하게 다져진 것으로 이해된다. 즉, 계단의 1단은 처음부터 지하에 묻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는 2단이 1단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문지가 처음 세워질 당시의 지표면과 현재의 도로면과는 약 80cm 가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Ⅷ층은 후대에 계단 앞의 지표면이 높아질 때 형성된 층으로 생각되며, Ⅵ층은 3단의 상면과 같은 높이이며 외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러한 토층 상태로 미루어 문지 지붕의 기와가 일부 추락하고, 이를 보수하면서 문지 앞의 지표면을 다시 조성할 때 만들어진 후대의 지표면으로 생각된다. 〈도면 IV-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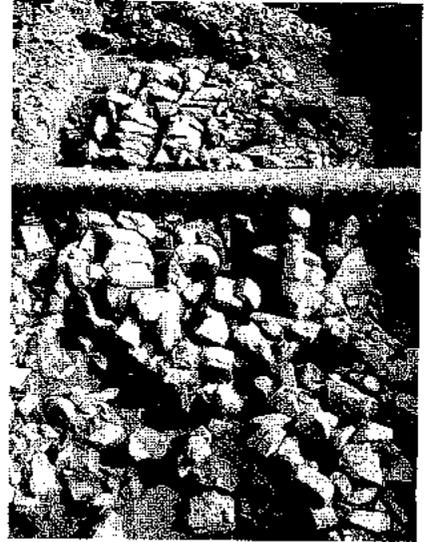
1938년도의 『碧蹄館』 사진자료(사진 IV-49)를 보면 지상에 기단 면석을 포함하여, 모두 3단의 계단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적어도 1938년 이전에 한 차례의 보수가 있었고, 이 시기에 좌·우협칸의 계단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Ⅵ층은 문지 보수 이후에 지표면으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V층 이상은 1938년 이후에 형성된 현대층으로 현재의 도로면 조성과의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IV-15〉 한편 1938년도의 사진자료에는 문지의 중앙 계단 좌우에 계단이 더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나무로 인하여 조사여건상 확인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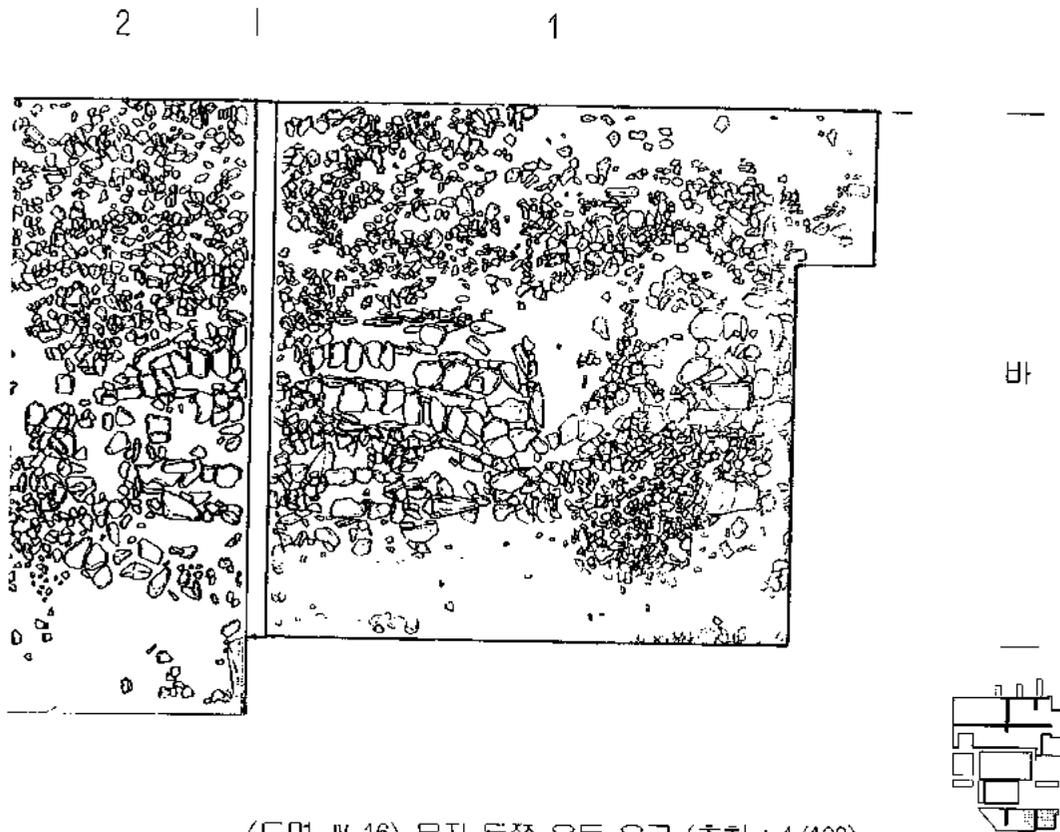
〈도면 IV-15〉 문지 계단 단면도 (축척 : 1/40)

2-4. 온돌지

문지 조사와 함께 문지 주변의 담장 등의 유구 확인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문지 서쪽은 현 도로면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심하게 교란되어 뚜렷한 유구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문지 동쪽에 대한 조사에서는 5.8×2.6m 크기의 온돌로 추정되는 유구<도면 IV-11 ㉑>가 노출되었다. 온돌은 고래와 구들이 모두 남아 있는데, 고래의 끝은 5개이며, 20~40cm 크기의 치석하지 않은 판석을 옆으로 세워서 6개의 고래등을 이루었다. <사진 IV-51> 구들장으로 사용된 석재는 20~40cm 크기의 판석으로 치석하지 않은 자연석을 사용하였다. 고래의 방향은 동서 방향이며, 고래의 형식은 5개의 고래가 대체적으로 일직선으로 나있는 줄고래로, 전체적으로 볼때 고래열이 남동쪽 보서리 부분으로 기운 형상을 하고 있다. 고래의 내부에는 불에 탄 재층이



〈사진 IV-50〉 문지 동쪽 온돌 유구 (바1-2·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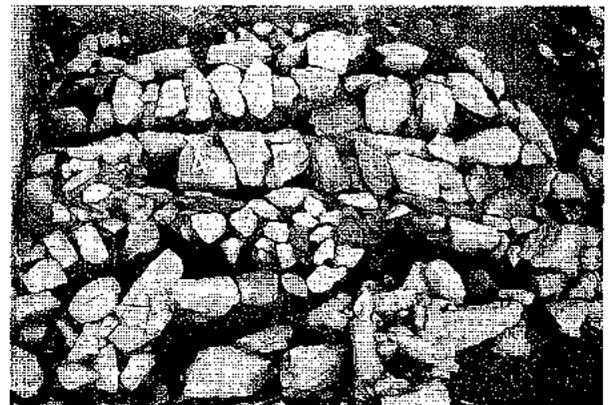


〈도면 IV-16〉 문지 동쪽 온돌 유구 (축척 : 1/100)



〈사진 IV-51〉 문지 동쪽 온돌 유구 (B11-2 · 공중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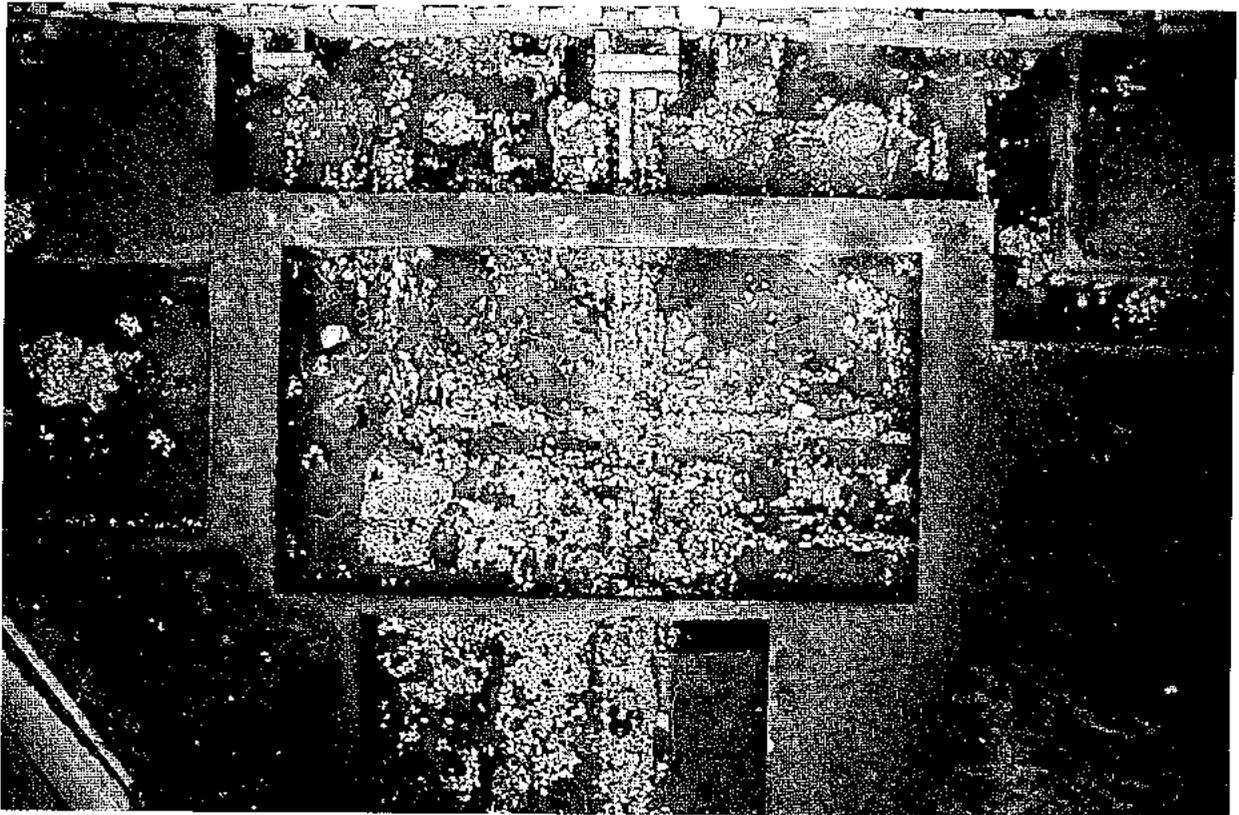
약간 남아 있으나 강하게 남아 있지는 않다. 또한 아궁이나 굴뚝의 유구가 확인되지 않아 화기(火氣)의 방향도 불분명하다. 고래 주변에 대한 조사에서 적심 형태의 석재군이 몇 개 보이지만 온돌과 관련된 확실한 건물지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또, 문지의 건물 방향과 온돌 유구의 방향이 일치하고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문과 관련된 문간채나 행랑채 등으로 추정되나, 문지 초석 주좌 윗면 레벨보다 오히려 온돌 유구의 윗면 레벨이 약 60~75cm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두 유구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IV-52〉 문지 동쪽 온돌 유구 중 동쪽 부분 (B11 · 남-북)

3. 마당

마당은 주건물지와 분지 사이의 공간으로, 보도, 부식, 율대로 추정되는 유구 등이 노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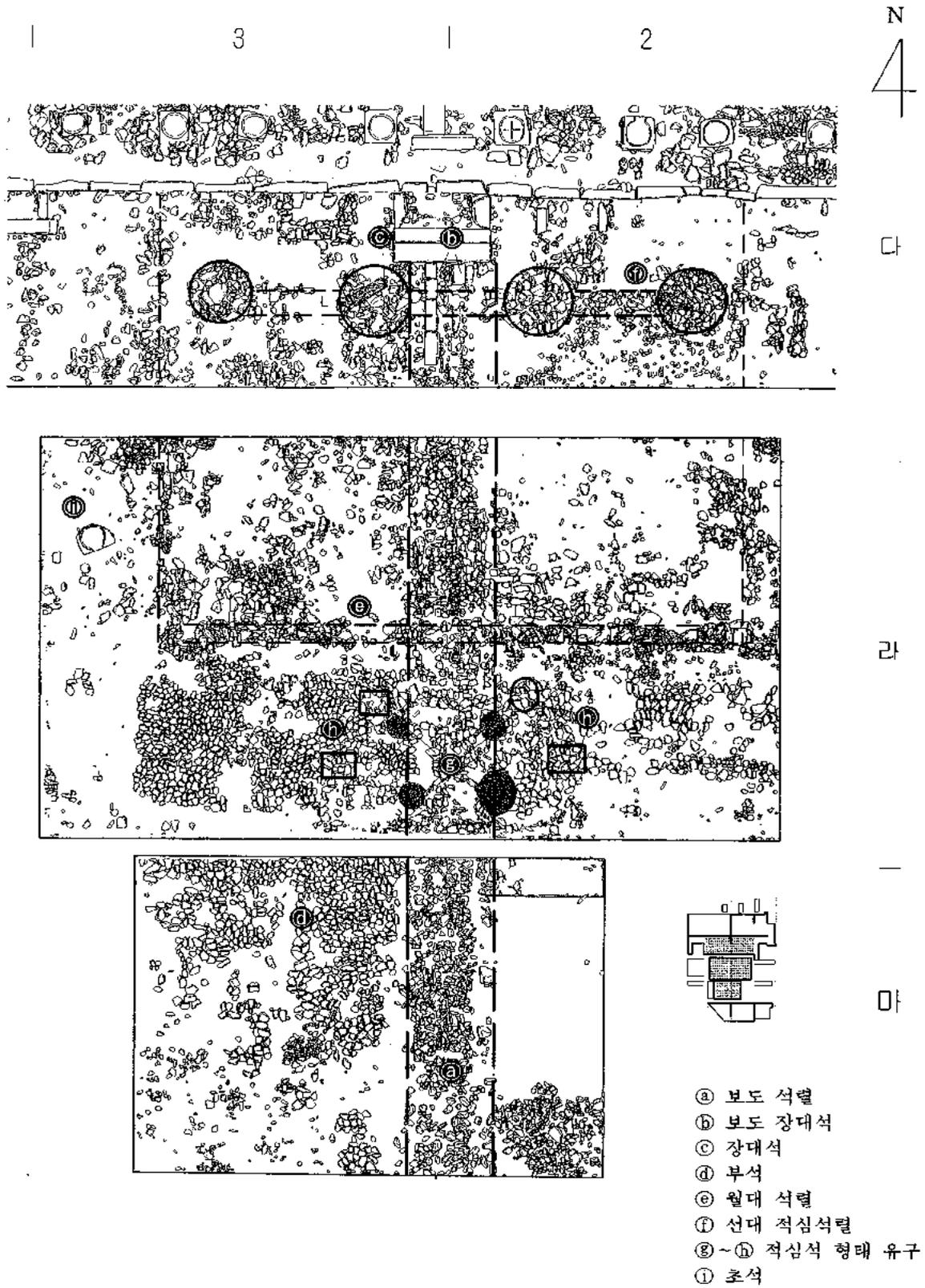
〈사진 IV-53〉 마당 유구 (공중촬영)

3-1.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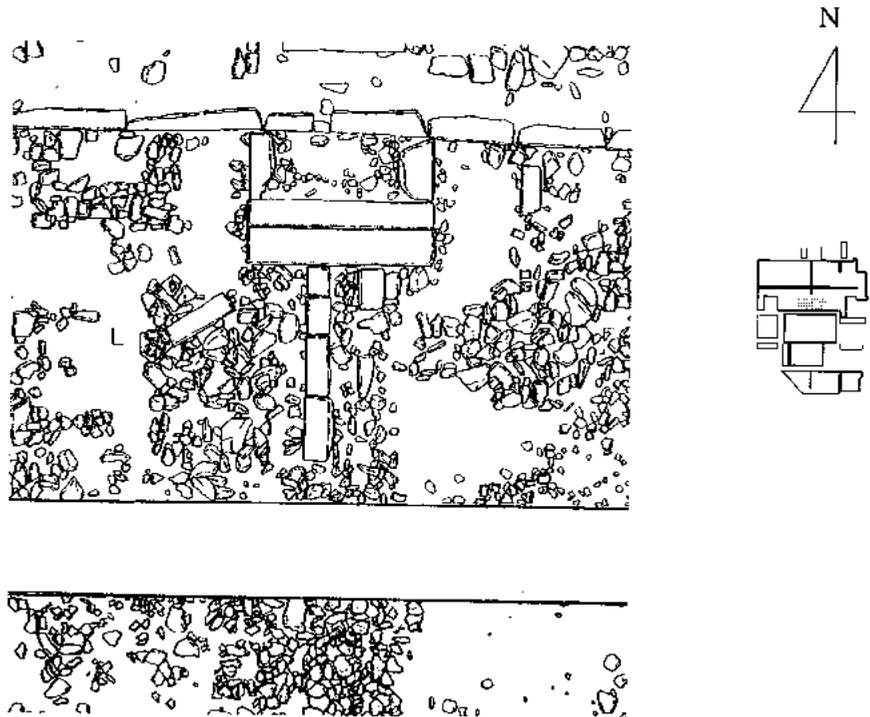
보도 석렬〈도면 IV-17 ㉔〉은 분지의 후면 기단과 주건물지의 중앙 계단을 잇는 길과 연관된 유구로 추정된다. 유구의 총길이는 25.4m이고, 폭은 1.6m로 측정되었다. 〈사진 IV-54〉 길이 들어설 부분에 점토를 한 번 깔고 나서 12~24cm 크기의 잡석을 깔아 마당면보다 약간 높여 도로면을 조성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윗면은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한 상태로 노출되었으며, 잡석 이외에도 와편 등이 함께 깔려 있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잡석 및 와편을 이용하여 보수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 석렬의 용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몇가지 가능성을 추측해 보면, 첫째, 뒤에서 설명될 보도의 지반시설일 가능성, 둘째, 정화 사업시 흙길의 강도와 배수를 고려한 잡석일 가능성이 있으며, 두가지 가능성이 함께 성립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주건물지 중앙 계단 앞에는 길이 50~80cm, 폭 30cm 크기의 장대석재 4개가 남북

IV. 유구 현황 및 분석



〈도면 IV-17〉 마당 유구 (축척 : 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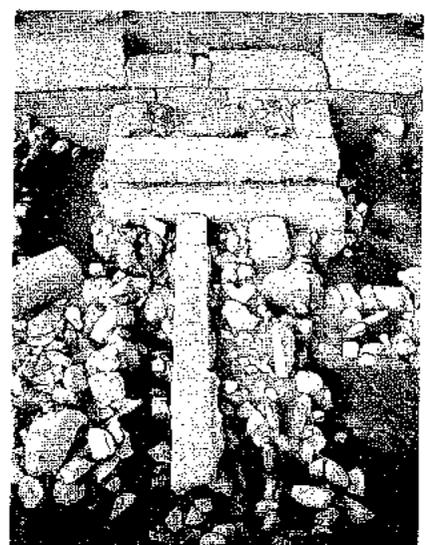
〈도면 IV-18〉 보도 장대석 (축척 : 1/100)

방향으로 보도 석렬 위에 놓여 있으며, 이 장대 석렬 동쪽에도 역시 같은 방향으로 50×30cm 크기의 장대석재 1개가 놓여 있는데, 보도 장대석 유구〈도면 IV-17 ㉞〉로 추정된다. 〈사진 IV-55〉 두 석렬의 외폭은 96cm, 내폭은 40cm 정도로 보도 석렬의 폭보다 작으며, 그 사이에는 전들로 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유구로 미루어 1열이 시설된 것으로 보이나, 중앙계단의 길이에 맞춘다면 3열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 서쪽에는 보도 석렬 밖으로 북동-남서 방향으로 놓인 장대석 1개〈도면 IV-17 ㉞〉가 노출되었는데, 정확한 용도는 모르지만 그 크기나 형태로 미루어 보도 유구의 일부 또는 정청 앞 계단석 일부가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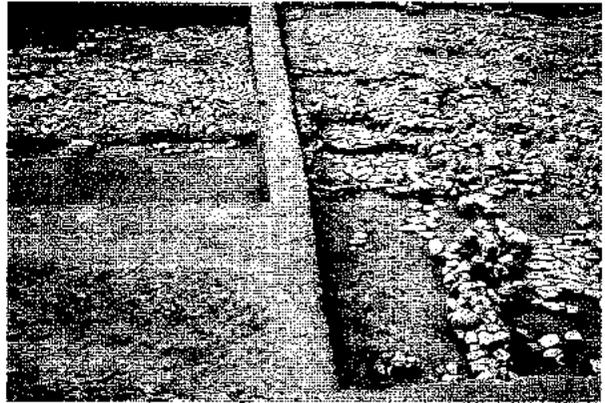
〈사진 IV-54〉 보도 석렬 및 장대석 (다2-3·북→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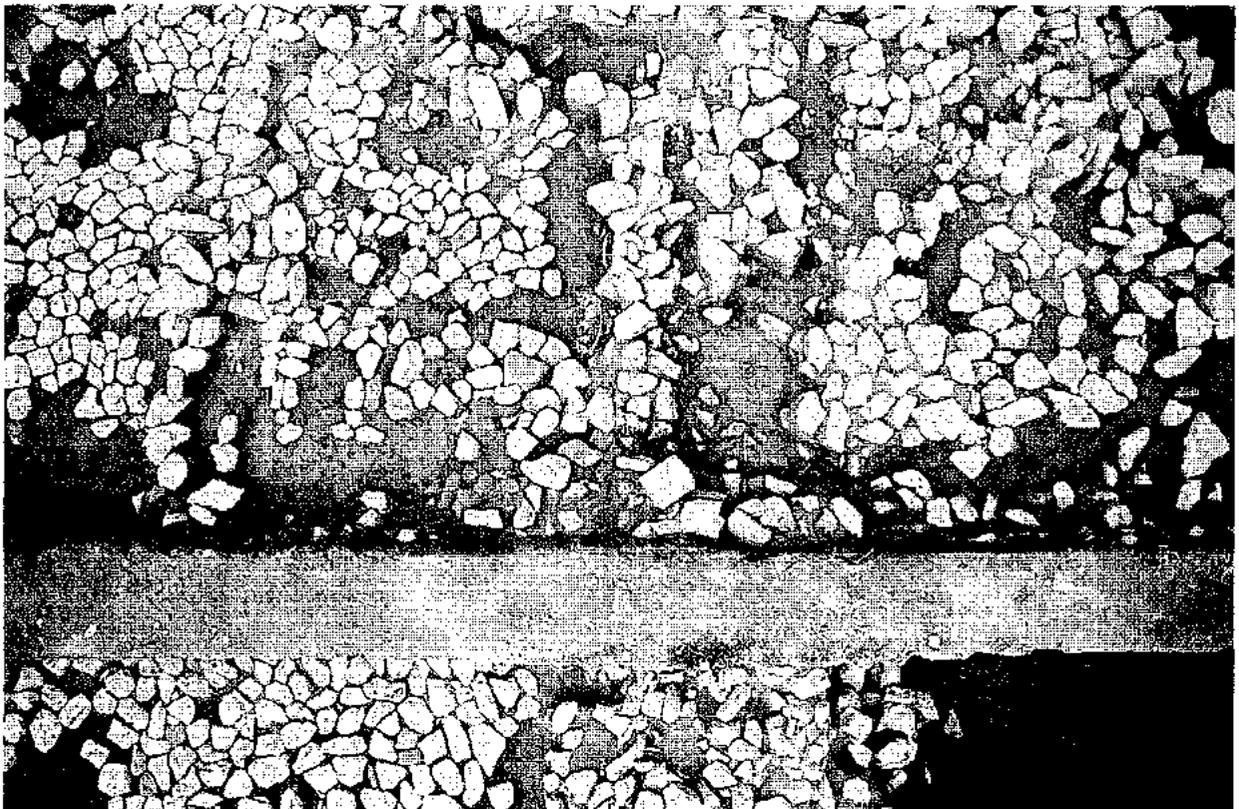
〈사진 IV-55〉 보도 장대석 (다2-3·남→북)

3-2. 부석(敷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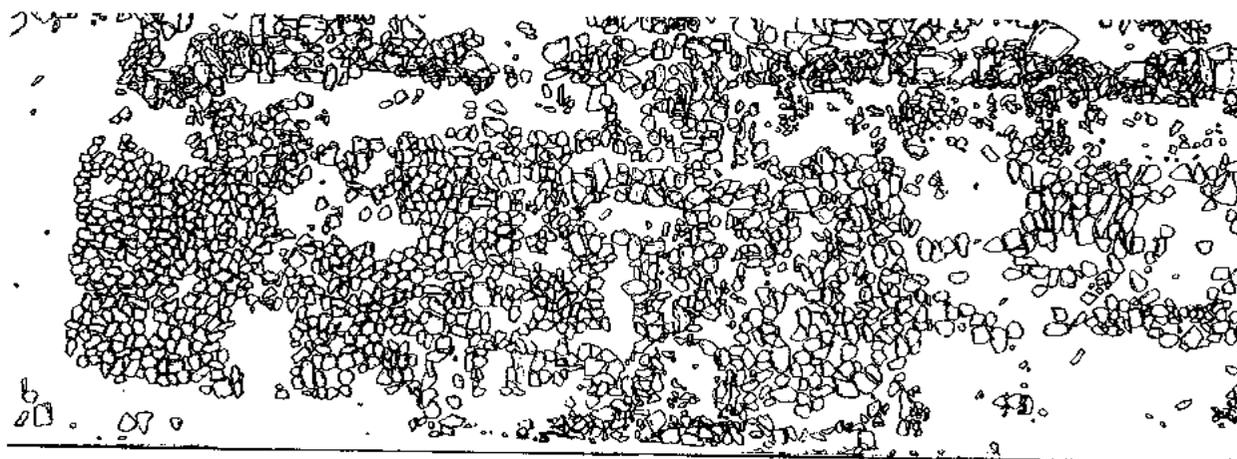
마당의 보도 석렬 좌우에는 넓게 부석<도면 IV-17 ㉔>이 노출되었는데, 지름 20cm 내외의 얇은 박석(薄石)이 1장씩 일정 간격을 두고 조밀하게 깔렸다. 부석이 깔린 면은 모래층으로 회색을 띠고 있는데, 부석을 깔 때 면을 고르게 하고 지면에 잘 밀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또한 모래를 깔아 돕으로써 배수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부석은 보도 석렬의 중앙부분에서 직교하는 동서석렬의 남쪽, 즉 월대로 추정되는 유구의 남쪽에만 깔려 있으며, 특히 보도 석렬의 동쪽보다 서쪽에 더 잘 남아 있다. <사진 IV-56>, <사진 IV-58> 그러나, 부석 유구는 원래 월대 남쪽의 전역에 깔렸는지, 일정한 구역내에 한정되게 깔렸는지 그 경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잔존하는 부석의 전체 규모는 동서 14m, 남북 13m 정도이다. 부석은 마당면을 보호하는 기능적 측면 이외에 다른 사용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객사의 정청이 각종 의례와



<사진 IV-56> 부석 (리2-3, 마2-3 · 동→서)



<사진 IV-57> 부석 (리2-3, 마2-3 · 공중촬영)



〈도면 IV-19〉 부석 유구 (축척 : 1/100)

행사를 치르는 주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석이 월대와 함께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석 유구에서 출토된 주요유물은 '光武十年' 銘 동전 1점 등이다.



〈사진 IV-58〉 부석 (마3·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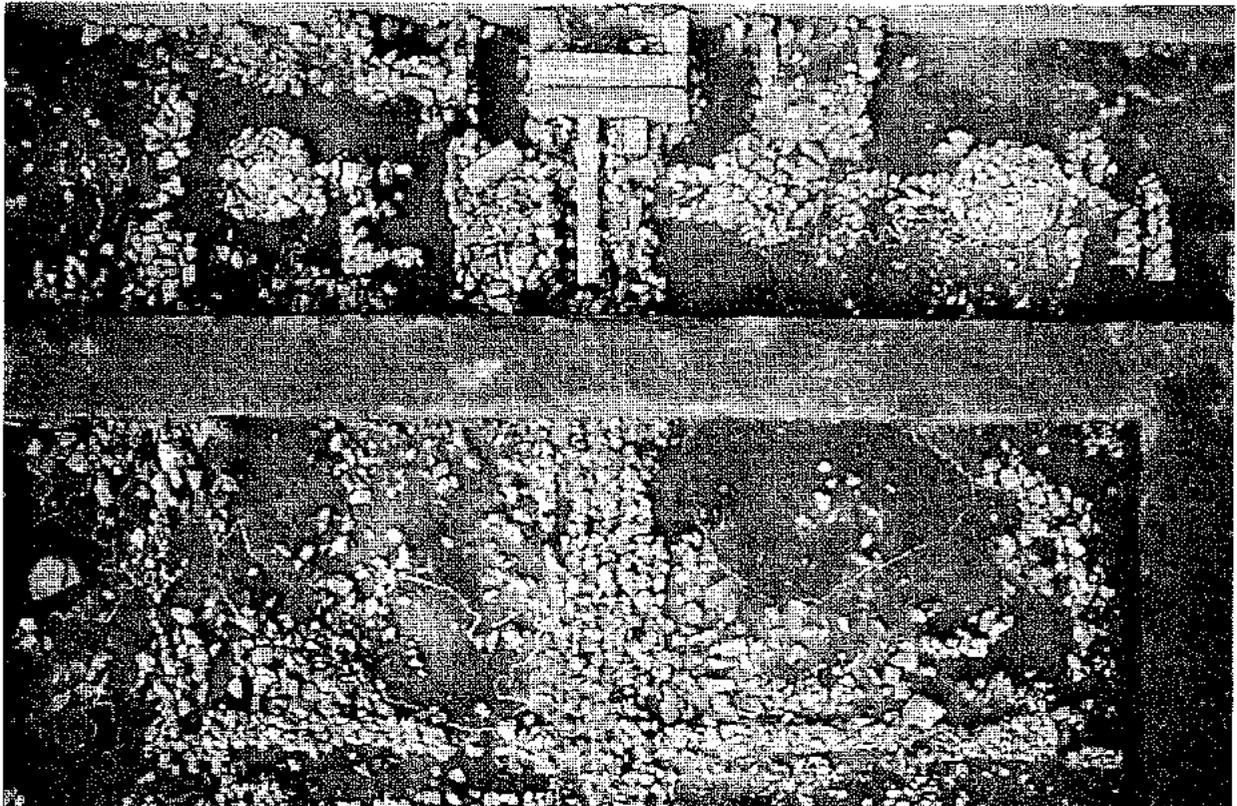
3-3. 월대

주건물지 전면의 부석이 깔리지 않은 곳에 월대 유구로 추정되는 동서 14.6m, 남북 9.4m 규모의 석렬<도면 IV-17 ㉔>이 노출되었다. 남쪽 석렬은 비교적 뚜렷한 형태로 남아 있는데, 보도 석렬의 중앙을 직교하는 길이 14.6m, 폭 24cm의 석렬로 30~40cm 내외의 잡석을 사용하여 2~3단 높이로 쌓았다. 그에 비해 동서쪽 석렬은 윤곽이 뚜렷하지 않지만, 거의 주건물지의 전면 기단 부근까지 연결되고 있다. 노출된 석렬은 월대 장대석의 지반시설 또는 뒤사춤돌로 추정되며, 주건물지 정청 앞 중앙에 시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 IV-59>, <사진 IV-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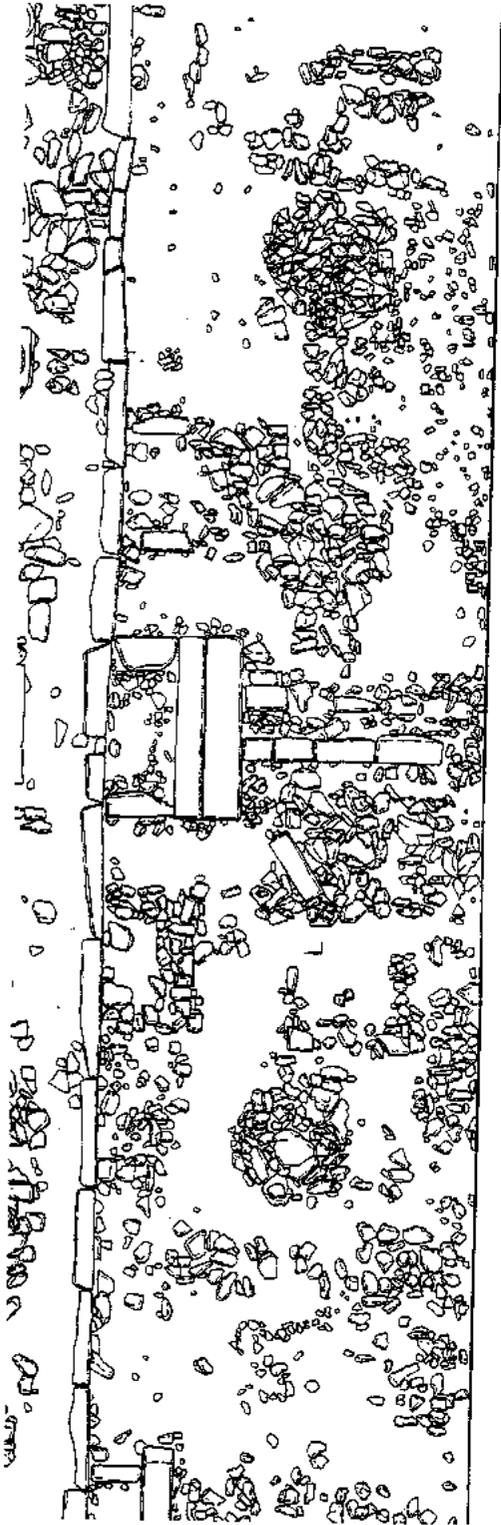
<사진 IV-59> 월대 석렬 (라2-3·서→동)

월대에 사용되었던 장대석과 같은 석재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주건물지 앞 계단이나 보도 장대석 통과와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원래 한 단 정도의 높이를 가진 동서 14.6m, 남북 12m 정도 규모의 월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IV-60> 월대 유구 (공중촬영)

N 4



〈도면 IV-20〉 일대 유구 (축척 : 1/100)

3-4.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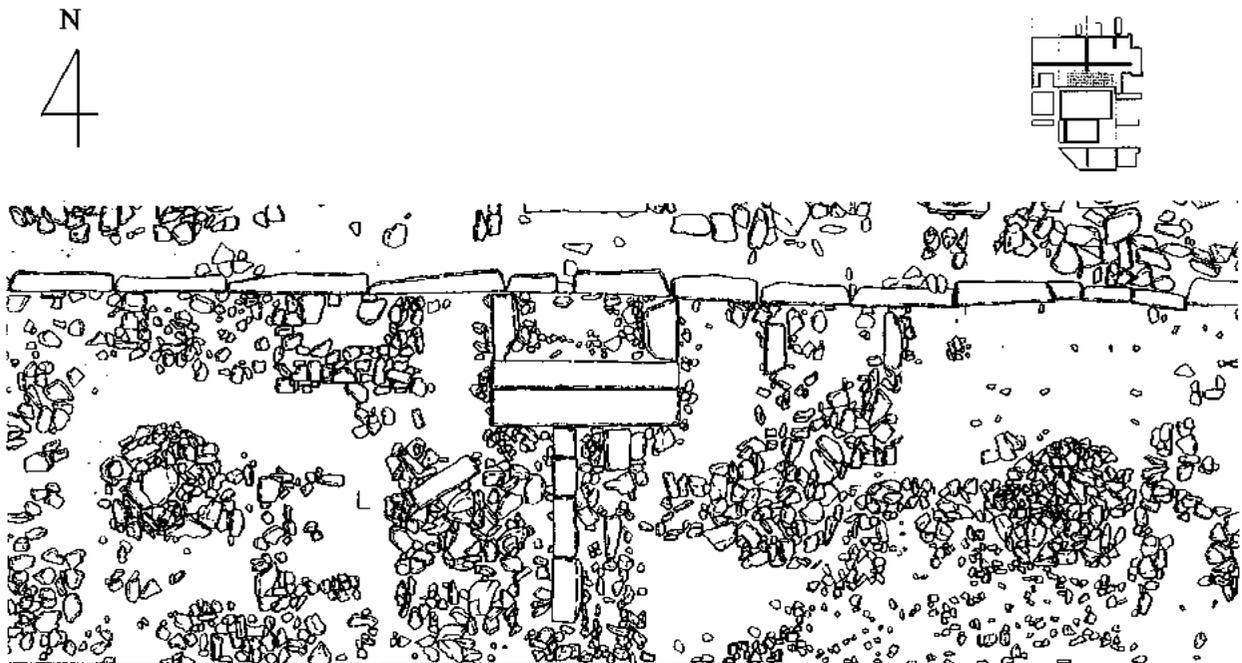
월대 내의 북쪽에는 4개의 적심석으로 이루어진 열(도면 IV-17 ㉔)이 동서축을 형성하며 노출되었다. <사진 IV-61>, <사진 IV-62> 적심석의 크기는 1.5~1.6m로 대체로 일정하고, 간격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3.8, 4.0, 3.7m 정도로 가운데 칸이 약간 넓다. 동쪽에서 1,2번째 적심석 사이에는 석렬이 이어진 것이 비교적 뚜렷한 형태로 남아있다. 이 적심석렬은 주건물지와의 거리, 주건물지 중앙 계단과의 관계, 유구의 레벨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주건물지와 동시대에 있었던 건물의 유구가 아닌 주건물지 이전의 선대 유구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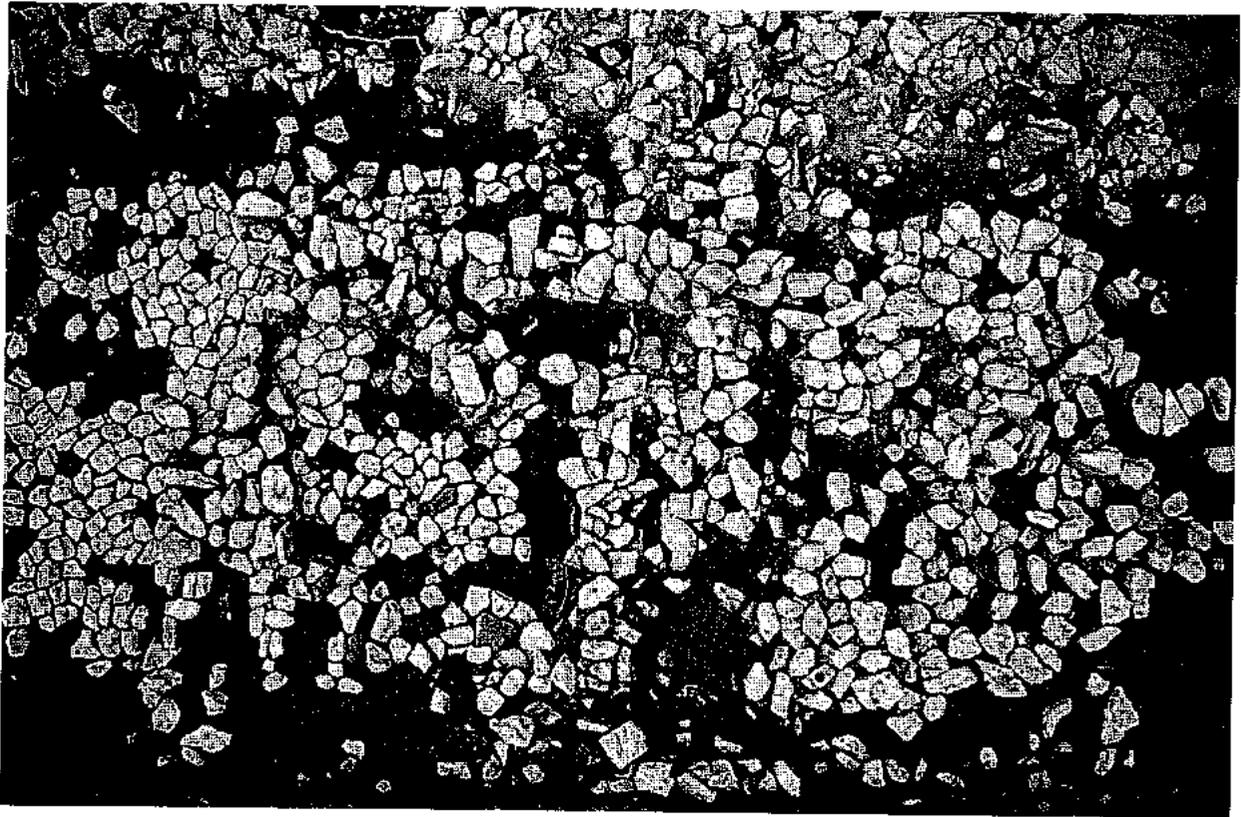
<사진 IV-61> 월대 내 적심석렬 (다3·남→북)



<사진 IV-62> 월대 내 적심석렬 (다2·남→북)



<도면 IV-20> 월대 유구 (축척 :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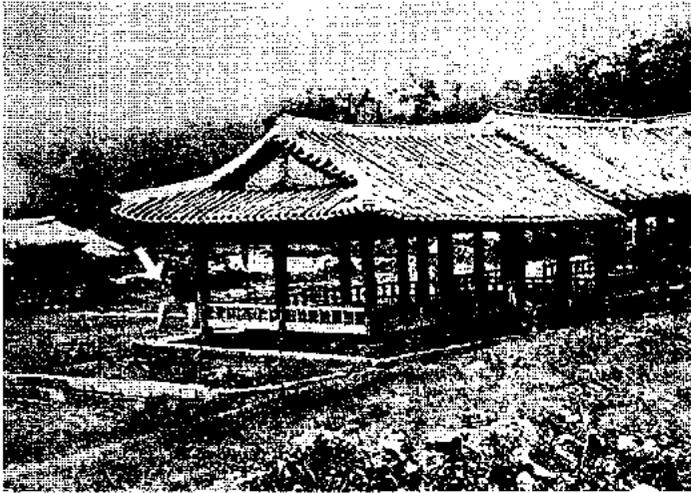


〈사진 IV-63〉 적심석 형태의 유구들 (라2-3 · 공중촬영)

N
4



〈도면 IV-22〉 적심석 형태의 유구들 (축척 : 1/100)



〈사진 IV-64〉 벽제관 (『寫眞으로 보는 韓國百年 1』)



〈사진 IV-65〉 벽제관 (『高陽郡誌』)

월대의 남쪽 석렬 남쪽으로 보도 석렬과 만나는 부분 양쪽에는 지름 30cm 내외의 원형 적심석 4개〈도면 IV-17 ㉔〉가 노출되었다. 〈사진 IV-63〉 이 적심석은 초석을 놓을 만한 규모에 미치지 못하므로 석조물과 같은 것들을 세워놓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그 외에도 모두 4개의 적심석 형태의 유구〈도면 IV-17 ㉕〉가 확인되었는데, 한 변의 길이가 40cm 내외 방향인 것과 지름 30~40cm 크기의 원형인 것 2 종류가 있다. 적심석들 중 4개〈도면 IV-17 ㉔〉는 보도 석렬의 좌우면과 접하여 2열로 나란히 노출되어 있으며, 나머지〈도면 IV-17 ㉕〉는 보도석렬 좌우의 부석 유구 위에 놓여 있었다. 이 적심석 형태의 유구들이 놓인 위치는 보도석렬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모습이나, 현재로서 그 용도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여러 사진 자료를 보면 현재 유구 위치 부근에 장대와 비석과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 이와 관련된 유구로 추정된다. 〈사진 IV-64〉, 〈사진 IV-65〉 앞

서 언급되었던 초석〈도면 IV-17 ㉑〉은 월대의 서쪽에서 북서쪽으로 기울어진 채 노출되었는데, 주위의 토층이 교란되어 있는 상태로 미루어 원래의 위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IV-14〉참조

4. 종합

이번 발굴조사의 성과를 주건물지, 문지, 마당 세 지역으로 나누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4-1. 주건물지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한 주건물지는 정청과 동·서익헌이 각각 분리되어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정청과 동·서익헌 모두 3×2칸의 규모이며, 각각 약 1.9m 정도의 간격을 두었다.

적심석은 모두 32개가 노출되었으며, 원형의 잡석으로 지름 120~140cm, 깊이 약 30cm 내외의 크기이다. 초석은 마당에서 발견된 1개를 포함하여 모두 36개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심석이 없고 크기가 비교적 작은 4개의 초석은 마루를 깔 때 사용된 등바리돌로 추정된다. 초석의 크기는 보통 60~80cm이며, 형태는 세가지 정도로 대별된다. 이 초석들은 여러 건물에서 사용되던 것을 이전시에 옮겨 재배열한 것으로 보이며, 이때에도 위계적, 의장적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청은 약 9.4×6.4m의 규모이며, 내부의 2개 초석이 적심석을 두지 않은 등바리돌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내부 기둥을 두지 않은 통칸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정청 후면쪽에서 고막이와 내부바닥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돌이 발견되었으며, 선대 유구로 보이는 적심석과 석렬, 디딤돌 등이 노출되었다.

동익헌은 약 8×6.4m의 규모이며, 정청 쪽 1칸은 온돌방, 나머지 2칸은 마루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추정은 아궁이 또는 굴뚝으로 추정되는 유구와 연도시설로 추정되는 'L'자형 기와열, 적심석이 없는 초석 등이 노출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정청과 같이 선대 유구로 추정되는 적심석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서익헌은 내부 배치가 정청을 중심으로 동익헌과 대칭되게 나타나며, 규모도 거의 같다. 또, 동익헌과 같이 연도시설로 추정되는 기와열이 노출되었으며, 구들장으로 추정되는 유구도 발견되었다. 남동쪽 초석열 사이에는 고막이로 추정되는 석렬이 노출되었다.

기단 중 전면에는 다듬돌 바른층쌓기 방식으로 약 1.4m 높이의 3단 장대석이 잔존하고 있으며, 주건물지에는 약 32×9.2m 규모로 측면과 후면에 1단의 장대석이 일부 유실된 채 남아 있다. 그러나, 원래는 전면에 20~30cm 높이의 잡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측면과 후면의 기단도 1단 정도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남아있는 측면과 후면의 기단은 다른 건물에 사용되었던 구(舊)부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후대에 변형되지 않았나 의심이 된다.

계단은 정청 앞에 3개, 서익헌 앞에 1개가 노출되었는데, 유실된 것까지 포함하면 모두 7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청 앞의 중앙 계단이 가장 크고, 나머지는 비슷한 크기인데, 정청 앞의 중앙 계단은 나머지 3개의 계단보다 한단 정도 더 낮은 레벨인 기단 면석과 같은 레벨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드러나 조성시기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7

개의 계단이 동시대에 모두 존재했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몇 번의 변화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선대 아궁이는 주건물지 후면 기단 북쪽에서 노출되었는데, 토층 및 흙토유물 등으로 마루이 주건물지가 건립되기 이전 유구로 판단된다.

4-2. 문지

조사지역의 남쪽에 위치한 문지는 3×1칸의 삼문 형식으로 추정되며, 약 7.8×2.9m 규모이다. 초석과 적심은 8개 모두 확인할 수 있었으며, 초석의 크기는 70~80cm 내외이고, 2개 정도의 초석이 열에서 약간 어긋나 있었다.

기단은 남쪽과 북쪽에서만 확인되었고, 동쪽과 서쪽에서는 토층의 변화만으로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전면 기단의 높이는 약 1.2m로 다듬돌 바른층 쌓기 방식의 3단이며, 주건물지와 같이 갑석을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계단은 노출된 2개를 포함하여 모두 3개의 계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지의 계단도 정청 앞의 계단에서와 같이 중앙 계단이 동쪽 계단보다 크며, 한단 더 낮은 레벨에서 시작된다. 또, 계단을 노출시키는 과정에서 문지가 처음 세워질 당시보다 현재의 도로면이 약 80cm 정도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쪽 계단 위에서는 '蹄' 명 석물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온돌 유구는 문지의 동쪽에서 노출되었는데, 문지와 동일한 축선상에 위치한다. 고래의 골은 5개이며 동서방향의 줄고래이다. 온돌과 관련된 건물지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으며, 온돌 유구가 오히려 문지 초석 주좌 윗면 레벨보다 약 60~75cm 낮아 문지와 관련된 유구인지 단언하기 어렵다.

그 외에 문지 여칸에서는 동서 방향의 장대석과 방형의 석재가 발견되었으며, 문지 서쪽에서는 초석 형태의 유구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4-3. 마당

보도 석렬의 유구는 총길이 25.4m, 폭 1.6m로서 주건물지의 중앙 계단과 문지의 후면 기단을 연결하고 있다. 12~24cm 크기의 잡석 등을 깔아 마당면보다 약간 돋우었는데, 보도의 기반시설 또는 일제강점기 정화사업시 칸 잡석 등으로 추정된다. 또, 주건물지 중앙 계단 앞에는 보도 장대석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노출되었는데, 외폭 96cm, 내폭 40cm 정도로서 그 사이에는 전들로 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석은 지름 20cm 내외의 얇은 박석을 1장씩 조밀하게 깔았는데, 월대 석렬 남쪽에서만 발견되며, 보도 석렬의 서쪽에 더 잘 남아 있다. 잔존하는 부석의 전체 규모는 동서 14m, 남북 13m 정도이며 그 경계선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다.

월대 유구로 추정되는 석렬은 동서 14.6m, 남북 9.4m로 동서쪽 석렬에 비해 남쪽 석렬이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 있으며, 월대 장대석의 기반시설 또는 뒤사춤돌로 추정된다. 월대에

사용된 장대석 등의 유구는 남아 있지 않으나, 원래 한 단 정도 높이로 된 동서 14.6m, 남북 12m 정도 규모의 월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월대 내에서 부석 유구가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부석은 월대와 동시대 또는 그 이후에 깔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월대 석렬과 보도 석렬은 비슷한 높이에서 교차하므로, 그 조성시기의 선후(先後)를 판단하기 힘들다. 다만, 보도 장대석이 정청 앞 중앙 계단의 가장 낮은 단과 같은 높이에서 이어져 위치하므로, 가장 먼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앙 계단과 같은 시기 또는 비슷한 시기에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 월대 내에는 선대 유구로 판단되는 4개의 적심석과 그 사이를 잇는 석렬이 동서축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월대 남쪽에서는 보도 석렬을 중심으로 대칭되게 적심석 형태의 유구 8개가 30~40cm 정도 크기로 노출되었다. 또, 월대 서쪽에서는 원래의 위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초석 1개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V. 유구 해석 및 건축형식 고찰

1. 객사 형식과 규모

1-1. 객사 형식

1-2. 정청의 형식과 규모

1-3. 익헌의 형식과 규모

1-4. 지방 행정구역과 규모와의 관계

2. 세부 구성

2-1. 정청 바닥

2-2. 정청 벽체와 창호

2-3. 익헌 내부구성

3. 기단과 계단

3-1. 기단

3-2.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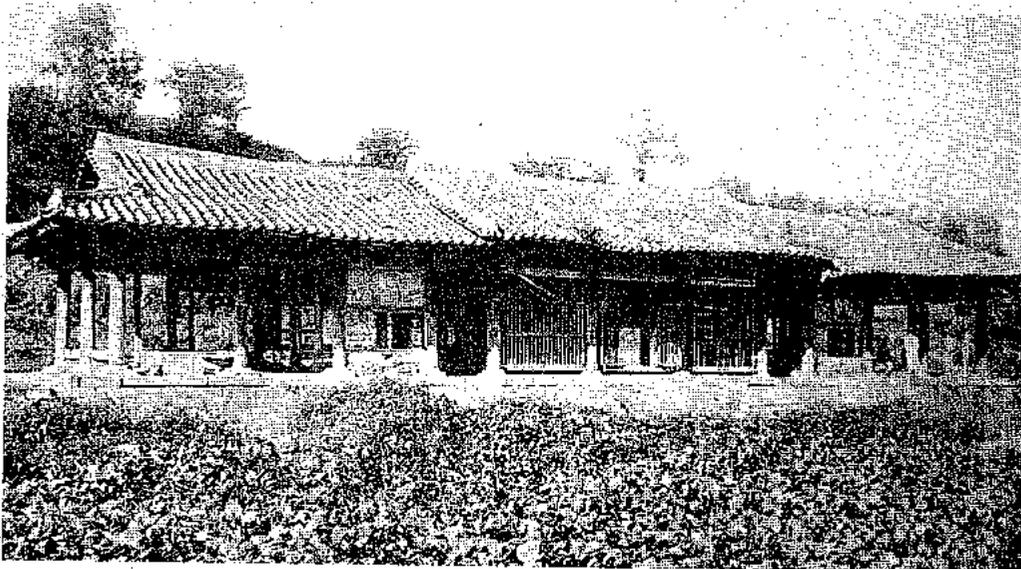
4. 마당 형식

4-1. 월대

4-2. 보도

4-3. 부석

5. 종합



V. 유구 해석 및 건축형식 고찰

1. 객사 형식과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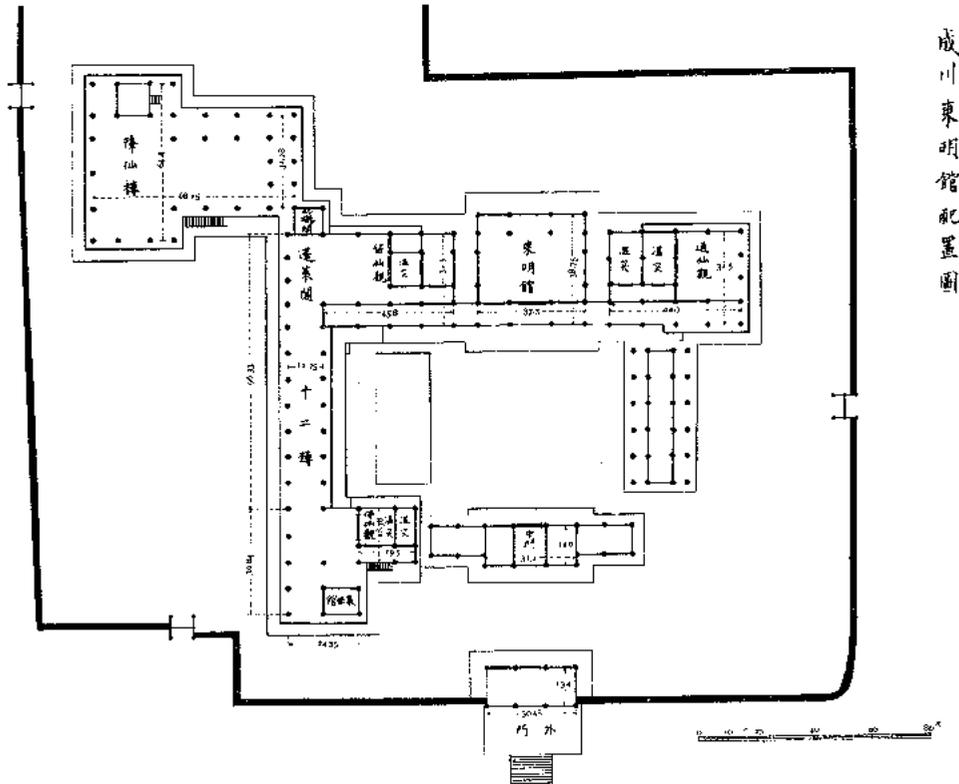
1-1. 객사 형식

현존하는 객사의 대부분이 정청과 동·서익헌으로 이루어진 주건물과 누(樓), 삼문(三門), 고직사(庫直舍) 정도가 단편적으로 남아있어 전체배치 형식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다만, 고지도와 읍지 등을 통해서 배치 형식을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며, 가장 구체적인 자료로서는 『朝鮮古蹟圖譜』에 실린 성천객사 동명관의 배치도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면 V-1> 이와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도식화한 것이 앞의 <그림 II-1>이다. 여기에서 보면 정청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동·서익헌이 자리잡고 있으며, 익헌 앞에는 주건물과는 수직방향으로 익랑(翼廊)이 서로 마주보며 배치되어 있다. 또, 문은 삼문 형식의 내삼문과 외삼문으로 나뉘는 이중적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외삼문 앞에는 홍살문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배치상황은 오히려 성천객사 배치에서 서익헌에 연결되어 있는 누(樓) 부분만을 제거하여 도식화한 느낌을 준다.¹⁾

정청과 익헌, 삼문 외에도 객사를 구성하는 기타 부속시설들이 더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문헌자료 상에는 익랑(翼廊) 또는 행랑(行廊), 중대청(中大廳), 즉청방(卽廳房), 하마대(下馬臺) 등의 건물 명칭들이 보인다. 이 건물들에 대한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지만, 정청이나 익헌과 같이 객사 건축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²⁾ 그러므로, 앞의 도식화된 자료는 익랑이 마치 객사 건축에서 널리 통용되던 건물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객사 배치의 일반적 형식으로 규정지을 만한 자료나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므로 익랑의 일반성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의 수준에서 그치고자 한다.

이번 발굴조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조사지역의 동쪽과 남쪽은 도로에 접하고 있고, 서쪽은 이미 주거와 부속 건물들이 점유하고 있어 원래의 벽제관 배치 상황을 확인하기에는 여건상 불가능하였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주로 보호철책으로 둘러 싸인 부분과 조사지역의 북쪽 공지 부분에서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이 지역 내에서는 주건물지와 문지의 건축 유구들이 발굴되었으며, 그 사이의 마당에서는 월대, 부석, 보도 등의 유구가 새롭게 확인되었다.

- 1) 柳泳秀, 『朝鮮時代 客舍建築에 관한 研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9.12., pp.67-73, 제3절. 배치 및 외부공간의 구성'에서 보면 도식화의 결정적 근거가 성천객사의 배치도와 고지도인 것을 알 수 있다.
- 2) 柳泳秀, 앞의 논문, pp.60-65'에서 보면 『輿地圖書』와 읍지에 나타난 객사건물 명칭 중 파악이 비교적 용이한 56개 읍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이 중에서 익랑은 13개 읍, 중대청은 8개 읍, 즉청방은 9개 읍, 하마대는 6개 읍에서 각각 나타나고 있으며, 익랑은 주로 평안도 지역에서, 나머지 건물들은 주로 충청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면 V-1〉 성천객사 배치도 (『朝鮮古蹟圖譜』)

정청과 동·서익헌으로 이루어진 주건물지는 야트막한 뒷산을 배경으로 남향하고 있고, 문지는 삼문(三門) 형식으로서 주건물지와 중심축을 이루며 조사지역의 남쪽에 배치되어 있다. 현재 확인된 문지가 하나뿐이므로 내삼문과 외삼문을 갖춘 이중적 진입구조였는지 알 수 없으나, 내삼문과 외삼문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현재 확인된 주건물지와 문지 사이에 다른 문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내삼문으로 추정된다. 삼문의 형태는 사진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솟을삼문의 모습을 하고 있다. 또, 문지 동쪽에서 발굴된 온돌 유구는 성천객사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문과 관련된 행랑채 또는 문간채로 추정되나, 온돌 유구의 높이가 문지보다 낮아 문과 관련된 유구인지 아니면 선대의 유구인지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외에 조사지역 내에서는 익랑과 같은 다른 건물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익랑이 조사지역 밖에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원래 없었는지는 이번 조사 여건상 밝힐 수 없었다. 다만, 벽제관에 익랑이 있었을 경우, 성천객사의 익랑과 같이 익헌 바로 앞에 배치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건물지와 문지 사이 마당에서는 월대, 보도, 부석 등의 유구가 발견되었다. 정방형의 월대는 정청 앞에 기단과 연이어 설치되었고, 주건물지와 문지를 잇는 보도는 그 중심축선 상에 깔았으며, 월대 밖 보도 좌우에는 부석을 깔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마당의 형식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와는 달리 객사 건축에서 자주 사용되던 형식으로 판단된다. 특히 부석은 궁궐건축이나 일부 사찰건축에서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발굴조사를 기점으로 새롭게 인식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범위 내에서는 담장지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최소한 주건물지 뒤에는 시설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아마도 주건물지 뒤에 별다른 담장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뒷산이 담장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 그 외의 지역에서도 담장지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지만, 『高陽郡誌』의 사진자료에 의하면 분지 양쪽으로 담장을 쌓은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일반 민가에서 보이는 돌담장과 같이 기와를 얹지 않은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이 원형인지 후대에 훼손 또는 변형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진 V-1>



<사진 V-1> 벽제관 (『高陽郡誌』)

객사 주건물의 평면형식을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면, 정청과 익헌이 각각 구조적으로 분리된 형식과 단일건물로 구성된 형식이 있다.³⁾ <사진 V-2>, <사진 V-3> 현재까지 알려진 총 48채의 객사건물⁴⁾을 평면형식상 분류해 보면, 분리형이 30채, 단일형 15채⁵⁾로서 분리형이 객사 건축의 주건물 평면형식으로서 보다 일반적이며 정형적인 형식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표 V-1> 벽제관의 평면형식은 사진자료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분리형인데, 이것은 금번의 발굴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벽제관의 건축형식을 분석하기 위해 벽제관의 평면형식과 같은 분리형의 객사를 중심으로 비교하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단일형의 객사도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사진 V-2> 분리형 객사 (문의객사)



<사진 V-3> 단일형 객사 (회인객사)

3) 柳泳秀, 앞의 논문, p.76. 앞의 전자의 형식을 '분리형', 후자의 형식을 '단일형'이라 칭한다.

4) 柳泳秀, 앞의 논문, pp.77-82'에서 조사한 42채 외에 평택객사(평성음객사), 안성객사(백성관), 해미객사, 문경객사(관산지관), 청도객사(도주관), 강릉객사(임영관)를 포함한 수이다. 이 장에서 벽제관을 제외한 다른 객사를 지칭할 경우, 가능한 당호(堂號) 대신 당시의 고을명을 붙여 지칭하는 것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5) 사진자료 중 일면이 변형되어 정청과 익헌이 서로 연결된 객사라 할지라도, 정청과 익헌 사이의 주칸길이가 다른 주칸길이에 비해 짧고 정청과 익헌의 지붕높이가 차이가 나는 등 분리형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 분리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외에 고령객사, 해미객사, 강릉객사(임영관)는 확실하지 않아 제외시켰다.

V. 유구 해석 및 건축형식 고찰

지역	객사명	평면형식	규모(전면×측면)			비고
			서의현	정청	동의현	
경기도	인천객사	분리형	?	3×2	?	현존
	금천객사	단일형	3×2	3×2	3×2	현존
	개성객사	단일형		4×3		朝鮮古蹟圖譜
	벽제관	분리형	3×2	3×2	3×2	건물지/朝鮮古蹟圖譜
	평택객사	분리형	3×2	3×3	3×2	현존
	안성객사	분리형	?	3×2?	?	현존
충청도	부여객사	분리형	3×2(3)	3×3	3×2(3)	현존
	홍산객사	분리형	3×2(3)	3×3	5×2(3)	현존
	보령객사	단일형		4×2		현존
	문의객사	분리형	3×3	3×3	4×3(2)	현존
	회인객사	단일형	2×2(4)	3×4	3×2(4)	현존
	옥천객사	분리형	?	3×?	5×?	朝鮮古蹟圖譜
	해미객사	?	?	?	?	海美邑城內 建物址 發掘報告書
경상도	경주객사	분리형	5×3	3×?	5×?	현존/朝鮮古蹟圖譜
	상주객사	분리형	4×3	3×3	7×3	현존
	선산객사	단일형		5×4		현존
	밀양객사	단일형		3×2		현존
	예안객사	분리형	3×3	3×3	3×3	현존
	창령객사	분리형	?	3×3	?	현존
	거제객사	단일형	3×3	3×3	3×3	현존
	다대포객사	단일형		5×2		현존
	장목객사	단일형	1×3	2×2	1×3	현존
	고령객사	?	?	3×?	?	朝鮮古蹟圖譜
	성주객사	분리형	3×?	3×?	6×?	朝鮮古蹟圖譜
	진주객사	분리형	?	3×?	4×?	朝鮮古蹟圖譜
	울산객사	분리형	5×?	3×?	5×?	朝鮮古蹟圖譜
	진해객사	분리형	3×?	3×?	3×?	1983년 燒失
	통영세병관	단일형		9×5		현존
	문경객사	분리형	2×2	3×2	?	현존
청도객사	분리형	?	3×3	6×3	현존	
전라도	전주객사	분리형	5×3	3×4	?	현존
	나주객사	분리형	?	5×4	?	현존/사진으로 보는 近代韓國
	순창객사	분리형	?	3×3	5×2(3)	현존
	낙안객사	단일형	2×3	3×3	2×3	현존
	가리포객사	단일형	1×2	3×2	1×2	현존
	무장객사	분리형	3×3	3×3	3×3	현존
	홍덕객사	단일형	1×3	3×3	1×3	현존
	남원객사	분리형	4×4	3×?	4×?	朝鮮古蹟圖譜/龍城館 地表調査 報告書
	여수진남관	단일형		15×5		현존
강원도	영월객사	분리형	4×3	3×3	5×2	현존
	강릉객사	?	?	?	?	江陵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황해도	황주객사	분리형	?	3×5	?	朝鮮古蹟圖譜
함경도	부령객사	분리형	?	3×4	4×2	朝鮮古蹟圖譜
	안변객사	분리형	?	3×?	4×3	朝鮮古蹟圖譜
평안도	성천객사	단일형	5×4	3×5	5×4	朝鮮古蹟圖譜
	안주객사	분리형	?	?	?	朝鮮古蹟圖譜
	개천객사	분리형	3×?	3×?	5×?	사진으로 보는 近代韓國
	강계객사	분리형	3×?	6(?)×?	6×3	사진으로 보는 近代韓國

〈표 V-1〉 객사 평면형식 및 규모

1-2. 정청의 형식과 규모

정청은 전패(殿牌) 또는 곁패(關牌)를 모시고 의례를 행하는 곳으로 객사가 다른 관아건물보다 더 높은 격식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 정청 때문이다. 분리형 객사의 경우, 이런 정청의 위상을 여러 가지 의장적 수법을 사용하여 나타내고자 하였는데, 예를 들면, 익헌보다 지붕을 높게 하고 처마길이를 길게 빼기도 하며, 보다 높은 격식의 공포를 사용하고, 평면상으로 익헌보다 돌출시키거나 기단의 높이에 차등을 두는 등 여러 방법들이 동원되었다.

정청의 전면은 개방시키거나 홍살 또는 띠살 등의 창호를 달고 측면과 후면에는 회벽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청의 형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면에 창호를 설치한 경우, 어칸과 협칸 모두 또는 어칸에만 출입문을 달았으며, 간혹 측면에도 출입문을 단 사례가 보인다. 또, 후면 상부에 창호를 단 경우도 간혹 있으며, 이때는 출입이 아닌 채광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청의 평면형식은 대성전이나 사당 등과 유사한데, 이것은 아마도 의례를 행하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 기동배열에 의한 평면형식을 살펴보면, 측면이 2칸인 경우 대부분 통간구조의 형식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서, 측면이 3칸 이상인 경우에는 다양한 형식을 보이고 있다. 분리형의 객사 중 내부 기동배열이 확인되는 측면 3칸 또는 4칸인 12채 중에서 내부에 기동이 없는 통간구조의 사례는 부여객사, 홍산객사, 순창객사, 영월객사 4채이고, 전면쪽으로 고주를 둔 형식은 평택객사(평성읍객사), 청도객사, 예안객사(선성현 객사), 창령객사 4채이며, 후면쪽으로 고주를 둔 형식은 문의객사, 상주객사 2채이다. 또, 전면과 후면쪽 모두 고주를 둔 형식도 보이고 있는데, 전주객사, 무장객사 2채가 있다. 전면쪽의 고주는 전면 퇴칸을 형성하기 위해, 후면쪽의 고주는 전패나 곁패의 봉안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로서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분리형의 객사건물 30채 중에서 정청의 규모를 살펴보면, 나주객사와 강계객사 등⁶⁾을 제외한 27채의 정청 전면 칸수가 3칸임을 알 수 있다. 단일형의 객사에서 정청 부분에 해당하는 가운데 마루 전면 칸수가 3칸이 많은 것을 보면 전면 3칸의 정청이 일반적인 규모로 추정되며, 3칸 이상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 정청의 측면 칸수를 살펴보면 2칸에서 5칸까지의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측면 칸수를 확인할 수 없는 10채를 제외한 19채 중에서 3칸인 경우가 11채로 가장 많고, 2칸인 경우 4채, 4칸인 경우 3채, 5칸인 경우 1채로 각각 나타났다. 측면이 5칸인 황주객사와 4칸인 전주객사나 나주객사와 같이 비교적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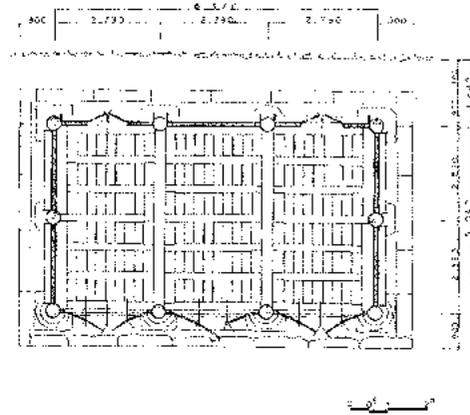
6) 나주객사는 현재 정청으로 추정되는 전면 5칸, 측면 4칸의 금성관(錦城館)이 있고 문헌기록상 동익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금성관 지붕이 팔작형태라는 점으로 미루어 후에 지붕형태가 변형되었거나 일반적인 분리형의 객사 형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강계객사는 柳泳秀의 앞 논문에서 전면 6칸으로 분석하였으나, 객사 정청의 전면 칸수를 짝수로 한 예가 강계객사 외에 밝혀진 바 없고, 사용된 사진자료의 상태가 정확히 칸수를 헤아리기에는 너무 희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6칸이라는 전면칸수에 의심되는 점이 없지 않으나, 사진을 분석한 결과 3칸 이상인 것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황주객사는 『朝鮮古蹟圖譜』의 사진자료를 柳泳秀의 논문에서 서익헌으로 분류하였으나, 정청의 건물로 판단된다. 그 외 안주객사는 정청의 규모를 알 수 없어 제외하였다.

지방도시의 객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객사 정청의 측면 칸수는 3칸 이하였던 것 같다. <사진 V-4> 결국, 객사 정청의 규모는 일부 규모가 큰 객사를 제외하고 전면 3칸, 측면 3칸의 형식이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었다고 생각되며, 이는 정청의 평균 칸수 3.2 × 3.1이라는 결과와도 잘 부합된다.



<사진 V-4> 황주객사(『朝鮮古蹟圖譜』)

벽제관 정청의 규모는 전면 3칸, 측면 2칸임이 발굴조사를 통해 확실해졌는데, 이와 같은 규모의 객사는 현재 인천객사, 문경객사, 안성객사⁷⁾ 정도가 있을 뿐이다. <도면 V-2> 벽제관과 같은 정청 규모를 보이는 객사의 사례가 적은 것은 측면이 2칸인 사례가 드물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정청 측면이 2칸인 객사의 건립 또는 중수시기가 모두 1600년대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사실과⁸⁾ 문경객사를 제외한 나머지 3채의 객사가 모두 경기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측면 2칸의 객사 정청 구성이 어떤 특별한 시기적 또는 지역적 배경이나 이유를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3×2칸 규모의 정청 형식이 1600년대 이전 또는 경기지역에서 널리 사용된 형식이라고 단정짓기까지는 많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면 V-2> 인천객사 정청 평면

1-3. 익헌의 형식과 규모

익헌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의 숙식처이자 휴식처이며,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곳으로 정청과 함께 객사의 주건물을 이룬다. 보통 정청의 좌우에 향(向)과 축(軸)을 같이 하여

- 7) 복원 전의 안성객사는 정청 측면에 해당하는 기둥열의 가운데 기둥이 없어 측면 칸수를 알 수 없었으나, 문헌기록에 의해 측면 칸수가 2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柳基元, 『安城客舍 木構造 樣式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7, 6.' 참조
- 8) 벽제관의 건립시기를 고양군이 옮겨진 1625년으로 가정한다면, 문경객사의 해체보수시 발견된 목서명에 따른 건립 시기 1648년, 인천객사의 중수연대인 1677년, 안성객사의 건립 추정연대인 조선초라는 시기는 모두 1600년대 이전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일렬로 자리잡고 있는데, 동익헌은 동반직(東班職) 즉 문관(文官)이, 서익헌은 서반직(西班職) 즉 무관(武官)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리형 객사의 경우, 맞배지붕으로 된 정침 쪽에는 역시 맞배지붕으로 하고 그 반대쪽에는 팔작지붕으로 하고 있다. 익헌의 외장은 정침보다 격식을 한 단 낮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동익헌과 서익헌 간의 경우 어느 쪽의 격식을 더 높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朝鮮古蹟圖譜』에서 보이는 경주객사의 경우, 동익헌이 서익헌보다 웅마루, 창방, 초석 등의 위치가 높고, 동익헌은 이익공, 서익헌은 초익공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武)보다 문(文)을 숭상하는 조선시대의 정치·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동익헌의 위계가 서익헌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경주객사에서 보이는 모습은 건립시기의 차이 등으로 인한 현상일 수 있고, 현존 객사에서는 동·서익헌의 모습이 동등한 사례도 많이 있으므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익헌은 온돌과 마루로 구성되어 있는데, 온돌은 숙박의 공간으로, 마루는 휴식과 업무의 공간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복원된 객사들을 살펴보면, 온돌은 정침 쪽에 전면 1칸 또는 2칸 정도의 규모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위치는 정침을 중심으로 대칭되는 곳에 있으며, 동·서익헌의 전면칸수가 다르더라도 온돌의 칸수는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주객사의 경우에는 동·서익헌의 온돌 모습이 대칭되지 않고 평면형태도 다르며, 영월객사 동익헌의 경우에는 온돌이 중앙부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보다 다양한 온돌 배치 형식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온돌의 후면과 정침 쪽 측면은 보통 회벽으로 막거나 일부 채광을 위한 창호를 설치하고, 전면과 마루 쪽 측면에는 일부 혹은 전면(全面)에 출입과 채광을 위한 창호를 설치한다. 마루 부분은 보통 전면 개방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익헌의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전면 칸수의 경우 3칸인 경우가 17채로 가장 많았고, 5칸 10채, 4칸 8채, 6칸 3채, 2칸과 7칸이 각각 1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익헌의 경우 3칸인 경우보다 5칸인 경우가 더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칸, 4칸, 6칸, 7칸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익헌의 경우에는 3칸이 11채로 대부분을 이루었고, 4칸과 5칸이 각각 3채, 2칸이 1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면 칸수가 동·서익헌이 같은 경우는 9채, 동익헌이 서익헌보다 큰 경우는 7채였으며,⁹⁾ 서익헌이 동익헌보다 큰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¹⁰⁾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익헌은 대체적으로 3칸에서 5칸의 규모가 많은데, 동익헌의 경우에는 보다 큰 5칸 또는 4칸을 주로 채택하고, 서익헌은 3칸 정도의 규모가 일반적이었고 할 수 있으며, 2칸, 4칸, 6칸과 같은 짝수칸보다는 3칸, 5칸, 7칸과 같은 홀수칸을 더 선호하였던 것 같다. 동·서익헌의 전면 칸수를 비교한 결과, 동·서익헌이 같은 경우가 동익헌이 더 큰

9) 무장객사의 경우, 동·서익헌의 칸수가 동일하나 서익헌의 측면이 더 길고, 영월객사의 경우 동익헌이 서익헌보다 전면 칸수는 더 크나, 측면 칸수와 길이는 더 작다. 이와 같이 동·서익헌의 규모를 비교하는데 애매한 경우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길이보다는 칸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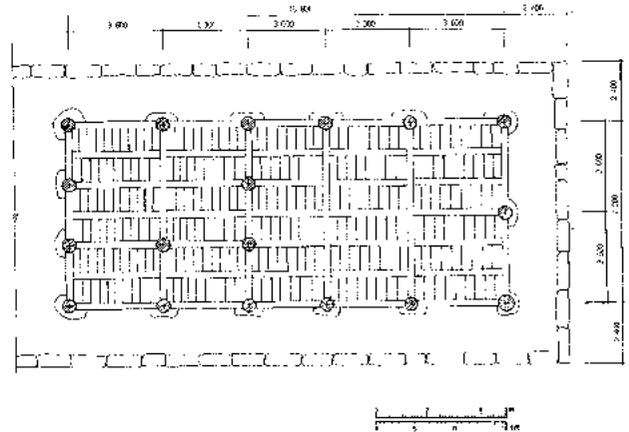
10) 문헌기록 상으로는 충청도 음성현의 경우 서익헌이 동익헌보다 1칸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있어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柳泳秀, 앞의 논문, p.65. 이후 문헌기록 상의 언급은 이를 근거자료로 삼는다.

V. 유구 해석 및 건축형식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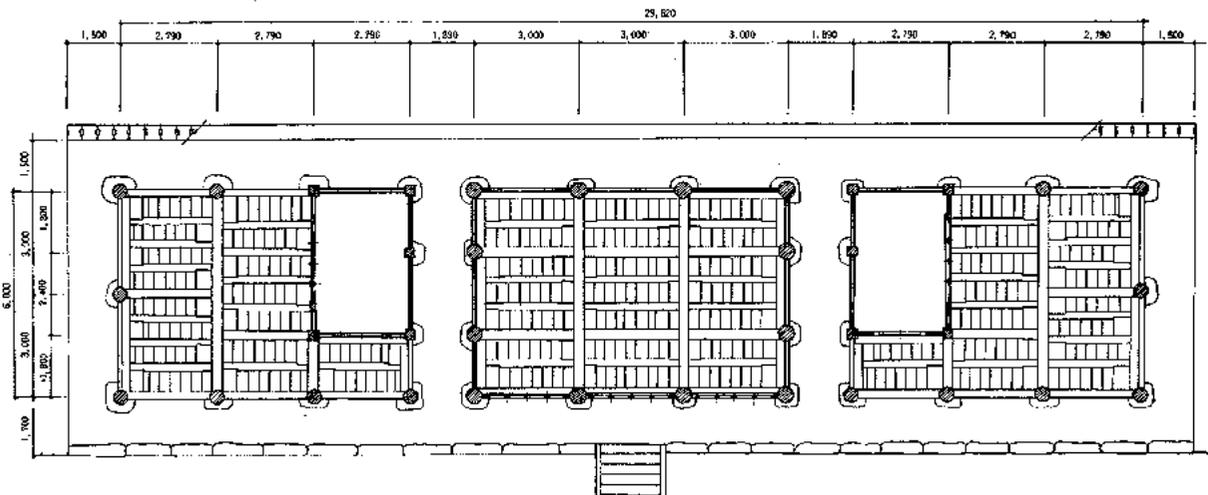
경우보다 약간 더 많으나, 문헌기록 상으로는 동익헌이 더 큰 경우가 반 수 이상이어서 그 비중을 논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동익헌과 서익헌의 평균 칸수에서도 나타나 듯이 대체로 동익헌을 서익헌과 동일한 규모로 하거나 아니면 더 큰 규모로 짓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던 것으로 보인다.

측면 칸수¹¹⁾의 경우에는 4칸인 남원객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2칸과 3칸인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측면이 2칸인 경우라도 부여객사 동·서익헌, 홍산객사 동·서익헌, 순창객사 동익헌은 정청 쪽 측면의 칸수가 3칸이며, 측면이 3칸인 문의객사 동익헌은 오히려 정청 쪽 칸수가 2칸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기동 배열 현상은 익헌의 평면구성, 정청 쪽 측면의 가구구조, 건립시기의 차이 등이 원인이라 생각된다. <도면 V-3> 결국 익헌 규모의 차이는 측면 칸수보다 전면 칸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벽제관은 동익헌과 서익헌이 모두 전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로 객사 익헌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모라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규모의 예로서 평택객사와 부여객사가 있다. <도면 V-4>



<도면 V-3> 순창객사 동익헌 평면



<도면 V-4> 부여객사 평면

11) 일단, 정청 반대쪽 측면의 칸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칸 수		서 익 현	정 정	동 익 현
전면	측면			
2	2	문경		
3	2	고양, 평택, 부여(3) 홍산(3)	고양, 안성, 인천, 문경	고양, 평택, 부여(3)
	3	문의, 예안, 무장 *	팽성, 부여, 홍산, 문의, 청도, 상주, 예안, 창령, 무장, 순창, 영월	예안, 무장 *
	4		전주, <부령>	
	5		<황주>	
	모름	<성주>, <진해>, <개천>, <강계>	<옥천>, <경주>, <성주>, <진주>, <울산>, <진해>, <남원>, <안변>, <개천>	<진해>
4	2			<부령>
	3	상주, 영월		문의(2), <안변>
	4	<남원>		
	모름			<진주>, <남원>
5	2			홍산(3), 순창(3), 영월
	3	경주, 전주		
	4		나주	
	모름	<울산>		<옥천>, <경주>, <울산>, <개천>
6	3			청도, <강계>
	모름		<강계>(?)	<성주>
7	3			상주
평균		3.4 × 2.7	3.2 × 3.1	4.5 × 2.5

<지역>은 사진자료에 의해 밝혀진 칸수리는 것을, () 안의 숫자는 익현의 정청 쪽 측면 칸수를 각각 말한다. 또, '진하게' 된 것은 서익현과 동익현의 전면 칸수가 같은 경우를, '밑줄' 친 것은 서익현보다 동익현의 전면 칸수가 더 큰 경우를, '이탤릭체'로 된 것은 자료의 한계 상 등·서익현의 전면 칸수를 비교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표 V-2〉 객사 칸수 비교

1-4. 지방 행정구역과 규모와의 관계

객사의 규모는 지방 행정구역상 등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의 분리형 객사 사례들을 지방 행정구역 등급¹²⁾에 따라 분류해 보면 〈표 V-3〉과 같다.¹³⁾ 이 결과

12) 지방 행정구역의 등급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므로 기준이 되는 시점을 잡아야 하는데, 자료가 남아있는 객사건물의 건립시기가 대부분 조선후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기준시점도 조선후기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그 시대적 변화의 차이가 크지 않으리라는 가정하에서, 조선초에 완성된 『經國大典』을 토대로 정리된 '金鍾永, 『朝鮮時代 官衙建築에 관한 研究』,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88, p.21(柳泳秀, 앞의 논문, pp.15-17 재인용)'을 기준으로 삼았다.

13) 객사가 감영에 소속된 건물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감영을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崔榮喆, 『조선시대 감영의 직제와 건축적 구성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학위논문, 1994.12.' 참조

V. 유구 해석 및 건축형식 고찰

행정구역	건물	전면 칸수 × 측면 칸수								평균
부(府) <종2품>	행정구역	경주	전주							사례:2
	동익헌	5×?	?							5.0×?
	정청	3×?	3×4							3.0×4.0
대도호부 (大都護府) /목(牧) <정3품>	행정구역	상주	성주	진주	나주	황주	안변	안주		사례:7
	동익헌	7×3	6×?	4×?	?	?	4×3	?		5.3×3.0
	정청	3×3	3×?	3×?	5×4	3×5	3×?	?		3.3×4.0
도호부 (都護府) <종3품>	행정구역	인천	남원	부령	강계					사례:4
	동익헌	?	4×?	4×2	6×3					4.7×2.5
	정청	3×2	3×?	3×4	6(?)×?					3.8×3.0
군(郡) <종4품>	행정구역	안성	고양	옥천	청도	울산	순창	영월	개천	사례:8
	동익헌	?	3×2	5×?	6×3	5×?	5×2	5×2	5×?	4.9×2.3
	정청	3×2	3×2	3×?	3×3	3×?	3×3	3×3	3×?	3.0×2.6
현(縣) <종5품>	행정구역	문의								사례:1
	동익헌	4×3								4.0×3.0
	정청	3×3								3.0×3.0
현(縣) <종6품>	행정구역	홍산	평택	부여	진해	문경	예산	창령	무장	사례:8
	동익헌	5×2	3×2	3×2	3×?	?	3×3	?	3×3	3.3×2.4
	정청	3×3	3×3	3×3	3×?	3×2	3×3	3×3	3×3	3.0×2.9
	서익헌	3×2	3×2	3×2	3×?	2×2	3×3	?	3×3	2.9×2.3

<표 V-3> 지방 행정구역 등급에 따른 객사 규모 (분리형 객사)

를 살펴보면 정청의 경우 전면 칸수가 부(府)에서 현(縣)까지 거의 3칸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고, 측면 칸수는 현(縣)에서 도호부(都護府)까지 3칸 이하의 규모를 보이다가 대도호부(大都護府)나 목(牧)에서부터 4칸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청의 규모를 늘일 경우 전면 칸수보다는 측면 칸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에 의해 확장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익헌의 경우에는 전면 칸수가 가장 낮은 등급인 현(縣)에서 3칸 정도의 규모를 보이다가 군(郡)에서부터는 차츰 커져 부(府)에서 5칸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동익헌의 경우에는 전면 칸수가 종6품의 현(縣)에서 3칸 정도의 규모를 보이다가 차츰 커지는데, 서익헌보다 1칸 또는 그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측면 칸수는 동익헌과 서익헌의 차이나 등급에 따른 차이가 보이지 않고, 대체적으로 3칸 이하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익헌은 가장 낮은 등급인 종6품의 현(縣)에서는 익헌의 전면 칸수가 3칸 정도의 규모를 보이다가 차츰 등급에 따라 커져가는데, 동익헌이 서익헌보다 1칸 또는 그 이상의 칸수를 가지며, 측면 칸수보다는 전면 칸수를 늘여 익헌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청이 전면보다 측면의 칸수를 증가시킴으로써 확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익현은 측면보다 전면의 칸수를 증가시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청과 익현의 확장 방식이 전면 쪽이나 측면 쪽이나 하는 방향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규모가 지방 행정구역 등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벽제관의 경우를 살펴보면, 객사의 규모 면에서 종4품의 수령이 있는 군(郡)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현(縣) 정도의 객사에 적당한 규모이다. 이렇게 다른 지방과는 달리 행정구역상의 등급과 객사 규모와의 관계가 서로 모순이 되는 이유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분명한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벽제관 이건 이후 변화된 국제 정세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벽제관이 이건된지 약 20년 후인 1644년에 명나라가 청나라에 의해 멸망함에 따라 조선의 대중(對中) 외교관계가 변화되고, 중국으로 통하는 역로에 위치한 벽제관의 규모도 이에 따라 축소와 변화과정을 겪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객사의 시대적 변화 양상, 고양군의 지역적 특수성, 벽제역과의 관계 등 좀 더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세부 구성

2-1. 정청 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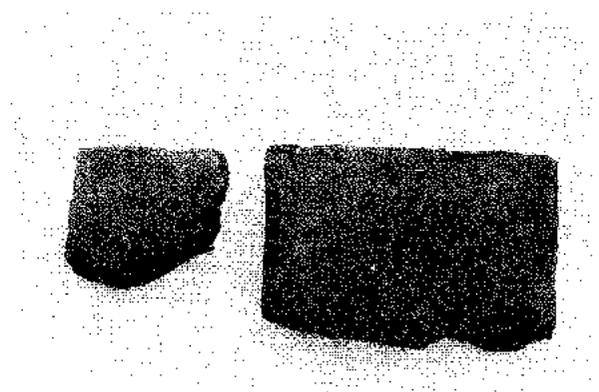
객사 정청의 실내 바닥은 그 기능이나 실내에서 치루어지는 의식으로 미루어 초기에는 전돌과 같은 재료로 마감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존하는 객사의 정청 바닥은 대부분 마루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현존 객사가 20세기에 들어서 개조, 복원, 이건 등의 변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이었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전돌을 깬 후 그 위에 다시 마루를 설치한 예가 사찰건축에서 몇몇 찾아지고, 17세기 이후 궁궐에서도 전돌로 마감된 편전 대신에 마루와 온돌로 이루어진 별도 건물을 편전으로 전용한 예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¹⁴⁾ 정청의 바닥도 전돌에서 마루로 변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벽제관 발굴 결과 정청 부분에서 전돌의 일부분이 발견된 것은 정청의 실내 바닥이 원래 전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사진 V-5>



<사진 V-5> 벽제관 정청 부분에서 발견된 전돌

14) 安城市, 『安城客舍 解體·重建工事報告書』, 2000.4., p.44

현재 정청 바닥에 전돌로 마감한 객사는 예안객사(선성현 객사)와 안성객사, 평택객사(평성읍객사)가 있다. 이 중에서 예안객사와 안성객사는 현재 이진되어진 객사로서 원래 어떤 형식으로 마감되었는지 밝히기 어렵고, 평택객사는 해체당시 기단 서남측 일부에 전돌이 발견되어 정청 바닥에 추정·복원한 것으로 보인다.¹⁵⁾ 또, 순창객사는 현재 마루가 깔려 있으나 원래는 전돌이었다고 하며,¹⁶⁾ 낙안객사는 단일형의 객사로 현재 정청에 해당하는 부분에 마루가 깔려 있으나, 객사주변 간이조사 결과, 객사 전면에서 객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파손된 전돌(규격 210×210×45mm, 190×190×45mm)이 발견되어 기단 바닥 등에 전돌로 복원하였다.¹⁷⁾ <사진 V-6>



<사진 V-6> 낙안객사 주변 간이조사 시 발견된 전돌

이와 같이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따르면 정청 내부에 전돌이 깔린 것이 유구상으로 확실히 밝혀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벽제관의 경우에도 이번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약간의 전돌 파편으로써 정청 바닥을 전돌로 마감하였다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또, 정청 내부에 있는 등바리돌로 미루어 전돌 이외에도 마루가 깔려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진자료에서 보이듯이 일제강점기 정화사업시 전돌에서 마루로 바닥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이미 그 이전에 바뀌었는지, 그 변화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다. 다만, 현재까지의 연구성과와 발굴결과를 종합해 볼 때, 원래는 전돌로 마감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2. 정청 벽체와 창호

객사 정청의 벽체는 보통 후면과 측면에 회벽으로 처리하고 전면은 창호를 설치하거나 개방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객사가 20세기에 들어서 많은 부분이 개조, 이진, 복원됨으로 인하여 그 원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밝히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朝鮮古蹟圖譜』에 실린 객사들의 경우 입면이 개조된 것을 제외하면 고령객사, 부령객사, 황주객사, 개성객사와 같이 개방된 것, 성천객사와 같이 띠살창호로 된 것, 벽제관, 육천객사, 남원객사, 밀양객사¹⁸⁾와 같이 홍살창호로 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존하는 객사에서

15) 平澤郡, 『彭城邑客舍 實測調査報告書』, 1994.12., p.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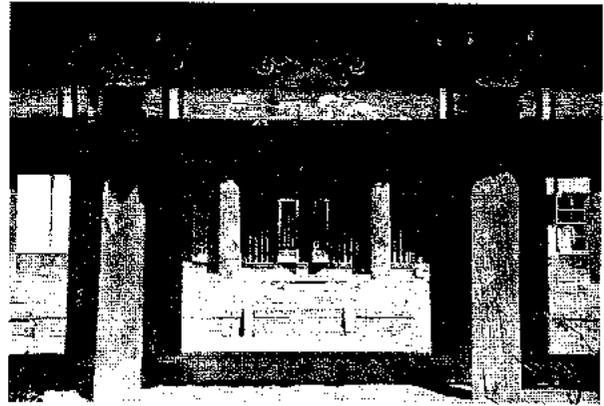
16) 『문화재대관』, 전라북도, 1978.10., p.29, 柳泳秀, 앞의 논문, p.105 재인용

17) 문화재관리국, 『文化財修理報告書』 92년도 上, pp.1132-1138 참조

18) 홍살이 상인방 상부에 설치되었는데, 전면 모두 홍살로 되어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처럼 상부에만 홍살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현재 전주객사, 낙안객사가 있다. 柳泳秀, 앞의 논문, pp.108-109 참조



〈사진 V-7〉 옥천객사 정청 (『朝鮮古蹟圖譜』)



〈사진 V-8〉 남원객사(『朝鮮古蹟圖譜』)



〈사진 V-9〉 밀양객사(『朝鮮古蹟圖譜』)



〈사진 V-10〉 평택객사 정청 (복원)

이와 같이 개방된 것, 띠살창호, 홍살창호 모두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홍살창호로 되어있는 객사는 순창객사가 있으며, 후에 복원된 것으로 평택객사(평성읍객사), 문의객사, 상주객사, 안성객사가 있다. 이 중에서 평택객사는 해체 당시 홍살창호가 없었으나, 기둥에 파여진 홈을 근거로 홍살창호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 복원하였으며,¹⁹⁾ 문의객사, 상주객사, 안성객사의 경우에는 추정에 의해 홍살창호로 복원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홍살창호는 정려(旌閭) 건축 정도에서 보이고 있을 뿐 다른 한국 전통건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예로서, 객사 건축에서 보이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홍살문이 신성한 공



〈사진 V-11〉 벽제관 정청 홍살창호

19) 平澤郡, 앞의 보고서, p.41

간의 진입을 암시하듯 객사의 홍살창호 또한 객사에서 가장 신성한 구역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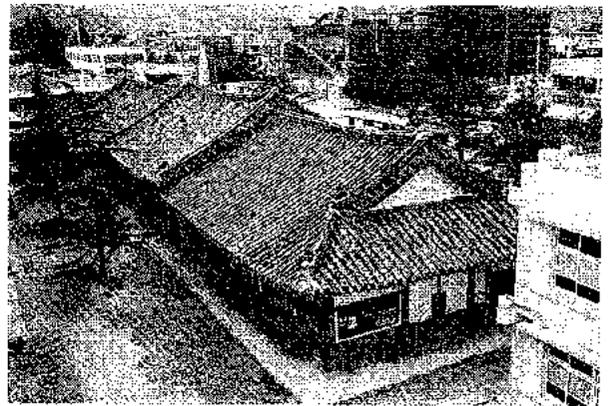
벽제관은 『朝鮮古蹟圖譜』에 나타나듯이 정청 전면에 홍살창호를 설치하고 어칸에만 문을 달아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V-11> 이렇게 어칸에만 문을 단 경우는 육천객사와 순창객사에서 보이고 있으며, 어칸과 협칸 모두 문을 단 경우는 남원객사에서 보이고 있다. 또, 홍살이 보통 어칸과 협칸에서 모두 같은 높이로 시설되는데 반하여 벽제관은 어칸의 홍살이 협칸보다 높게 창방까지 시설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의 홍살은 밀양객사에서 보이며 중심이 되는 어칸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정청의 홍살창호와 내부 바닥마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현존 객사 중에서 문의객사, 순창객사, 상주객사는 홍살창호와 함께 내부에 마루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 순창객사의 경우 원래 전들로 마감하였다고 전해지고, 문의객사와 상주객사의 경우 현재의 모습은 추정에 의한 복원인 것으로 짐작된다.²¹⁾ <사진 V-12>, <사진 V-13> 그러므로, 홍살창호와 함께 내부바닥을 마루로 시설한 확실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평택객사(평성음객사)의 경우 홍살창호의 흔적은 있으나 마루를 설치했던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렇게 홍살창호와 내부 바닥 마감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정청 전면이 홍살창호인 경우 내부바닥은 전들로 까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벽제관 정청 후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고택이용 전들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회벽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그 상부에 교살창과 같은 창을 설치했는지는 현재로써 알 수 없다. 또, 『朝鮮古蹟圖譜』의 사진자료에 의하면, 정청 서측면의 남쪽에 외쪽으로 된 홍살문을 달았는데, 동측면에도 이와 대칭되는 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의 측면에도 홍살창호를 설치했는지, 아니면 회벽을 설치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진자료가 선명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사진 V-12> 문의객사 (복원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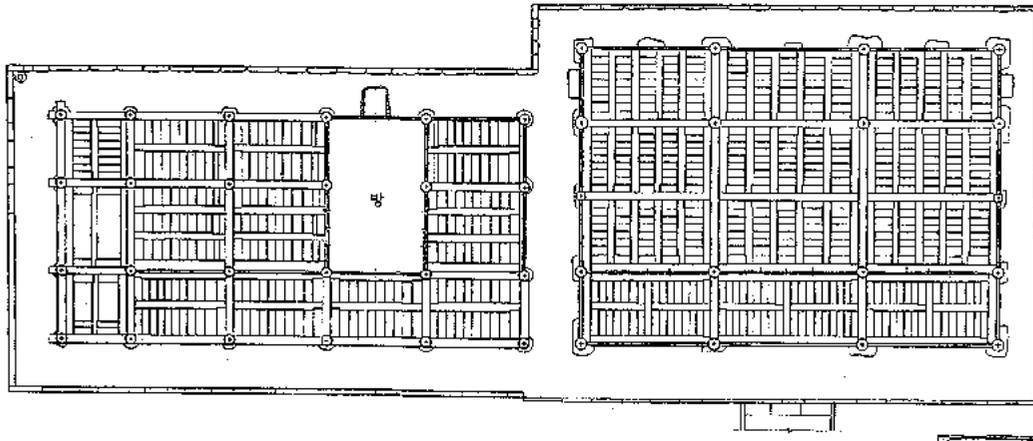
<사진 V-13> 상주객사 (복원 전)

20) 柳泳秀, 앞의 논문, pp.108-111

21) 문의객사와 상주객사의 경우, 현재의 모습은 확실한 근거에 의한 복원이라기 보다 다른 객사를 모델로 삼아 추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문의객사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ocp.go.kr '문산관' 참조. 상주객사는 문화재관리국, 『文化財修理報告書』, 87년도 pp.856-860, 91년도 下 pp.52-62 참조

2-3. 익헌 내부구성

익헌은 보통 온돌과 마루로 구성되는데, 온돌은 손님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마루는 휴식과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익헌의 전면 칸수가 벽제관과 같이 3칸인 경우 보통 1칸은 온돌, 2칸은 마루를 설치하는데, 온돌을 정청 쪽에 두고 마루를 그 반대쪽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 익헌의 모습이다. 그러나, 전주객사의 서익헌, 영월객사 동익헌 등과 같이 익헌의 규모가 큰 경우 정청과 온돌 사이에 마루를 1칸 놓기도 한다. <도면 V-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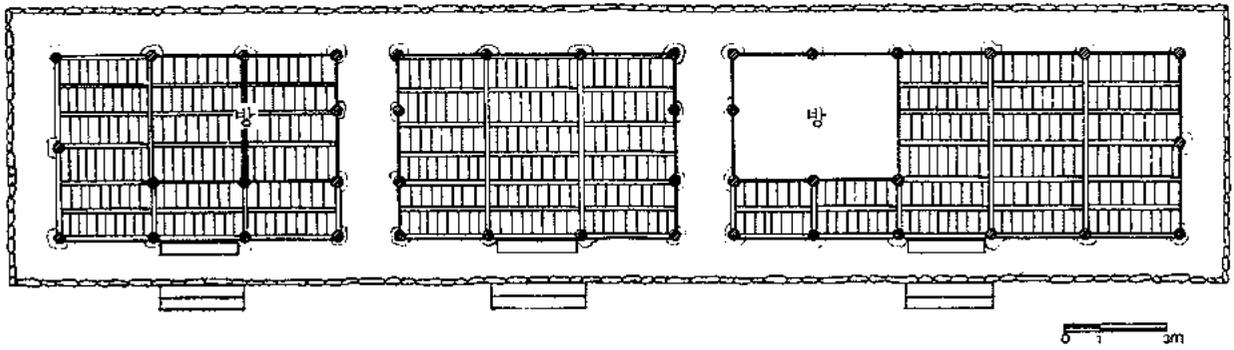


<도면 V-5> 전주객사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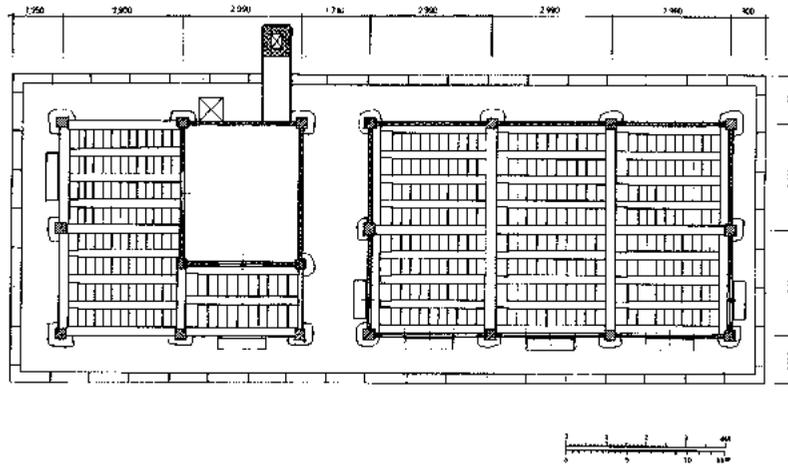
『朝鮮古蹟圖譜』의 사진자료에 따르면 벽제관의 동·서익헌은 전면 3칸 중에서 정청 쪽에 온돌 1칸, 반대쪽에 마루 2칸의 대칭적 구성을 했으리라 추정되는데, 이는 발굴에서 드러난 결과와 부합되는 것이다. 이러한 익헌의 구성은 다른 객사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인데, 특이한 점은 온돌방이 전면칸까지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객사에서 보면, 측면이 3칸인 경우 보통 뒤쪽에 온돌방 2칸, 그 앞쪽에 마루 1칸을 설치한다. 그러나, 벽제관과 같이 측면이 2칸인 경우에는 정청 쪽의 칸수를 3칸으로 나누어 그 중에서 뒤쪽의 2칸을 온돌방으로 하고 앞쪽의 1칸을 마루로 구성하거나,²²⁾ <도면 V-6> 2칸이라도 가운데 기둥열을 전면 쪽으로 옮겨 넓은 부분을 온돌방으로 하고 그 앞쪽에 마루를 놓는다.²³⁾ <도면 V-7>

22) 이와 같은 경우는 부여객사, 홍산객사, 순창객사, 영월객사 동익헌에서 보이고 있는데, 부여객사의 경우, 해체 복원 시 발견된 아궁이와 연도를 근거로 온돌방의 위치를 추정하였으며(문화재관리국, 『文化財修理報告書』 87년도, p.457 참조), 홍산객사 서익헌과 순창객사 동익헌의 경우 현재 온돌 대신 마루를 설치하였으나 원형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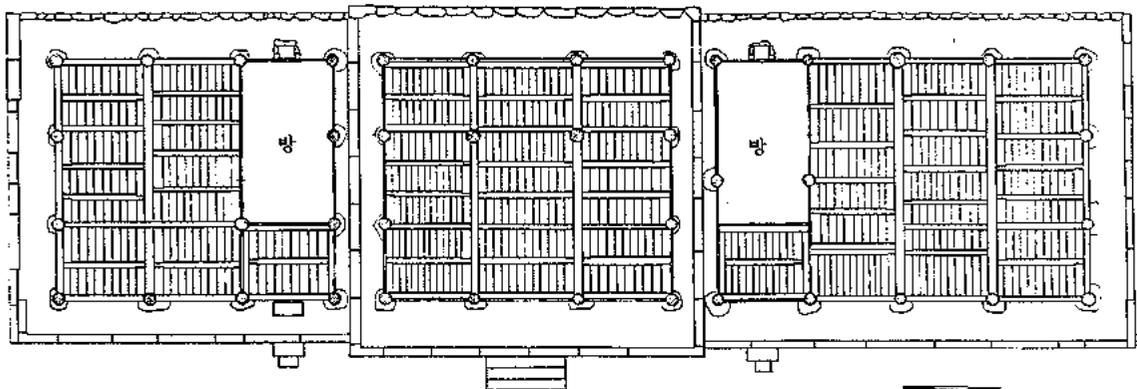
23) 이와 같은 경우는 문경객사와 평택객사의 경우에서 보이고 있는데, 문경객사의 경우, 해체 복원시 서익헌에서 우물마루와 구들이 나타나 원형대로 보수하였다고 보고되었으며(문화재관리국, 『文化財修理報告書』 90년도 甲, p.466), 평택객사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면 V-6〉 홍산객사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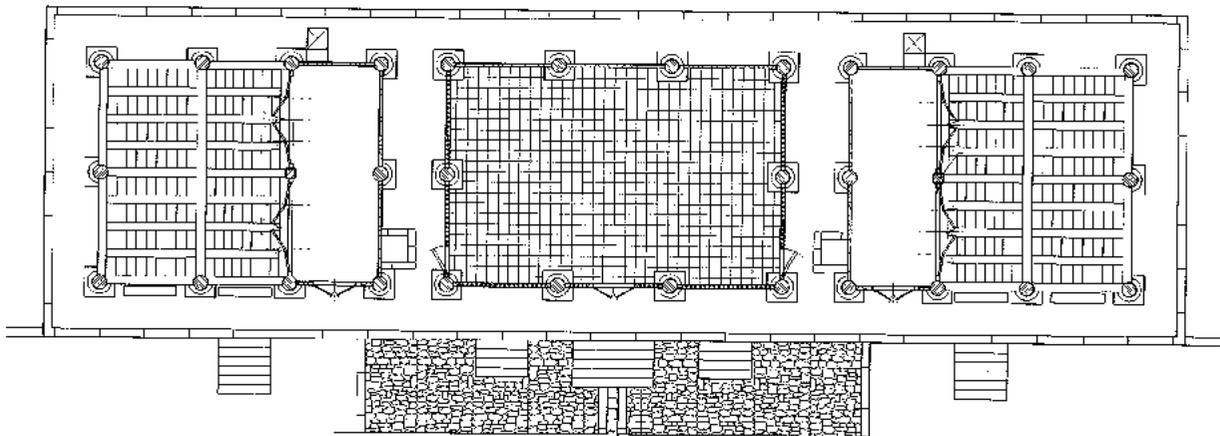


〈도면 V-7〉 문경객사 평면 (복원)



〈도면 V-8〉 문익객사 평면 (복원)

그러나, 벽제관에서는 앞의 두가지 경우와는 달리 정청 쪽 기둥열을 그대로 두었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문의객사 동익헌에 보인다. <도면 V-8> 문의객사 동익헌은 동쪽 측면이 3칸이면서 정청 쪽 측면은 2칸인데, 가운데 기둥열을 옮기지 않고 앞쪽에 반칸 정도의 마루를 두고 그 뒤쪽으로 온돌방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문의객사 역시 원형이 훼손되어 후대에 다시 복원한 사례로서 그 근거가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벽제관의 경우, 『朝鮮古蹟圖譜』의 사진자료에서 익헌의 정청쪽 1칸 전면에 남은 상부 회벽²⁴⁾과 발굴 당시 전면칸까지 연결된 채 노출된 연도로 미루어, 문의객사의 동익헌과 같이 온돌방 앞에 마루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벽제관의 이러한 특징은 객사 건축에서 유일하게 확인되는 사례이어서 주목된다. <도면 V-9>



<도면 V-9> 벽제관 평면 (추정)

3. 기단과 계단

3-1. 기단

객사 기단은 쌓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전통건축물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다만, 가구식 기단의 형식은 보이지 않고, 다듬돌 바른층 쌓기, 막돌 허튼층쌓기, 막돌 바른층 쌓기 등의 방식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한벌대나 두벌대 정도 높이의 다듬돌 바른층 쌓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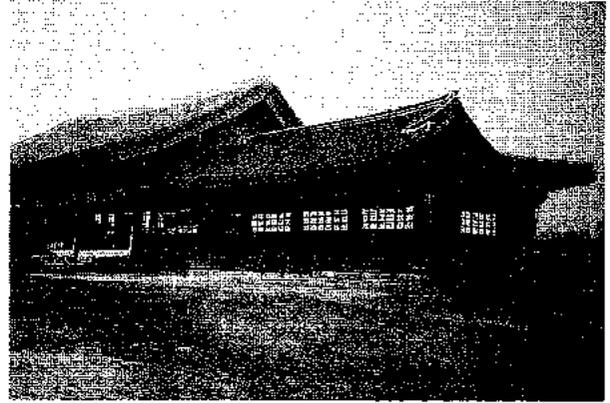


<사진 V-14> 남원객사 (『朝鮮古蹟圖譜』)

24) 동·서익헌의 온돌칸 전면 상부회벽에는 조선후기 민화에서 보이는 호랑이와 비슷한 벽화가 나란히 그려져 있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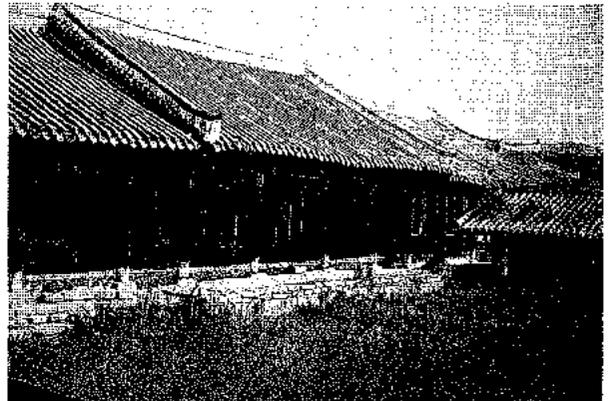
〈사진 V-15〉 문의객사 기단



〈사진 V-16〉 안변객사 (『朝鮮古蹟圖譜』)



〈사진 V-17〉 황주객사 (『朝鮮古蹟圖譜』)



〈사진 V-18〉 성천객사 (『朝鮮古蹟圖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벽제관은 현재 갑석이 유실된 상태이나 『朝鮮古蹟圖譜』의 사진자료에 따르면 면석과 갑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벽제관과 같이 면석과 갑석을 사용한 객사는 부여객사 정도가 현존할 뿐이고, 『朝鮮古蹟圖譜』의 사진자료 상으로는 개성객사, 옥천객사, 남원객사 정도가 면석과 갑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V-14〉 이와 같은 방식은 다른 방식의 기단에 비해 비교적 고급스러운 것으로 생각된다.

벽제관과 같이 전면에 높은 기단을 쌓고 다시 후면과 측면에 한 단의 기단을 설치한 예는 낙안객사와 유사한데, 이는 자연지형을 살려 전면은 축대의 구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단을 쌓고 다시 건물 주위에 한발대의 기단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객사에서 보이는 기단의 특징은 정청 부분을 익헌보다 높여 쌓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의 기단은 현재 전주객사, 문의객사, 영월객사에서 보이고 있고, 『朝鮮古蹟圖譜』의 사진자료에서는 안변객사 정도가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V-15〉, 〈사진 V-16〉 그러나, 벽제관에서는 정청과 익헌이 같은 높이의 기단을 갖는다. 또, 평면상으로 정청이 익헌보다 전면 또는 후면 방향으로 약간 돌출하게 되면서 기단도 함께 돌출하는데, 전면이 돌출한 경우는 『朝鮮古蹟圖譜』의 사진자료에서 보이듯이 황주객사와 안변객사가 있

고, 후면이 돌출한 경우는 전주객사가 있다. <사진 V-17> 또, 전·후면이 모두 돌출한 경우는 성천객사와 문의객사가 있는데, 성천객사의 경우 후면은 전주객사와 같이 정청 평면에 따라 돌출된 것으로 보이나, 전면은 평면과는 상관없이 돌출되어 있고, 문의객사는 전·후면 모두가 평면과 상관없이 약간 돌출되었다. <사진 V-18> 이와 같은 수법은 수직적 방법에 의한 위계질서 표현을 수평적 방법으로도 표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기능적으로도 정청 의례 거행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사진 V-19> 벽제관 (『寫眞으로 보는 韓國百年 1』)

벽제관에서 이와 같이 정청의 기단을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돌출시켜 그 위계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번 발굴조사 구역에서 벗어나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사진 V-19>²⁵⁾에서 보면 동익헌 동쪽에 이중 기단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중 기단의 형식은 아직까지 객사 건축에서 사용된 예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벽제관의 경우에는 의장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이중기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규모가 축소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판단된다.

3-2. 계단

객사에서 기단이 한발대 또는 두발대인 경우 계단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주로 정청 이칸에 1개소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금천객사, 홍산객사의 경우 정청과 동·서익헌에 각각 하나씩 3개소에 계단을 설치하고 있고, 낙안객사는 주변 간조사시 발견된 월대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단 3개소 및 정청에 해당하는 부분 전면에 1개소, 건물 밖 전면에 양쪽 하나씩 모두 6개소에 계단을 설치하였다.²⁶⁾

또, 『朝鮮古蹟圖譜』에 의하면 고령객사는 특이하게도 정청에 3개소의 계단을 설치하고 있으며, <사진 V-20> 진주객사는 정청과 동·서익헌, 그리고 월대 앞에 하나씩 모두 4개소에 계단을 설치하였다. <사진 V-21>

벽제관에서는 정청 앞에 3개, 서익헌 앞에 1개, 모두 4개의 계단 유구가 노출되었는데,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단까지 포함하면 최대 7개의 계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청 앞 중앙 계단은 다른 계단보다 한 단 더 낮은 기단 면석과 같은 높이에서 시작하고 있어 계단 설치 시기가 각각 달랐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고, 『朝鮮古蹟圖譜』의 사

25) 동아일보사, 『寫眞으로 보는 韓國百年 1』, 1991.8., p.70

26) 문화재관리국, 『文化財修理報告書』 92년도 上, pp.1131-1146 참조



〈사진 V-20〉 고령객사 (『朝鮮古蹟圖譜』)



〈사진 V-21〉 진주객사 (『朝鮮古蹟圖譜』)

진자료에서 보면 정청 앞 3개소의 계단 윤곽은 비교적 뚜렷한데 비해서 서익헌과 동익헌 쪽 계단은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 그 유무를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벽제관에서 7개의 계단이 동시대에 사용되었다기보다 객사의 규모 변화에 따라 계단도 몇 차례의 변화과정을 겪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 벽제관의 계단은 크기 순으로 볼 때, 정청 앞 중앙 계단, 그 좌우계단, 동·서익헌 계단 및 건물 밖 전면 계단의 순으로 3단계의 크기를 갖고 있으며, 『朝鮮古蹟圖譜』에서 보면 정청 중앙 계단이 그 좌우의 계단보다 한 단 더 높게 설치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객사 건축에서 잘 드러나는 위계적 질서를 계단에서도 보여준다고 하겠다.

4. 마당 형식

4-1. 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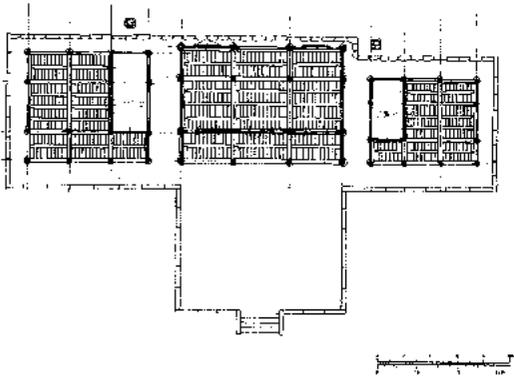
객사 정청 앞에 월대²⁷⁾를 설치한 예는 현존 객사로는 유일하게 무장객사가 있고, 『朝鮮古蹟圖譜』의 사진자료에 의하면 진주객사와 남원객사 정도에서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²⁸⁾ 〈도면 V-10〉 그러나, 낙안객사 주변 간이조사시에 동서방향 17~16.9m, 남북방향 7.3m의 월대지가 발견되어²⁹⁾ 월대를 설치했던 객사의 사례가 하나 더 밝혀졌으며, 〈도면 V-11〉 남원객사의 경우, 지표조사 시 『朝鮮古蹟圖譜』에서 보이는 월대 유구 일부가 확인되었는데, 다듬돌 바른층 쌓기 방식의 장대석이 2단 노출되었다.³⁰⁾ 〈사진 V-22〉

27) 현재 '구자형 기단' 또는 '배례단' 등의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월대'라는 명칭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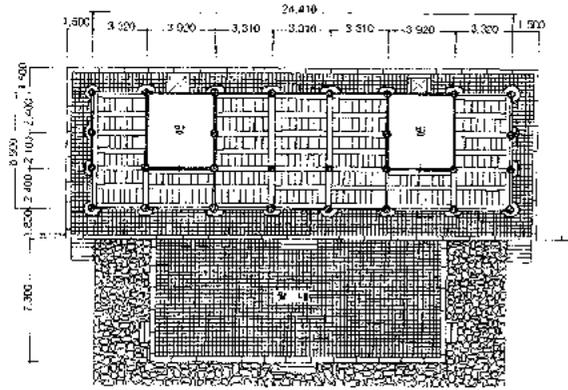
28) 柳泳秀, 앞의 논문, p.102'에서는 울산객사도 월대가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으나 사진자료가 불분명하여 제외하였다.

29) 문화재관리국, 『文化財修理報告書』 92년도 上, pp.1132-1138 참조

30) 『朝鮮古蹟圖譜』에서 보이는 월대 부분의 감석은 유실된 것으로 생각되며, 동쪽에는 계단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함께 노출되었다. 南原市, 『龍城館 地表調査 報告書』, 1995.7., p.53



〈도면 V-10〉 무장객사 월대



〈도면 V-11〉 낙안객사 월대 (복원)



〈사진 V-22〉 남원객사 월대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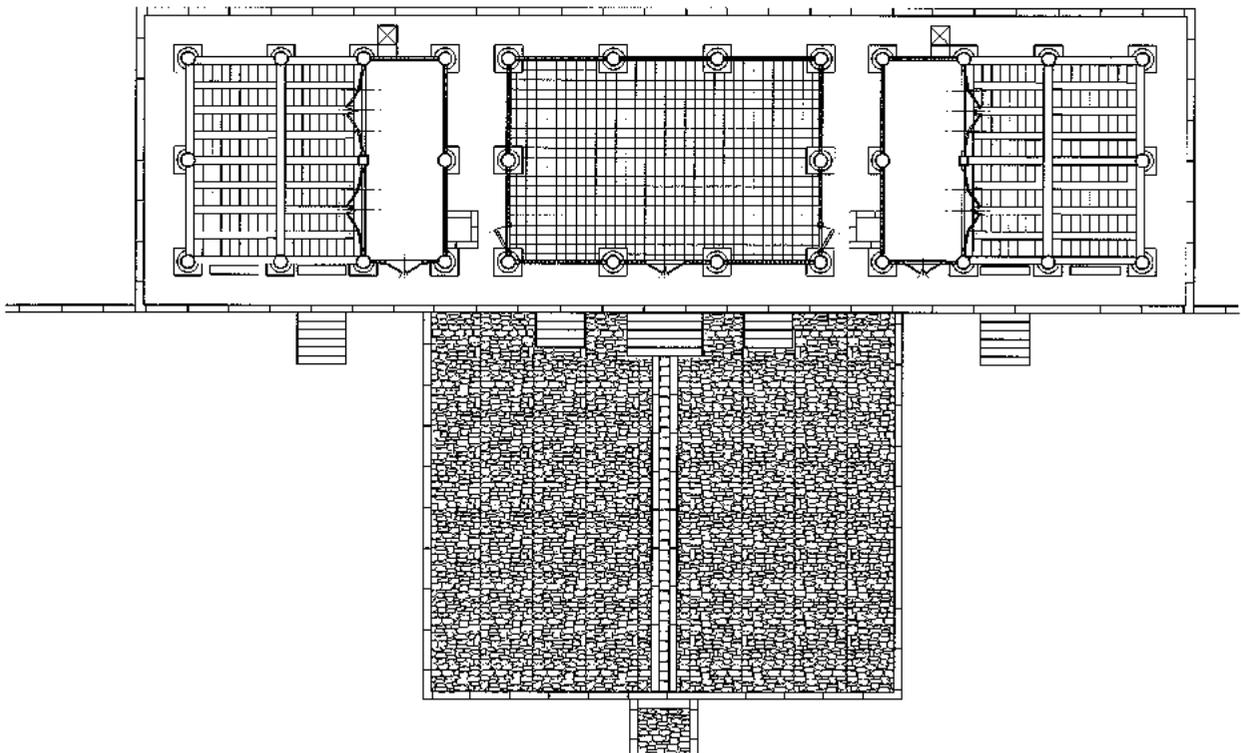
〈사진 V-23〉 개성객사 (『朝鮮古蹟圖譜』)

무장객사의 월대가 기단과 같은 높이로 거의 정형 크기 만하게 돌출된 것에 비하면 진주객사와 남원객사는 기단과의 단차를 약간 두고 그 돌출된 부분도 왜소하다. 또, 무장객사가 거의 정방형의 월대인 반면, 낙안객사의 월대는 장방형으로 형태상 진주객사와 남원객사와 유사하리라 추측된다. 그 외에는 개성객사가 있는데, 개성객사는 단일형의 객사로 전면 기단을 앞으로 돌출하여 기능상 월대와 같은 목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기단을 형태적으로는 '월대'라고 하기 힘들지만, 마루 밑에 있는 디딤돌 역할의 장대석은 돌출된 전면 기단이 월대처럼 보이게 하고 있고, 기능적으로도 월대와 같은 역할을 하리라 여겨지므로, 앞에서 언급한 전면 돌출 기단과 함께 넓은 범주의 '월대'로 포함시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진 V-23〉

벽제관에서 낙안객사나 남원객사에서와 같이 월대로 확실히 규정할 만한 유구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석렬의 위치나 형태가 벽제관 주건물지 평면과 잘 맞는 것으로 미루어 월대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석렬의 형태로 미루어 벽제관의 월대는 무장객사와 같이 거의 정방형일 것으로 추정되며, 정청 앞 계단과의 높이 관계 등으로 미루어 진주객사나 남원객사와 같이 1-2 단 정도의 높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V-

12) 벽제관 월대 (복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월대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는 객사는 벽제관을 포함해도 몇 안 된다. 그러나, 고지도에서 객사 앞에 월대를 표현한 예가 적지 않고, 낙안객사와 같이 단일형의 객사에서 발견되며, 대부분의 객사가 20세기에 들어 많은 변화과정을 겪어 원형을 구분하기 힘든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청 앞에 월대를 설치한 것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이번 벽제관 발굴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도면 V-12) 벽제관 월대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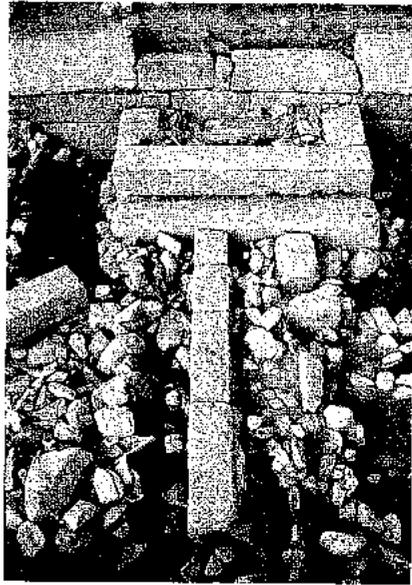
4-2. 보도

‘어도(御道)’라 불리는 보도³¹⁾는 보통 정전(正殿) 앞이나 종묘와 같은 의식적인 공간에 만들어지는데, 세 부분으로 나뉘고 중앙이 양쪽보다 한층 높게 돌을 깐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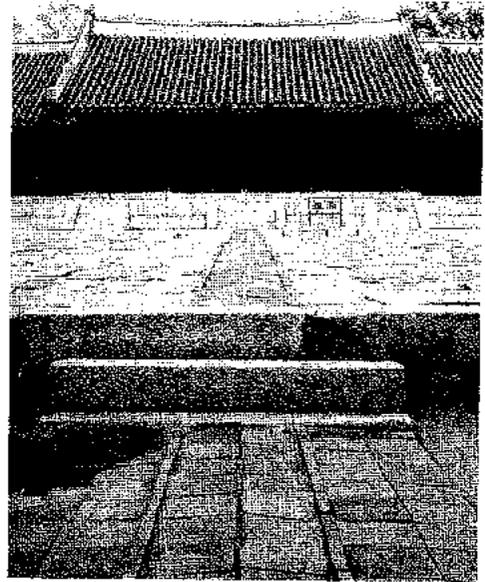
31) 이와 같은 형식의 길을 부르는 용어로는 ‘어로(御路)’, ‘어도(御道)’, ‘신도(神道)’ 등이 있다. 현재 통상적으로 궁궐과 같이 왕과 관련된 시설에 사용될 경우 ‘어로’나 ‘어도’라고 하고, 대성전이나 사당과 같은 곳에 사용될 경우에는 ‘신도’라 구분하여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의 용어들을 객사건축에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는 것 같다. 또, ‘柳泳秀, 앞의 논문, p.103’에 보면 ‘돌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돌’이라는 부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단순한 현상적 개념으로서 ‘보도(步道)’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32) 주남철, 『한국건축의장』, 일지사, 1997.2., p.210

객사 정청이 의례를 거행하는 공간이므로 객사 건축에서 어도 형식과 같은 보도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보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객사는 현존 유구 중 거제 기성관과³³⁾ 『朝鮮古蹟圖譜』의 사진자



〈사진 V-24〉 벽제관 보도 장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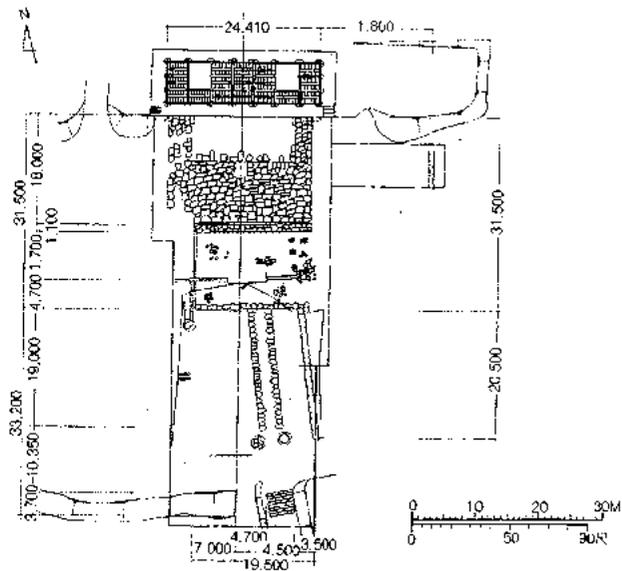


〈사진 V-25〉 종묘 영녕전 앞 어도

료에서 확인되는 진주객사, 개성객사, 고령객사, 안변객사 정도가 알려졌을 뿐이었다. 그러나, 남원객사 지표조사 결과 월대 앞에서 중대문을 지나 외삼문까지 연결되는 폭 2.7m의 석렬이 발견되었는데, 양쪽 가장자리를 1단 정도 높이의 장대석으로 막고, 그 내부는 흙을



〈사진 V-26〉 벽제관 삼문에서 정청까지의 흙길 (『舊跡館』)



〈도면 V-13〉 낙안객사 유구 배치도

33) 柳泳秀, 앞의 논문, p.103

채운 것으로 보인다.³⁴⁾

현재까지 객사 건축에서 보이는 보도를 살펴보면, 경복궁 근정전 앞이나 종묘에서와 같이 삼도(三道)형식의 보도는 보이지 않고 기단 중앙의 계단석과 같은 쪽으로 가장자리를 다듬들이나 막들로 막고 그 내부는 들이나, 흙 등으로 채워넣은 일도(一道)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벽제관에서는 정청 앞 중앙 계단의 가장 아랫단의 윗면과 나란한 높이에 설치된 석재가 윗쪽과 바깥쪽이 잘 다듬어진 채 두 줄로 노출되었는데, 보도의 가장자리 장대석으로 추정되는 유구이다. <사진 V-24> 그러나, 앞에서 확인된 보도와는 달리 계단보다 좁은 쪽으로 배열되어 있어 원래 삼도(三道)형식의 보도가 아니었나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종묘 정전과 영녕전 앞의 어도에서와 같이 월대 앞 계단까지 삼도 형식의 어도이다가 월대 위에서 일도 형식의 어도로 바뀌는 형식을 모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한다. <사진 V-25> 또, 그 내부는 어떤 재료로 채워놓았는지 단언하기 어려우나, 장대석 안쪽의 윗 부분을 일정한 폭을 만들기 위해 다듬은 것으로 미루어 종묘 정전과 영녕전 앞 어도처럼 전돌이 사용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보도가 설치될 위치에 있는 삼문에서 기단까지 이어지는 보도 석렬은 노출된 상태로 미루어 보도를 지지하기 위한 지반시설 또는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정화사업 때 흙길의 강도와 배수를 고려한 잡석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리고 두가지 가능성이 함께 성립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사진 V-26> 또, 낙안객사 주변 간이조사시에는 벽제관과는 달리 문에서 입구 계단까지 이어지는 폭 3.8m, 길이 21.2m의 석렬이 발견되었는데,³⁵⁾ 이는 보도 석렬과 연계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면 V-13>

4-3. 부석

객사 건축에 부석을 간 예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충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시행한 해미읍성 내 발굴조사에 따르면 객사 전정(前庭)에 해당하는 부분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겹쳐서 간 부석 유구가 광범위하게 발굴되었고,³⁶⁾ <사진 V-28> 낙안객사 주변 간이조사 시에도 월대를 둘러싼 형태의 부석이 동서 약 21.8m, 남북 약 18m 범위 내에서 발굴되었다.³⁷⁾ <사진 V-29> 또, 남원객사 용성관 지표조사 시에는 『朝鮮古蹟圖譜』에서 보이는 마당의 하얀 부분이 부석이었음이 밝혀졌고,³⁸⁾ <사진 V-30> 강릉대학교 박물관에서 시행한 강릉객사 임영관지 발굴조사에서도 벽제관의 부석 유구와 유사한 형태의 유구가 발굴되었

34) 그 외에 보도석렬을 중심으로 10m 떨어진 좌우에 폭 0.9m의 석렬 유구가 노출되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보조 통행로'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표조사인 만큼 확실한 결과는 전면발굴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南原市, 앞의 보고서, pp.53-55 참조

35) 문화재관리국, 『文化財修理報告書』 92년도 上, pp.1132-113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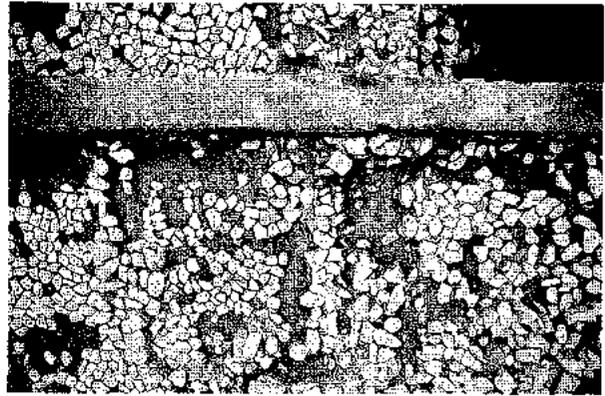
36) 충남대학교박물관·서산군청, 『海美邑城 內 建物址 發掘報告書』, 1981

37) 문화재관리국, 『文化財修理報告書』 92년도 上, p.1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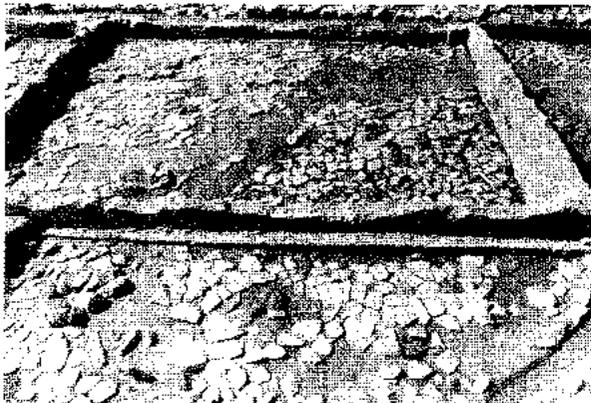
38) 南原市, 앞의 보고서, p.53

는데,³⁹⁾ 그 시대가 고려시대로 추정되어 주목된다. <사진 V-31>

앞의 경우에 사용된 부석을 살펴보면, 그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 지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 부석의 경계선이 드러난 낙안객사의 경우, 보도에서 보이는 잠대석과 같은 석재로 부석 가장자리 부분을 막지 않고 부석 자체의 선을 일정하게 맞추어 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V-27> 벽제관 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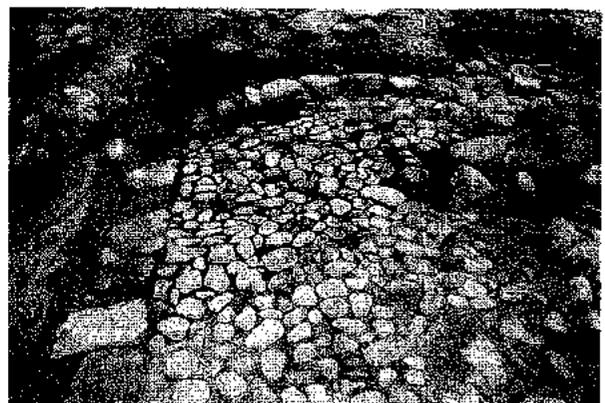
<사진 V-28> 해미읍성 내 건물지 부석



<사진 V-29> 낙안객사 부석



<사진 V-30> 남원객사 부석



<사진 V-31> 강릉객사 부석

39) 고려시대의 중대청지로 추정되는 건물지에서 발견된 넷들로 기단 석렬 앞쪽에 촘촘히 간 것으로 미루어 보도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기단옆 바깥쪽에 평행하여 간 것으로 미루어 보도라기보다는 벽제관과 같은 부석 유구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된다. 강릉대학교 박물관·강릉시, 『江陵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강릉대학교 박물관 학술총서 14책, 1996, pp.15-82 참조

이와 같은 발굴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때, 벽제관을 제외한 다른 객사지 발굴에서도 부석 유구가 발굴되었다는 사실은 객사 건축에서 부석을 설치하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예가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강릉객사 입영관지의 부석 유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시원(始原)이 고려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종합

벽제관은 정청과 익헌이 분리된 평면형, 즉, 분리형으로서 규모가 정청과 동·서익헌 모두 전면 3칸, 측면 2칸인 객사이다. 이러한 평면형식과 규모는 객사 건축으로서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 행정구역 등급에 따른 규모 면에서는 다른 등급의 객사에 비해 단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청의 바닥에는 전돌을 설치하고, 전면과 측면(또는 측면 일부)에는 홍살을 단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또한 객사 건축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의장수법이다. 익헌의 구성 또한 온돌 1칸, 마루 2칸으로 다른 객사와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익헌의 온돌방은 전면까지 점유한 것을 추정되는데, 이와 같은 특징은 다른 객사 건축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례이어서 주목된다.

벽제관의 기단은 전면을 면석과 갑석을 이용하여 쌓은 매우 고급스러운 기단 형식으로, 자연지형을 살리기 위해 기단을 높이 쌓아 축대의 구실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사진자료에서 확인되는 측면의 이중기단과 같은 모습은 이번 발굴 여건상 확인되지 않았으나 벽제관 규모가 축소되면서 생긴 결과가 아닌가 추정된다.

계단의 유구는 4개소에서 발견되었으나,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최대 7개의 계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7개의 계단이 동시대에 있었다기보다는 벽제관의 변화에 따라 계단의 위치와 갯수가 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정청 앞 3개소에 크기와 단수가 다른 계단을 설치한 것을 보면 계단조차도 객사 건축의 위계적 형식 규범을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월대와 보도, 그리고 부석은 기능상 정청에서의 의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시설물로 보여지는데, 최근의 발굴 성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객사 건축에서 많이 사용된 마당 형식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볼 때, 벽제관은 객사 건축으로서 매우 모범적이면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동급의 군(郡)에 비해 작은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벽제관의 시대적 변화와 연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또, 기단이나 마당의 형식으로 볼 때, 벽제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객사 형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이번 발굴로 인하여 객사 건축의 마당 역할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되길 바란다.

VI. 복원계획

1. 복원 기준의 설정

2. 사용 영조석 검토

2-1. 정형

2-3. 서익현

2-5. 종합

2-2. 동익현

2-4. 삼문

3. 복원계획설계

3-1. 건물배치

3-3.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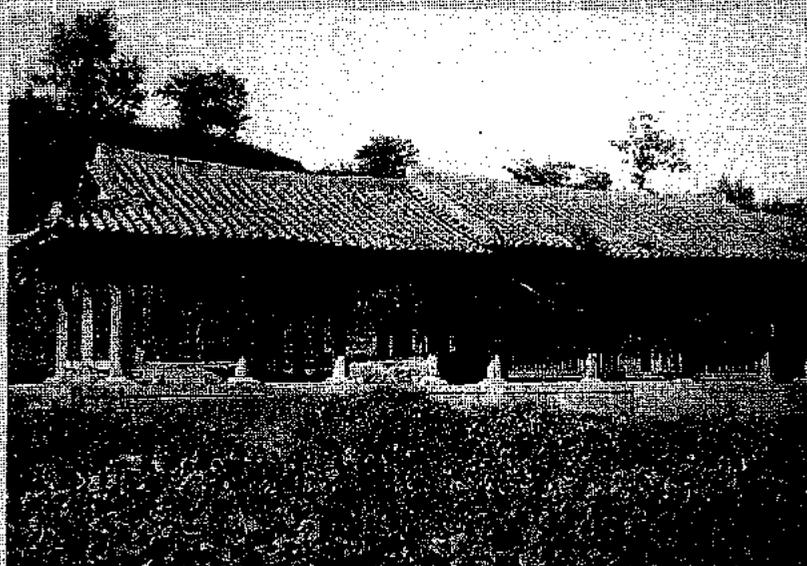
3-5. 기둥과 가구재

3-7. 지붕

3-2. 평면

3-4. 기단과 계단

3-6. 벽체와 창호



VI. 복원계획

1. 복원 기준의 설정

벽제관의 초창년대를 알 수 있는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조선왕조실록 세종 원년(1419년) 8월 15일의 기사인 “벽제관에서 중국의 사신인 황엄을 영접하였다”라는 기록이 벽제관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데, 이로 미루어 벽제관의 초창은 세종 대 보다 앞선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초창시기는 태종 대로 추정되고 있다. 그 후 여러 차례의 중건 기록과 함께 연산군 대의 군 혁파, 중종 대의 복치 기록 등이 보이고 있어 벽제관은 많은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현재의 벽제관지는 인조 3년(1625)에 고양군의 읍치(邑治)를 옮기면서 다른 관아 건물들과 함께 이진된 곳으로 보인다. 그 후의 중건이나 수리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정확한 변화 과정은 알 수 없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50여 칸의 건물들이 헐려 정청과 익헌, 삼문 정도 남아 있던 것이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정청과 익헌이 소실되었고, 1960년경까지 남아있던 삼문마저도 돌보지 않아 무너지고 현재는 건물지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¹⁾

현재 남아있는 유구 외에 벽제관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사진자료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그 중의 한 종류는 『朝鮮古蹟圖譜』, 『高陽郡誌』의 모습과 같이 벽체와 창호의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이고, 또 한 종류는 『碧蹄館』, 『高陽案內』의 모습과 같이 일제강점기 정화보수 작업 후 정청과 익헌에 마루를 깔고 난간을 두른 모습이다. 『朝鮮古蹟圖譜』의 모습이 인조 3년에 고양군을 이읍한 이후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나, 훼손되었을지언정 변형된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복원계획시 현재로서 이보다 더 좋은 근거가 될만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현재 발굴 조사된 벽제관 주건물지와 문지의 유구는 인조 3년에 고양군의 읍치를 옮길 때 중건한 건물지 유구로 추정되고 있으나, 『朝鮮古蹟圖譜』에서 보이는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라고 단언하기 힘들므로, 복원시기를 설정하기보다는 『朝鮮古蹟圖譜』의 모습과 함께 발굴조사 결과를 근거로 복원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 외에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례와 기존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복원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용 영조척(營造尺) 검토

건물의 복원을 위해서는 당시 사용한 기본 단위척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 앞 II장의 '3-1. 연혁' 부분 참조

VI. 복원계획

현재 남아있는 상부 가구가 없으므로, 벽제관의 초석이나 적심석의 주칸을 실측 조사하여 주칸의 영조적으로 나누어 기본 단위척을 검토하였다. 단위척의 분석은 그 빈도수를 정리·비교하였으며, 각 4면의 전체길이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실측의 오차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 당시에 사용하였던 척도를 고찰하여 벽제관 복원의 기본 척도로 사용하고자 한다.

실측 조사 방법은 초석이 남아 있는 주칸은 주좌의 중심점에서 중심점까지 거리를 실측하였고, 초석이 없는 곳에서는 적심석의 중심부를 선정하여 거리를 실측하였다.

2-1. 정척

정척의 평면은 전면 3칸, 측면 2칸으로, 실측된 수치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칸길이는 어칸의 전면이 3,060mm, 후면이 3,100mm이고, 서쪽 협칸의 전면이 3,080mm, 후면이 3,210mm이며, 동쪽 협칸의 전면이 3,110mm, 후면이 3,120mm로 실측되었다. 서측면에서는 남쪽 주칸이 3,100mm, 북쪽 주칸이 3,200mm이고, 동측면에서는 남쪽 주칸이 3,250mm, 북쪽 주칸이 3,300mm로 큰 오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측된 수치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표 VI-1>과 같다.

구 분		mm	곡 척 (曲尺)	영조척 (營造尺)	환산비 (換算比)	단위척 (mm)
전 면	어칸	3,060	10.098	10	1.0098	306
	서쪽 협칸	3,080	10.164	10	1.0164	308
	동쪽 협칸	3,110	10.263	10	1.0263	311
	도리칸 전체길이	9,250	30.525	30	1.0175	308
후 면	어칸	3,100	10.230	10	1.0230	310
	서쪽 협칸	3,210	10.593	10	1.0593	321
	동쪽 협칸	3,120	10.296	10	1.0296	312
	도리칸 전체길이	9,430	31.119	30	1.0373	314
서 측 면	남쪽 주칸	3,100	10.230	10	1.0230	310
	북쪽 주칸	3,200	10.560	10	1.0560	320
	보칸 전체길이	6,300	20.790	20	1.0395	315
동 측 면	남쪽 주칸	3,250	10.725	10	1.0725	325
	북쪽 주칸	3,300	10.890	10	1.0890	330
	보칸 전체길이	6,550	21.615	20	1.0807	327

<표 VI-1> 정척 주칸 분석

용척(用尺)은, 각 주칸을 완척(完尺)으로 보고 건립 당초의 사용척도를 찾아 보기로 한다. 도리칸과 보칸 모두 보칸 10자씩 잡은 것으로 보인다. 실측치들을 이들 자(尺)수로 나누어 단위척의 빈도수를 조사해 보면 전면과 후면의 어칸과 협칸에서는 306mm~321mm가, 양 측면에서는 310mm에서부터 330mm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많은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분석은 그 빈도수를 정리해 보면 잘 나타나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VI-2>와 같다.

치수(mm)	306	308	310	311	312	314	315	320	321	325	327	330
빈도수	1	2	2	1	1	1	1	1	1	1	1	1

<표 VI-2> 정청 주칸 단위척 빈도수

위의 빈도수에서 단위척이 308mm~311mm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1 영조척(營造尺)이 이 사이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2-2. 동익헌

구분	mm	곡척 (曲尺)	영조척 (營造尺)	환산비 (換算比)	단위척 (mm)
전면	어칸	2,550	8.415	8	318
	서쪽 협칸	5,570	8.481	8	321
	동쪽 협칸	2,850	9.405	9	316
	도리칸 전체길이	7,970	26.301	25	318
후면	어칸	2,450	8.085	8	306
	서쪽 협칸	2,490	8.217	8	311
	동쪽 협칸	2,900	9.570	9	322
	도리칸 전체길이	7,840	25.872	25	313
서측면	남쪽 주칸	3,210	10.593	10	321
	북쪽 주칸	3,300	10.890	10	330
	보칸 전체길이	6,510	21.483	20	325
동측면	남쪽 주칸	3,200	10.560	10	320
	북쪽 주칸	3,200	10.560	10	320
	보칸 전체길이	6,400	21.120	20	320

<표 VI-3> 동익헌 주칸 분석

VI. 복원계획

동익헌의 평면은 전면 3칸, 측면 2칸으로, 실측된 수치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칸길이는 어칸의 전면이 2,550mm, 후면이 2,450mm이고, 서쪽 협칸의 전면이 2,570mm, 후면이 2,490mm이며, 동쪽 협칸의 전면이 2,850mm, 후면이 2,900mm로 실측되었다. 서측면에서는 남쪽 주칸이 3,210mm, 북쪽 주칸이 3,300mm이고, 동측면에서는 남쪽 주칸이 3,200mm, 북쪽 주칸이 3,200mm로 실측되었다. 이러한 실측된 수치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표 VI-3>과 같다.

용척(用尺)은, 각 주칸을 완척(完尺)으로 보고 건립 당초의 사용척도를 찾아 보기로 한다. 도리칸은 어칸과 정청쪽 협칸은 8자씩, 나머지 협칸은 9자씩, 보칸은 정청과 같이 10자씩 잡은 것으로 보인다. 실측치들을 이들 자(尺)수로 나누어 빈도수를 조사해 보면 전면과 후면의 어칸과 협칸에서는 306mm~322mm가, 양 측면에서는 320mm~330mm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은 그 빈도수를 정리해 보면 잘 나타나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VI-4>와 같다.

치수(mm)	306	311	313	316	318	320	321	322	325	330
빈도수	1	1	1	1	2	3	2	1	1	1

<표 VI-4> 동익헌 주칸 단위척 빈도수

위의 빈도수에서 단위척이 318mm~321mm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1 영조척(營造尺)이 이 사이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2-3. 서익헌

서익헌의 평면은 전면 3칸, 측면 2칸으로, 실측된 수치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칸길이는 어칸의 전면이 2,530mm, 후면이 2,460mm이고, 서쪽 협칸의 전면이 2,900mm, 후면이 2,920mm이며, 동쪽 협칸의 전면이 2,510mm, 후면이 2,540mm로 실측되었다. 서측면에서는 남쪽 주칸이 3,200mm, 북쪽 주칸이 3,120mm이고, 동측면에서는 남쪽 주칸이 3,150mm, 북쪽 주칸이 3,200mm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실측된 수치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표 VI-5>와 같다.

용척(用尺)은, 각 주칸을 완척(完尺)으로 보고 건립 당초의 사용척도를 찾아 보기로 한다. 도리칸은 어칸과 정청쪽 협칸은 8자씩, 나머지 협칸은 9자씩, 보칸은 정청과 같이 10자씩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동익헌과 같다. 실측치들을 이들 자(尺)수로 나누어 빈도수를 조사해 보면 전면과 후면의 어칸과 협칸에서는 307mm~324mm가, 양 측면에서는 312mm~320mm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은 그 빈도수를 정리해 보면 잘 나타나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VI-6>과 같다.

구 분		mm	곡 척 (曲尺)	영조척 (營造尺)	환산비 (換算比)	단위척 (mm)
전 면	어칸	2,530	8,349	8	1.0436	316
	서쪽 협칸	2,900	9,570	9	1.0633	322
	동쪽 협칸	2,510	8,283	8	1.0353	313
	도리칸 전체길이	7,940	26,202	25	1.0480	317
후 면	어칸	2,460	8,118	8	1.0147	307
	서쪽 협칸	2,920	9,636	9	1.0706	324
	동쪽 협칸	2,540	8,382	8	1.0477	317
	도리칸 전체길이	7,920	26,136	25	1.0454	316
서 측 면	남쪽 주칸	3,200	10,560	10	1.0560	320
	북쪽 주칸	3,120	10,296	10	1.0296	312
	보칸 전체길이	6,320	20,856	20	1.0428	316
동 측 면	남쪽 주칸	3,150	10,395	10	1.0395	315
	북쪽 주칸	3,200	10,560	10	1.0560	320
	보칸 전체길이	6,350	20,955	20	1.0477	317

〈표 VI-5〉 서익헌 주칸 분석

지수(mm)	307	312	313	315	316	317	320	322	324
빈 도 수	1	1	1	1	3	3	2	1	1

〈표 VI-6〉 서익헌 주칸 단위척 빈도수

위의 빈도수에서 단위척이 316mm~320mm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1 영조척(營造尺)이 이 사이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2-4. 삼문

서익헌의 평면은 전면 3칸, 측면 1칸으로, 실측된 수치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칸길이는 어칸의 전면과 후면이 3,020mm이고, 서쪽 협칸의 전면이 2,320mm, 후면이 2,450mm이며, 동쪽 협칸의 전면과 후면이 2,300mm으로 실측되었다. 서측면에서는 어칸 측면이 2,870mm, 협칸 측면이 2,820mm이고, 동측면에서는 어칸 측면이 2,900mm이며, 협칸 측면은 전면 초석의 열이 어긋나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실측된 수치를 가지고

VI. 복원계획

분석해 보면 <표 VI-7>과 같다.

구분	mm	곡척 (曲尺)	영조척 (營造尺)	환산비 (換算比)	단위척 (mm)	
전면	어칸	3,020	9,966	9.5	1,0490	317
	서쪽 협칸	2,320	7,656	7.5	1,0208	309
	동쪽 협칸	2,300	7,590	7.5	1,0120	306
	도리칸 전체길이	7,640	25,212	24.5	1,0290	311
후면	어칸	3,020	9,966	9.5	1,0490	317
	서쪽 협칸	2,450	8,085	7.5	1,0780	326
	동쪽 협칸	2,300	7,590	7.5	1,0120	306
	도리칸 전체길이	7,770	25,641	24.5	1,0465	317
서측면	어칸 주칸	2,870	9,471	9	1,0523	318
	협칸 주칸	2,820	9,306	9	1,0340	313
동측면	어칸 주칸	2,900	9,570	9	1,0633	322
	협칸 주칸	제 외				

<표 VI-7> 삼문 주칸 분석

용척(用尺)은, 각 주칸을 완척(完尺)으로 보고 건립 당초의 사용척도를 찾아 보기로 한다. 도리칸 중에서 어칸은 9.5자씩, 협칸은 7.5자씩, 보칸은 9자씩 잡은 것으로 보인다. 실 측치들을 이들 자(尺)수로 나누어 빈도수를 조사해 보면, 전면과 후면의 어칸에서는 317mm, 협칸에서는 306mm~326mm, 양 측면에서는 313mm~322mm로 나타나는데, 이는 변형이 많이 된 것을 제외하면, 317mm 부근에 모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그 빈도수를 정리해 보면 잘 나타나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VI-8>과 같다.

치수(mm)	306	309	311	313	317	318	322	326
빈도수	2	1	1	1	3	1	1	1

<표 VI-8> 삼문 주칸 단위척 빈도수

위의 빈도수에서 단위척이 317mm 부근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1 영조척(營造尺)이 이 부근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2-5. 종합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 주건물지에서의 1 영조척 검토는 상기 빈도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치수(mm)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20	321	322	324	325	326	327	330
정청	1		2		2	1	1		1	1				1	1			1	1	1	1
동익헌	1					1			1		1		2	3	2	1		1	1		1
서익헌		1					1	1		1	3	3		2		1	1				
문	2			1		1		1				3	1			1				1	
계	4	1	2	1	2	3	2	2	2	2	4	6	3	6	3	3	1	2	3	1	2

〈표 W-9〉 정청과 익헌 주칸 단위척 빈도수

위에서와 같이 정청, 익헌과 삼문에 대한 단위척을 검토한 결과, 실측에 의한 오차 등 많은 무리수가 있지만, 정청과 익헌에서는 대체적으로 316mm~321mm에서 많이 분포되어 있고, 문지에서는 317mm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당시의 영조척은 이를 평균 환산한 치수로 318.31mm에서 318mm가 기본 단위척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주건물지와 문지 건물에서의 기본 단위척은 318mm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앞으로의 복원 정비사업에도 318mm를 기본 단위척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복원계획설계

3-1. 건물배치

현존하는 객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청과 동·서익헌, 그리고 몇몇 누와 문, 고직사 일부 정도만 남아 있어 전체적인 배치와 공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벽제관의 배치는 현재 발굴 조사된 유구를 근거로 하였다. 정청이 삼문과 남북 중심축을 이루며 산을 등지고 남향하고 있고, 그 좌우에는 동·서익헌이 정청을 중심으로 대칭되게 배치되어 있으며, 삼문은 정청으로부터 남쪽으로 28.620m(90尺)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어 그대로 복원하기로 하였다.

또, 이번 발굴조사 결과, 정청 전면에는 동서 14.6m, 남북 9.4m의 석렬이 확인되었는데, 46尺×38尺(14.62m×12.08m) 규모의 월대로 추정된다. 문지와 주건물지 사이를 연결한 것으로 보이는 보도로 추정되는 유구 일부가 노출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복원설계하였다. 담장지는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高陽郡誌』의 사진자료를 통해 삼문 양쪽

에 담장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적지 범위 내에 국한하여 복원하였다.

3-2. 평면

정청은 전면 3칸, 측면 2칸인데, 도리칸과 보칸 모두 10尺으로 잡아 전체 규모를 30尺×20尺(9.54m×6.36m)으로 하였다. 평면 형태는 초석 배치와 적심석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통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청 내부 마감에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과정을 겪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나, 현재까지의 자료를 종합해 볼때, 『朝鮮古蹟圖譜』에서 보이는 시기까지는 마루가 깔리지 않다가 그 후 일제강점기 정화사업시에 마루가 시설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 마루와 함께 디딤석도 추가로 놓여진 것으로 보인다. 또, 적심석을 노출시키는 과정에서 정청 후면의 서측 협칸에 전돌이 노출되었는데, 이는 정청의 내부 마감이 마루가 아닌 전돌이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정청의 내부 마감을 전돌로 복원하였다.

동·서익헌은 모두 전면 3칸, 측면 2칸으로 도리칸은 정청 쪽에서부터 각각 8尺, 8尺, 9尺으로, 보칸은 정청과 마찬가지로 각각 10尺씩으로 주칸을 설정하였다. 익헌의 전체 규모는 25尺×20尺(7.95m×6.36m)이다. 평면 형태는 정청 쪽 협칸에서 온돌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노출되어 이를 토대로 정청 쪽 협칸 1칸을 온돌로 하였으며, 나머지 2칸은 마루로 마감하였다. 이러한 추정은 『朝鮮古蹟圖譜』의 사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청과 동·서익헌 사이는 각각 6尺 정도 떨어져 건물을 구분하였으며 이 사이에 아궁이 시설을 하였다.

삼문은 전면 3칸, 측면 1칸으로 도리칸은 어칸을 9.5尺, 협칸을 7.5尺으로 하였으며, 보칸은 9尺으로 하였다. 삼문의 전체 규모는 24.5尺×9尺(7.79m×2.86m)이다. 평면의 형태는 벽선 중심에 문을 달아 기둥없이 문선을 세워 널문을 달았다.

삼문의 동쪽 온돌 유구는 삼문과 같은 동서축선 상에 위치하여 삼문과 관련된 건물로 추정되나,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삼문과의 관계가 아직 불분명하고 그 정확한 위치도 확인되지 않아 이번 복원설계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3-3. 초석

정청의 초석은 10개가 노출되었는데, 주좌를 돌을 새긴 초석이 대부분이다. 정청 내부에 있던 2개의 초석은 제거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초석을 재사용하는 것으로 복원안을 잡았다. 초석의 크기는 750~1,000mm이며 주좌의 크기는 600mm 내외로 가공되어 있다.

동·서익헌의 초석은 정청과 동일하게 주좌가 있는 초석과 방형의 초석이 혼용되어 있다. 익헌의 초석은 동바리돌을 제외하고 전부 11개일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토대로 복원하였다. 온돌방 부분의 내부 초석은 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온돌방의 내진주 형태 역시 방형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현존하는 객사 건물 중 상주객사 상산관, 부여객사, 회인 인산객사, 완도객사, 오천객사 등 여러 객사에서 온돌방 내부 기둥에 이러한 기둥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와 같은 추정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익헌 초석의 규모는 정침보다 약간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삼문의 초석은 8개 모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좌가 있는 초석이 대부분이다. 삼문 초석 역시 기존의 초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복원안을 잡았다.

3-4. 기단과 계단

주건물지의 기단은 화강석 장대석을 사용하였는데, 『朝鮮古蹟圖譜』에 전하는 사진자료에는 장대석 위에 턱을 내어 갑석을 올린 기단 양식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잔존하는 기단에는 갑석이 유실된 채 장대석만 남아 있어 유실된 갑석까지 복원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다. 전면은 장대석 세벌대에 갑석을 두어 전체적으로는 네벌대 규모이고, 그 전체 높이가 1,020㎜ 정도이다. 후면과 측면은 현재 한벌대로 되어 있는데, 전면에 갑석을 복원할 경우 후면과 측면도 그 정도의 높이의 장대석을 추가하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삼문의 기단은 장대석으로 전면은 세벌대로 하고 있으며 후면은 한벌대로 구성되어 있다. 복원안은 현재의 유구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주건물지의 계단은 모두 7개소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침 전면에 3개소가 있으며 동·서익헌의 어칸 앞에 각각 1개, 그리고 전면 기단 동서 양 끝에 2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비교적 계단 유구가 확실할 것으로 생각되는 정침 3개소, 동·서익헌 2개소의 계단을 복원하였다. 그러나, 이 계단들의 조성시기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복원안에서는 일단 5개의 계단이 동시대에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계획하였다. 각각의 유실된 계단석은 기단 높이를 고려하여 발굴결과를 토대로 유실된 부분을 복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삼문의 계단은 전면에 3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건물지의 계단과 마찬가지로 조성시기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번 복원안에서는 『碧蹄館』의 사진자료에 근거하여 3개의 계단을 복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어칸의 계단폭이 넓고 협간은 좁으며, 계단의 재료는 가공이 잘 된 화강석이다. 현재의 지형차를 고려하여 발굴조사 결과와는 달리 2단을 두는 것으로 하였다.

3-5. 기둥과 가구재

정침과 동·서익헌의 기둥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온돌방 부분의 내진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원형 기둥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초석의 형태와 사진자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기둥의 형태는 상부가 좁고 하부가 넓은 민흘림의 원기둥으로 설계하였으며, 삼문의 기둥도 마찬가지로 민흘림의 원형기둥을 사용하였다. 단, 온돌방의 내진주는 각주일 가능성이 많아 각주로 설계하였다.

정침과 동·서익헌은 통칸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고주 없는 5량 가구의 구조로 복원하였다. 또, 공포 양식은 정침에서는 이익공, 동·서익헌에서는 초익공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같은 추정은 『朝鮮古蹟圖譜』 사진자료를 분석해 보면 가능하다. 즉, 창방의 높이가 정청과 익헌이 같은데 비해서 정청의 지붕이 높은 것은 익헌보다 정청의 포가 제공 높이만큼 더 높기 때문이며, 이는 정청의 공포 양식이 익헌의 초익공보다 제공이 하나 더 많은 이익공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朝鮮古蹟圖譜』의 사진자료와 같이 도리는 굴도리를 사용하였으며, 대공은 조선 중기 이후의 대표적 형태인 하부가 넓고 상부가 좁은 판대공을 사용하였다.

삼문의 가구는 3량으로 민도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진자료로 확인되어 이대로 복원설계하였다. 도리는 굴도리를 사용하였으며, 삼문 중간에 셋기둥 없이 벽체에 주선을 세우고 널문을 달았다.

그 외에 고증이 안되는 부재들은 현존하는 객사 건물의 일반적인 형태를 따랐으며, 초석에 나타나는 주좌에서 원기둥의 크기를 추정하고 이 크기를 토대로 다른 부재의 크기를 잡았다.

3-6. 벽체와 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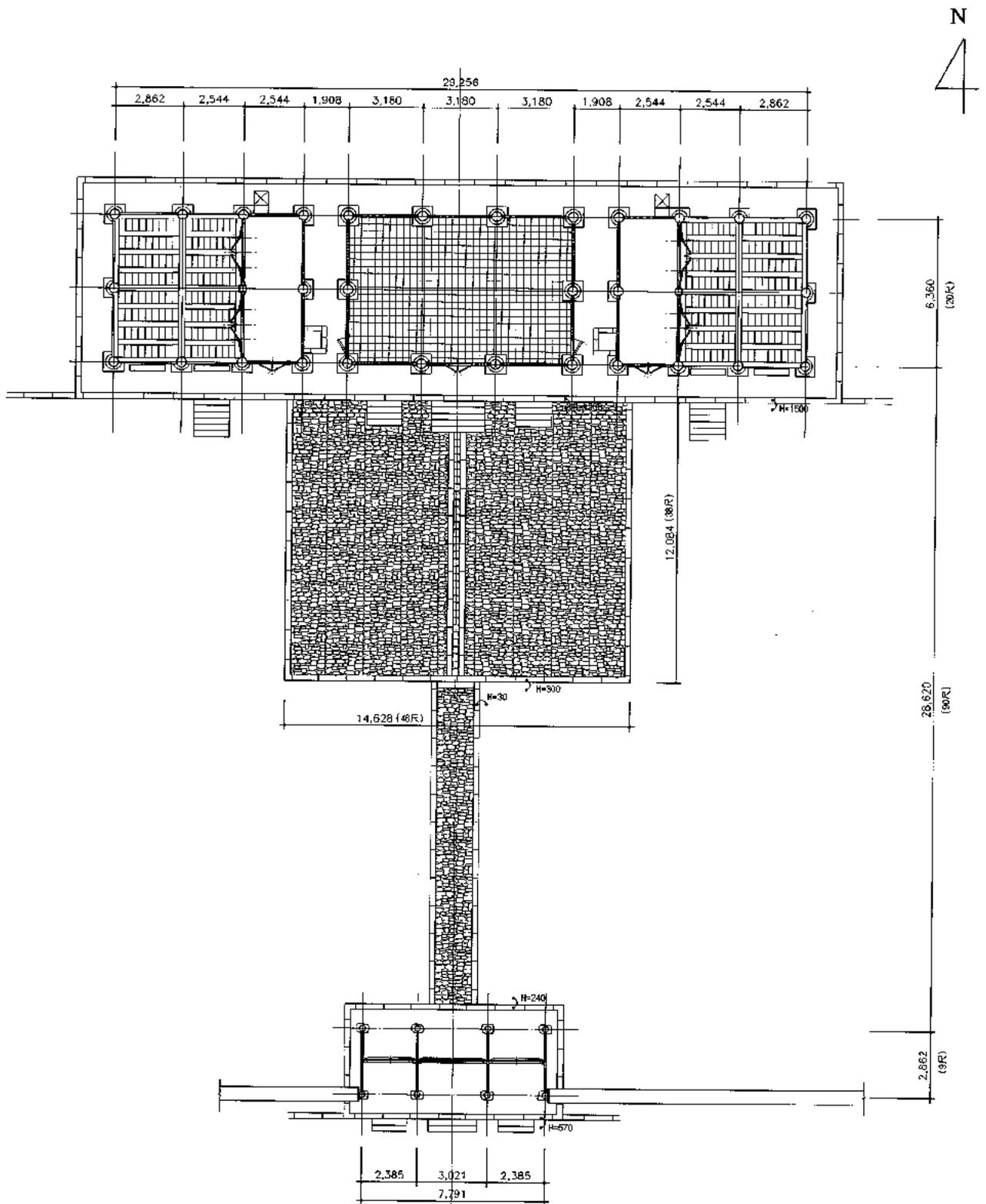
정청의 벽체는 전면과 측면에는 벽체 없이 홍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복원하였으며, 후면은 회벽으로 하였다. 창호는 어간에 홍살로 된 2짝 여닫이 문을 만들고, 측면 양쪽에 남쪽으로 역시 홍살로 된 외짝 여닫이 문을 두었다. 특히, 전면 어간의 홍살은 양쪽의 협칸 홍살보다 높이 되어 있는 것이 사진자료로 확인되므로 이대로 복원하기로 하였다.

동·서익헌의 마루 부분은 벽체를 두지 않았으며, 온돌방 부분은 회벽으로 구획하였다. 온돌방의 벽체 중 정청 쪽 부분은 회벽으로 하였으며, 전면은 하방과 중방, 상방을 질러 회벽을 두고 하방과 중방 사이에는 2짝 여닫이 띠살창으로 복원하였다. 마루 쪽 부분의 벽체는 4짝으로 된 맹장지 들문을 만들어 사용에 편리를 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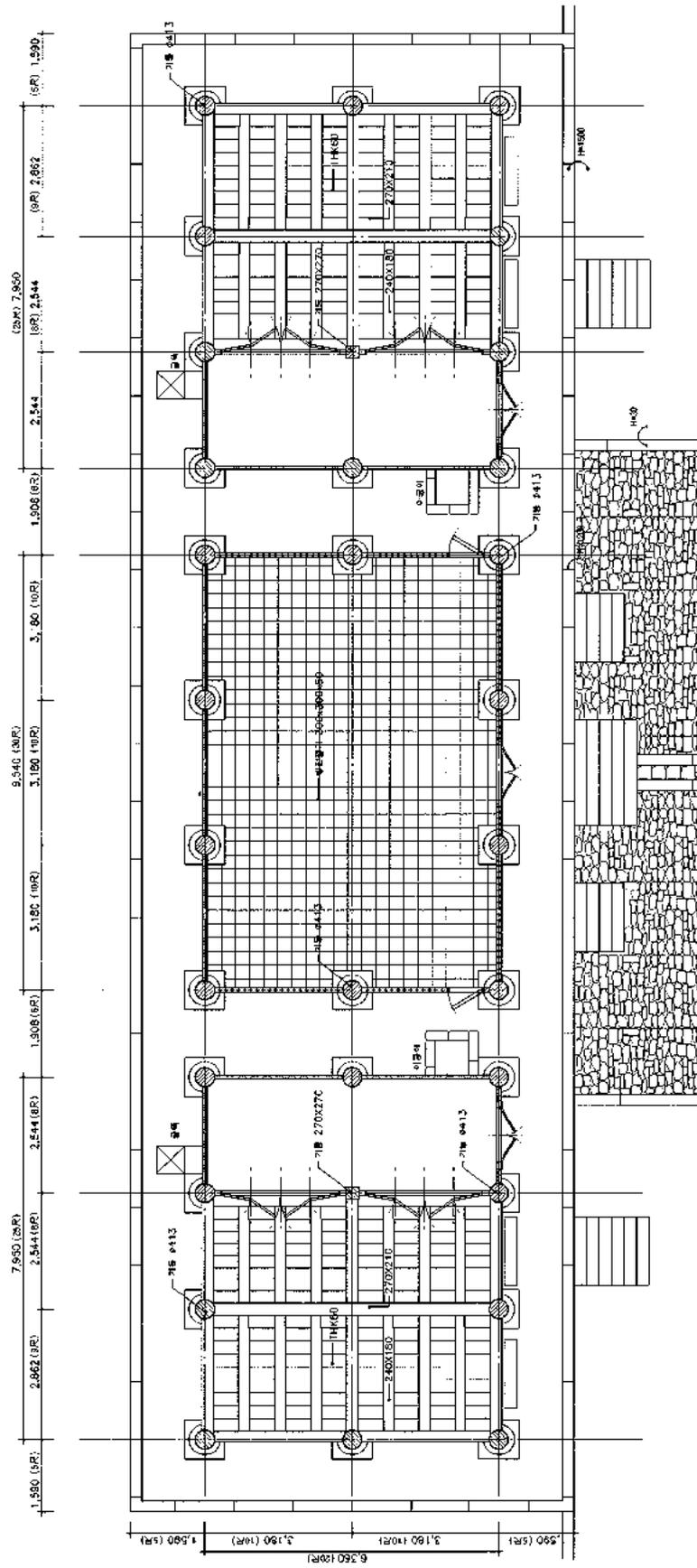
3-7. 지붕

정청의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처마는 겹처마를 하고 있다. 특히 정청은 동·서익헌보다 약간 높게 솟아 있는데, 이와 같은 특징은 다른 객사 건축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동·서익헌의 지붕은 정청 쪽을 맞배지붕으로 하고, 그 반대편을 팔작지붕으로 하고 있다. 처마는 정청과 같이 겹처마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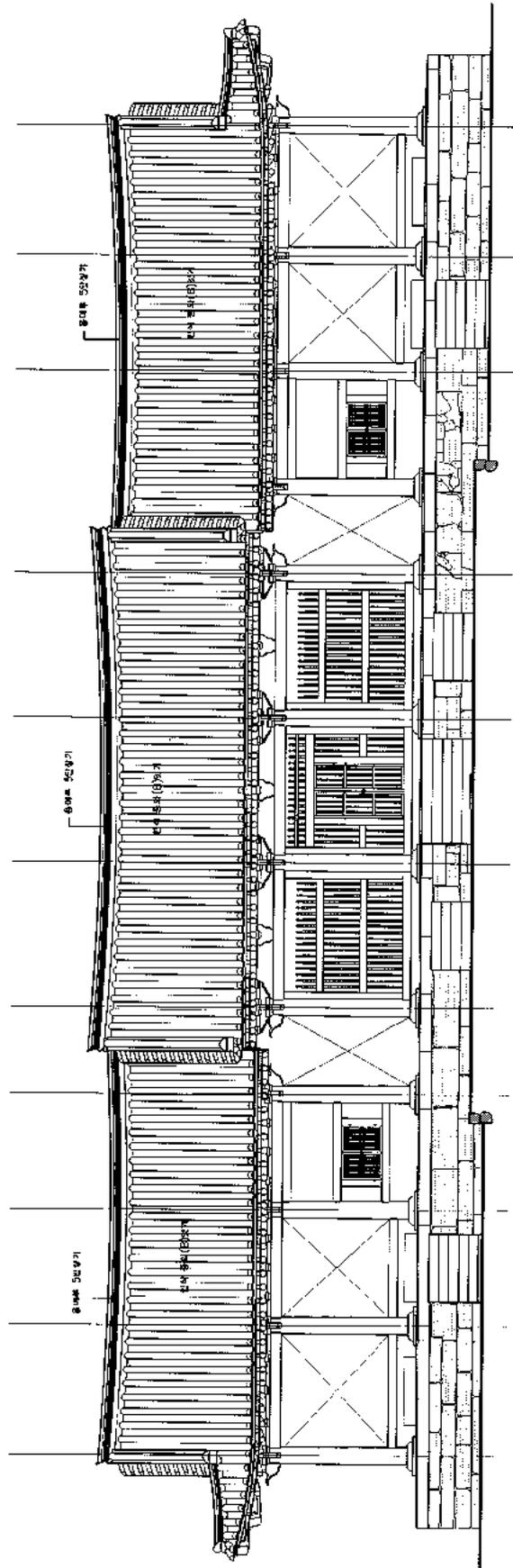
삼문은 맞배지붕으로 어간의 지붕을 높은 솟을삼문의 형식을 하고 있다. 처마는 홑처마이고 기와끝은 와구토로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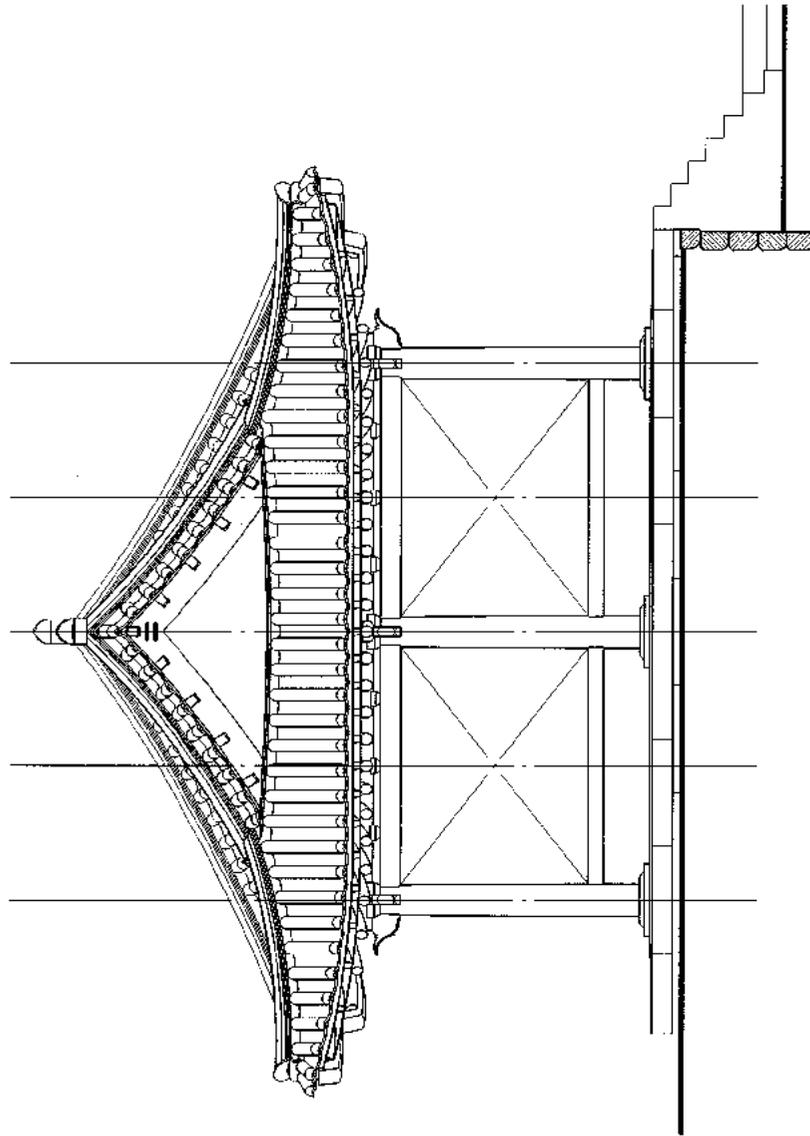
〈도면 VI-1〉 벽제관 배치도(복원) (축척 : 1/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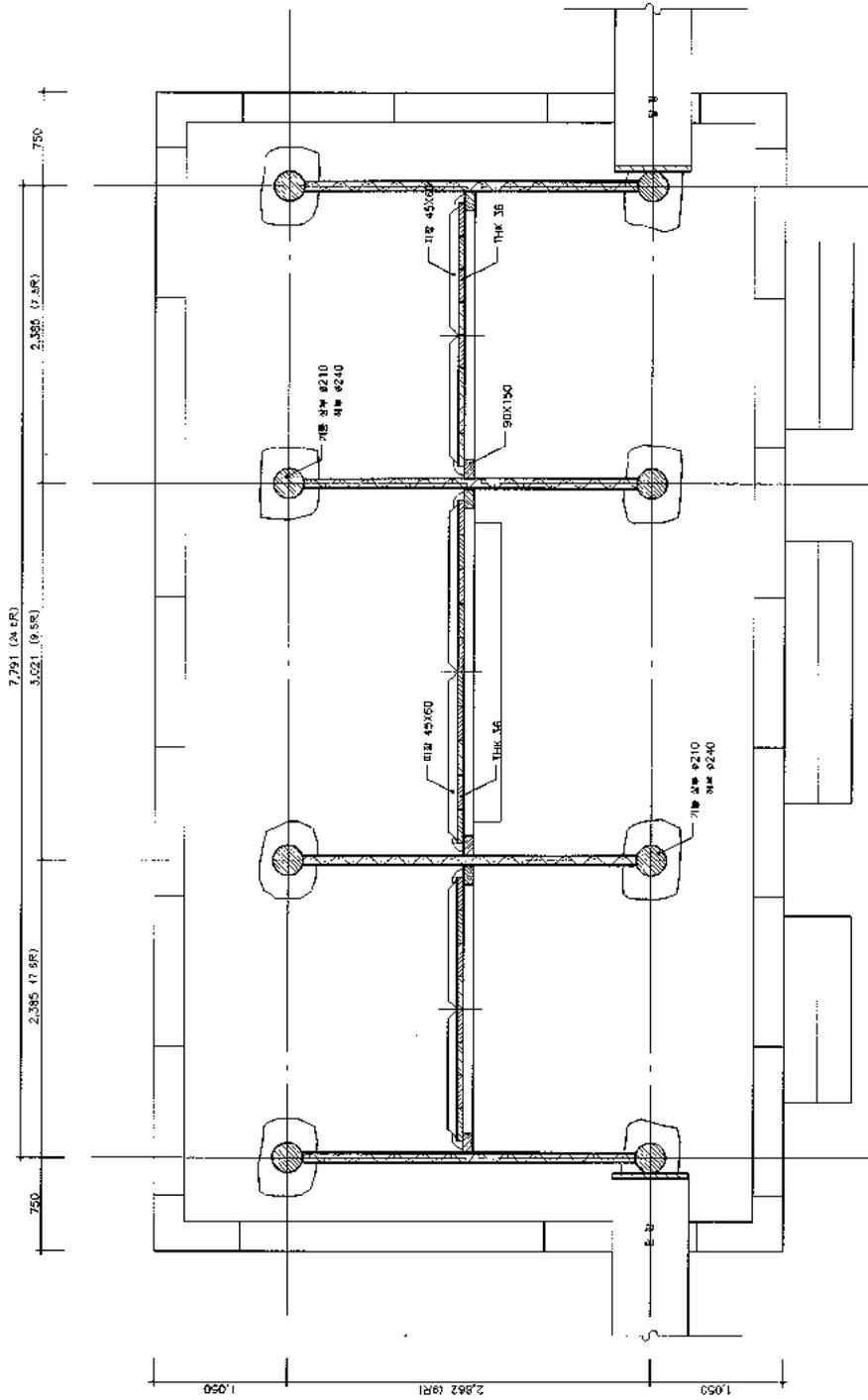
〈도면 VI-2〉 주건을 평면도(복원) (축척 : 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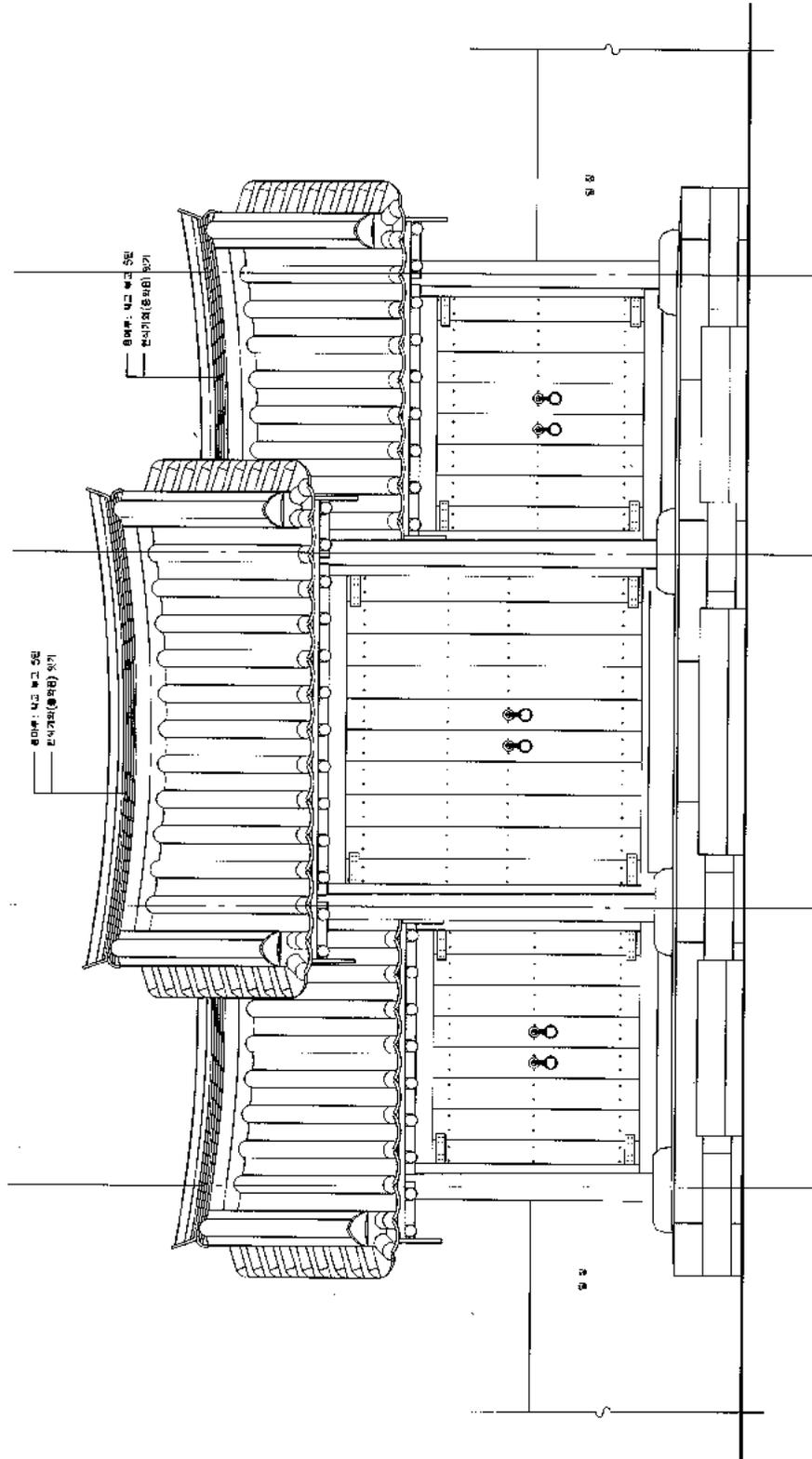
〈도면 W-3〉 주건물 정면도(복원) (축척 : 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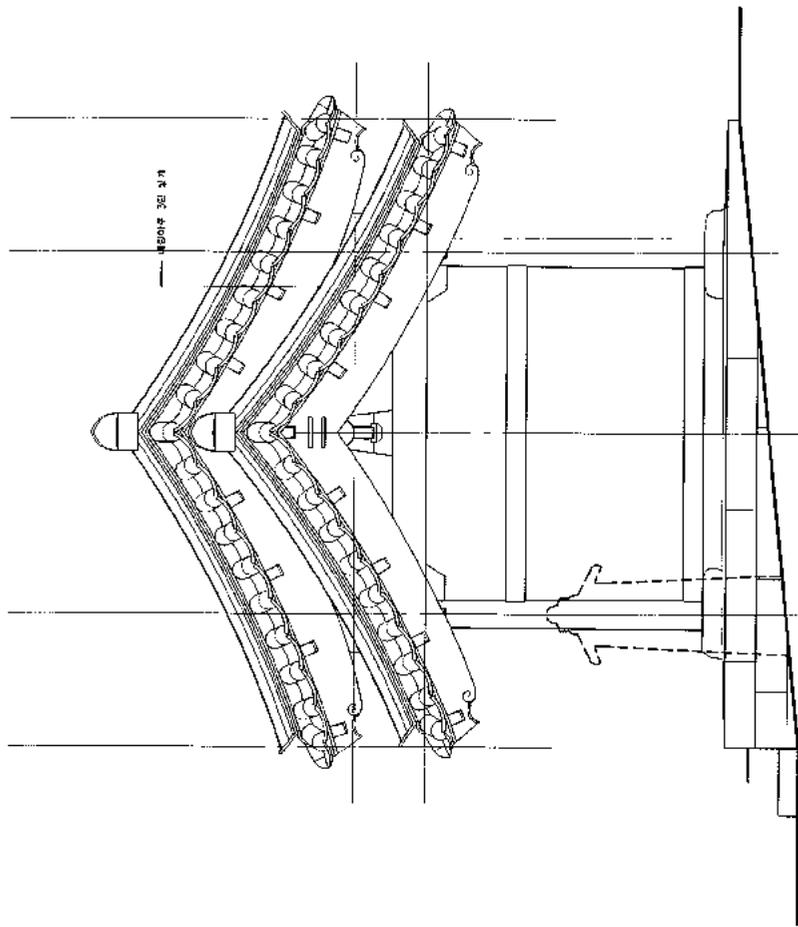
<도면 W-4> 주건물 서측면도(복원) (축척 : 1/80)



〈도면 Ⅵ-7〉 상면 평면도(복원) (축척 : 1/60)



(도면 VI-8) 심문 정면도(복원) (축척 : 1/60)



〈도면 VI-9〉 심문 동축면도(부원) (축척 : 1/60)

Ⅶ. 유물

1. 주거물지

2. 문지

3. 마당

4.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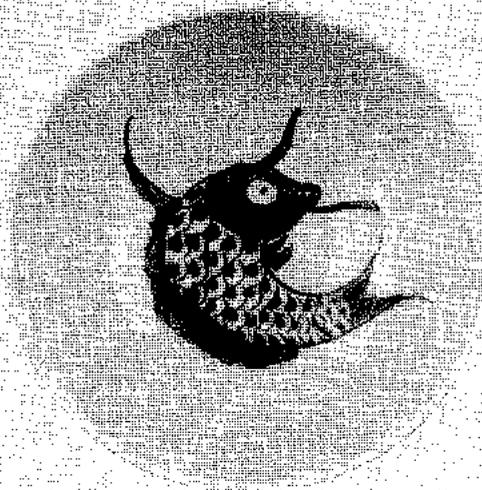
5. 종합

5-1. 와전류

5-3. 자기류

5-2. 도기류

5-4. 기타



알려두기

- ① 본고에서는 와통에서 암·수키와를 성형할 때 밖으로 노출되어 타날판으로 두드리는 면을 '등면'이라 하고 와통과 밀착되어 포복흔적이 남는 안쪽 면을 '내면'으로 하였다. 등면을 외면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암키와가 지붕에 올려졌을 때 등면이 아래로 가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등면에 시문된 문양은 등문양이 된다.
- ② 기와 내면의 포복흔은 내면의 형태가 양호한 것만을 중심으로 가로×세로 1cm의 단위에서 씨줄과 날줄의 개수로 표시하였다.
- ③ 벽제관에서 출토된 모든 기와편의 와도흔 방향은 내면에서 등면으로 확인되었다.

Ⅶ. 유물

1. 주건물지

〈도면 Ⅶ-1, 사진 Ⅶ-1〉

암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나4에서 출토되었다. 명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이다. 우측면 일부가 남아있으며 문양은 어골문이다. 내측 포목의 빈도수는 3×3이고 와도흔이 1/5 지점까지 나타난다. 건장치기 흔적은 3.5cm이며 불손질하였다.

□ 잔존 길이: 10.0cm, 잔존 폭: 9.8cm, 두께: 2.2cm

〈도면 Ⅶ-2, 사진 Ⅶ-2〉

암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다2에서 출토되었다. 회백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이다. 좌측면 일부가 남아있으며 문양은 어골문이다. 내면 포흔은 선명하지 않고 와도흔이 1/2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점토접합흔이 확인되었다.

□ 잔존 길이: 13.1cm, 잔존 폭: 16.5cm, 두께: 2.1cm

〈도면 Ⅶ-3, 사진 Ⅶ-3〉

암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동쪽 선대 아궁이 지점에서 출토되었다. 명회백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좌측면 일부가 남아있으며 문양은 어골문이다. 내측 포목의 빈도수는 5×5이고 와도흔이 1/3 지점까지 나타난다.

□ 잔존 길이: 7.5cm, 잔존 폭: 6.4cm, 두께: 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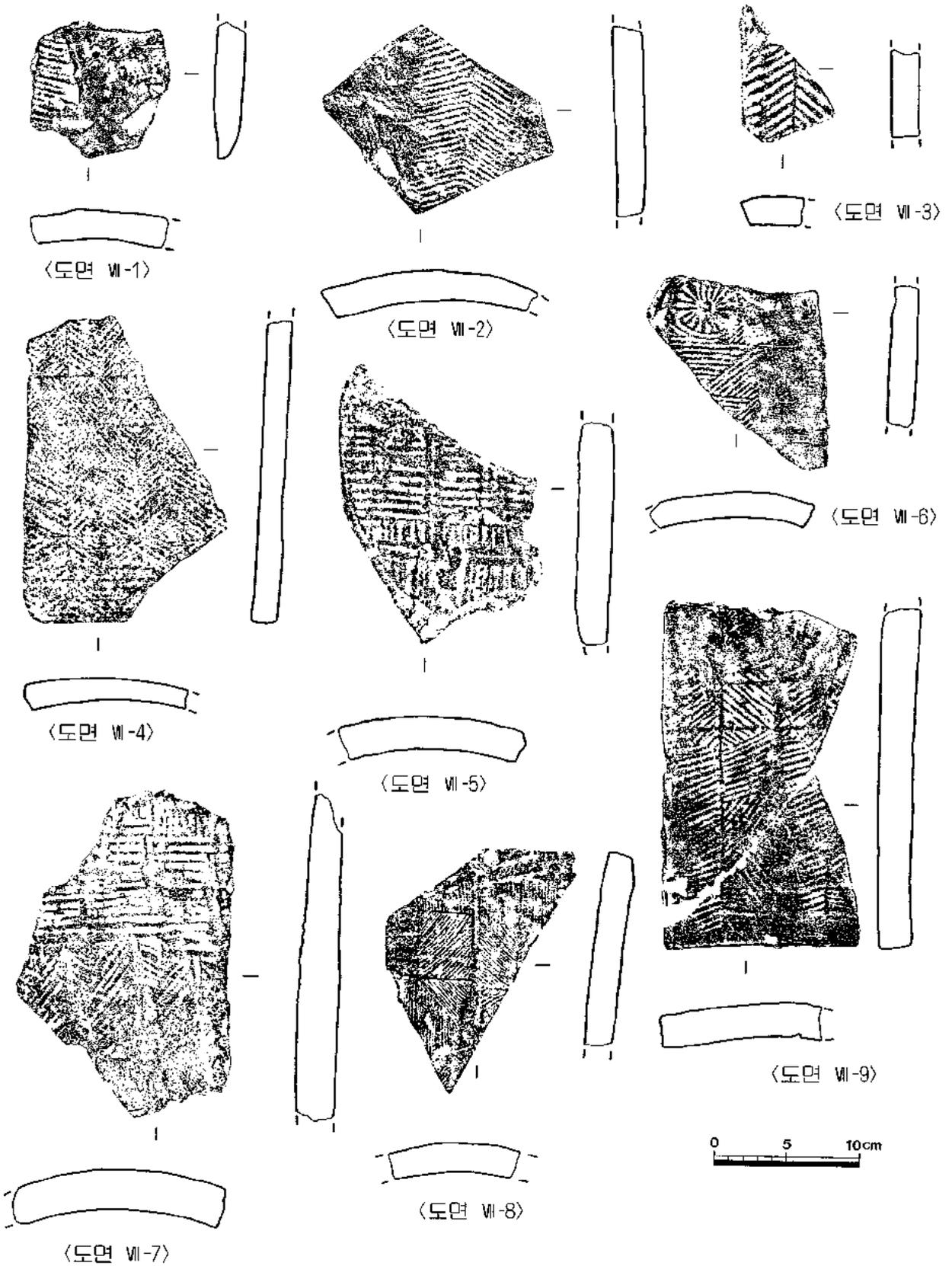
〈도면 Ⅶ-4, 사진 Ⅶ-4〉

암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동쪽 선대 아궁이 지점에서 출토되었다. 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이다. 좌측면 일부가 남아있으며 문양은 어골문이다. 내면 포흔은 선명하지 않고 와도흔이 1/2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룬철흔이 확인되었다.

□ 잔존 길이: 22.0cm, 잔존 폭: 13.7cm, 두께: 1.7cm

〈도면 Ⅶ-5, 사진 Ⅶ-5〉

암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다3 탐색T1에서 출토되었다. 회백색의 연질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우측면 일부가 남아있으며 문양은 상단부에 횡선문



이, 하단부에 종선문으로 복합문을 이룬다. 내측 포목의 빈도수는 7×6이고 와도흔이 1/2 지점까지 나타난다.

□ 잔존 길이: 14.2cm, 잔존 폭: 13.0cm, 두께: 2.2cm

〈도면 Ⅷ-6, 사진 Ⅷ-6〉

암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나4에서 출토되었다. 명황적색의 연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우측면 일부가 남아있으며 문양은 차륜문이 복합된 집선문이다. 내면 포목의 빈도수는 4×4이고 와도흔이 1/3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합철흔과 연철흔이 확인되었다.

□ 잔존 길이: 12.7cm, 잔존 폭: 11.2cm, 두께: 1.8cm

〈도면 Ⅷ-7, 사진 Ⅷ-7〉

암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나2에서 출토되었다. 명적갈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우측면 일부가 남아있으며 문양은 상단부는 횡선문과 종선문이고, 하단부는 어골문이다. 내측 포목의 빈도수는 8×6이고 와도흔이 1/2 지점까지 나타난다.

□ 잔존 길이: 23.0cm, 잔존 폭: 14.0cm, 두께: 2.7cm

〈도면 Ⅷ-8, 사진 Ⅷ-8〉

암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동쪽 선대 아궁이 지점에서 출토되었다. 명황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상부가 남아있으며 문양은 집선문이다. 내면 포목은 선명하지 않고 상단부에서는 룬철흔이 확인되었다.

□ 잔존 길이: 17.5cm, 잔존 폭: 10.6cm, 두께: 2.0cm

〈도면 Ⅷ-9, 사진 Ⅷ-9〉

암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나2에서 출토되었다. 회백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좌측면 일부가 남아있으며 문양은 어골문이다. 내측 포목의 빈도수는 8×6이고 와도흔이 1/4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연철흔이 확인되었다.

□ 잔존 길이: 24.0cm, 잔존 폭: 13.5cm, 두께: 2.4cm

〈도면 Ⅷ-10, 사진 Ⅷ-10〉

암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가1에서 출토되었다. 명암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는 석영이 소량 혼입된 점토이다. 우측면 일부가 남아있으며 문양은 연화문이 복합된 집선문이다. 내측 포목의 빈도수는 8×6이고 와도흔이 1/3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합철흔이 확인되었다.

□ 잔존 길이: 14.2cm, 잔존 폭: 16.0cm, 두께: 1.8cm

〈도면 Ⅶ-11, 사진 Ⅶ-11〉

암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동쪽 선대 아궁이 지점에서 출토되었다. 암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우측면 일부가 남아있으며 문양은 집선문이다. 내면 포흔은 선명하지 않고 와도흔이 1/3 지점까지 나타난다. 하부 내면은 물손질하였다.

□ 잔존 길이: 12.2cm, 잔존 폭: 15.0cm, 두께: 1.6cm

〈도면 Ⅶ-12, 사진 Ⅶ-12〉

유단식 수키와로 주건물지 서쪽 선대 아궁이 지점에서 출토되었다. 흑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소성 마지막 단계에서 환원소성하여 검은 피막을 입혀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하였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하부가 파손되었으며 무문이다. 내측 포목의 빈도수는 6×5이고 와도흔이 1/3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룬철흔과 합철흔이 확인되었다. 전장치기 흔적은 4.4cm이고 물손질하였다.

□ 길이: 38.2cm, 미구 길이: 2.3cm, 폭: 15.4cm, 두께: 2.0cm

〈도면 Ⅶ-13, 사진 Ⅶ-13〉

유단식 수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다3 탐색Tr에서 출토되었다. 암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미구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무문이다. 내측 포목의 빈도수는 5×4이고 와도흔이 1/4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합철흔과 연철흔이 확인되었다. 전장치기 흔적은 3.6cm이고 물손질하였다.

□ 길이: 30.2cm, 잔존 미구 길이: 0.7cm, 폭: 11.3cm, 두께: 2.0cm

〈도면 Ⅶ-14, 사진 Ⅶ-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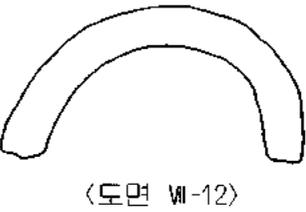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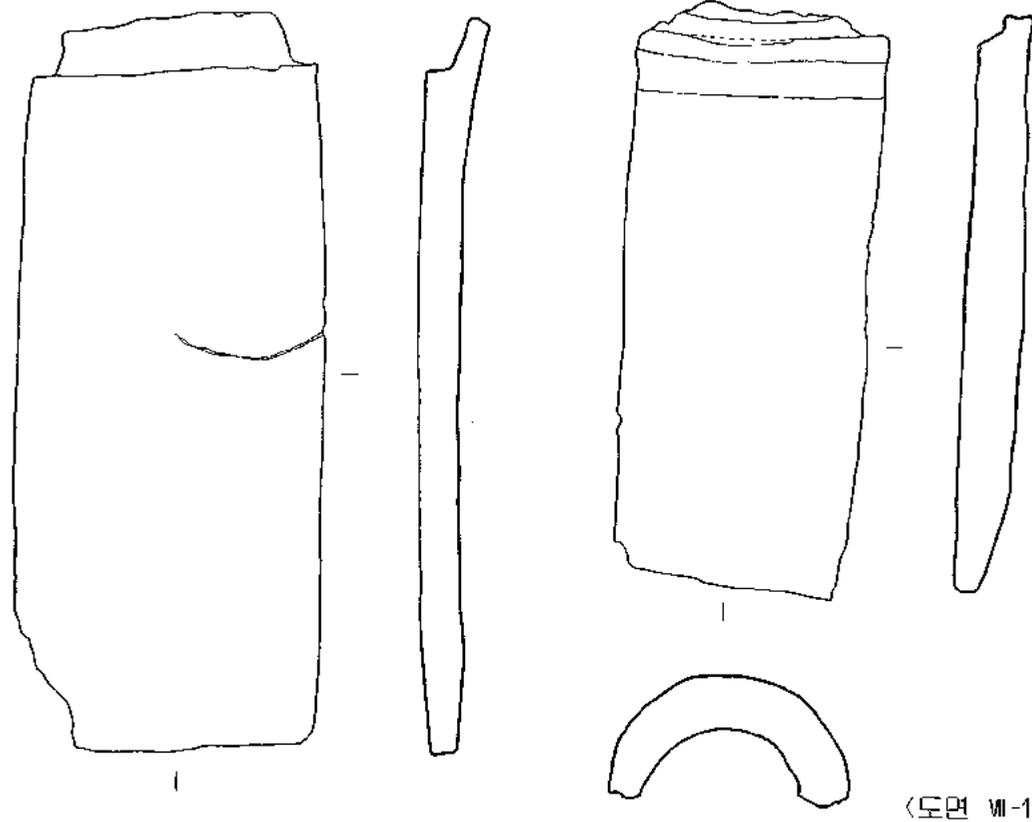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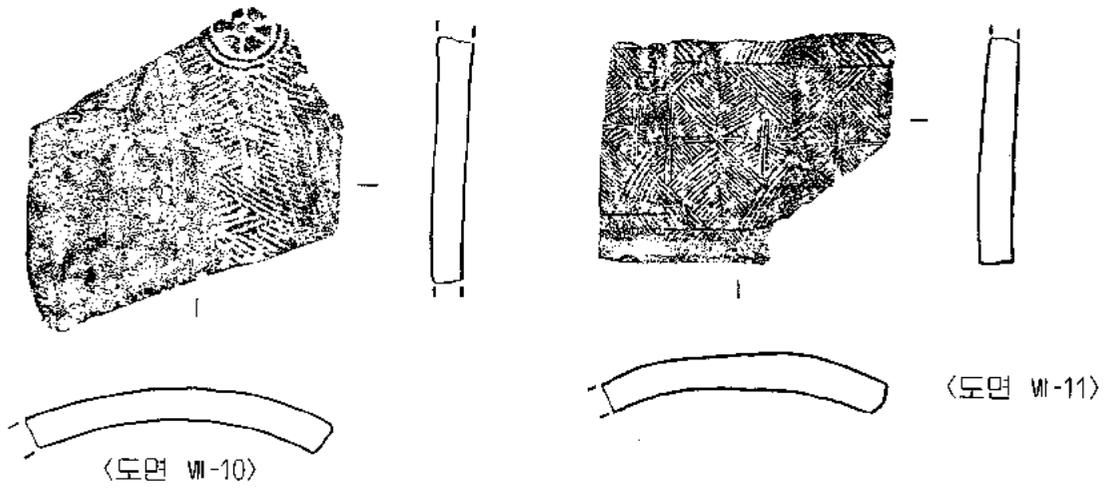
수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나2에서 출토되었다. 암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상부가 1/2 정도 파손되었으며 무문이다. 내측 포목의 빈도수는 7×7이고 와도흔이 1/4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사질흔과 합철흔이 확인되었다. 전장치기 흔적은 4.6cm이고 물손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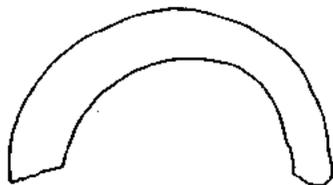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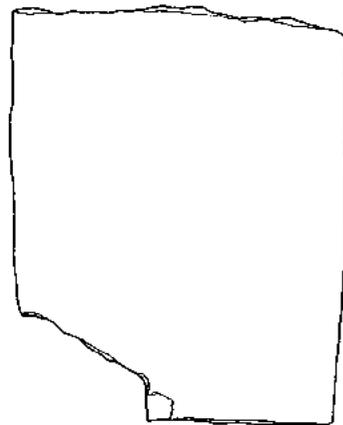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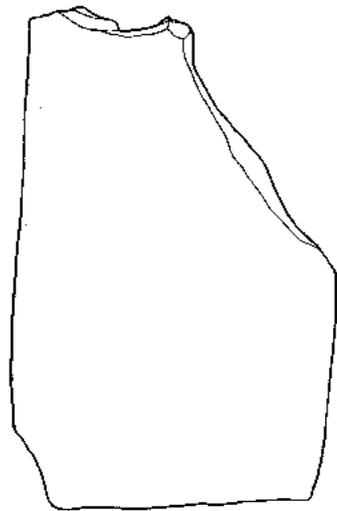
□ 잔존 길이: 24.7cm, 폭: 15.6cm, 두께: 1.9cm

〈도면 Ⅶ-15, 사진 Ⅶ-15〉

수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기단 동쪽 탐색Tr에서 출토되었다. 흑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소성 마지막 단계에서 환원소성하여 검은 피막을 입혀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하였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상부가 1/2 정도 파손되었으며 무문이다. 내측 포목의 빈도수는 8×7이고 와도흔이 1/2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합철흔과 사질흔이 확인되었다. 전장치기 흔적은 6.0cm이고 물손질하였다.

□ 잔존 길이: 21.3cm, 폭: 16.3cm, 두께: 2.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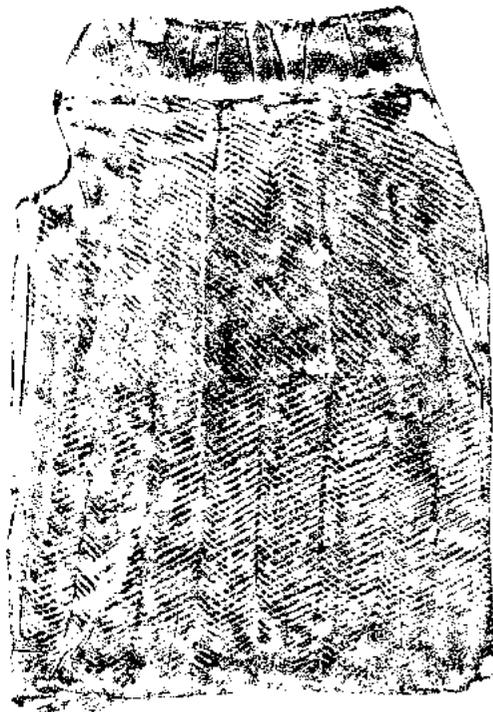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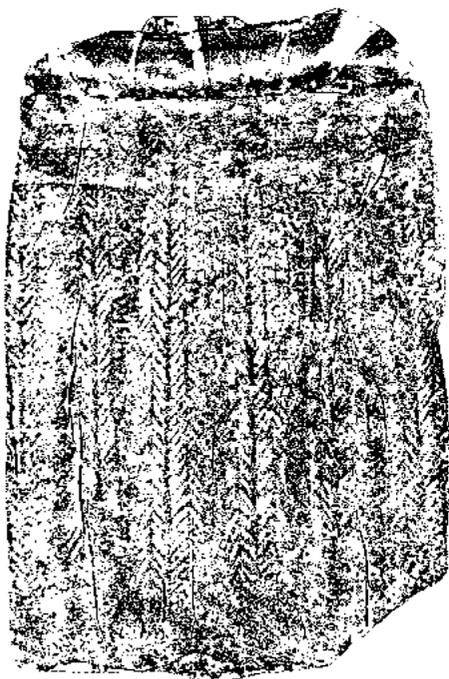




〈도면 VII-14〉



〈도면 VII-15〉



〈도면 VII-16〉



〈도면 VII-17〉

〈도면 Ⅶ-16, 사진 Ⅶ-16〉

유단식 수키와로 주건물지 나3에서 출토되었다. 암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하부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어골문이다. 내면 포흔은 선명하지 않고 와도흔은 1/3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합철흔이 확인되었다. 건장치기 흔적은 3.5cm이고 물손질하였다.

□ 길이: 33.2cm, 미구 길이: 2.7cm, 폭: 14.4cm, 두께: 2.2cm

〈도면 Ⅶ-17, 사진 Ⅶ-17〉

유단식 수키와로 주건물지 동쪽 선대 아궁이 지점에서 출토되었다. 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문양은 어골문이다. 내측 포목의 빈도수는 11×12이고 와도흔이 2/3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룬철흔이 확인되었다. 건장치기 흔적은 3.6cm이고 물손질하였다.

□ 길이: 35.9cm, 미구 길이: 3.8cm, 폭: 15.3cm, 두께: 2.0cm

〈도면 Ⅶ-18, 사진 Ⅶ-18〉

유단식 수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다3 확장Tr에서 출토되었다. 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문양은 집선문이다. 내측 포목의 빈도수는 7×7이고 와도흔이 1/2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합철흔과 룬철흔이 확인되었다. 건장치기 흔적은 6.0cm이고 물손질하였다.

□ 잔존 길이: 36.1cm, 미구 길이: 2.3cm, 폭: 16.6cm, 두께: 2.1cm

〈도면 Ⅶ-19, 사진 Ⅶ-19〉

유단식 수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다2 확장Tr에서 출토되었다. 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미구 일부와 하부가 1/2 정도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복합수파문이다. 내면 포흔은 선명하지 않고 와도흔이 1/3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합철흔과 연철흔이 확인되었다.

□ 잔존 길이: 23.6cm, 잔존 미구 길이: 1.5cm, 폭: 13.1cm, 두께: 2.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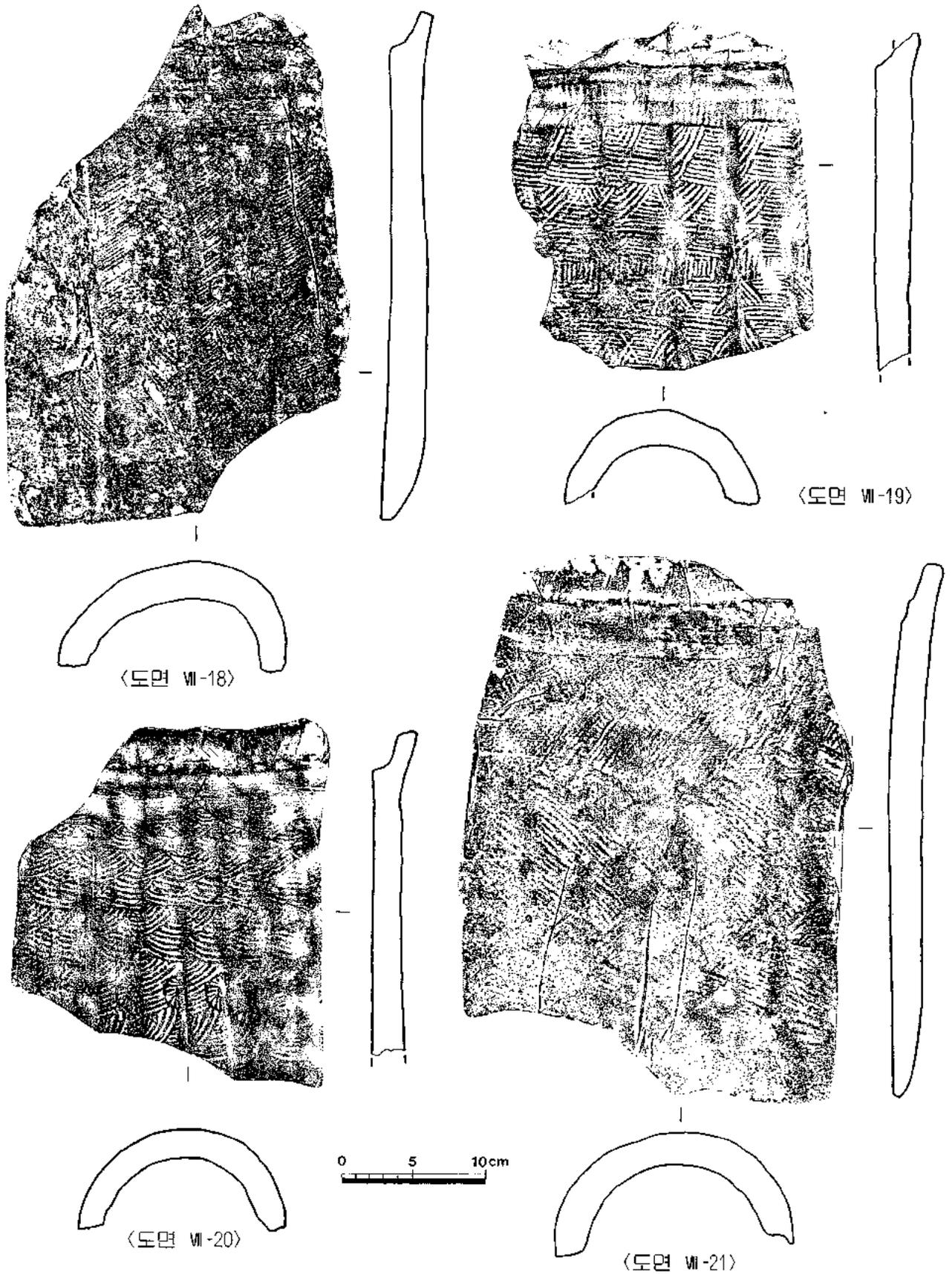
〈도면 Ⅶ-20, 사진 Ⅶ-20〉

유단식 수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나4에서 출토되었다. 암회갈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하부가 1/2 정도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수파문이다. 내면 포목의 빈도수는 7×7이고 와도흔이 1/4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합철흔이 확인되었다.

□ 잔존 길이: 25.0cm, 미구 길이: 2.3cm, 폭: 13.9cm, 두께: 1.5cm

〈도면 Ⅶ-21, 사진 Ⅶ-21〉

유단식 수키와로 주건물지 다3에서 출토되었다. 암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람이 혼입된 점토이다. 하부가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집선문이다. 내면 포흔은 선명하지 않고 와도흔이 1/4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점토접합흔이 확인되었다. 건장치기 흔적은 2.0cm 이고 불손질하였다.

□ 길이: 37.6cm, 미구 길이: 2.3cm, 폭: 15.8cm, 두께: 1.9cm

〈도면 VII-22, 사진 VII-22〉

유단식 수키와로 주건물지 나2 추정아궁이지점에서 출토되었다. 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문양은 집선문이다. 내면 포흔은 선명하지 않고 와도흔이 3/4 지점까지 나타난다. 건장치기 흔적은 2.9cm이고 불손질하였다.

□ 길이: 38.0cm, 미구 길이: 1.9cm, 폭: 16.0cm, 두께: 2.1cm

〈도면 VII-23, 사진 VII-23〉

유단식 수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나2에서 출토되었다. 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미구와 하부가 일부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수파문이다. 내면 포흔의 빈도수는 6×5이고 와도흔이 2/3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합철흔과 점토접합흔이 확인되었다. 건장치기 흔적은 3.0cm이고 불손질하였다. 자연유가 부착되어 광택이 난다.

□ 잔존 길이: 30.5cm, 폭: 14.0cm, 두께: 2.0cm

〈도면 VII-24, 사진 VII-24〉

수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나4에서 출토되었다. 암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람이 소량 혼입된 점토이다. 상부가 1/2 이상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수파문이다. 내면 포흔은 선명하지 않고 와도흔은 1/2 지점까지 나타난다. 건장치기 흔적은 2.5cm이고 불손질하였다. 내면에서는 합철흔이 확인되었다. 자연유가 부착되어 광택이 난다.

□ 잔존 길이: 18.0cm, 폭: 15.9cm, 두께: 2.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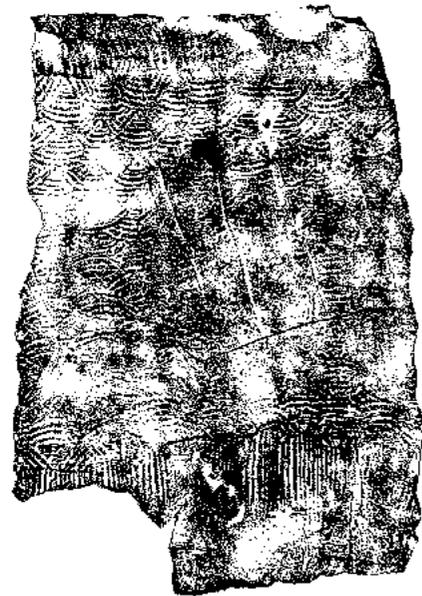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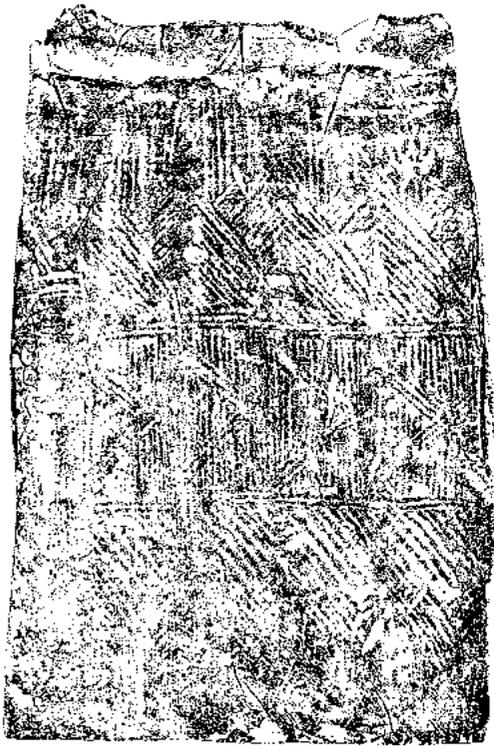
〈도면 VII-25, 사진 VII-25〉

유단식 수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다1에서 출토되었다. 암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미구와 하부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수파문이다. 내면 포흔은 선명하지 않고 와도흔은 1/4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점토접합흔이 확인되었다. 건장치기 흔적은 5.1cm이고 불손질하였다.

□ 잔존 길이: 31.5cm, 폭: 13.4cm, 두께: 2.0cm

〈도면 VII-26, 사진 VII-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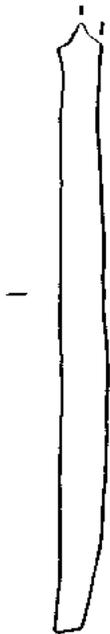
유단식 수키와로 주건물지 나2 추정아궁이지점에서 출토되었다. 황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람이 소량 혼입된 점토이다. 문양은 집선문이다. 내면 포흔은 선명하지 않고 와도흔이 1/2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점토접합흔이 확인되었다. 건장치기 흔적은 3.0cm



〈도면 Ⅶ-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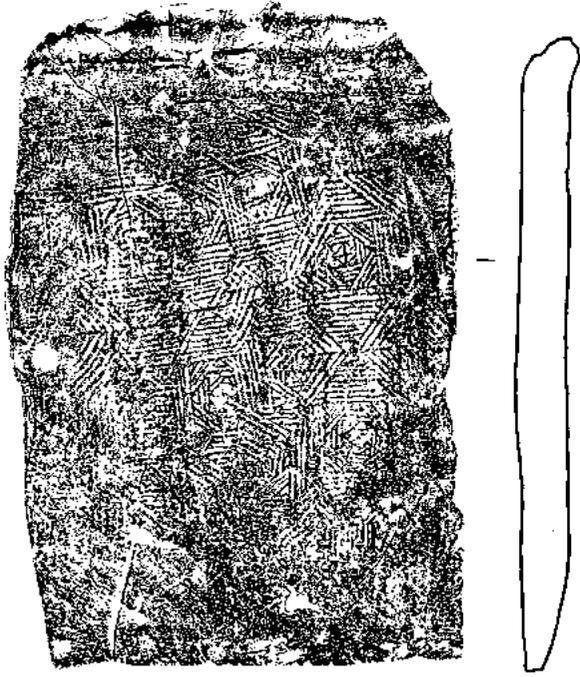
〈도면 Ⅶ-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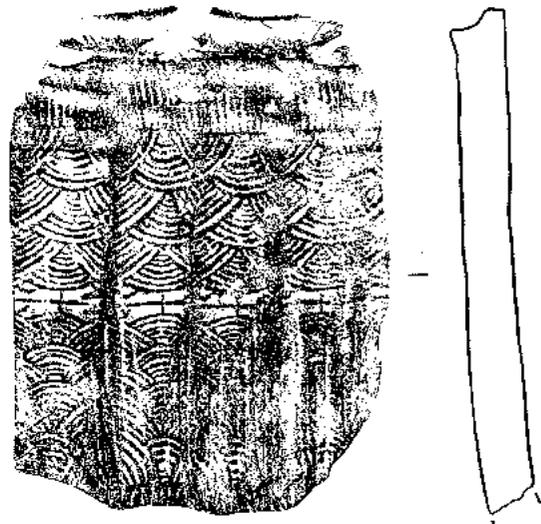
〈도면 Ⅶ-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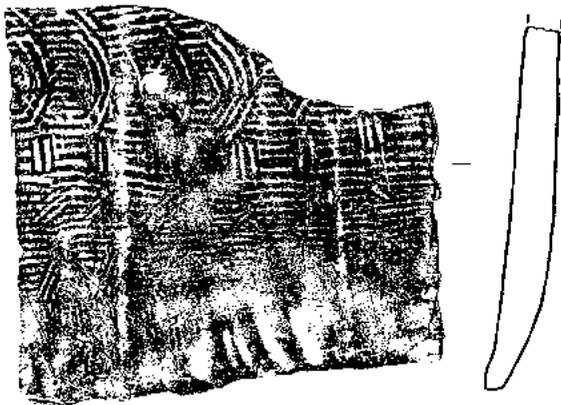
〈도면 Ⅶ-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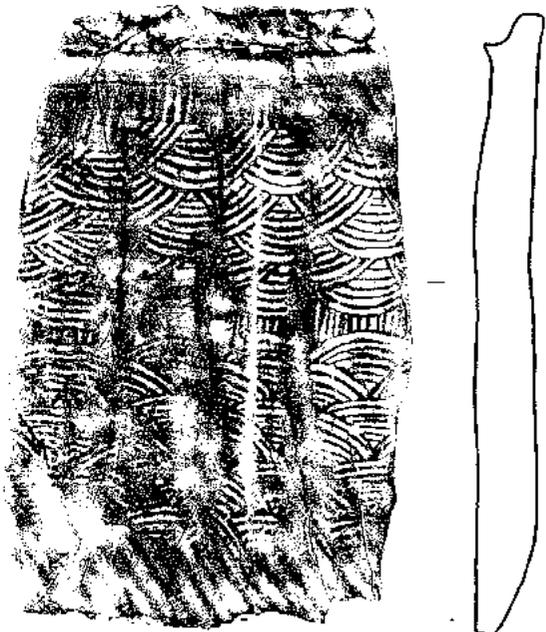
〈도면 VI-26〉



〈도면 VI-27〉



〈도면 VI-28〉



〈도면 VI-29〉

0 5 10cm

Ⅶ. 유물

이고 물손질하였다.

□ 길이: 33.4cm, 폭: 14.0cm, 두께: 2.2cm

〈도면 Ⅶ-27, 사진 Ⅶ-27〉

유단식 수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다4 서쪽 지점에서 출토되었다. 암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하부가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수파문이다. 내면 포흔은 선명하지 않고 와도흔이 1/4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점토접합흔이 확인되었다.

□ 잔존 길이: 25.4cm, 폭: 12.1cm, 두께: 2.7cm

〈도면 Ⅶ-28, 사진 Ⅶ-28〉

수키와편으로 주건물지 가3에서 출토되었다. 암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상부가 1/2 이상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수파문이다. 내면 포흔은 선명하지 않고 와도흔이 2/3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합철흔과 연철흔이 확인되었다. 건장치기 흔적은 5.1cm이고 물손질하였다.

□ 잔존 길이: 21.2cm, 폭: 13.1cm, 두께: 2.0cm

〈도면 Ⅶ-29, 사진 Ⅶ-29〉

유단식 수키와로 주건물지 나1에서 출토되었다. 암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문양은 수파문이다. 내측 포목의 빈도수는 5×5이고 와도흔이 1/3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연철흔과 사철흔이 확인되었다. 건장치기 흔적은 2.0cm이고 물손질하였다.

□ 길이: 32.0cm, 미구 길이: 1.6cm, 폭: 15.0cm, 두께: 2.2cm

〈도면 Ⅶ-30, 사진 Ⅶ-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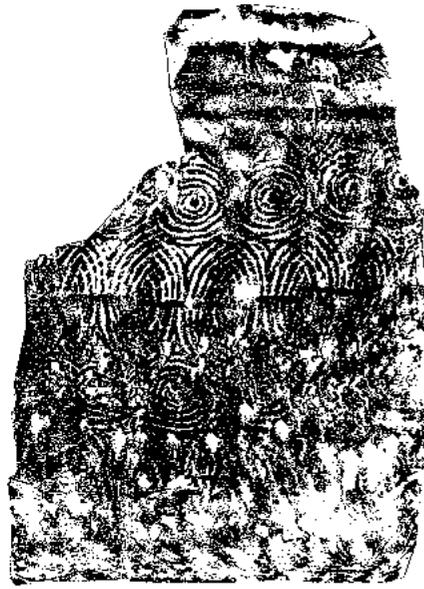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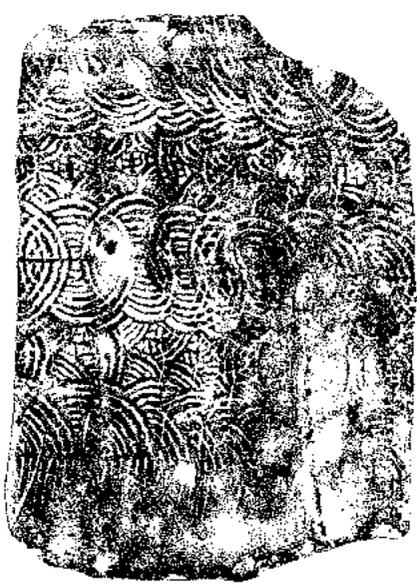
유단식 수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다4 서쪽 지점에서 출토되었다. 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미구가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중호문이 복합된 수파문이다. 내면 포흔은 선명하지 않고 와도흔이 1/3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연철흔이 확인되었다. 건장치기 흔적은 3.2cm이고 물손질하였다. 자연유가 부착되어 광택이 난다.

□ 잔존 길이: 29.9cm, 폭: 13.7cm, 두께: 2.1cm

〈도면 Ⅶ-31, 사진 Ⅶ-31〉

유단식 수키와편으로 주건물지 나2에서 출토되었다. 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상부가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중호문이 복합된 수파문이다. 내면 포흔은 선명하지 않고 와도흔이 1/4 지점까지 나타난다. 건장치기 흔적은 4.6cm이고 물손질하였다.

□ 잔존 길이: 30.0cm, 폭: 12.5cm, 두께: 2.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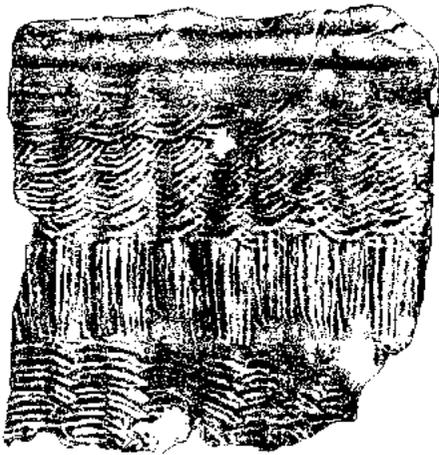


〈도면 VII-30〉



〈도면 VII-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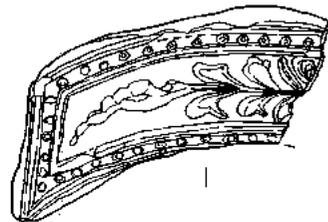
0 5 10cm



〈도면 VII-33〉



〈도면 VII-32〉



〈도면 VII-34〉

〈도면 Ⅶ-32, 사진 Ⅶ-32〉

유단식 수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나2에서 출토되었다. 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미구와 하부가 파손되었으며 분양은 수파문이다. 내측 포목의 빈도수는 7×8이고 와도흔이 1/3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연철흔이 확인되었다.

□ 잔존 길이: 22.7cm, 폭: 13.0cm, 두께: 2.3cm

〈도면 Ⅶ-33, 사진 Ⅶ-33〉

수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다2 확장Tr에서 출토되었다. 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상부가 1/2 이상 파손되었으며 분양은 복합수파문이다. 내면 포흔은 선명하지 않고 와도흔이 1/4 지점까지 나타난다. 건장치기 흔적은 4.7cm이고 불손질하였다.

□ 잔존 길이: 16.4cm, 잔존 폭: 10.4cm, 두께: 2.4cm

〈도면 Ⅶ-34, 사진 Ⅶ-34 ①,②〉

박공막새 편으로 주건물지 나4에서 출토되었다. 명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우측부가 1/2 이상 파손되었으며 분양은 초화문이다. 내면은 불손질하였다.

□ 잔존 길이: 14.0cm, 폭: 7.0cm, 두께: 2.0~3.0cm

〈도면 Ⅶ-35, 사진 Ⅶ-35〉

□肖명 수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나3에서 출토되었다. 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이다. 좌측편 일부가 남아있으며 분양은 수파문이고, 문양 위에 '□肖' 명을 인각하였다. 내측 포목의 빈도수는 6×4이고 와도흔이 1/2 지점까지 나타난다.

□ 잔존 길이: 15.8cm, 잔존 폭: 11.1cm, 두께: 1.3cm

〈도면 Ⅶ-36, 사진 Ⅶ-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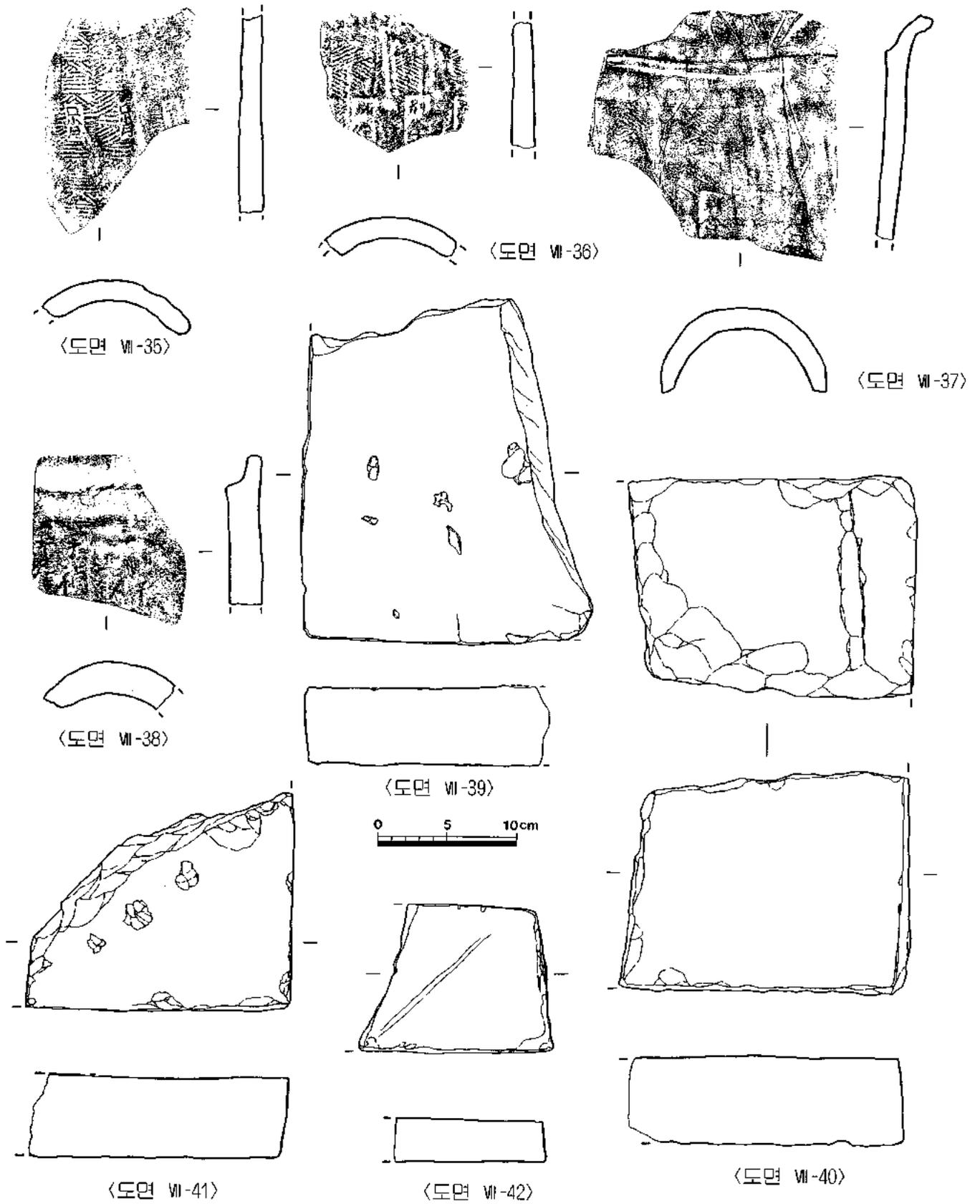
別公명 수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다1에서 출토되었다. 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상·하부가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집선문이고 분양 위에 '別公' 명을 타날하였다. 내면 포흔은 선명하지 않고 와도흔이 1/3 지점까지 나타난다.

□ 잔존 길이: 10.9cm, 잔존 폭: 10.0cm, 두께: 1.5cm

〈도면 Ⅶ-37, 사진 Ⅶ-37〉

別公명 유단식 수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나3에서 출토되었다. 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이다. 하부가 1/2 이상 파손되었으며 분양은 집선문이고 분양 위에 '別公' 명을 타날하였다. 내측 포목의 빈도수는 6×6이고 와도흔이 1/4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사절흔과 합절흔이 확인되었다.

□ 잔존 길이: 17.0cm, 미구 길이: 2.4cm, 폭: 12.5cm, 두께: 1.8cm



〈도면 Ⅶ-38, 사진 Ⅶ-38 ①,②〉

平禎명 유단식 수키와 편으로 주건물지 나3에서 출토되었다. 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하부가 1/2 이상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복합문이고, 문양 위에 '平禎' 명을 타날하였다. 내면 포흔은 선명하지 않고 와도흔이 1/3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합철흔이 확인되었다.

□ 잔존 길이: 11.7cm, 미구 길이: 2.0cm, 잔존 폭: 10.2cm, 두께: 2.4cm

〈도면 Ⅶ-39, 사진 Ⅶ-39〉

방형의 전으로 주건물지 나3에서 출토되었다. 흑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상·하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 잔존 길이: 26.0cm, 잔존 폭: 21.2cm, 두께: 5.6cm

〈도면 Ⅶ-40, 사진 Ⅶ-40 ①,②〉

방형의 전으로 주건물지 나3에서 출토되었다. 암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상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고 하면은 우측에 종방향의 흠이 파여져 있다.

□ 잔존 길이: 16.0cm, 잔존 폭: 20.4cm, 두께: 6.4cm

〈도면 Ⅶ-41, 사진 Ⅶ-41〉

방형의 전으로 주건물지 나2에서 출토되었다. 흑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상·하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 잔존 길이: 15.6cm, 잔존 폭: 19.6cm, 두께: 6.0cm

〈도면 Ⅶ-42, 사진 Ⅶ-42〉

방형의 전으로 주건물지 다2 확장T₁에서 출토되었다. 황갈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상·하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 길이: 10.8cm, 잔존 폭: 13.2cm, 두께: 3.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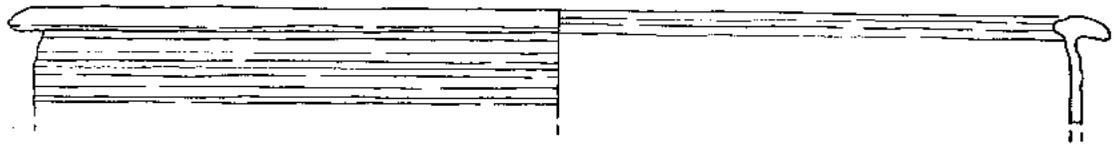
〈도면 Ⅶ-43〉

대용 구연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다2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면이 명회색, 외면은 암회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회전 불손 질로 정면하였다.

□ 복원 구경: 58.1cm, 잔존 기고: 5.8cm

〈도면 Ⅶ-44〉

구연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다4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흑회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외반되었으며 점토로 보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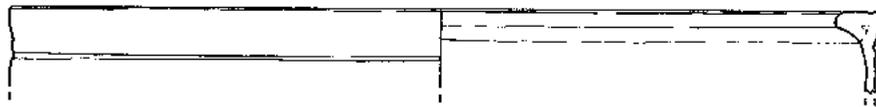


0 5 10cm

<도면 VII-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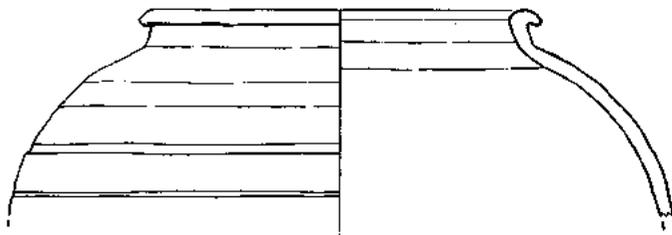
<도면 VII-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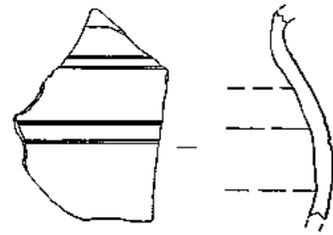
<도면 VII-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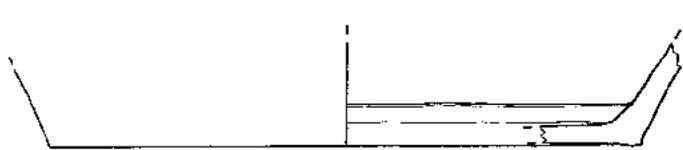
<도면 VII-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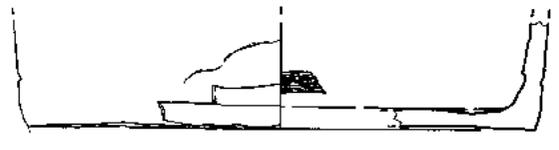
<도면 VII-47>



<도면 VII-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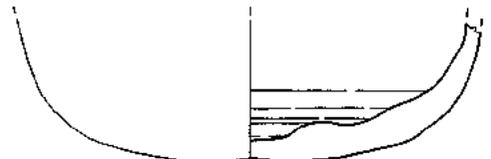
<도면 VII-49>



<도면 VII-50>



<도면 VII-51>



<도면 VII-52>

0 5 10cm

회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 복원 구경: 38.6cm, 잔존 기고: 2.9cm

<도면 Ⅶ-45>

구연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가1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명회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안으로 꺾어서 붙였다. 회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 복원 구경: 32.8cm, 잔존 기고: 3.1cm

<도면 Ⅶ-46>

구연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나7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명회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밖으로 말아서 붙였다. 회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 복원 구경: 29.8cm, 잔존 기고: 3.4cm

<도면 Ⅶ-47>

구연부편으로 주건물지 다3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흑회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회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 복원 구경: 15.4cm, 잔존 기고: 7.8cm

<도면 Ⅶ-48>

동체부편으로 주건물지 다3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암회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회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 잔존 기고: 7.8cm

<도면 Ⅶ-49>

저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나1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흑회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회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 복원 저경: 22.4cm, 잔존 기고: 3.9cm

<도면 Ⅶ-50>

저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다2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회청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내·외면에 도구흔이 있으며 점토접합흔이 확인되었다. 회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 복원 저경: 18.6cm, 잔존 기고: 2.8cm

〈도면 VII-51〉

저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다3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면이 명회색, 외면은 암회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외면 저부와 동체부를 잇는 부분에 도구흔이 밀려서 남아 있다. 회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 복원 저경: 25.6cm, 잔존 기고: 4.3cm

〈도면 VII-52〉

저부편으로 주건물지 나3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회청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회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 복원 저경: 7.6cm, 잔존 기고: 5.4cm

〈도면 VII-53, 사진 VII-53 ①,②〉

백자대접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다3 확장Tr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접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굽의 형태는 죽절굽이다. 내저와 굽의 접지면에는 내화토가 섞인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 복원 구경: 16.0cm, 복원 저경: 6.8cm, 기고: 5.9cm

〈도면 VII-54, 사진 VII-54 ①,②,③〉

백자잔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가1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굽과 저부바닥면을 제외한 전면에 회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굽의 형태는 죽절굽이다. 내저에는 원각이 있다. 원각의 안쪽과 굽의 접지면에는 태토비집 자국과 내화토가 섞인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 복원 구경: 11.0cm, 복원 저경: 4.5cm, 기고: 4.9cm, 내저 원각: 3.5cm

〈도면 VII-55, 사진 VII-55 ①,②〉

백자잔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다3에서 출토되었다.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에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 복원 구경: 10.5cm, 복원 저경: 6.3cm, 기고: 6.6cm

〈도면 VII-56, 사진 VII-56 ①,②〉

백자발 저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가1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접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굽의 형태는 도립삼각굽이다. 내저와 굽의 접지면에는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 복원 저경: 8.0cm, 잔존 기고: 4.8cm

〈도면 VII-57, 사진 VII-57 ①,②,③〉

Ⅶ. 유물

백자잔 편으로 주건물지 나3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저부바닥면을 제외한 전면에 흰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굽의 형태는 죽절굽이다. 내저에는 원각이 있다. 굽의 외면 상단부에는 태토비집 자국이 4개 남아있다.

□ 복원 구경: 9.8cm, 저경: 4.0cm, 기고: 4.6cm

〈도면 Ⅶ-58, 사진 Ⅶ-58 ①,②〉

백자잔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다3에서 출토되었다.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굽의 접지면에는 내화토가 섞인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 복원 구경: 7.4cm, 복원 저경: 2.0cm, 기고: 4.6cm

〈도면 Ⅶ-59, 사진 Ⅶ-59 ①,②〉

백자대접 저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가2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접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굽의 형태는 도립삼각굽이다. 내저에는 원각이 있다. 굽의 외면 상단부에 돌려깎은 홈이 있다. 굽의 접지면에는 내화토가 섞인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 복원 저경: 6.6cm, 잔존 기고: 5.4cm

〈도면 Ⅶ-60, 사진 Ⅶ-60 ①,②〉

백자대접 저부편으로 주건물지 나4 확장T1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접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굽의 형태는 도립삼각굽이다. 내저에는 원각이 있다. 원각의 안쪽에는 태토비집 자국이 1개, 굽의 접지면에는 내화토가 섞인 모래받침 흔적이 각각 남아있다.

□ 저경: 6.8cm, 잔존 기고: 3.5cm, 내저 원각: 7.2cm

〈도면 Ⅶ-61, 사진 Ⅶ-61 ①,②〉

백자잔 저부편으로 주건물지 나4에서 출토되었다.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녹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굽의 형태는 오목굽이다. 내저와 굽의 접지면에는 내화토가 섞인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 저경: 4.2cm, 잔존 기고: 4.3cm

〈도면 Ⅶ-62, 사진 Ⅶ-62 ①,②〉

백자발 저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나2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녹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굽의 형태는 도립삼각굽이다. 굽의 접지면에는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 복원 저경: 9.4cm, 잔존 기고: 3.6cm

〈도면 VII-63, 사진 VII-63 ①,②〉

백자발 저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다1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굽과 저부바닥면을 제외한 전면에 녹색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굽의 형태는 축절굽이다. 내적에는 원각이 있다. 굽의 외면 상단부에 돌려깎은 홈이 있다. 원각의 안쪽과 굽의 접지면에는 내화토가 섞인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 복원 저경: 8.2cm, 잔존 기고: 3.3cm

〈도면 VII-64, 사진 VII-64 ①,②〉

백자잔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가1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녹색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평저이며 저부바닥면에는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 복원 구경: 7.2cm, 복원 저경: 3.0cm, 기고: 3.3cm

〈도면 VII-65, 사진 VII-65 ①,②〉

백자잔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나3에서 출토되었다.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저부바닥면을 제외한 전면에 녹색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평저이며 저부바닥면에 내화토가 섞인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 복원 구경: 6.4cm, 복원 저경: 4.5cm, 기고: 3.5cm

〈도면 VII-66, 사진 VII-66 ①,②〉

백자접시 편으로 주건물지 다4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굽의 형태는 도립삼각굽이다. 굽 일부가 소성시 산화되어 붉은 색을 띠고 있다. 굽의 접지면에는 내화토가 섞인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 구경: 12.8cm, 저경: 5.8cm, 기고: 3.2cm

〈도면 VII-67, 사진 VII-67 ①,②〉

백자접시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나4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굽의 접지면에는 내화토가 섞인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 복원 구경: 11.8cm, 복원 저경: 6.5cm, 기고: 3.6cm

〈도면 VII-68, 사진 VII-68 ①,②〉

백자호 구연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나2육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녹색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 복원 구경: 5.4cm, 잔존 기고: 2.7cm

〈도면 Ⅶ-69, 사진 Ⅶ-69 ①,②〉

백자접시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나4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외면 상단부에 들려깎은 홈이 있다. 굽의 접지면에는 내화토가 섞인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 복원 구경: 11.4cm, 복원 저경: 5.8cm, 기고: 3.9cm

〈도면 Ⅶ-70, 사진 Ⅶ-70 ①,②〉

백자접시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나1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굽의 형태는 오목굽이다. 굽의 접지면에는 내화토가 섞인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 복원 구경: 11.0cm, 복원 저경: 3.8cm, 기고: 3.3cm

〈도면 Ⅶ-71, 사진 Ⅶ-71〉

백자호 구연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다1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다.

□ 복원 구경: 8.4cm, 잔존 기고: 2.7cm

〈도면 Ⅶ-72, 사진 Ⅶ-72 ①,②〉

백자접시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나4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접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녹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굽의 형태는 도립삼각굽이다. 굽의 외면 상단부에 들려깎은 홈이 있다. 굽의 접지면과 내저에는 내화토가 섞인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 복원 구경: 11.6cm, 복원 저경: 7.2cm, 기고: 3.9cm

〈도면 Ⅶ-73, 사진 Ⅶ-73 ①,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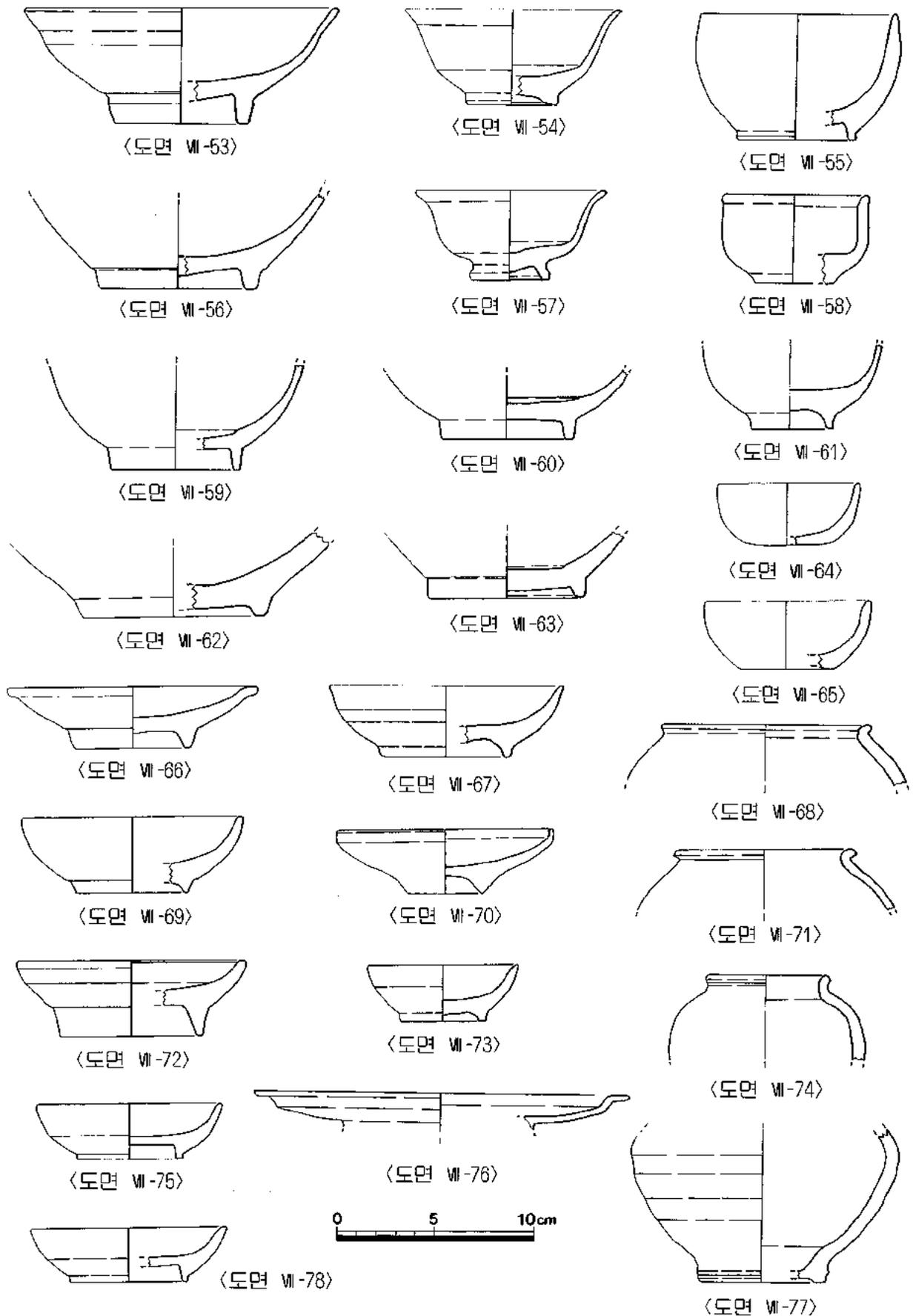
백자잔으로 주건물지 다3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굽의 접지면에는 내화토가 섞인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 구경: 7.8cm, 저경: 4.4cm, 기고: 2.9cm

〈도면 Ⅶ-74, 사진 Ⅶ-74〉

백자호 구연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다4에서 출토되었다.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녹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 복원 구경: 6.0cm, 잔존 기고: 4.5cm



〈도면 Ⅶ-75, 사진 Ⅶ-75 ①,②〉

백자접시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다3에서 출토되었다.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굽의 형태는 안굽이다. 굽의 접지면에는 내화토가 섞인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 복원 구경: 9.4cm, 복원 저경: 5.3cm, 기고: 2.8cm

〈도면 Ⅶ-76, 사진 Ⅶ-76 ①,②〉

백자전접시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다4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 복원 구경: 19.2cm, 잔존 기고: 1.8cm

〈도면 Ⅶ-77, 사진 Ⅶ-77 ①,②〉

백자흑유호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나2북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암회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굽과 저부바닥면을 제외한 전면에 암갈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굽의 형태는 죽절굽이다.

□ 복원 저경: 4.8cm, 잔존 기고: 7.3cm

〈도면 Ⅶ-78, 사진 Ⅶ-78 ①,②〉

백자접시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가1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굽의 형태는 안굽이다. 굽의 접지면에는 내화토가 섞인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 복원 구경: 10.0cm, 복원 저경: 5.4cm, 기고: 2.8cm

〈도면 Ⅶ-79, 사진 Ⅶ-79 ①,②,③〉

백자청화 어문발로 주건물지 나3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내저에는 잉어문이 있다.

□ 구경: 17.2cm, 저경: 8.0cm, 기고: 7.9cm

〈도면 Ⅶ-80, 사진 Ⅶ-80〉

백자청화 국화문병으로 주건물지 나1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회청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다. 동체부 외면에는 국화꽃이 적색, 잎은 청색으로 그려져 있다.

□ 구경: 3.9cm, 저경: 6.1cm, 기고: 15.5cm, 동최대경: 10.5cm

〈도면 Ⅶ-81, 사진 Ⅶ-81 ①,②〉

백자청화 산수문대접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가1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접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굽의 접지면에는 내화토가 섞인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내저에는 2조의 선문이, 외면에는 선문과 운문이 그려져 있다.

□ 복원 구경: 16.2cm, 복원 저경: 8.0cm, 기고: 8.6cm

〈도면 VII-82, 사진 VII-82 ①,②〉

백자청화 초화문발 저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나3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접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굽의 접지면에는 태토비집 자국이 남아있다. 내저에는 2조의 선문과 초문, 외면에는 초화문, 외면 굽부분에는 1조의 선문이 그려져 있다.

□ 복원 저경: 9.8cm, 잔존 기고: 5.8cm

〈도면 VII-83, 사진 VII-83 ①,②〉

청화 초화문잔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마1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내저와 외면 구연부에는 2조의 선문, 외면 동체부에는 초화문, 외면 굽부분에는 1조의 선문이 그려져 있다.

□ 복원 구경: 8.0cm, 복원 저경: 3.9cm, 기고: 4.7cm

〈도면 VII-84, 사진 VII-84 ①,②〉

백자청화 壽명접시 저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다1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다. 내저에는 '壽' 명이 있으며 저부바닥면에는 음각선으로 '三' 형이 새겨져 있다.

□ 복원 저경: 9.2cm, 잔존 기고: 3.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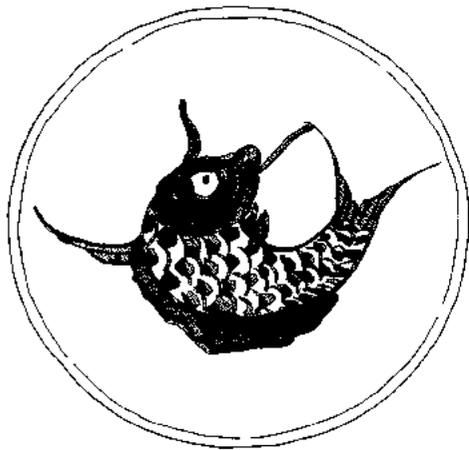
〈도면 VII-85, 사진 VII-85 ①,②〉

청화 壽명발 저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다3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굽과 저부바닥면을 제외한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굽의 외면 상단부에 둘러썬 홈이 있다. 굽의 접지면에는 내화토가 섞인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내저에는 '壽' 명이 있으며 저부바닥면에는 음각선으로 나선형이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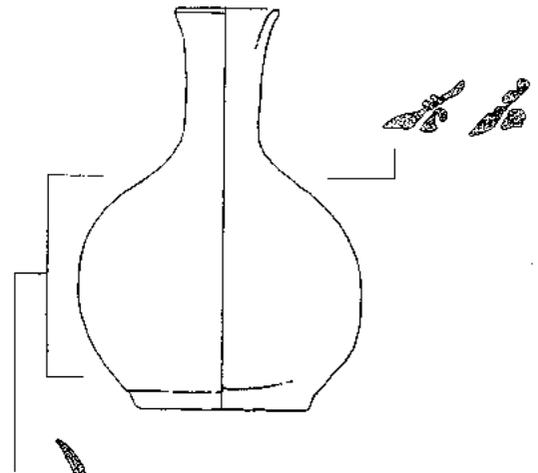
□ 복원 저경: 9.2cm, 잔존 기고: 3.0cm

〈도면 VII-86, 사진 VII-86 ①,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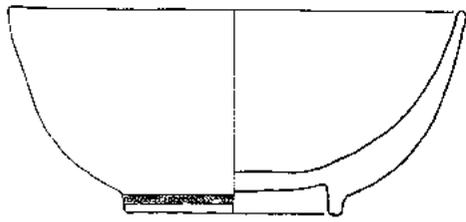
백자철화 접시 저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나3에서 출토되었다.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회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굽의 형태는 오목굽이다. 접지면이 안으로 들려있다. 원각의 안쪽과 굽의 접지면에는 내화토가 섞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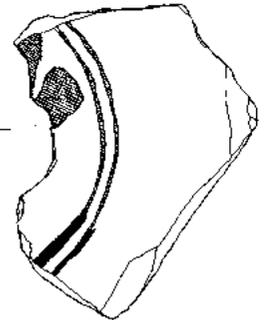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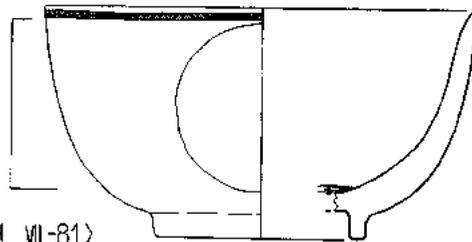
<도면 VII-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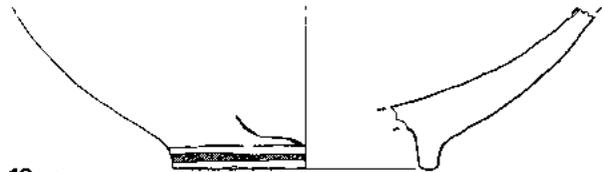
<도면 VII-80>



<도면 VII-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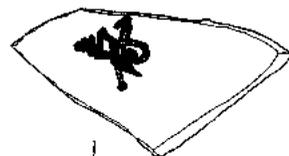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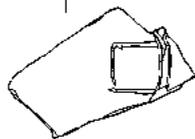
<도면 VII-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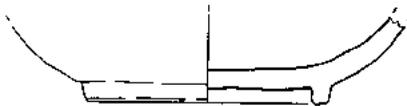
<도면 VII-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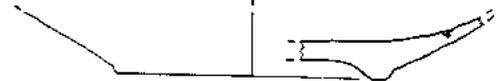
<도면 VII-84>



<도면 VII-85>



<도면 VII-86>



모래발침 흔적이 남아있다. 내저에는 철화분이 일부 남아있다.

□ 복원 저경: 10.0cm, 잔존 기고: 2.3cm

<도면 VII-87, 사진 VII-87 ①,②>

분청상감 연화문대접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나2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녹색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굽의 형태는 죽절굽이다. 내면에는 연화문과 선문이, 외면에는 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 복원 구경: 19.5cm, 복원 저경: 4.5cm, 기고: 7.2cm

<도면 VII-88, 사진 VII-88 ①,②,③>

분청상감 대접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서쪽 선대 아궁이 지점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녹색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다. 굽의 접지면과 저부바닥면에 내화토가 섞인 모래발침 흔적이 남아있다. 내면에는 선문과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 복원 구경: 18.6cm, 저경: 5.4cm, 기고: 8.4cm

<도면 VII-89, 사진 VII-89>

분청상감 인화문잔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나2에서 출토되었다.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굽과 저부바닥면을 제외한 전면에 회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내면에는 국화문, 선문, 화문이, 외면에는 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 복원 구경: 11.0cm, 저경: 4.5cm, 기고: 4.1cm

<도면 VII-90, 사진 VII-90 ①,②,③>

분청대접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서쪽 선대 아궁이 지점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녹색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 복원 구경: 18.6cm, 저경: 5.1cm, 기고: 8.1cm

<도면 VII-91, 사진 VII-91 ①,②,③>

분청상감 인화문잔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서쪽 선대 아궁이 지점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회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굽과 저부바닥면을 제외한 전면에 황록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내저에는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원문과 동심원문이, 외면에는 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 복원 구경: 7.2cm, 복원 저경: 4.0cm, 기고: 3.6cm, 내저 원각: 4.2cm

<도면 VII-92, 사진 VII-92>

분청상감 인화문잔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나3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굽과 저부바닥면을 제외한 전면에 백녹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다. 내면에는 <도면 Ⅶ-89>와 같은 문양이, 외면에는 사문이 시문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유약이 두텁게 시유되어 있어 문양을 알아보기 어렵다.

□ 복원 구경: 10.5cm, 복원 저경: 4.3cm, 기고: 3.6cm

<도면 Ⅶ-93, 사진 Ⅶ-93 ①,②,③>

분청흑상감 잔 저부편으로 주건물지 나3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회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연황녹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굽의 외면 상단부에 돌려깎은 홈이 있다. 굽의 접지면에는 태토비짐 흔적이 남아있다. 내저에는 흑상감으로 된 명분이 있으나 판독이 어렵다.

□ 복원 저경: 4.5cm, 잔존 기고: 2.8cm

<도면 Ⅶ-94, 사진 Ⅶ-94>

분청상감 접시 저부편으로 주건물지 나4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갈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굽과 저부바닥면을 제외한 전면에 녹청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내저에 나선문이 상감되었다.

□ 저경: 4.5cm, 잔존 기고: 1.9cm

<도면 Ⅶ-95, 사진 Ⅶ-95>

분청상감 접시 저부편으로 주건물지 나3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회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굽과 저부바닥면을 제외한 전면에 녹청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내면에는 원문과 국화문,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 저경: 4.0cm, 잔존 기고: 2.4cm

<도면 Ⅶ-96, 사진 Ⅶ-96 ①,②,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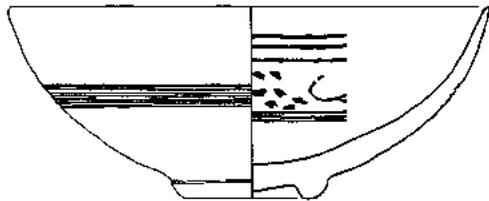
분청상감 잔 저부편으로 주건물지 나2에서 출토되었다.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접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녹청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내저에 태토비짐 자국이 2개 있으며 굽의 접지면에는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내·외면에 선문과 점열문이 시문되어 있다.

□ 복원 저경: 4.8cm, 잔존 기고: 3.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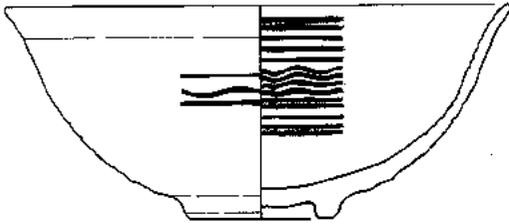
<도면 Ⅶ-97, 사진 Ⅶ-97>

분청호 구연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다3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암회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녹청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외면에는 2조의 침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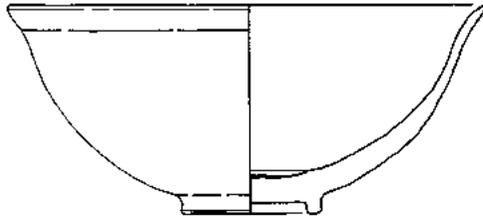
□ 복원 구경: 8.0cm, 잔존 기고: 5.4cm



〈도면 VII-87〉



〈도면 VII-88〉



〈도면 VII-90〉



〈도면 VII-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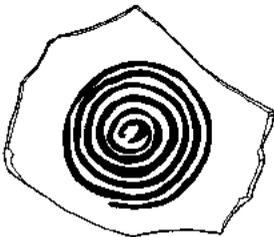
〈도면 VII-93〉



〈도면 VII-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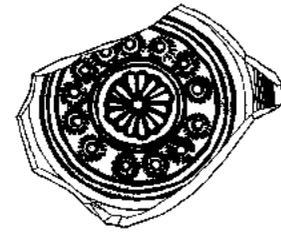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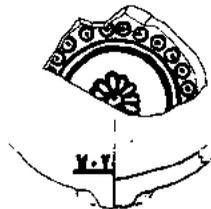
〈도면 VII-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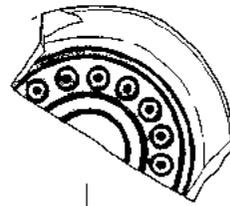
〈도면 VII-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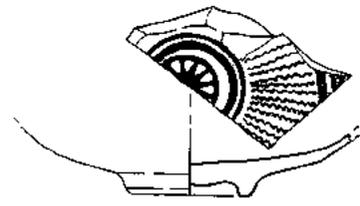
〈도면 VII-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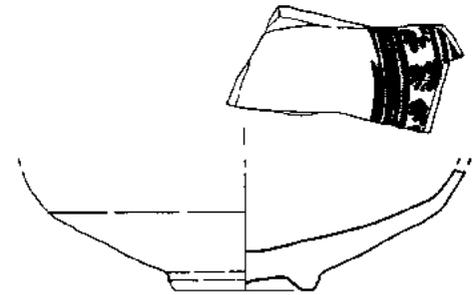
〈도면 VII-89〉



〈도면 VII-91〉



〈도면 VII-95〉



〈도면 VII-99〉



〈도면 Ⅶ-98, 사진 Ⅶ-98 ①,②〉

분청상감 인화문잔 저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나3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암회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녹색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내면에는 선문과 화문, 원문이 시문되어 있다.

□ 복원 저경: 5.4cm, 잔존 기고: 2.1cm

〈도면 Ⅶ-99, 사진 Ⅶ-99〉

분청상감 인화문접시 저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주건물지 나3에서 출토되었다.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굽과 저부바닥면을 제외한 전면에 녹색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굽의 형태는 죽절굽이다. 굽의 접지면에는 내화토가 섞인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내면에 선문과 화문이 시문되어 있다.

□ 복원 저경: 5.4cm, 잔존 기고: 4.5cm

〈도면 Ⅶ-100, 사진 Ⅶ-100〉

굽은머리 철정으로 주건물지 나4 확장Tr에서 출토되었다. 못머리 우측면이 약간 파손되었으며 몸통은 수직으로 곧게 내려간 형태이다. 전체적으로 수화가 심하다. 단면은 방형이다.

□ 길이: 30.1cm, 폭: 0.9cm, 두께: 0.8cm

〈도면 Ⅶ-101, 사진 Ⅶ-101〉

굽은머리 철정으로 주건물지 다4 확장Tr에서 출토되었다. 못머리에는 가격된 흔적이 남아있다. 몸통은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1/3 지점에서부터 20°가량 휘어져 있다. 몸통은 수화가 심하다. 단면은 장방형이다.

□ 길이: 21.0cm, 폭: 0.6cm, 두께: 0.8cm

〈도면 Ⅶ-102, 사진 Ⅶ-102〉

굽은머리 철정 편으로 주건물지 나4 Tr 북쪽에서 출토되었다. 못머리에는 가격된 흔적이 남아 있다. 몸통은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1/2 지점에서부터 45°가량 휘어져 있으며 일부가 파손되었다. 단면은 장방형이다.

□ 잔존 길이: 20.2cm, 폭: 0.9cm, 두께: 0.7cm

〈도면 Ⅶ-103〉

굽은머리 철정 편으로 주건물지 다2 확장Tr에서 출토되었다. 못머리에는 가격된 흔적이 남아 있다. 몸통은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1/2 지점에서부터 20°가량 휘어져 있다. 몸통은 수화가 심하다. 단면은 장방형이다.

□ 잔존 길이: 16.8cm, 폭: 0.8cm, 두께: 0.5cm

〈도면 VII-104, 사진 VII-104〉

민머리 철정 편으로 주건물지 나4 Tr에서 출토되었다. 못머리에는 가격된 흔적이 남아있으며 일부가 파손되었다. 몸통은 수화가 심하며 일부 균열이 철심 내부까지 깊게 패여 있다. 단면은 방형이다.

□ 잔존 길이: 8.5cm, 폭: 0.6cm, 두께: 0.5cm

〈도면 VII-105, 사진 VII-105〉

철정 편으로 주건물지 나4 확장Tr에서 출토되었다. 못머리는 결실되어 있고 몸통은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1/3 지점에서부터 50° 가량 휘어져 L자형을 이룬다. 몸통은 수화가 심하다. 단면은 장방형이다.

□ 잔존 길이: 17.7cm, 폭: 0.7~0.9cm, 두께: 0.5cm

〈도면 VII-106, 사진 VII-106〉

철정 편으로 주건물지 나2 Tr에서 출토되었다. 못머리는 결실되었으며 몸통은 수화가 심하다. 단면은 방형이다.

□ 잔존 길이: 6.4cm, 폭: 0.3cm, 두께: 0.4cm

〈도면 VII-107, 사진 VII-107〉

철정 편으로 주건물지 나2 Tr에서 출토되었다. 몸통의 일부가 파손되었다. 단면은 장방형이다.

□ 잔존 길이: 13.7cm, 폭: 0.8cm, 두께: 0.6cm

〈도면 VII-108, 사진 VII-108〉

민머리 철정 편으로 주건물지 다3 Tr에서 출토되었다. 몸통은 수직을 이루며 내려오다가 1/2 지점에서부터 30° 가량 휘어져 있으며 일부가 결실되었다. 전체적으로 수화가 심하다. 단면은 방형이다.

□ 잔존 길이: 17.0cm, 폭: 0.7cm, 두께: 0.4cm

〈도면 VII-109, 사진 VII-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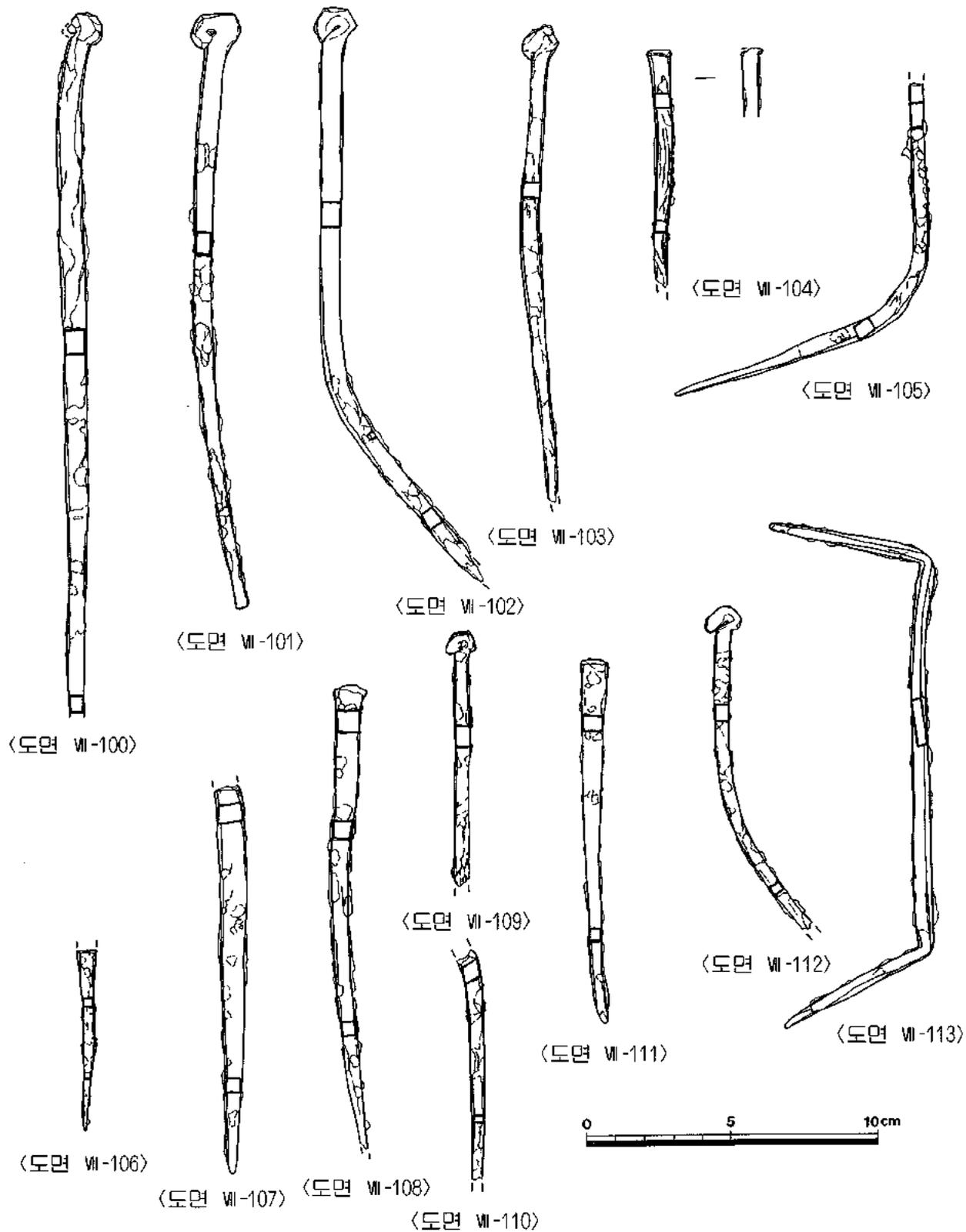
굽은머리 철정 편으로 주건물지 나4 Tr에서 출토되었다. 못머리에는 가격된 흔적이 남아있다. 몸통은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일부 파손되었다. 전체적으로 수화가 심하다. 단면은 장방형이다.

□ 잔존 길이: 9.0cm, 폭: 0.8cm, 두께: 0.5cm

〈도면 VII-110, 사진 VII-110〉

철정 편으로 주건물지 나4 확장Tr에서 출토되었다. 못머리는 결실되었으며 몸통의 상단부는 30° 가량 휘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수화가 심하다. 단면은 방형이다.

□ 잔존 길이: 8.1cm, 폭: 0.4~0.6cm, 두께: 0.3~0.6cm



〈도면 Ⅶ-111, 사진 Ⅶ-111〉

민머리 철정편으로 주건물지 나4 Tr 북쪽에서 출토되었다. 못머리에는 가격된 흔적이 남아있다. 몸통은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10°가량 휘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수화가 심하다. 단면은 장방형이다.

□ 길이: 11.7cm, 폭: 0.6cm, 두께: 0.5cm

〈도면 Ⅶ-112, 사진 Ⅶ-112〉

굽은머리 철정 편으로 다2 확장Tr에서 출토되었다. 못머리에는 가격된 흔적이 남아있다. 몸통은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1/2 지점에서부터 30°가량 휘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수화가 심하다. 단면은 장방형이다.

□ 잔존 길이: 12.9cm, 폭: 0.5~0.7cm, 두께: 0.4~0.5cm

〈도면 Ⅶ-113, 사진 Ⅶ-113〉

꺾쇠로 주건물지 다2 확장Tr에서 출토되었다. 양쪽 끝이 둔각을 이루며 ㄷ자형을 이룬다. 꺾인 길이는 5.0~5.6cm로 모두 뾰족하게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수화가 심하다. 단면은 장방형이다.

□ 길이: 18.0cm, 폭: 1.7cm, 두께: 0.4cm

〈도면 Ⅶ-114, 사진 Ⅶ-114〉

철제 술 편으로 주건물지 나3 Tr에서 출토되었다. 구순부는 등글게 처리되었다. 동체부에 길이 11.0cm, 폭 4.2cm의 술결이가 남아있으며 직경 1.1cm의 구멍이 뚫려있다. 전체적으로 수화가 심하다.

□ 잔존 기고: 22.2cm, 두께: 0.5cm

〈도면 Ⅶ-115, 사진 Ⅶ-115〉

유경식 철촉 편으로 주건물지 나3 확장Tr에서 출토되었다. 경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촉신부에는 홈이 있다. 촉신과 경부는 별도로 제작되어 끼워졌으며 관부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다. 단면은 수화가 심하다. 촉신부 단면은 마름모꼴이고 경부 단면은 오각형이다.

□ 잔존 길이: 6.1cm, 폭: 1.3cm, 두께: 0.8cm

〈도면 Ⅶ-116, 사진 Ⅶ-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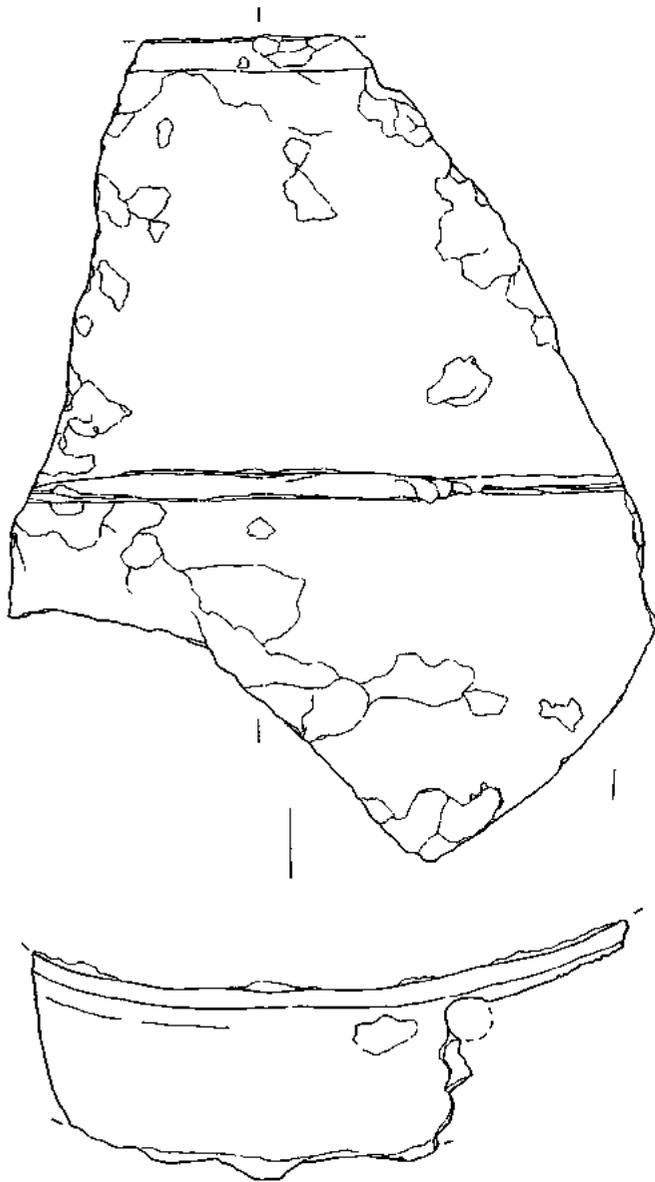
청동제 족집게로 주건물지 나3 Tr에서 출토되었다. 전체적으로 수화가 심하다.

□ 길이: 8.0cm, 폭: 0.6cm, 두께: 0.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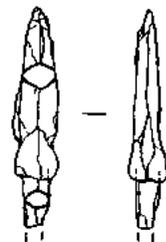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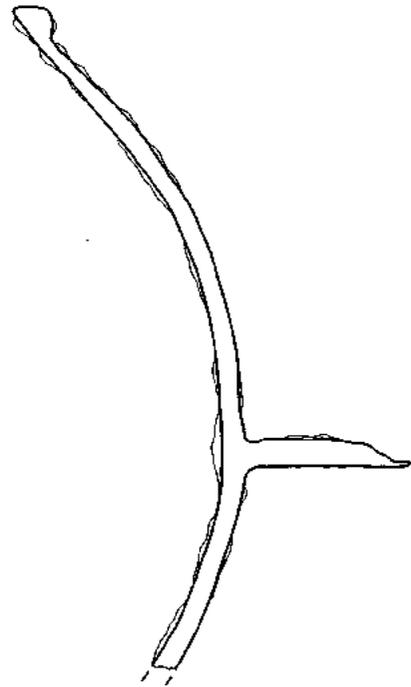
〈도면 Ⅶ-117, 사진 Ⅶ-117 ①,②〉

상평통보로 주건물지 다1에서 출토되었다. 앞면에는 ‘常平通寶’가 양각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해를 나타내는 부호인 ‘.’이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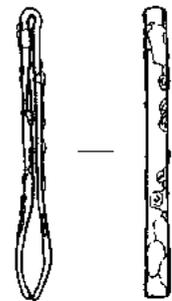
□ 지름: 2.5cm, 방형 투공: 0.7cm, 두께: 0.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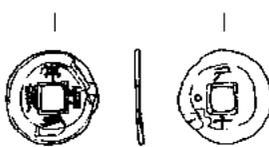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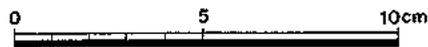
〈도면 VII-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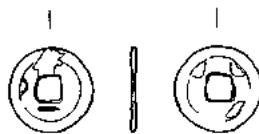
〈도면 VII-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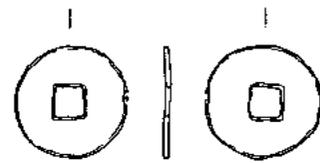
〈도면 VII-116〉



〈도면 VII-117〉



〈도면 VII-118〉



〈도면 VII-119〉

〈도면 VII-118, 사진 VII-118〉

상평통보로 주건물지 나2 Tr에서 출토되었다. 앞면에는 '常平通寶'가 양각되어 있으나 마모가 심하여 알아보기 어렵다. 뒷면에는 숫자인 '一'이 새겨져 있으며, 달을 나타내는 부호인 ') '이 새겨져 있다.

□ 지름: 2.3cm, 방형 투공: 0.7cm, 두께: 0.15cm

〈도면 VII-119, 사진 VII-119〉

당오전으로 주건물지 나3에서 출토되었다. 앞면에 '五'가 양각되어 있으나 마모가 심하여 알아보기 어렵다.

□ 지름: 3.0cm, 방형 투공: 0.8cm, 두께: 0.1cm

2. 문지

〈도면 VII-120, 사진 VII-120〉

암키와 편으로 문지 바다부분에서 출토되었다. 황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좌측 하단부가 남아 있으며 문양은 집선문과 국화문이다. 내측 포목의 빈도수는 6×5이고 와도흔이 1/3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합철흔과 륜철흔이 확인되었다. 건장치기 흔적은 2.8cm이고 불손질하였다.

□ 잔존 길이: 22.7cm, 잔존 폭: 15.2cm, 두께: 1.9cm

〈도면 VII-121, 사진 VII-121〉

甲申명 암키와 편으로 문지에서 출토되었다. 암회색의 연질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상·하부가 파손되었으며 무문의 바탕에 '甲申'명을 선각하였다. 내면 포흔은 선명하지 않다.

□ 잔존 길이: 10.0cm, 잔존 폭: 17.6cm, 두께: 1.6cm

〈도면 VII-122, 사진 VII-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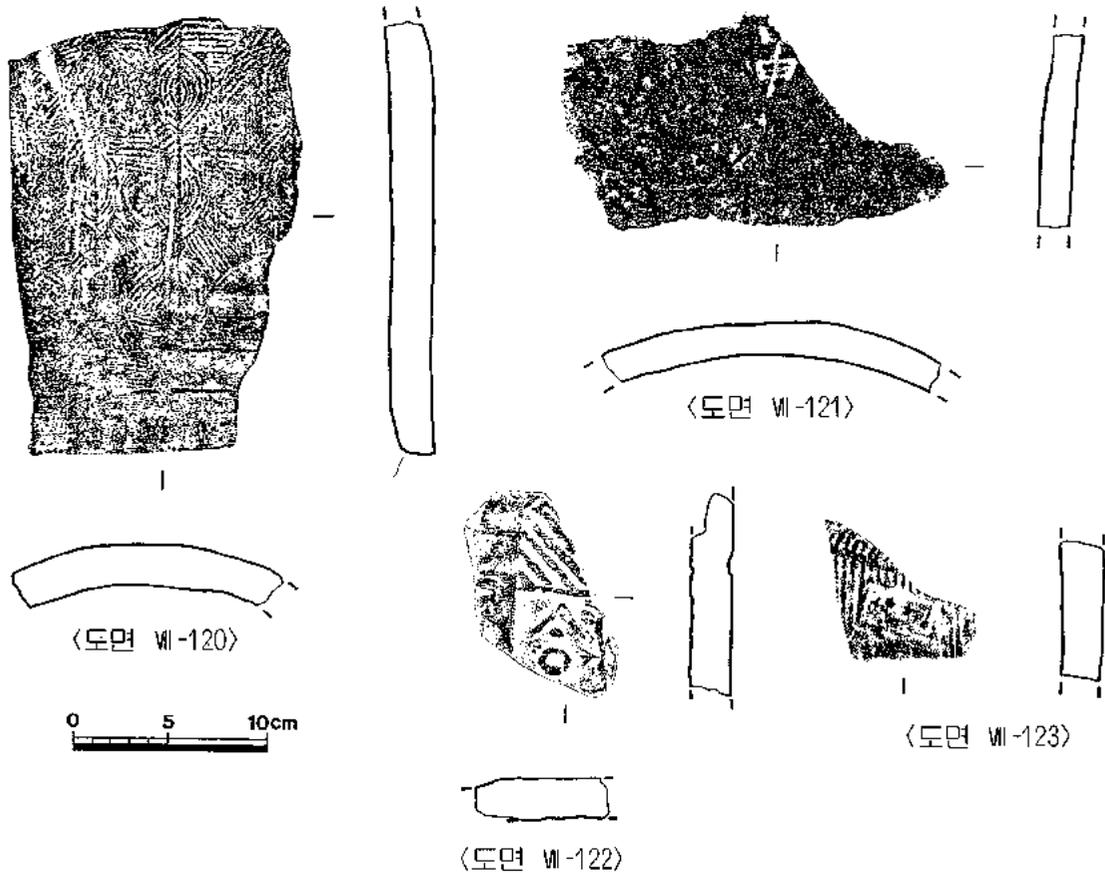
승명 암키와 편으로 문지 바2에서 출토되었다. 회색의 연질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상·하부가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복합문이다. 내면 포흔은 선명하지 않다.

□ 잔존 길이: 10.5cm, 잔존 폭: 6.8cm, 두께: 2.0cm

〈도면 VII-123, 사진 VII-123 ①,②〉

大0명 암키와 편으로 문지에서 출토되었다. 회색의 연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상·하부가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집선문이다. 내측 포목의 빈도수는 4×6이다.

□ 잔존 길이: 8.4cm, 잔존 폭: 7.5cm, 두께: 2.1cm



〈도면 Ⅶ-124〉

구연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문지 바3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연회색이다. 경질이 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밖으로 말아서 붙였다. 회전 불 손질로 정면하였다.

□ 복원 구경: 33.2cm, 잔존 기고: 3.8cm

〈도면 Ⅶ-125, 사진 Ⅶ-125〉

백자대접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문지 바4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결이 없다.

□ 복원 구경: 14.0cm, 복원 저경: 7.6cm, 기고: 8.6cm

〈도면 Ⅶ-126, 사진 Ⅶ-126 ①,②〉

백자잔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문지 바2에서 출토되었다.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결이 없다. 평저이며 저부바닥면에는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 복원 구경: 7.8cm, 복원 저경: 3.0cm, 기고: 2.9cm

〈도면 VII-127, 사진 VII-127 ①,②〉

백자대접 저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분지 바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녹색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굽의 형태는 도립삼각굽이다. 내저에는 원각이 있다. 굽의 접지면에는 내화토가 섞인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 복원 저경: 4.8cm, 잔존 기고: 2.9cm, 내저 원각: 4.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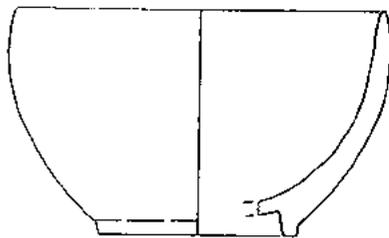
〈도면 VII-128, 사진 VII-128 ①,②〉

장방형의 석물로 분지에서 출토되었다. 상면은 편평하게 다듬어져 있으며 '蹠' 명이 음각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벽제전적기념비의 글자 중에서 '蹠' 자 부분으로 추정된다. 〈사진 VII-128 ② 벽제전적기념비〉 참조

□ 길이: 65.0cm, 폭: 50.3cm, 두께: 14.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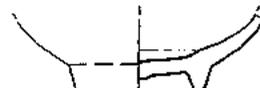
〈도면 VII-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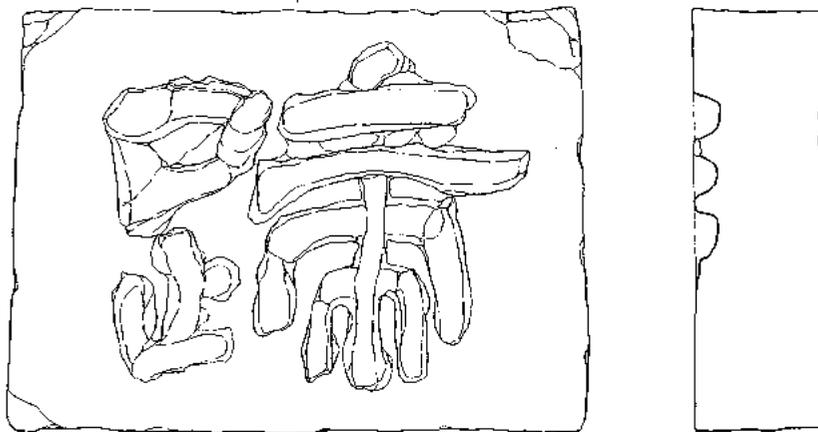
〈도면 VII-125〉



〈도면 VII-126〉



〈도면 VII-127〉



〈도면 VII-128〉



3. 마당

〈도면 Ⅶ-129, 사진 Ⅶ-129〉

암키와 편으로 마당 마1에서 출토되었다. 명회색의 연질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하단이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어골문이다. 내측 포목의 빈도수는 12×9이고 와도흔이 1/6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연철흔이 확인되었다.

□ 잔존 길이: 16.3cm, 잔존 폭: 17.5cm, 두께: 1.5cm

〈도면 Ⅶ-130, 사진 Ⅶ-130〉

암키와 편으로 마당 마2에서 출토되었다. 암회색의 연질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상부가 1/2 이상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어골문이다. 내측 포목의 빈도수는 8×8이고 와도흔이 2/3 지점까지 나타난다. 건장치기 흔적은 4.5cm이며 물손질하였다.

□ 잔존 길이: 16.7cm, 잔존 폭: 14.4cm, 두께: 2.0cm

〈도면 Ⅶ-131, 사진 Ⅶ-131〉

암키와 편으로 마당 마2에서 출토되었다. 황회색의 연질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하단이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집선문이다. 내측 포목의 빈도수는 11×10이고 와도흔이 1/6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합철흔과 분철흔이 확인되었다.

□ 잔존 길이: 13.9cm, 잔존 폭: 16.5cm, 두께: 2.0cm

〈도면 Ⅶ-132, 사진 Ⅶ-132〉

암키와 편으로 마당 마2에서 출토되었다. 명회색의 연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석영이 소량 혼입된 점토이다. 상부가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집선문이다. 내면 포흔은 선명하지 않고 와도흔이 1/4 지점까지 나타난다. 건장치기 흔적은 4.2cm이며 물손질하였다.

□ 잔존 길이: 18.2cm, 잔존 폭: 12.0cm, 두께: 2.5cm

〈도면 Ⅶ-133, 사진 Ⅶ-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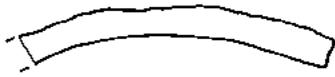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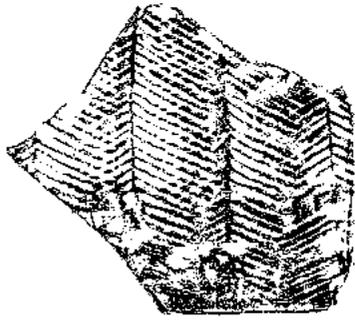
암키와 편으로 마당 마2에서 출토되었다. 명회백색의 연질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상·하부가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복합문이다. 내측 포목의 빈도수는 8×6이다.

□ 잔존 길이: 13.7cm, 잔존 폭: 7.8cm, 두께: 1.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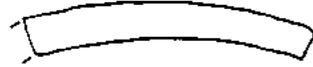
〈도면 Ⅶ-134, 사진 Ⅶ-134〉

암막새 편으로 마당 라2에서 출토되었다. 회색의 연질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우측하부가 남아있으며 문양은 초화문으로 추정된다. 내면은 물손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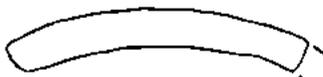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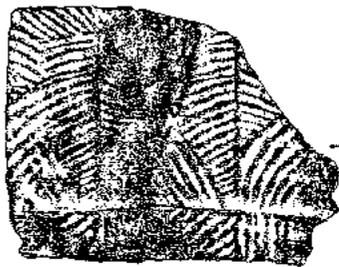
□ 잔존 길이: 6.1cm, 잔존 폭: 11.5cm, 두께: 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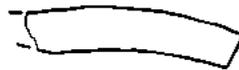
<도면 VI-129>



<도면 VI-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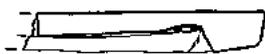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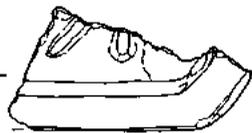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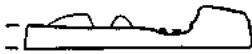
<도면 VI-131>



<도면 VI-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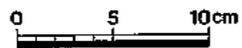
<도면 VI-133>



<도면 VI-134>



<도면 VI-135>



Ⅶ. 유물

〈도면 Ⅶ-135, 사진 Ⅶ-135〉

암막새 편으로 마당 라2에서 출토되었다. 회색의 연질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우측하부가 남아있으며 문양은 초화문으로 추정된다. 내면은 물손질하였다.

□ 잔존 길이: 6.1cm, 잔존 폭: 7.1cm, 두께: 1.3cm

〈도면 Ⅶ-136, 사진 Ⅶ-136〉

유단식 수키와 편으로 마당 라1에서 출토되었다. 암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미구가 파손되었으며 무문이다. 내면 포흔은 선명하지 않고 와도흔이 1/3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사철흔과 점토접합흔이 확인되었다. 건장치기 흔적은 3.4cm이고 물손질하였다.

□ 잔존 길이: 31.2cm, 폭: 14.0cm, 두께: 2.2cm

〈도면 Ⅶ-137〉

유단식 수키와로 마당 라2에서 출토되었다. 명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문양은 어골문이다. 내면 포목의 빈도수는 7×6이고 와도흔이 1/3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합철흔과 점토접합흔이 확인되었다. 건장치기 흔적은 5.7cm이고 물손질하였다. 자연유가 부착되어 광택이 난다.

□ 길이: 33.0cm, 미구 길이: 1.2cm, 폭: 16.1cm, 두께: 2.5cm

〈도면 Ⅶ-138, 사진 Ⅶ-138〉

수키와 편으로 마당 라4에서 출토되었다. 암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상부가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복합수파문이다. 내측 포목의 빈도수는 5×5이고 와도흔이 1/3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연철흔이 확인되었다. 건장치기 흔적은 3.6cm이고 물손질하였다.

□ 잔존 길이: 22.5cm, 폭: 13.0cm, 두께: 2.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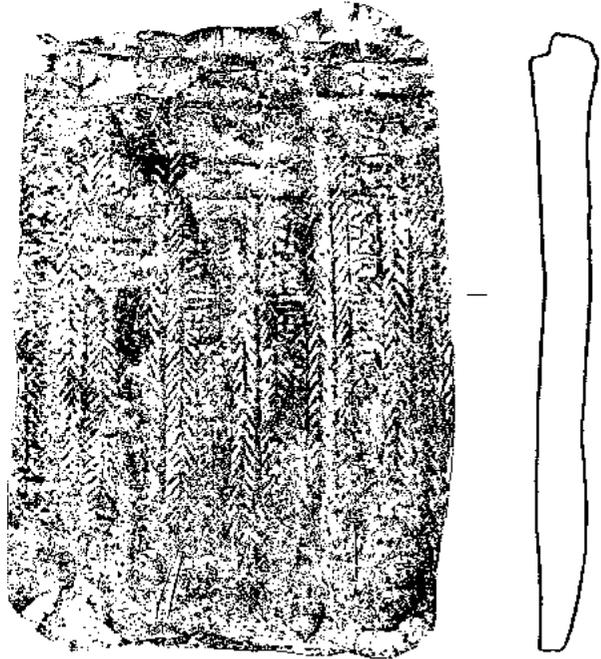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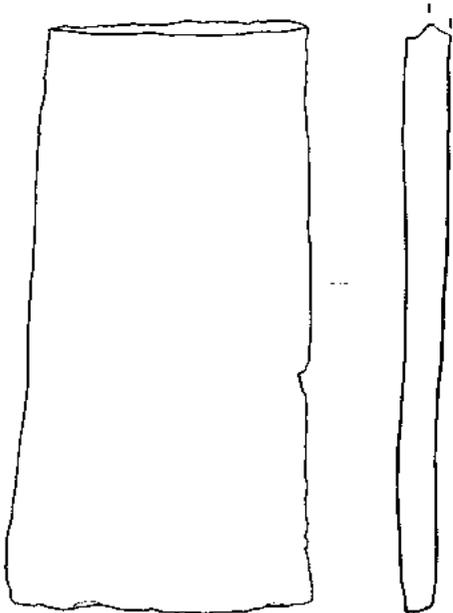
〈도면 Ⅶ-139, 사진 Ⅶ-139〉

수키와 편으로 마당 마1에서 출토되었다. 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상부가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집선문이다. 내측 포흔은 선명하지 않고 와도흔이 1/4 지점까지 나타난다. 건장치기 흔적은 2.8cm이고 물손질하였다.

□ 잔존 길이: 18.0cm, 폭: 12.2cm, 두께: 1.7cm

〈도면 Ⅶ-140, 사진 Ⅶ-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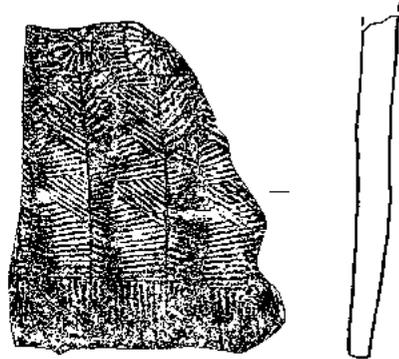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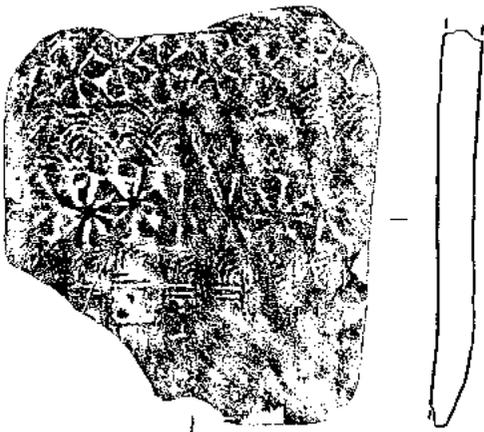
五臼명 수키와 편으로 마당 마3에서 출토되었다. 암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상부가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복합문이고, 문양 위에 '五臼' 명을 타날하였다. 내면 포흔은 선명하지 않고 와도흔이 1/3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룬철흔



<도면 VII-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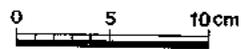
<도면 VII-137>



<도면 VII-138>



<도면 VII-139>



이 확인되었다. 건장치기 흔적은 3.8cm이고 물손질하였다.

□ 잔존 길이: 11.5cm, 잔존 폭: 10.3cm, 두께: 2.2cm

<도면 Ⅶ-141, 사진 Ⅶ-141>

碧蹄명 수기와 편으로 마당 라4에서 출토되었다. 암흑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며, 소성 마지막 단계에서 환원소성하여 검은 피막을 입혔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상·하부가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복합문이다. 내면 포흔은 선명하지 않다.

□ 잔존 길이: 7.8cm, 잔존 폭: 8.3cm, 두께: 1.0cm

<도면 Ⅶ-142>

구연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마당 라4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흑회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이다. 회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 복원 구경: 35.1cm, 잔존 기고: 4.4cm

<도면 Ⅶ-143>

구연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마당 라1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명회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외반되었으며 점토로 보강하였다. 회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 복원 구경: 34.0cm, 잔존 기고: 3.8cm

<도면 Ⅶ-144>

구연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마당 라1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면이 명회색, 외면은 명청회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외반되었으며 점토로 보강하였으며 외면에 접합흔이 남아있다. 회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 복원 구경: 34.2cm, 잔존 기고: 2.0cm

<도면 Ⅶ-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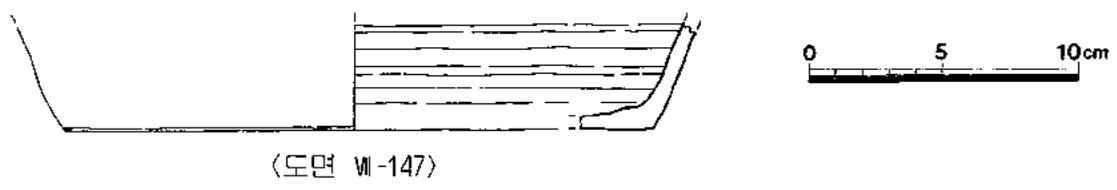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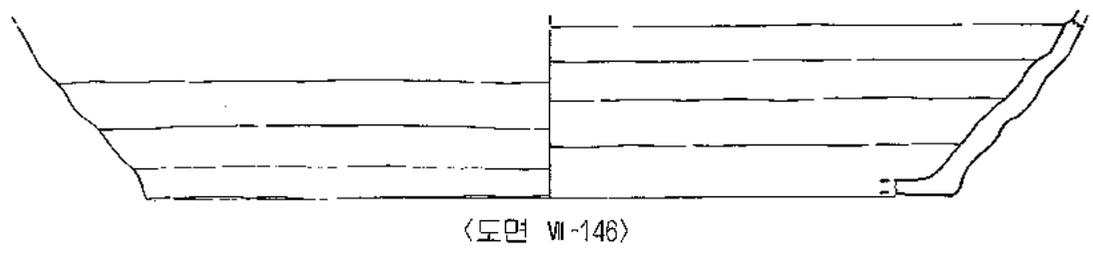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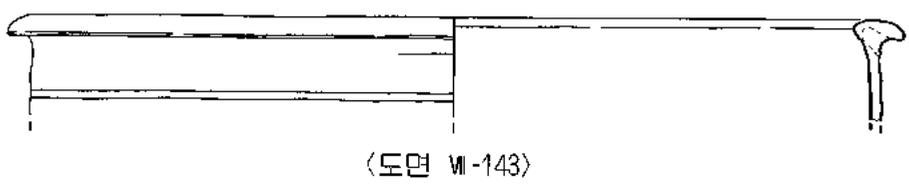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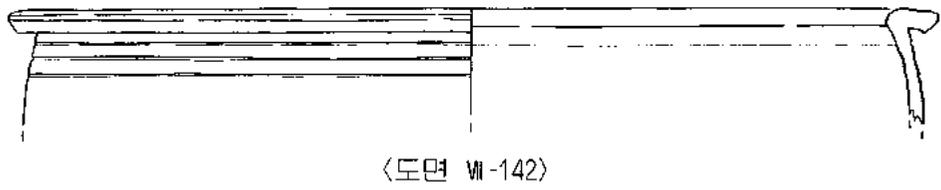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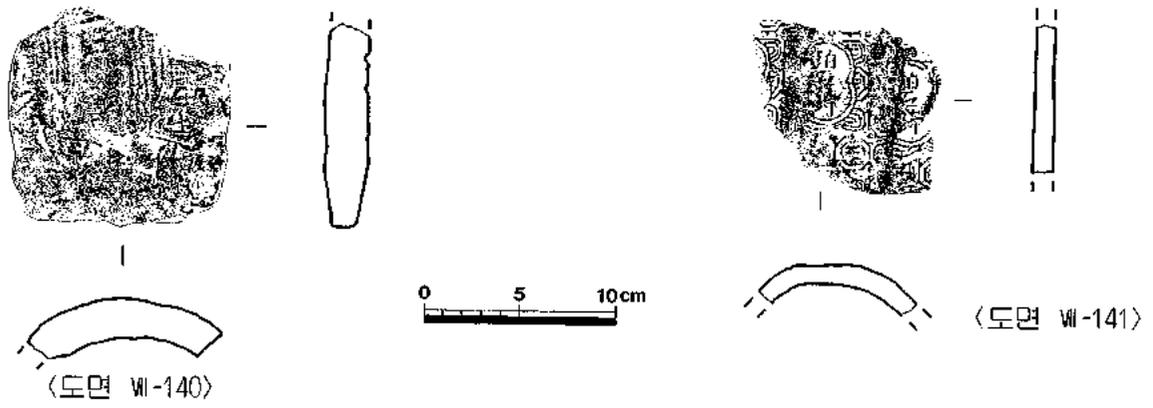
구연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마당 마2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면이 연회색, 외면은 회흑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안으로 말아서 붙였다. 회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 복원 구경: 33.8cm, 잔존 기고: 3.9cm

<도면 Ⅶ-146>

저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마당 마1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암흑회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 복원 저경: 22.4cm, 잔존 기고: 4.1cm



Ⅶ. 유물

〈도면 Ⅶ-147〉

저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마당 라1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명회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이다. 회전 불손질로 정면하였다.

□ 복원 저경: 30.6cm, 잔존 기고: 6.3cm

〈도면 Ⅶ-148, 사진 Ⅶ-148〉

백자대접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마당 마3에서 출토되었다.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원각의 안쪽에는 태토비집 자국이, 굽의 접지면에는 내화토가 섞인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 복원 구경: 18.6cm, 복원 저경: 5.8cm, 기고: 8.2cm

〈도면 Ⅶ-149, 사진 Ⅶ-149 ①,②〉

백자발 저부편으로 마당 마1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회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다. 굽의 형태는 죽절굽이다. 내저에는 원각이 있다. 내저에는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 저경: 8.4cm, 잔존 기고: 2.5cm, 내저 원각: 4.8cm

〈도면 Ⅶ-150, 사진 Ⅶ-150〉

백자잔 편으로 마당 라1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굽의 접지면과 내저면에는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 구경: 9.8cm, 저경: 5.4cm, 기고: 3.1cm

〈도면 Ⅶ-151, 사진 Ⅶ-151 ①,②,③〉

백자잔 저부편으로 마당 마1에서 출토되었다.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굽과 저부바닥면을 제외한 전면에 회청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굽의 형태는 도립삼각굽이다.

□ 저경: 4.0cm, 잔존 기고: 9.2cm

〈도면 Ⅶ-152, 사진 Ⅶ-152 ①,②〉

백자접시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마당 마2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녹청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굽의 형태는 오목굽이다. 원각의 안쪽과 굽의 접지면에는 내화토가 섞인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 복원 구경: 13.6cm, 복원 저경: 4.9cm, 기고: 3.0cm

〈도면 Ⅶ-153〉

백자대접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마당 라4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

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 복원 구경: 16.6cm, 복원 저경: 7.6cm, 기고: 6.2cm

〈도면 VII-154, 사진 VII-154 ①,②〉

백자잔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마당 마1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 복원 구경: 7.0cm, 복원 저경: 3.4cm, 잔존 기고: 5.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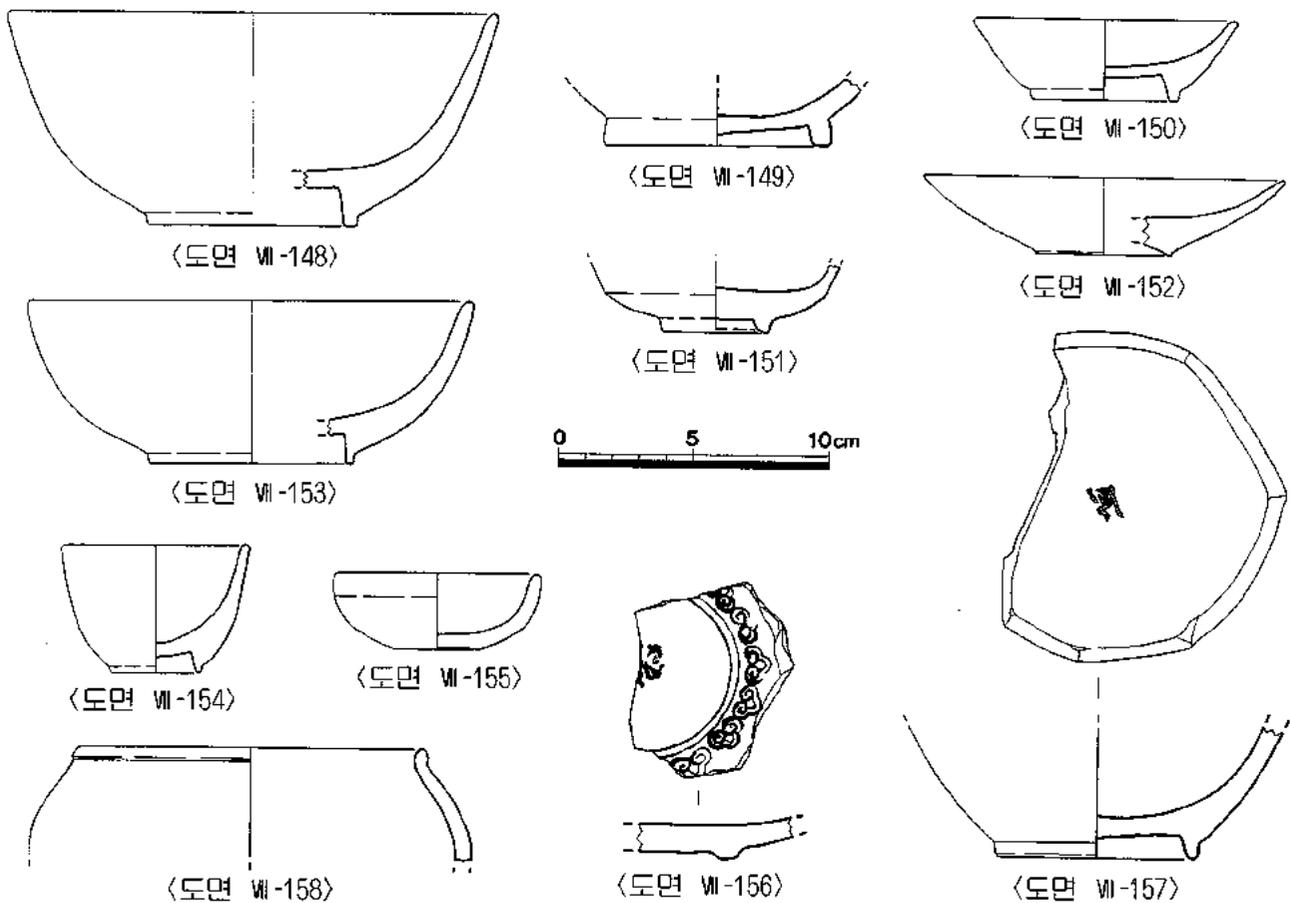
〈도면 VII-155, 사진 VII-155 ①,②〉

백자잔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마당 라4에서 출토되었다.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평저이며 저부바닥면에는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 복원 구경: 7.8cm, 복원 저경: 3.0cm, 기고: 3.0cm

〈도면 VII-156, 사진 VII-156 ①,②〉

청자접시 저부편으로 마당 라3에서 출토되었다. 회갈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녹색의



Ⅶ. 유물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굽의 접지면과 저부바닥면에는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내저에는 화문과 선문, 운문이 시문되어 있다.

□ 복원 저경: 7.4cm, 잔존 기고: 1.3cm

〈도면 Ⅶ-157, 사진 Ⅶ-157 ①,②〉

백자청화 명문대접 저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마당 라3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접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회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굽의 접지면에는 내화토가 섞인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내저에 '壽' 명이 있다.

□ 복원 저경: 7.5cm, 잔존 기고: 4.2cm

〈도면 Ⅶ-158, 사진 Ⅶ-158〉

백자호 구연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마당 라4에서 출토되었다.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 복원 구경: 13.2cm, 잔존 기고: 4.2cm

〈도면 Ⅶ-159, 사진 Ⅶ-159 ①,②〉

大韓光武十年명 1chon으로 마당 마3 확장Tr에서 출토되었다. 1906년(고종 43)에 발행된 것이며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앞면에는 지름 1.7cm의 원안에 봉황문이 양각되어 있으며, 상부에는 '大韓·光武十年'이 좌회독으로, 하부에는 '1 CHON·일전'이 우회독·좌회독으로 양각되어 있다. 뒷면은 하부에 두줄기의 화엽문이 대칭으로 양각되어 있고 그 상부 중앙에 5엽의 화문이 있다. 화엽문 내부에 세로로 '一錢'이 양각되어 있다.

□ 지름: 2.8cm, 두께: 0.2cm

〈도면 Ⅶ-160, 사진 Ⅶ-160〉

굽은머리 철정 편으로 마당 라3 Tr에서 출토되었다. 못머리는 비교적 소형이며 몸통이 1/2 이상 파손되었다. 전체적으로 수화가 심하다. 단면은 장방형이다.

□ 잔존 길이: 4.5cm, 폭: 0.6cm, 두께: 0.4cm

〈도면 Ⅶ-161, 사진 Ⅶ-161〉

띠쇠로 마당 라2 Tr에서 출토되었다. 지름 0.6cm의 투공이 2개가 있다. 전체적으로 수화가 심하다.

□ 길이: 13.4cm, 폭: 2.2cm, 두께: 0.1cm

〈도면 Ⅶ-162, 사진 Ⅶ-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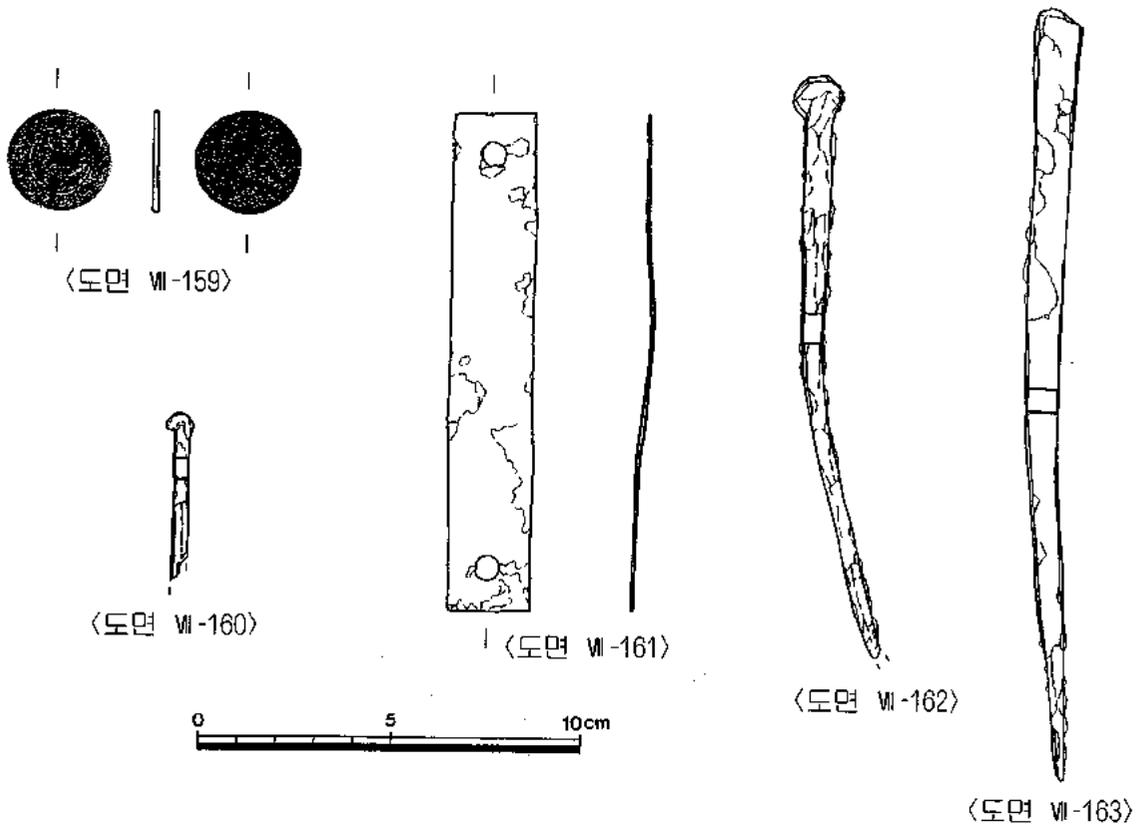
굽은머리 철정 편으로 마당 라2 Tr에서 출토되었다. 몸통은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1/2 지점에서부터 30°가량 휘어져 있다. 일부가 파손되었다. 몸통은 수화가 심하며 일부는 균열이 철심 내부까지 깊게 퍼져 있다. 단면은 장방형이다.

□ 잔존 길이: 15.6cm, 폭: 0.8cm, 두께: 0.6cm

〈도면 VII-163, 사진 VIII-163〉

민머리 철정으로 마당 라4 Tr에서 출토되었다. 몸통은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1/2 지점에서부터 30°가량 휘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수화가 심하며 일부는 균열이 철심 내부까지 깊게 패여 있다. 단면은 장방형이다.

□ 길이: 20.2cm, 폭: 0.8cm, 두께: 0.6cm



4. 지표

〈도면 Ⅶ-164, 사진 Ⅶ-164〉

암키와 편으로 지표에서 수습하였다. 명황회색의 연질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하단이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어골문이다. 내면 포목의 빈도수는 11×6이고 와도흔이 1/2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룬철법이 확인되었다. 건장치기 흔적은 2.1cm이고 불손질하였다.

□ 잔존 길이: 15.2cm, 잔존 폭: 1.7cm, 두께: 1.9cm

〈도면 Ⅶ-165, 사진 Ⅶ-165〉

磯洞명 수키와 편으로 지표에서 수습하였다. 암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상·하부가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수과문이다. 내면 포흔은 선명하지 않다.

□ 잔존 길이: 7.4cm, 잔존 폭: 10.7cm, 두께: 2.5cm

〈도면 Ⅶ-166, 사진 Ⅶ-166〉

암키와 편으로 지표에서 수습하였다. 명황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좌측 일부가 남아있으며 문양은 복합집선문이다. 내측 포목의 빈도수는 8×7이고 와도흔이 1/3 지점까지 나타난다.

□ 잔존 길이: 10.7cm, 잔존 폭: 17.4cm, 두께: 1.8cm

〈도면 Ⅶ-167, 사진 Ⅶ-167 ①,②〉

甲申명 암키와 편으로 지표에서 수습하였다. 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상부가 남아있으며 무문의 바탕에 '甲申'명을 선각하였다. 내면 포흔은 선명하지 않고 와도흔이 1/4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룬철법이 확인되었다.

□ 잔존 길이: 12.7cm, 잔존 폭: 13.1cm, 두께: 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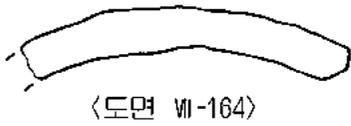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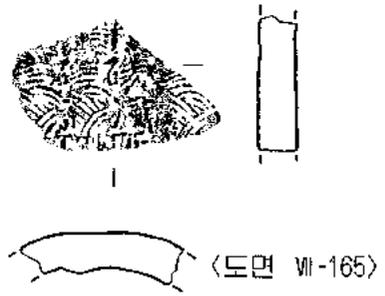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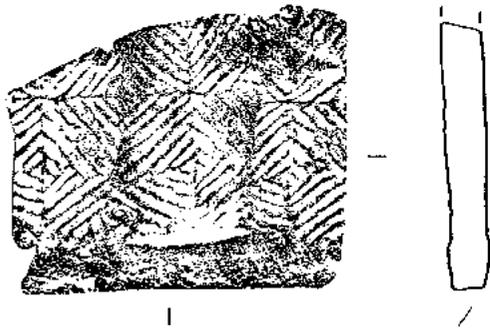
〈도면 Ⅶ-168, 사진 Ⅶ-168〉

下명 유단식 수키와 편으로 지표에서 수습하였다. 황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하부가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복합문이며, '下'명을 타날하였다. 내면 포흔은 선명하지 않고 와도흔은 1/4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연철흔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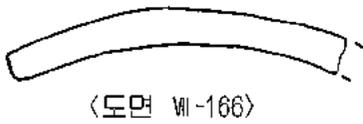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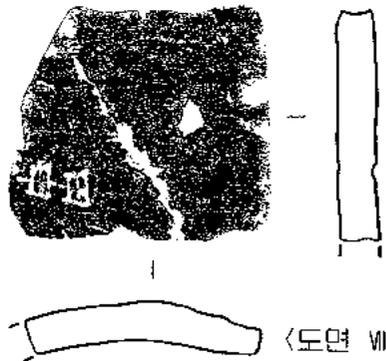
□ 잔존 길이: 18.6cm, 미구 길이: 1.2cm, 폭: 13.2cm, 두께: 2.8cm

〈도면 Ⅶ-169, 사진 Ⅶ-169 ①,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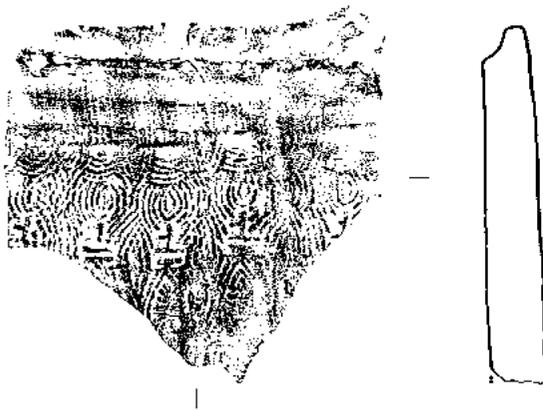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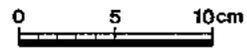
수키와 편으로 지표에서 수습하였다. 명문이 남아있으나 마모되어 알아보기 어렵다. 흑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우측 일부가 남아있으며 문양은 복합문이다. 내면 포흔은 선명하지 않고 와도흔은 1/2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룬철법과 점토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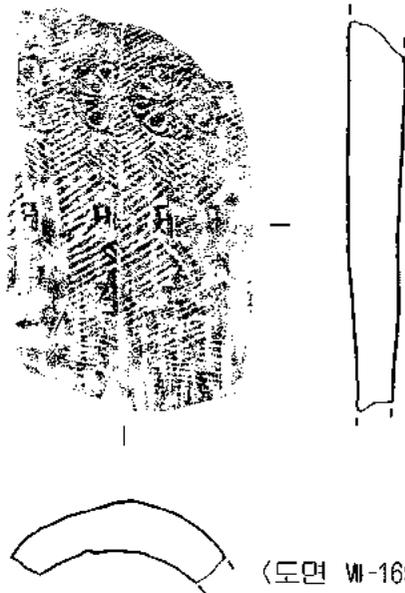
<도면 VII-164>



<도면 VII-166>



<도면 VII-168>



<도면 VII-169>

합흔이 확인되었다. 건장치기 흔적은 3.5cm이고 물손질하였다.

▣ 잔존 길이: 21.1cm, 잔존 폭: 11.0cm, 두께: 2.0cm

〈도면 Ⅶ-170, 사진 Ⅶ-170〉

유단식 수키와 편으로 지표에서 수습하였다. 암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하부가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집선문이다. 내측 포복의 빈도수는 8×7이고 와도흔이 1/4 지점까지 나타난다.

▣ 잔존 길이: 30.1cm, 미구 길이: 2.0cm, 폭: 14.2cm, 두께: 2.3cm

〈도면 Ⅶ-171, 사진 Ⅶ-171〉

유단식 수키와 편으로 지표에서 수습하였다. 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하부가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복합수파문이다. 내측 포복의 빈도수는 9×8이고 와도흔이 1/3 지점까지 나타난다.

▣ 잔존 길이: 15.3cm, 미구 길이: 0.8cm, 폭: 13.2cm, 두께: 2.5cm

〈도면 Ⅶ-172, 사진 Ⅶ-172〉

유단식 수키와 편으로 지표에서 수습하였다. 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하부와 미구가 파손되었으며 문양은 복합수파문이다. 내측 포복의 빈도수는 6×8이고 와도흔이 1/3 지점까지 나타난다. 내면에서는 합철흔이 확인되었다.

▣ 잔존 길이: 27.4cm, 폭: 14.7cm, 두께: 2.5cm

〈도면 Ⅶ-173, 사진 Ⅶ-173〉

유단식 수키와로 지표에서 수습하였다. 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문양은 수파문이다. 내측 포복의 빈도수는 8×6이고 와도흔이 1/6 지점까지 나타난다. 건장치기 흔적은 2.6cm이고 물손질하였다.

▣ 잔존 길이: 30.4cm, 미구 길이: 1.2cm, 폭: 13.8cm, 두께: 2.3cm

〈도면 Ⅶ-174, 사진 Ⅶ-174〉

팔각형의 전으로 지표에서 수습하였다. 암청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하단부 일부가 파손되었다. 상·하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 길이: 23.6cm, 폭: 22.8cm, 두께: 5.9cm

〈도면 Ⅶ-175, 사진 Ⅶ-175〉

방형의 전으로 지표에서 수습하였다. 청회색의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상·하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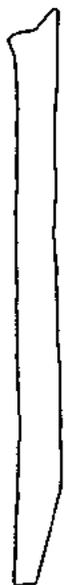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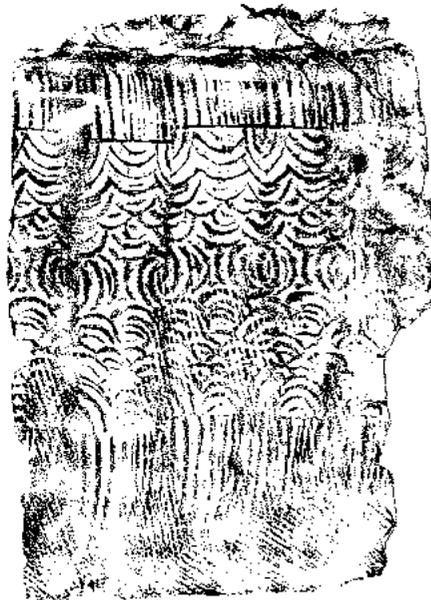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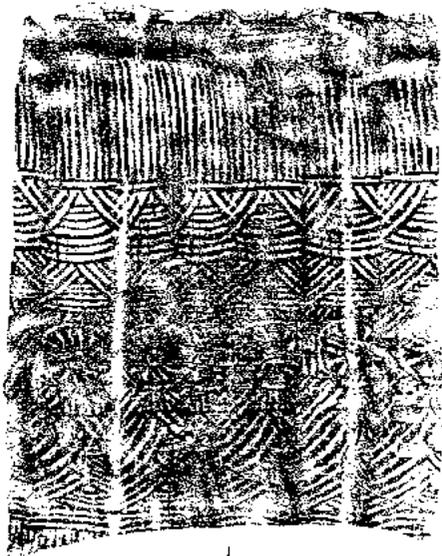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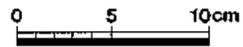
▣ 잔존 길이: 9.6cm, 잔존 폭: 15.6cm, 두께: 4.0cm



〈도면 Ⅴ-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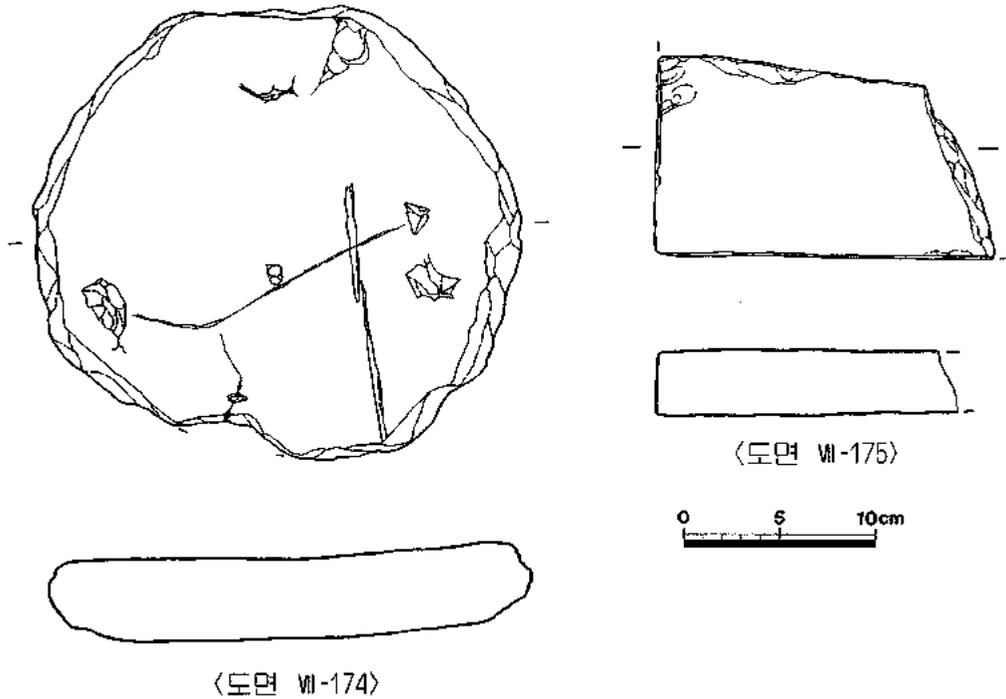
〈도면 Ⅴ-170〉



〈도면 Ⅴ-172〉



〈도면 Ⅴ-173〉



〈도면 VII-176〉

구연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지표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흑회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이다. 내면에 내박흔이 남아있다. 회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 복원 구경: 12.2cm, 잔존 기고: 5.2cm

〈도면 VII-177〉

구연부편으로 지표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명회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이다. 단면에 점토로 덧댄 흔적이 남아있다. 회전 불손질로 정면하였다.

□ 복원 구경: 25.0cm, 잔존 기고: 2.4cm

〈도면 VII-178, 사진 VII-178 ①,②〉

백자접시 편으로 지표에서 출토되었다.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회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결이 없다. 굽의 형태는 죽절굽이다. 내저에는 원각이 있다. 원각의 안쪽에는 태토비집 자국이 4개 남아있다.

□ 구경: 14.0cm, 저경: 5.2cm, 기고: 3.2cm, 내저 원각: 9.8cm

〈도면 VII-179, 사진 VII-179 ①,②〉

백자접시 편으로 지표에서 출토되었다.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굽의 형태는 도립삼각굽이다. 내저에는 원각이 있다. 원각의 안쪽에는 태토비집 자국이 4개 남아있다.

□ 복원 구경: 16.0cm, 저경: 5.5cm, 기고: 4.2cm, 내저 원각: 10.2cm

〈도면 VII-180, 사진 VII-180 ①,②〉

백자대접 저부편으로 지표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접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황갈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굽의 형태는 오목굽이다. 내저에는 원각이 있다. 굽의 접지면과 내저에는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 저경: 5.5cm, 잔존 기고: 3.9cm, 내저 원각: 7.7cm

〈도면 VII-181, 사진 VII-181 ①,②〉

백자제기 저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지표에서 출토되었다.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굽의 높이가 2.5cm이다. 굽의 접지면과 내저에는 내화토가 섞인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 복원 저경: 8.2cm, 잔존 기고: 4.2cm

〈도면 VII-182, 사진 VII-182 ①,②〉

분청 귀얄접시 저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지표에서 출토되었다. 정선된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원각의 안쪽과 굽의 접지면에는 태토비집 받침자국이 남아있다. 내면은 귀얄로 분장되어 있으며 외면에도 일부 보이며 흘러내린 자국이 있다.

□ 복원 저경: 5.3cm, 잔존 기고: 3.7cm

〈도면 VII-183, 사진 VII-183 ①,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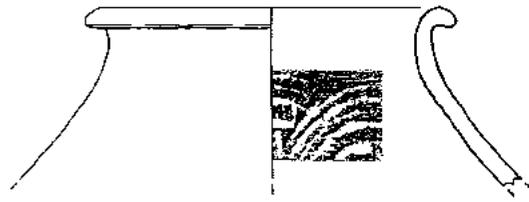
분청 여의두문 화형접시 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지표에서 출토되었다. 회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굽의 형태는 죽절굽이다. 내저와 저부바다면에는 태토비집 자국이 3개씩 남아있다. 내저에는 국화문과 원문, 여의두문이 시문되어 있다.

□ 복원 구경: 14.4cm, 저경: 6.3cm, 기고: 3.3cm

〈도면 VII-184, 사진 VII-184 ①,②〉

청화 壽명접시 편으로 지표에서 출토되었다. 백색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접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청백색의 유약이 내·외면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없다. 굽의 접지면에는 내화토가 섞인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 복원 구경: 10.0cm, 복원 저경: 5.5cm, 기고: 3.2cm



〈도면 Ⅶ-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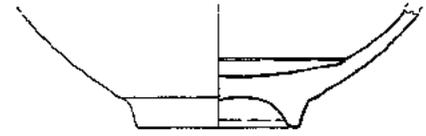
〈도면 Ⅶ-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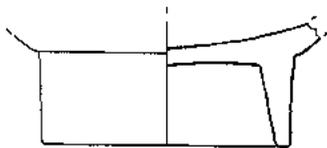
〈도면 Ⅶ-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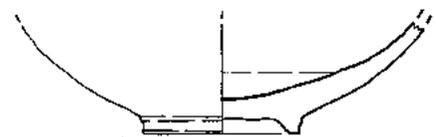
〈도면 Ⅶ-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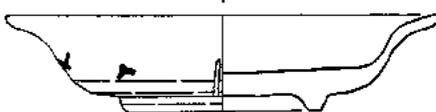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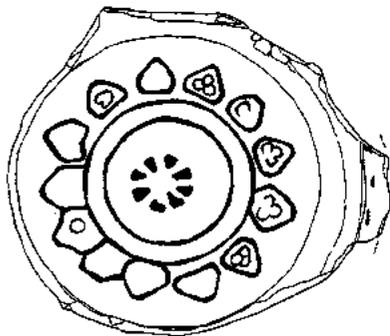
〈도면 Ⅶ-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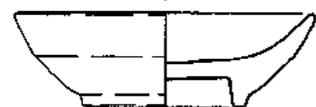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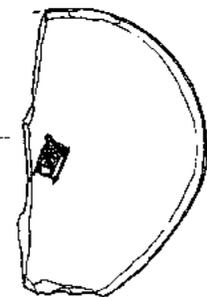
〈도면 Ⅶ-181〉



〈도면 Ⅶ-182〉



〈도면 Ⅶ-183〉



〈도면 Ⅶ-184〉

〈도면 VII-185, 사진 VII-185〉

민머리 철정 편으로 지표에서 수습하였다. 못머리에는 가격흔이 남아있다. 몸통은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1/2 지점에서부터 30°가량 휘어져 있으며 일부가 파손되었다. 전체적으로 수화가 심하다. 단면은 방형이다.

□ 잔존 길이: 19.3cm, 폭: 0.4~0.9cm, 두께: 0.5cm

〈도면 VII-186, 사진 VII-186〉

철정 편으로 지표에서 수습하였다. 못머리는 결실되었다. 몸통은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30°가량 휘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수화가 심하다. 단면은 방형이다.

□ 잔존 길이: 8.4cm, 폭: 0.4cm, 두께: 0.3cm

〈도면 VII-187, 사진 VII-187 ①,②〉

大日本大正二年명으로 지표에서 수습하였다. 1913년에 주조된 것으로 앞면에는 중심부에 태양 문이 양각되어 있고 '大日本·大正二年'이 좌회독으로, '1 SEN'은 우회독으로 양각되어 있다. 뒷면에는 2포기씩의 벼이삭이 리본으로 묶여 좌우로 대칭되어 있고 그 안쪽 중심에 '一錢'이 세로로 양각되어 있다. 동전의 앞·뒷면 가장자리 안쪽에 톱니모양의 요철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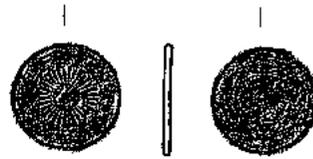
□ 지름: 2.8cm, 두께: 0.15~0.2cm



〈도면 VII-185〉



〈도면 VII-186〉



〈도면 VII-187〉



5. 종합

이번 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발굴현장에서 1차 선별하였고, 발굴조사 종료 후 2차 선별하여, 모두 187점의 유물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유물은 조사지역을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주건물지 119점, 문지 9점, 마당 35점, 지표 24점으로 주건물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종류별로는 와전류 71점, 도기류 19점, 자기류 68점, 금속유물 28점, 기타 1점으로 집계되었다.

유물의 구역별·종류별 출토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건물지	문지	마당	지표	계
와전류	암키와	11	1	5	1	18
	수키와	22		4		26
	막새	1		2		3
	명문와	4	3	2	2	11
	선	4			2	6
	소계	42	4	13	12	71
도기류	도기	10	1	6	2	19
	청자			1		1
자기류	분청	13			2	15
	순백자	26	3	10	4	43
	청화백자	7			1	8
	철화백자	1				1
	소계	47	3	3	7	68
	금속유물	철제유물	16		4	2
청동유물		1				1
동전		3		1	1	5
소계		20		5	3	28
기타	蹴踏석물		1			1
계		119	9	35	35	187

벽제관은 1625년(인조 3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진된 것으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으며, 실제 발굴조사 과정에서 17세기 이후의 조선 후기로 편년되는 유물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그렇지만 분청자기류 및 어골문 기와류와 같은 조선 전기의 유물들도 적지 않게 출토되어 벽제관을 현재의 위치로 이진하기 이전에 이미 선대 유구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주건물지 북쪽의 선대 아궁이가 발견되었고, 주건물지 동쪽 기단 외부의 토층조사를 통하여 주건물지 기단도 하부의 집토다짐층이 확인되었다.

본고에서는 벽제관지 출토유물 중 가장 많은 개체수를 차지하며, 유적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와전류 및 자기류를 중심으로 유물의 종류·분포·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기존의 연구성과와 비교·검토함으로써 유물의 성격 및 시기 등을 추정하고자 한다.

5-1. 와전류

1) 암·수키와

이번 조사에서는 모두 44점의 암·수키와가 분석되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번호	문양	출토지	특징	비고
1	어골문	주건물지	명회색경질, 긴장치기3.5cm, 물손질	
2	어골문	주건물지	회백색경질, 점토허흔	
3	어골문	선대 아궁이	명회백색경질	
4	어골문	선대 아궁이	회색경질, 윤철흔	
5	복합문	탐색 Tr	회백색연질	횡선+중선
6	복합문	주건물지	명황적색연질, 합철흔, 연철흔	집선+차륜
7	복합문	주건물지	명적갈색경질	횡선+중선+어골
8	집선문	선대 아궁이	명황색경질, 윤철흔	
9	어골문	주건물지	회백색경질, 연철흔	
10	복합문	주건물지	명암회색경질, 합철흔	
11	집선문	선대 아궁이	암회색경질, 물손질	집선+화문 이상 암키와
12	무문	선대 아궁이	흑회색경질, 윤철흔, 합철흔, 긴장치기4.4cm, 물손질	표면처리
13	무문	탐색 Tr	암회색경질, 합철흔, 연철흔, 긴장치기3.6cm, 물손질	
14	무문	주건물지	암회색경질, 사철흔, 합철흔, 긴장치기4.6cm, 물손질	표면처리
15	무문	주건물지 밖 동쪽 탐색Tr	흑회색경질, 합철흔, 사철흔, 긴장치기6cm, 물손질	표면처리
16	어골문	주건물지	암회색경질, 합철흔, 긴장치기3.5cm, 물손질	
17	어골문	선대 아궁이	회색경질, 윤철흔, 긴장치기3.6cm, 물손질	
18	집선문	주건물지	회색경질, 합철흔, 윤철흔, 긴장치기6cm, 물손질	
19	수파문	주건물지	회색경질, 합철흔, 연철흔	횡대
20	수파문	주건물지	암회갈색경질, 합철흔	횡대
21	집선문	주건물지	암회색경질, 점토허흔, 긴장치기2cm, 물손질	
22	집선문	추정 아궁이	회색경질, 긴장치기2.9cm, 물손질	
23	수파문	주건물지	회색경질, 합철흔, 점토허흔, 긴장치기3cm, 물손질, 자연유	
24	수파문	주건물지	암회색경질, 긴장치기2.5cm, 물손질, 합철흔, 자연유	
25	수파문	주건물지	암회색경질, 점토허흔, 긴장치기5.1cm, 물손질	
26	집선문	추정 아궁이	황회색경질, 점토허흔, 긴장치기3cm, 물손질	
27	수파문	주건물지	암회색경질, 점토허흔	
28	수파문	주건물지	암회색경질, 합철흔, 연철흔, 긴장치기5.1cm, 물손질	
29	수파문	주건물지	암회색경질, 연철흔, 사철흔, 긴장치기2cm, 물손질	
30	복합문	주건물지	회색경질, 연철흔, 긴장치기3.2cm, 물손질, 자연유	수파+중호
31	복합문	주건물지	회색경질, 긴장치기4.6cm, 물손질	수파+중호
32	수파문	주건물지	회색경질, 연철흔	
33	복합문	주건물지	회색경질, 긴장치기4.7cm, 물손질	수파+화문, 이상 수키와
120	복합문	문지	황회색경질, 합철흔, 윤철흔, 긴장치기2.8cm, 물손질	집선+화문
129	어골문	마당	명회색연질, 연철흔	
130	어골문	마당	암회색연질, 긴장치기3.5cm, 물손질	
131	집선문	마당	황회색연질, 합철흔, 윤철흔	
132	집선문	마당	명회색연질, 긴장치기4.2cm, 물손질	
133	복합문	마당	명회백색연질	집선+방곽, 이상 암키와
136	무문	마당	암회색경질, 사철흔, 점토허흔, 긴장치기3.4cm, 물손질	
137	어골문	마당	명회색경질, 합철흔, 점토허흔, 긴장치기5.7cm, 물손질, 자연유	
138	복합문	마당	암회색경질, 연철흔, 긴장치기3.6cm, 물손질	수파+화문
139	집선문	마당	회색경질, 긴장치기2.8cm, 물손질	이상 수키와
164	어골문	지표	명황회색연질, 윤철흔, 긴장치기2.1cm, 물손질	암키와

구역별로는 주건물지 33점, 문지 1점, 마당 9점, 지표 1점이며, 문양별로는 무문 5점, 어골문 11점, 집선문 9점, 수파문 9점, 복합문 10점으로 집계되었다.

무문은 수키와에서만 나타나며, 3종류로 나뉘는데, 이 중 3점(도면 Ⅷ-12, 14, 15)은 같은 종류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도면 Ⅷ-15>의 무문 수키와는 층위적으로 가장 확실한 유물로 주건물지 동쪽 기단 밖 탐색트렌치 조사에서 확인되었는데, 주건물지의 기단보와 이하의 점토다짐층이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이 기와의 특징은 기와의 길이가 38.2cm로서 다른 무문 기와에 비해 약 7~8cm 크고, 미구의 길이도 2.3cm로서 다른 무문기와에 비해 길고 내만하였으며,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소성과정에서의 과도적 환원소성을 통하여 탄화피막을 입혀 의장효과를 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건물지 북쪽의 아궁이의 이마에 사용된 기와(도면 Ⅷ-12)는 태토, 형태, 크기, 두께, 제작방법, 표면처리 수법으로 보아 같은 종류의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공통성은 주건물지 북쪽에서 노출된 아궁이를 선대 아궁이로 추정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 또한 아궁이에서 분청 3점(도면 Ⅷ-88, 90, 91)이 출토되어 그 시기를 적어도 벽제관이 이 건되기 이전의 시기, 즉 1625년 이전의 조선 전기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어골문은 암키와 8점, 수키와 3점이며, 구역별로는 주건물지 7점, 마당 3점, 지표 1점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3점(도면 Ⅷ-3, 4, 17)은 선대 아궁이에서 출토되었다. 선대 아궁이에서 출토된 어골문 기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양구성에서 타문양과 함께 복합되지 않고 단일한 어골문이 시문되었다. 둘째, 대체로 문양이 가늘고 얇게 시문되었다. 셋째, 어골문의 간선은 유지되지만 지선이 중간의 횡선을 기준으로 2분 혹은 3분되어 지선의 방향이 변화한다. 그렇지만 변화는 불규칙적이지는 않으며, 횡선을 기준으로 지선의 방향이 바뀌면서 대칭으로 변화된다. 넷째, 색조는 비교적 밝은 회색이다. 다섯째, 완형의 기와(도면 Ⅷ-17)를 기준으로 할 때, 길이 35.9cm, 미구길이 3.8cm로서 다른 어골문 기와(도면 Ⅷ-16, 137)에 비해 길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어골문은 고려 초기에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되어 11세기경에 문양으로서의 전성기를 맞으며, 그 이후 13세기경까지 매우 정제된 문양 형태를 유지하는데, 그 특징은 단일한 어골문이 시문되고, 어골문의 조형각, 즉 간선과 지선의 연접각이 대개 45°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14세기초에 이르면 어골문의 형태가 서서히 바뀌어 문양의 쇠퇴를 보이는데, 부분적으로 지선이 곡선화되고, 타문양과의 복합이 발생한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른바 변형어골문으로 불리우는데, 어골문의 후기양식에 해당된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 비추어 벽제관지의 선대 유구에서 출토된 어골문 기와류는 어골문 후기양식에 해당되는 변형어골문 양식으로 판단된다. 다만 조사된 자료의 수량이 적으므로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의 축적과 어골문의 세부적인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집선문은 암키와 4점, 수키와 5점이며, 구역별로는 주건물지 6점, 마당 3점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4점(도면 Ⅷ-8, 11, 22, 26)은 선대 아궁이에서 출토되었다. 선대 아궁이에서 출토된 집선문 기와의 특징은 암키와에서 잘 나타나는데, 태토가 정선되어 있고, 두께도 1.6~2.0cm로서 얇은 편이다. 문양은 규칙적이면서도 가늘고 세밀하며, 외면 하단 2cm 정도를

2차 조정하여 약간 안으로 내만시켰다.

수파문은 수키와 9점이며, 암키와에는 시분되지 않았다. 구역별로는 9점 모두 주건물지에서 출토되었는데, 선대 유구에서는 1점도 출토되지 않았으며, 다른 구역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수파문 기와의 특징은 길이 30~32cm 내외로 선대 유구의 무문이나 어골문 기와에 비해 작으며, 미구 길이도 1.6~2.3cm로 짧은 편이고, 색조도 대체로 암회색 계통으로 어두운 편이다. 문양구성은 기와 중앙의 횡대를 중심으로 상하대칭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복합문은 암키와 6점, 수키와 4점이며, 구역별로는 주건물지 7점, 무지 1점, 마당 2점으로 집계되었는데, 선대 유구에서는 1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복합문의 문양구성은 횡선+종선, 집선+차륜, 횡선+종선+어골, 집선+화문 1·2, 수파+중호 1·2, 수파+화문 1·2, 집선+방곽 등이 있다.

2) 막 새

이번 조사에서는 모두 3점의 막새기와의 출토되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번호	종 류	출 토 지	특 징	비 고
34	박공막새	주 건 물 지	초화문, 명회색경질, 물손질	
134	암 막 새	마 당	초화문, 회색연질, 물손질	
135	암 막 새	마 당	초화문, 회색연질, 물손질	

이번 조사에서는 단 3점의 막새기와의만이 출토되어, 주건물지 등 건물지의 규모에 비해 매우 출토수량이 적은데, 이는 조선시대 객사건축에서 막새기와의 대단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는가하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붕 처마에 올려진 수키와의 끝부분을 마감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회덩어리가 다수 출토되었으며, 일제시대 사진 자료를 보더라도 주건물지에 막새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회로 마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명문와

이번 조사에서는 모두 11점의 명문와가 출토되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번호	명 문 내 용	종 류	출 토 지	특 징	비 고
35	口 肖	수파문 수키와	주 건 물 지	인각	
36	別 公	집선문 수키와	주 건 물 지	타날	
37	別 公	집선문 수키와	주 건 물 지	타날	
38	平 禎	복합문 수키와	주 건 물 지	타날	
121	甲 申	무문 암키와	문 지	선각	간지명
122	승	복합문 암키와	문 지	타날	훈민정음
123	大 〇	집선문 수키와	문 지	타날	
140	五 日	복합문 암키와	마 당	타날	
141	碧 蹄	구갑문 수키와	마 당	타날, 표면처리	유적명
167	甲 申	무문 암키와	지 표	선각	간지명
168	下	복합문 암키와	지 표	타날	

‘鶻蹄’ 명 수키와는 문양구성에서 구갑문이라는 특수한 양식을 채용하였고, 색조도 의도적인 환원소성을 통하여 짙은 흑색을 곱게 입혀 의장효과를 돋보이게 하였으며, 두께도 1cm로 매우 얇고, 형태도 기와 외면이 타날판 크기에 따라 각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하여볼 때, ‘鶻蹄’ 명 수키와는 기능성보다는 의장성이 강하며, 벽제관 이건과 함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鶻蹄’ 명 수키와가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됨으로써, 이곳이 벽제관의 옛터 임이 분명해졌다. ‘甲申’ 명 암키와의 내용은 간지명인데, ‘甲申’을 간지명으로 하는 연대는 1644년, 1704년, 1764년, 1824년, 1884년, 1924년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승’ 명 암키와로서 기와 명문에 훈민정음이 쓰인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된다. 여타의 명문와의 내용은 향후 계속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2. 도기류

이번 조사에서는 다수의 도기편이 출토되었지만, 모두 작은 편이어서 개체복원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도기를 구연부·동체부·저부의 3부분으로 나누어 특징적인 것을 선별하여 모두 19점을 분석하였다.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번호	종 류	출 토 지	특 징	비 고
43	구 연 부	주 건 물 지	내-명회색, 외-암회색경질, 외반구연	대용
44	구 연 부	주 건 물 지	흑회색경질, 외반구연	
45	구 연 부	주 건 물 지	명회색경질, 구연부 안으로 꺾음	
46	구 연 부	주 건 물 지	명회색경질, 구연부 밖으로 말음	
47	구 연 부	주 건 물 지	흑회색경질, 외반구연	호
48	동 체 부	주 건 물 지	암회색경질	
49	저 부	주 건 물 지	흑회색경질	평저
50	저 부	주 건 물 지	회청색경질, 도구흔, 점토탍흔, 직립	평저
51	저 부	주 건 물 지	내-명회색, 외-암회색경질, 도구흔	평저
52	저 부	주 건 물 지	회청색경질	원저
124	구 연 부	문 지	연회색경질, 구연부 밖으로 말음	
142	구 연 부	마 당	흑회색경질, 외반구연	
143	구 연 부	마 당	명회색경질, 외반구연	
144	구 연 부	마 당	내-명회색, 외-명청회색경질, 외반구연, 점토탍흔	
145	구 연 부	마 당	내-연회색, 외-회흑색, 내만구연	
146	저 부	마 당	암흑회색경질	평저
147	저 부	마 당	명회색경질	평저
176	구 연 부	지 표	흑회색경질, 외반구연, 내박흔	호
177	구 연 부	지 표	명회색경질, 외반구연, 점토탍강	

출토된 도기류 중 기형 추정이 가능한 것은 대용 1점<도면 Ⅶ-43>과 호 2점<도면 Ⅶ-47, 176>인데, 나머지도 복원은 어렵지만 대부분 일상생활용기로서 호, 항아리, 동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된 도기류의 부분별 개체수는 구연부 12점, 동체부 1점, 저부 6점이다. 구연부는 밖으로 외반한 것이 10점이고, 안으로 내만한 것이 2점이며, 직립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연부가 밖으로 외반된 것도 밖으로 뺀 것 8점과 밖으로 돌려서 맡은 것 2점으로 나뉘며, 안으로 내만한 것은 안으로 꺾은 것 1점과 안으로 맡아서 붙인 것 1점으로 나뉜다. 저부는 평저 5점과 원저 1점이 있다.

벽제관지 출토 도기류에서 발견되는 공통성은 색조가 명암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회색 계열이며, 고화도로 소성되어 경질이라는 점이다. 또한 공통적으로 성형시 마무리 단계에서 회전불손질로 정면하였다.

5-3. 자기류

1) 분청사기

이번 조사에서 분청사기류는 모두 15점이 분석되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번호	종 류	기 종	출 토 지	태 토 / 유 약	비 고
87	상 감	대 접	주 건 물 지	백 색 / 녹 청 색	연화문, 선문
88	상 감	대 접	선대 아궁이	백 색 / 녹 청 색	선문, 파상문
89	상감인화	잔	주 건 물 지	회백색 / 회 백 색	선문, 화문
90	분 청	대 접	선대 아궁이	회백색 / 녹 청 색	
91	상감인화	잔	선대 아궁이	회 색 / 황 록 색	원문, 동심원문, 선문
92	상감인화	잔	주 건 물 지	회백색 / 백 녹 색	선문, 화문
93	상 감	잔	주 건 물 지	회 색 / 연 황 녹 색	명문, 흑상감
94	상 감	접 시	주 건 물 지	갈 색 / 녹 청 색	나선문
95	상 감	접 시	주 건 물 지	회 색 / 녹 청 색	원문, 국화문, 파상문
96	상 감	잔	주 건 물 지	회백색 / 녹 청 색	선문, 점열문
97	분 청	호	주 건 물 지	암 회 색 / 녹 청 색	침선문
98	상감인화	잔	주 건 물 지	회백색 / 녹 청 색	선문, 화문, 원문
99	상감인화	접 시	주 건 물 지	회백색 / 청 백 색	선문, 화문
182	귀 알	접 시	지 표	회백색 / 청 백 색	
183	상 감	화형접시	지 표	회백색 / 청 백 색	원문, 여의두문

분청사기는 지표 2점을 제외하면 모두 주거물지에서 출토되었고, 그 중 3점(도면 Ⅷ-88, 90, 91)은 선대 아궁이에서 출토되어 유구 및 기와류의 시기 추정에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

백토를 분장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면, 상감기법이 12점으로 가장 많고, 그 중 5점은 상감과 인화기법이 함께 사용되었다. 그 밖에 귀알수법이 1점이며, 태토를 음각한 뒤 백토를 상감하지 않고 유약을 바른 것도 2점이 있다. 기종별로는 대접 3점, 접시 4점, 화형접시 1점, 잔 6점, 호 1점이다. 태토는 15세기 초기의 짙은 회흑색(도면 Ⅷ-97, 98)에서부터 15세기 전반기의 정선된 밝은 백색 계통(도면 Ⅷ-88)까지 나타난다. 유색은 고려 말기에 흔히 보이는 어두운 암록색(도면 Ⅷ-87, 96)에서 15세기 전반기의 맑고 투명한 녹청색(도면 Ⅷ-88)까지 다양하다. 문양은 선문, 화문, 파상문, 원문, 동심원문, 나선문, 점열문, 침선문, 여의두문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화문은 연화문, 국화문을 상감한 것과 화문을 인화한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연화문의 경우 청자의 연당초무늬가 퇴화한 양식으로 15세기 초의

Ⅶ. 유물

특색을 보인다. 벽제관지 출토 분청사기의 문양상의 특징은 귀얄 1점을 예외로 하면 모두 상감 혹은 인화기법으로 제작되었고, 그 중에서도 상감기법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인화문의 경우도 화문, 동심원문을 그릇 내저부나 기벽에 등성등성 찍던 무늬만 나타날 뿐 집단 연권문처럼 그릇 전체를 가득히 채워 무늬 구도상 빈틈없는 짜임새를 보이는 기법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15세기 초기의 특색을 보인다.

이상 벽제관지 출토 분청사기의 태토·유색·문양 등에 나타나는 특색들을 검토한 결과, 시기는 대략 15세기 초기에서 15세기 전·중반에 걸친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 시기는 강경숙의 편년에 의하면 분청사기 초기발생기의 제2기 발생기(1390년~1420년)와 중기발전기의 제1기 발전기(1420년~1480년)에 걸쳐 있는 시기에 해당한다.

2) 백자

이번 조사에서는 모두 52점의 백자가 분석되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번호	종 류	기 종	출 토 지	태 토 / 유 색 / 굵	비 고
53	백 자	대접	주 건 물 지	회백색 / 청백색 / 죽 절 굵	모래받침
54	백 자	잔	주 건 물 지	회백색 / 회백색 / 죽 절 굵	원각, 비짐, 모래받침
55	백 자	잔	주 건 물 지	백 색 / 청백색 / 안 굵	
56	백 자	발	주 건 물 지	회백색 / 청백색 / 도립삼각굽	모래받침
57	백 자	잔	주 건 물 지	백 색 / 백 색 / 죽 절 굵	원각, 비짐
58	백 자	잔	주 건 물 지	회백색 / 청백색	모래받침
59	백 자	대접	주 건 물 지	백 색 / 청백색 / 도립삼각굽	원각, 받침
60	백 자	대접	주 건 물 지	회백색 / 청백색 / 도립삼각굽	원각, 비짐, 모래받침
61	백 자	잔	주 건 물 지	회백색 / 녹청색 / 오 목 굵	모래받침
62	백 자	발	주 건 물 지	회백색 / 녹청색 / 도립삼각굽	원각, 받침
63	백 자	발	주 건 물 지	백 색 / 녹청색 / 죽 절 굵	원각, 받침
64	백 자	잔	주 건 물 지	회백색 / 녹청색 / 평 저	모래받침
65	백 자	잔	주 건 물 지	회백색 / 녹청색 / 평 저	모래받침
66	백 자	접시	주 건 물 지	백 색 / 청백색 / 도립삼각굽	모래받침
67	백 자	접시	주 건 물 지	회백색 / 녹청색	모래받침
68	백 자	호	주 건 물 지	백 색 / 청백색 / 오 목 굵	
69	백 자	접시	주 건 물 지	회백색 / 청백색 / 오 목 굵	모래받침
70	백 자	접시	주 건 물 지	백 색 / 청백색	모래받침
71	백 자	호	주 건 물 지	회백색 / 녹청색 / 도립삼각굽	
72	백 자	접시	주 건 물 지	백 색 / 청백색 / 오 목 굵	모래받침
73	백 자	잔	주 건 물 지	회백색 / 녹청색	모래받침
74	백 자	호	주 건 물 지	백 색 / 청백색 / 안 굵	
75	백 자	접시	주 건 물 지	백 색 / 청백색	모래받침
76	백 자	전접시	주 건 물 지	암회색 / 암갈색 / 죽 절 굵	
77	흑 유	호	주 건 물 지	백 색 / 청백색 / 안 굵	
78	청 화	접시	주 건 물 지	백 색 / 청백색 / 안 굵	모래받침
79	청 화	발	주 건 물 지	백 색 / 회청색	어문
80	청 화	병	주 건 물 지	백 색 / 청백색 / 안 굵	극화문
81	청 화	대접	주 건 물 지	백 색 / 청백색 / 안 굵	모래받침, 선문, 운문

번호	종 류	기 종	출 토 지	태 토 / 유 약 / 급	비 고
82	청 화	발	주 건 물 지	백 색 / 청백색 / 안 급	비짐, 선문, 운문
83	청 화	잔	주 건 물 지	백 색 / 청백색 / 안 급	선문, 초화문
84	청 화	접시	주 건 물 지	백 색 / 청백색 / 안 급	'壽'명, 음각
85	청 화	발	주 건 물 지	백 색 / 청백색 / 안 급	모래받침, '壽'명, 음각나선
86	철 화	접시	주 건 물 지	백 색 / 회백색 / 오 목 급	모래받침
125	백 자	대접	문 지	백 색 / 청백색 / 안 급	
126	백 자	잔	문 지	백 색 / 청백색 / 평 저	모래받침
127	백 자	대접	문 지	회백색 / 녹청색 / 도립삼각급	원각, 모래받침
148	백 자	대접	마 당	백 색 / 청백색 / 안 급	원각, 비짐, 모래받침
149	백 자	발	마 당	회백색 / 회백색 / 죽 절 급	원각, 모래받침
150	백 자	잔	마 당	백 색 / 청백색 / 안 급	모래받침
151	백 자	잔	마 당	회백색 / 회청색 / 도립삼각급	
152	백 자	접시	마 당	회백색 / 녹청색 / 오 목 급	원각, 모래받침
153	백 자	대접	마 당	백 색 / 청백색 / 안 급	
154	백 자	잔	마 당	백 색 / 청백색 / 안 급	
155	백 자	잔	마 당	회백색 / 청백색 / 평 저	모래받침
157	백 자	대접	마 당	백 색 / 회백색 / 안 급	모래받침, '壽'명
158	백 자	호	마 당	회백색 / 청백색	
178	백 자	접시	지 표	회백색 / 회백색 / 죽 절 급	원각, 태토비짐
179	백 자	접시	지 표	회백색 / 청백색 / 도립삼각급	원각, 태토비짐
180	백 자	대접	자 표	백 색 / 황갈색 / 오 목 급	원각, 태토비짐
181	백 자	제기	지 표	회백색 / 청백색 /	모래받침
184	청 화	접시	지 표	백 색 / 청백색 / 안 급	모래받침, '壽'명

백자류는 구역별로는 주건물지 34점, 문지 3점, 마당 10점, 지표 5점이고, 종류별로는 순백자 43점, 청화백자 8점, 철화백자 1점이며, 기종별로는 대접 10점, 발 7점, 접시 13점, 전접시 1점, 잔 14점, 호 5점, 병 1점, 제기 1점으로 집계되었다.

급의 형식에 따라 죽절급 7점, 도립삼각급 9점, 오목급 8점, 안급 16점, 평저 4점으로 분류되는데, 백자의 종류와 관련하여 급의 형식을 살펴보면, 청화백자는 모두 안급이며 다른 급의 형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백자의 유색은 청백색, 회백색, 백색, 녹청색으로 구분되며, 회청색, 황갈색도 나타난다. 급의 형식과 관련하여 유색의 변화를 살펴보면, 죽절급의 백자는 청백색 1점, 회백색 3점, 백색 1점, 녹청색 1점으로 회백색이 많은 편이다. 도립삼각급의 백자는 청백색 5점, 녹청색 3점, 회청색 1점이며, 오목급의 백자는 녹청색 2점, 청백색 4점, 회백색 1점, 황갈색 1점으로 색조의 변화가 보인다. 안급의 백자는 16점 중 회백색 1점을 제외하면 모두 청백이다. 이른 시기의 죽절급 백자의 색조가 대부분 회백색 계통의 어두운 색조임에 비해 늦은 시기의 안급 백자는 모두 청백색 계통의 밝은 색조를 보이므로, 백자의 색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밝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청화백자의 문양은 어문, 국화문, 선문, 운문, 초문, 초화문 등이 나타나며, 명문이 있는 것도 4점 출토되었는데 명문 내용은 획일적으로 '壽'자만 나타난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문발(도면 Ⅶ-79)인데, 순백의 태토에 맑은 청백색의 유약을 시유하였다. 안급의 점

지면은 가는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 있으나, 이물질이 부착되거나 포개 구운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갑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19세기에는 분원리 가마에서 제작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이러한 맑고 청초한 청백색 백자의 백자가 특징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수많은 상형 연적 및 필통·제기접시·합 등 생활용기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또한 문양에 있어서도 십장생 등의 서정적인 세계를 회화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연화·잉어·모란문 등이 간결하고 활달하게 그려지고 있다.

이상 19세기 백자의 특징과 관련하여 벽제관지에서 출토된 어문발은 당시 분원리에서 제작되었던 백자와 많은 점에서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당시에는 갑발에 넣어 정교하게 번조된 갑기가 유행하였는데, 벽제관은 객사의 일반적인 기능 외에도 중국 사신의 접대소라는 특별한 기능을 부여받음으로 인해 외교적 품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갑기의 지속적인 수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이번 조사에서 출토된 어문발은 적어도 19세기까지는 벽제관이 계속 유지되면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였음을 반증하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5-4. 기 타

벽제관지에서는 철정이 다수 출토되었으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형태복원이 가능한 유물 18점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철정 머리의 형식에 따라 굽은머리 8점, 민머리 4점이며, 나머지는 두부가 결실되어 구분이 어렵다. 단면 형태는 방형 7점, 장방형 12점으로 장방형이 약간 많으며, 길이는 10cm 이하의 소형 5점, 10~20cm의 중형 9점, 20cm 이상의 대형 4점이다.

동전은 모두 5점 출토되었는데, 상평통보 3점과 대한광무십년명1전 1점, 대일본대정이년명1전 1점이다. 대한광무십년은 1906년(고종 43)이며, 대일본대정이년은 1913년이다.

‘躡’명 석물은 문지 계단 조사 중 발견되었는데, ‘躡’자를 큼직하게 음각하였다. ‘躡’는 벽제관에 사용되는 한자인데, 발굴조사 후 수집된 자료 중 벽제관전적기념비에 같은 서체로 ‘躡’자가 음각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벽제관전적비에 있던 것이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VI-1〉



〈사진 VI-2〉



〈사진 VI-3〉



〈사진 VI-4〉



〈사진 V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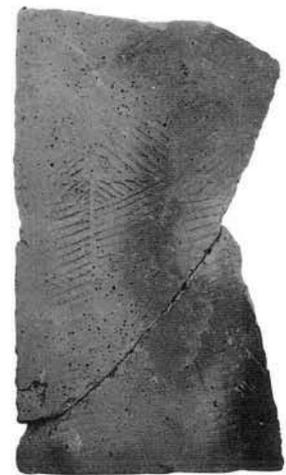
〈사진 VI-6〉



〈사진 V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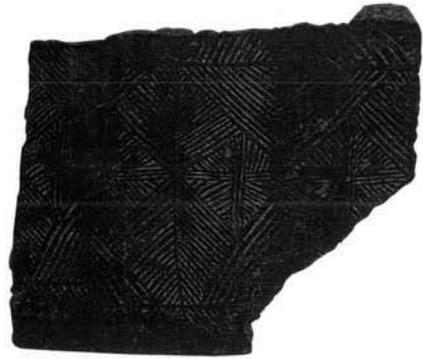
〈사진 VI-8〉



〈사진 VI-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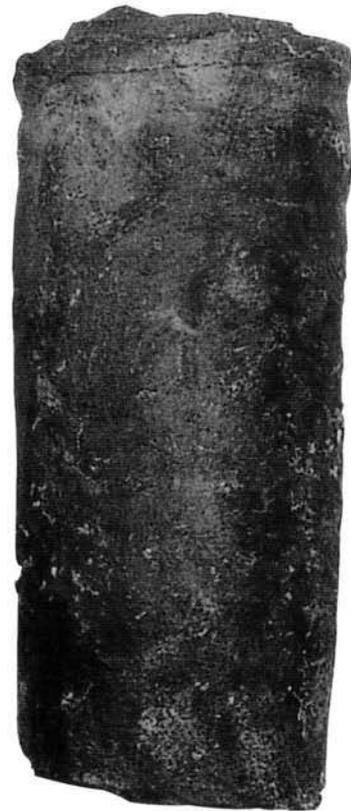
〈사진 Ⅶ-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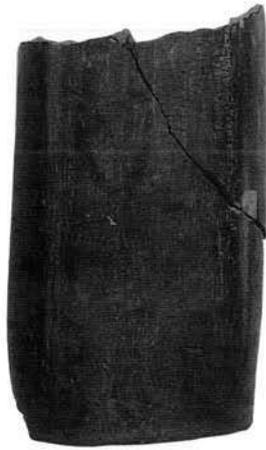
〈사진 Ⅶ-11〉



〈사진 Ⅶ-12〉



〈사진 Ⅶ-13〉



〈사진 VII-14〉



〈사진 VII-15〉



〈사진 VII-16〉



〈사진 VII-17〉



〈사진 Ⅶ-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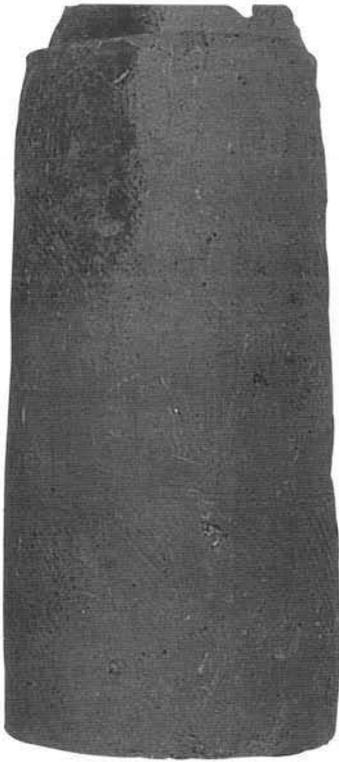
〈사진 Ⅶ-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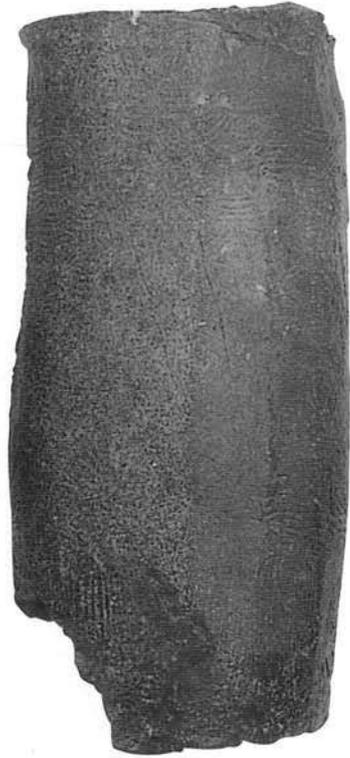
〈사진 Ⅶ-20〉



〈사진 Ⅶ-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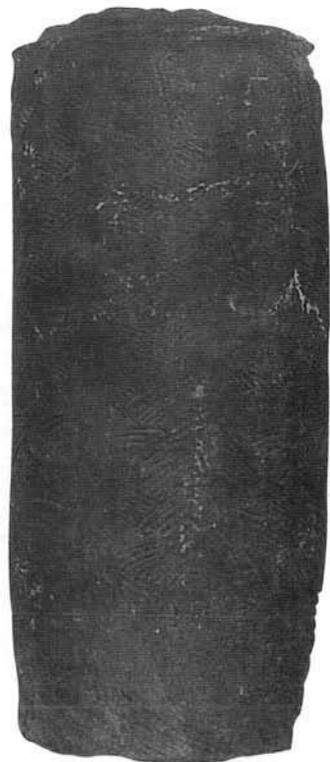
〈사진 VII-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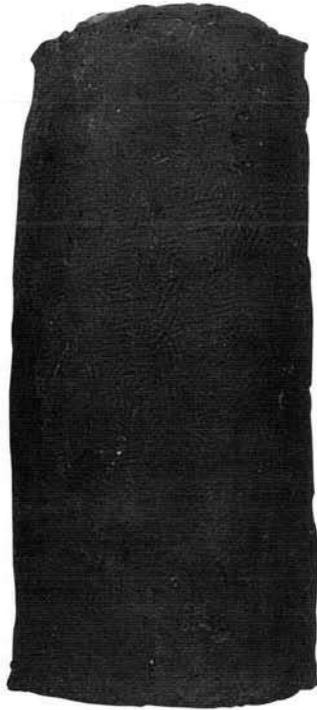
〈사진 VII-23〉



〈사진 VII-24〉



〈사진 VII-25〉



〈사진 Ⅶ-26〉



〈사진 Ⅶ-27〉



〈사진 Ⅶ-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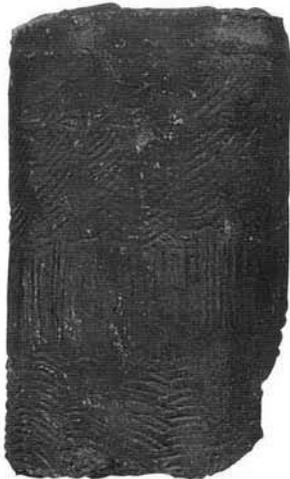
〈사진 Ⅶ-29〉



〈사진 VII-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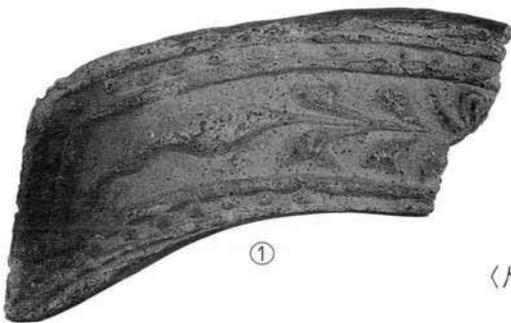
〈사진 VII-31〉



〈사진 VII-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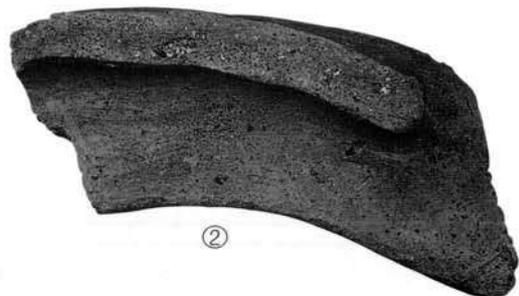


〈사진 VII-33〉



①

〈사진 VII-34〉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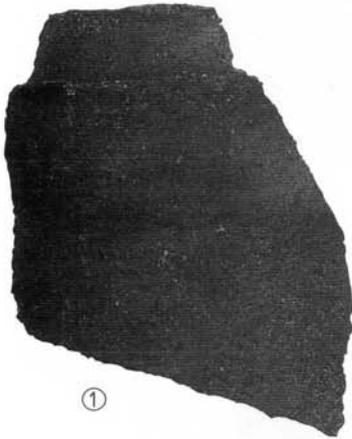
〈사진 VII-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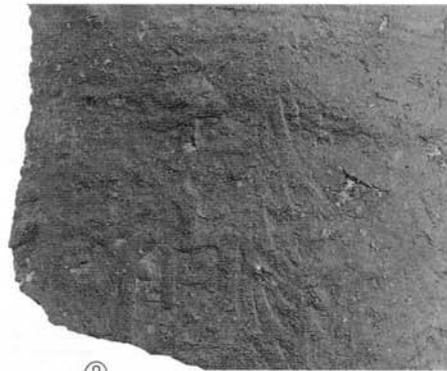
〈사진 VII-36〉



〈사진 VII-37〉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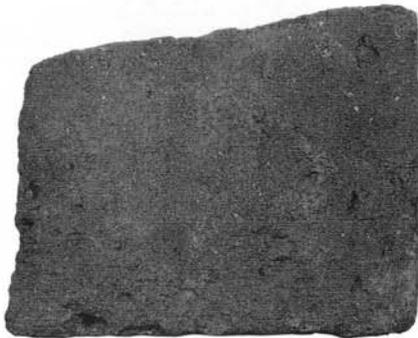


②

〈사진 VII-38〉



〈사진 VII-39〉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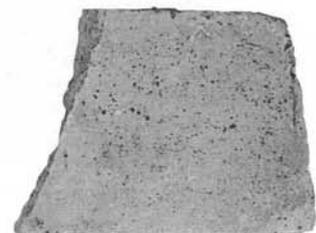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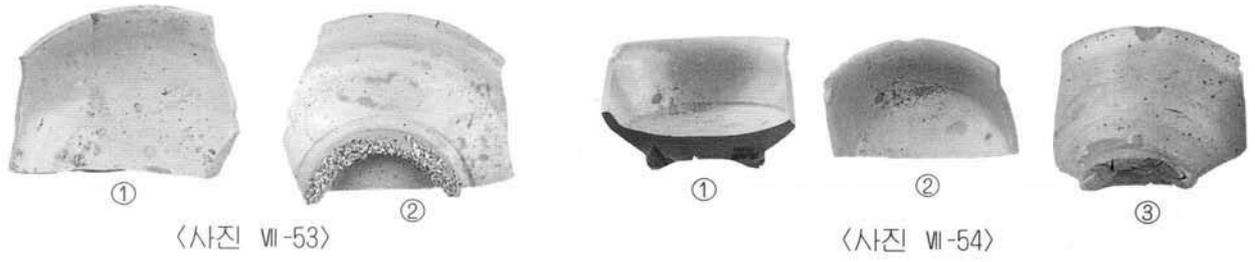
〈사진 VII-40〉



〈사진 VII-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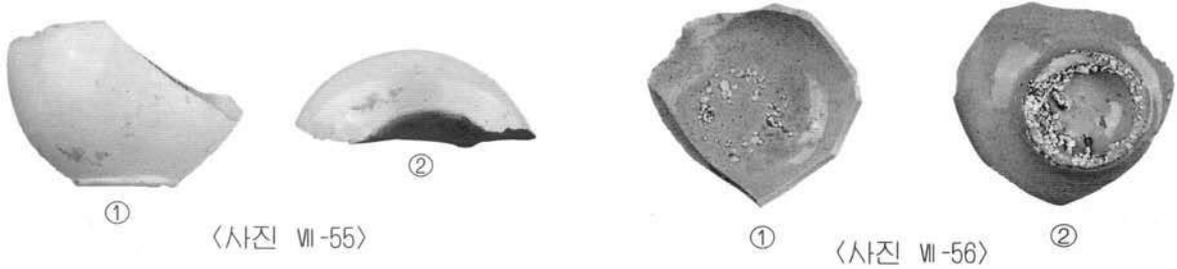


〈사진 VII-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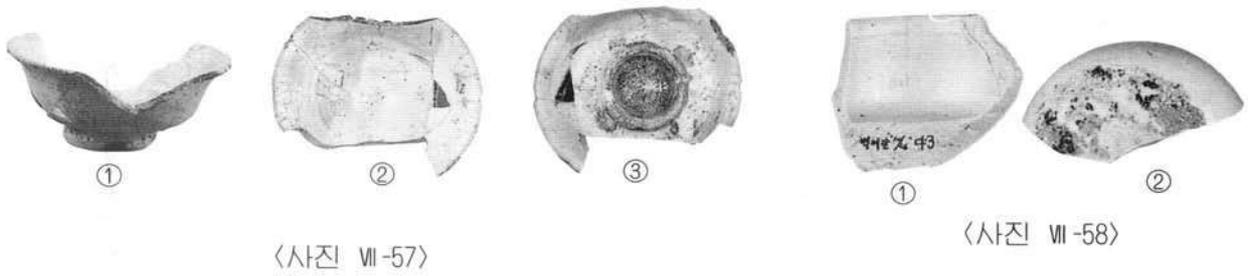
〈사진 VII-53〉

〈사진 VII-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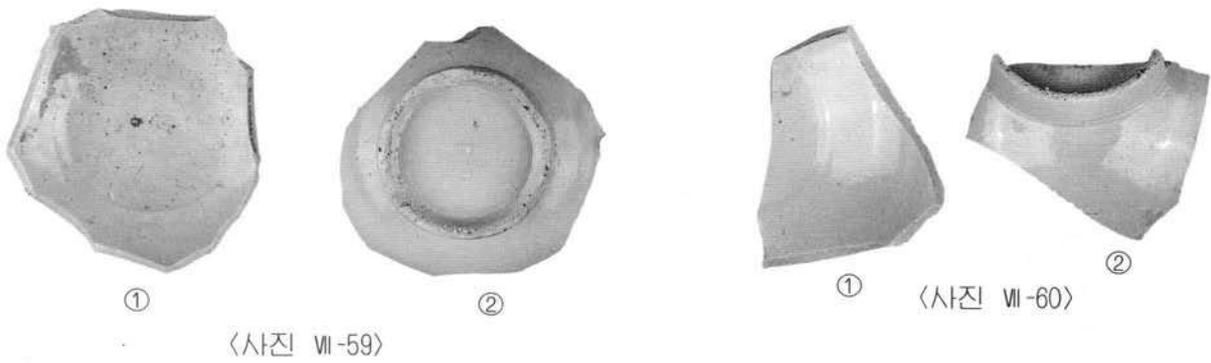
〈사진 VII-55〉

〈사진 VII-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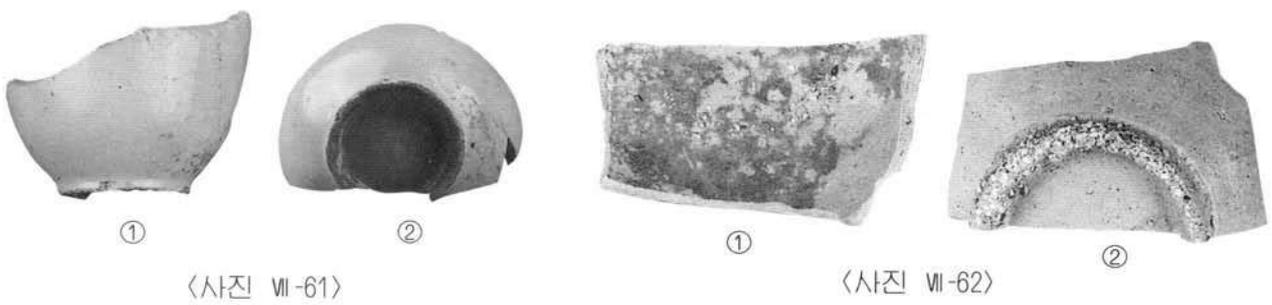
〈사진 VII-57〉

〈사진 VII-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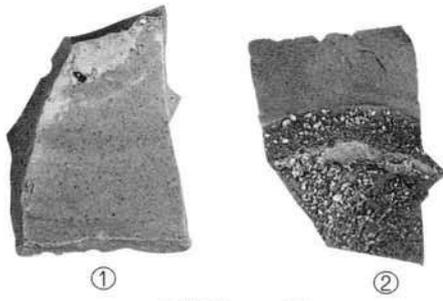
〈사진 VII-59〉

〈사진 VII-60〉



〈사진 VII-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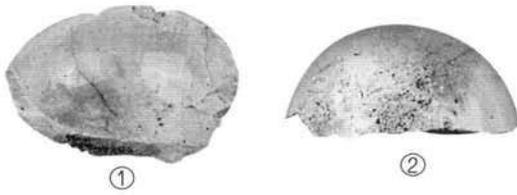
〈사진 VII-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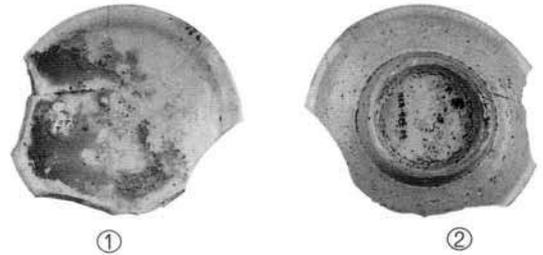
①
②
〈사진 VII-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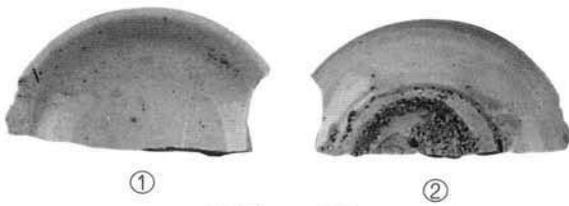
①
②
〈사진 VII-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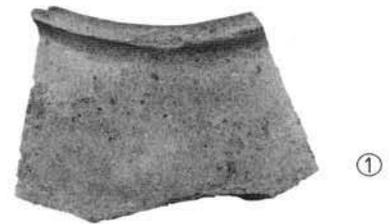
①
②
〈사진 VII-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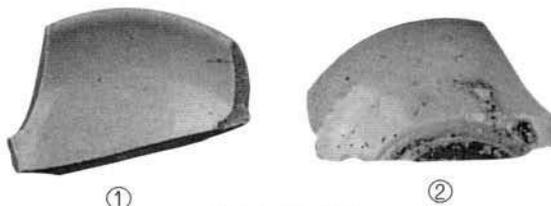
①
②
〈사진 VII-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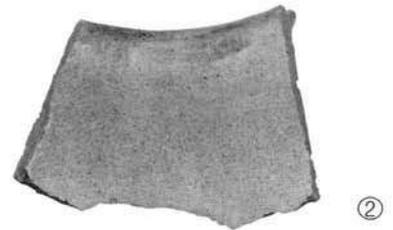
①
②
〈사진 VII-67〉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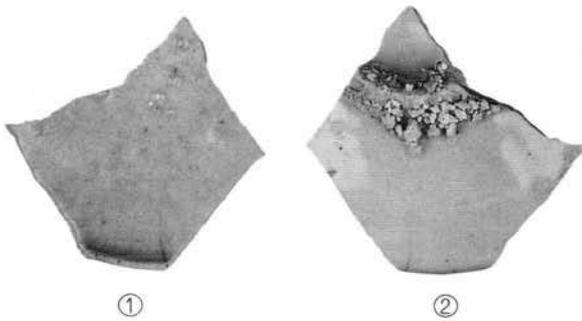


①
②
〈사진 VII-69〉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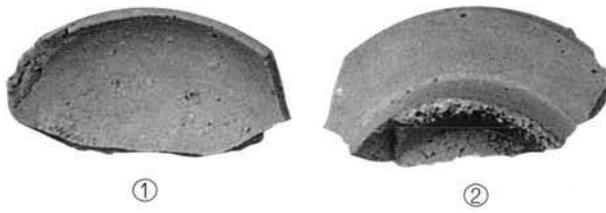
〈사진 VII-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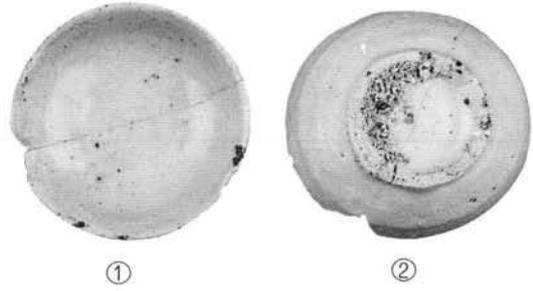
①
②
〈사진 VII-70〉



①
〈사진 VII-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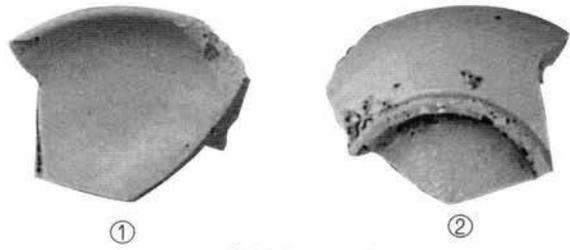
〈사진 VI-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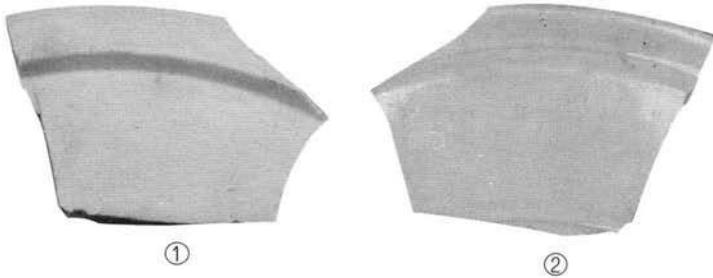
〈사진 VI-73〉



〈사진 VI-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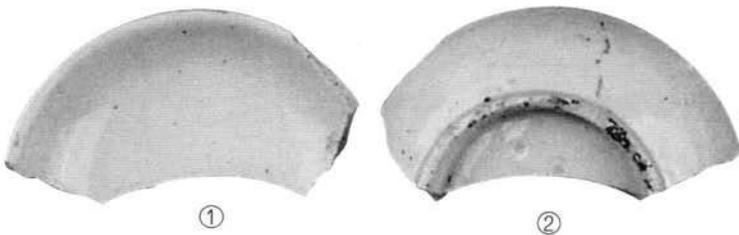
〈사진 VI-75〉



〈사진 VI-76〉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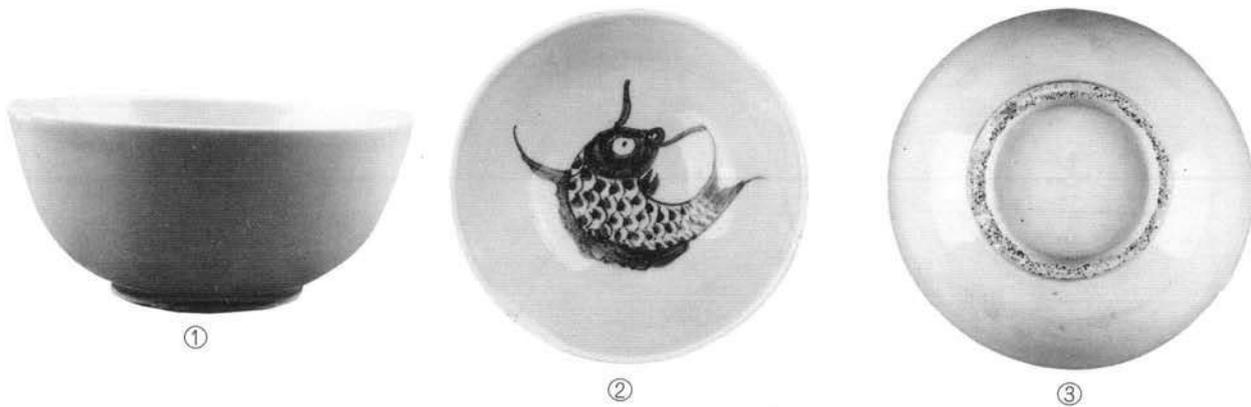


〈사진 VI-78〉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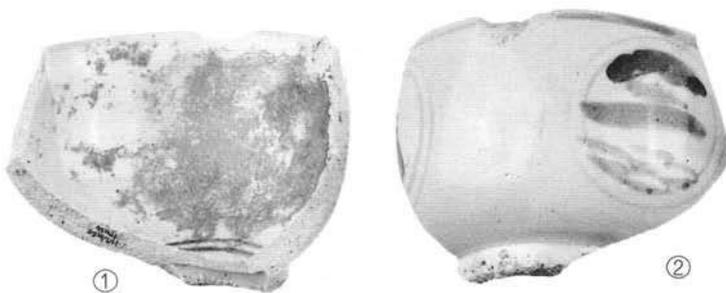
〈사진 VI-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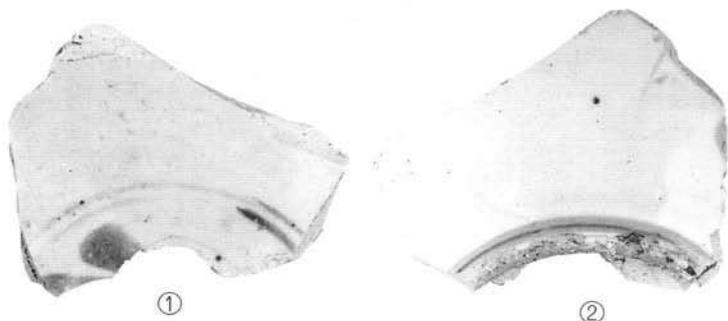
〈사진 Ⅶ-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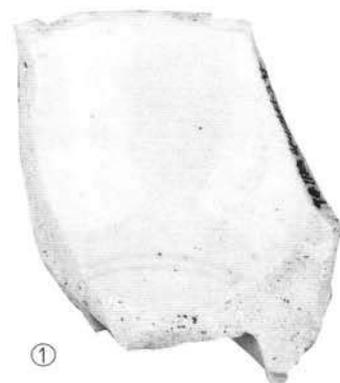
〈사진 Ⅶ-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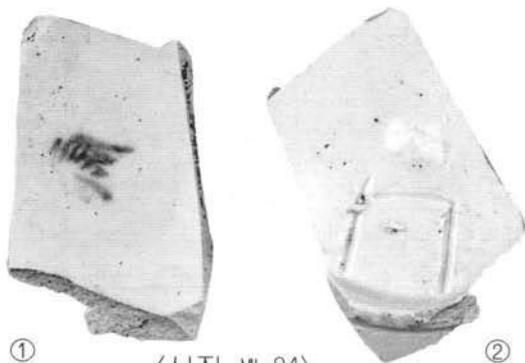
〈사진 Ⅶ-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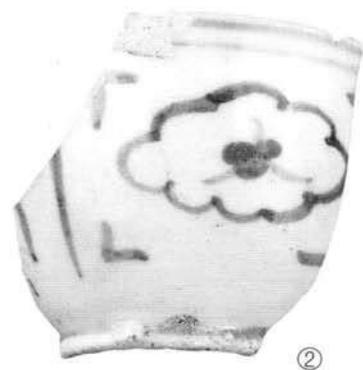
〈사진 Ⅶ-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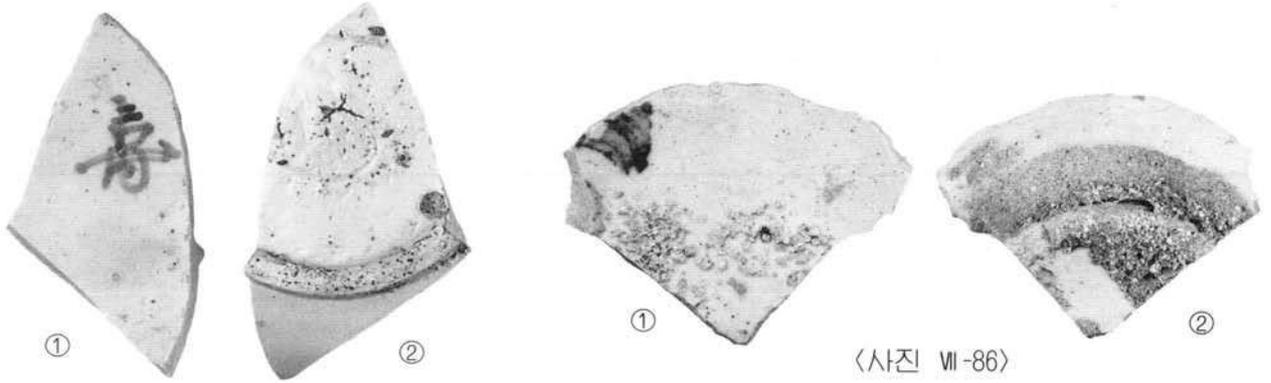
①



〈사진 Ⅶ-84〉



〈사진 Ⅶ-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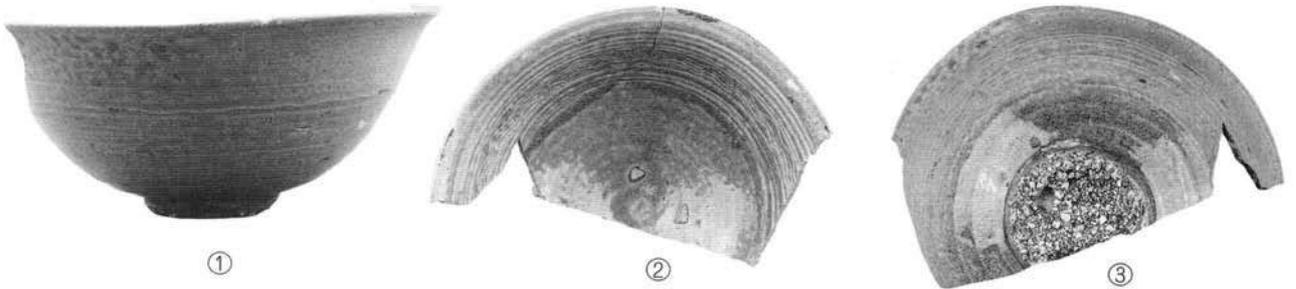


〈사진 VI-85〉

〈사진 VI-86〉



〈사진 VI-87〉



〈사진 VI-88〉



〈사진 VI-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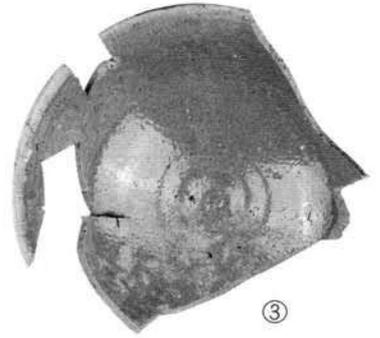


①



②

〈사진 Ⅶ-90〉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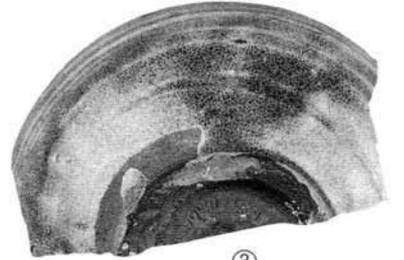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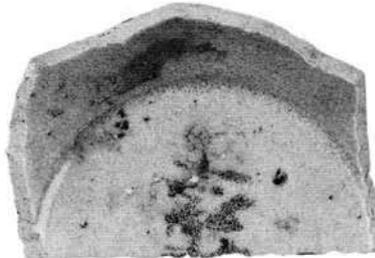
〈사진 Ⅶ-91〉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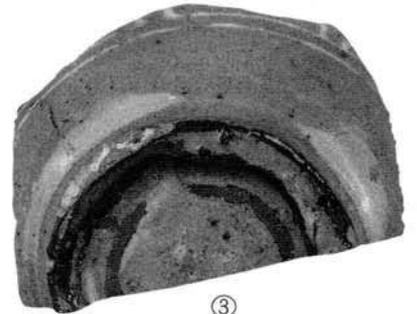


①



②

〈사진 Ⅶ-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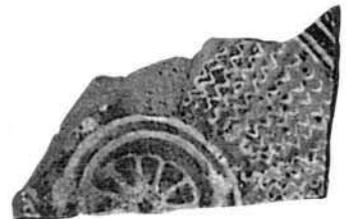
③



〈사진 Ⅶ-92〉



〈사진 Ⅶ-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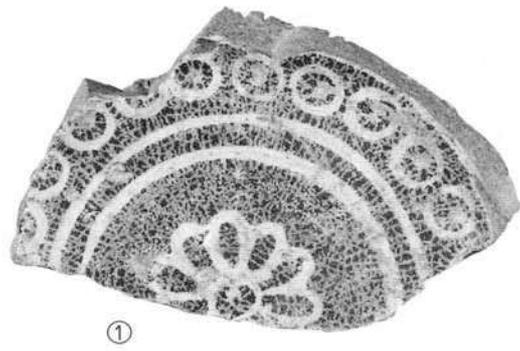
〈사진 Ⅶ-95〉



〈사진 VII-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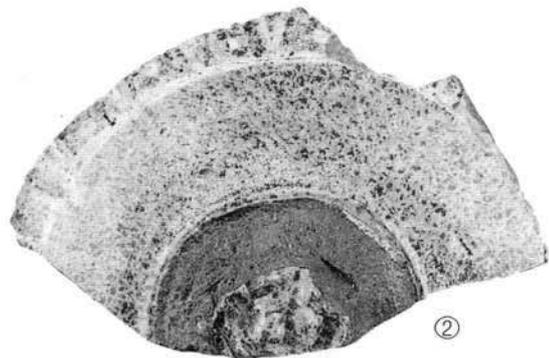
〈사진 VII-97〉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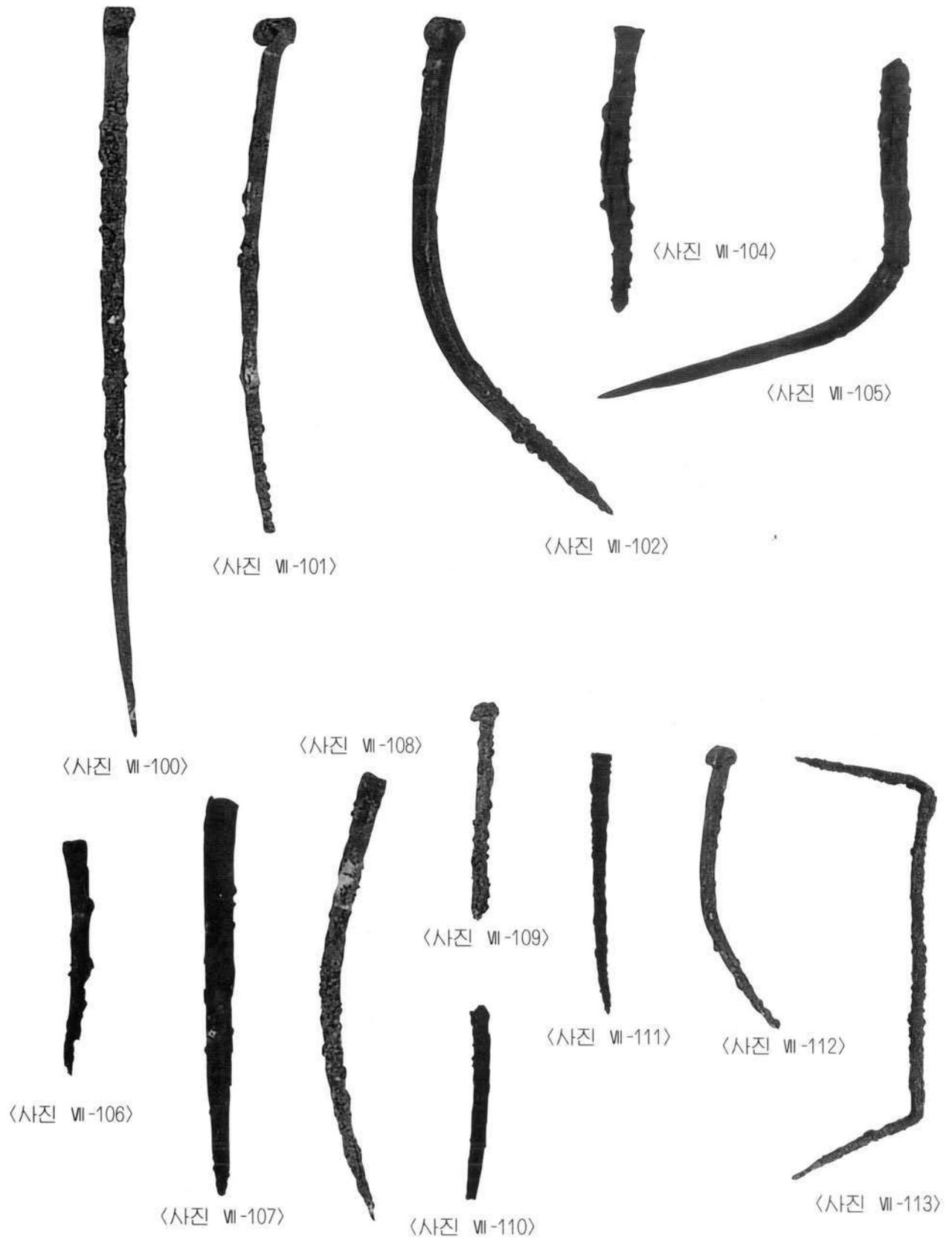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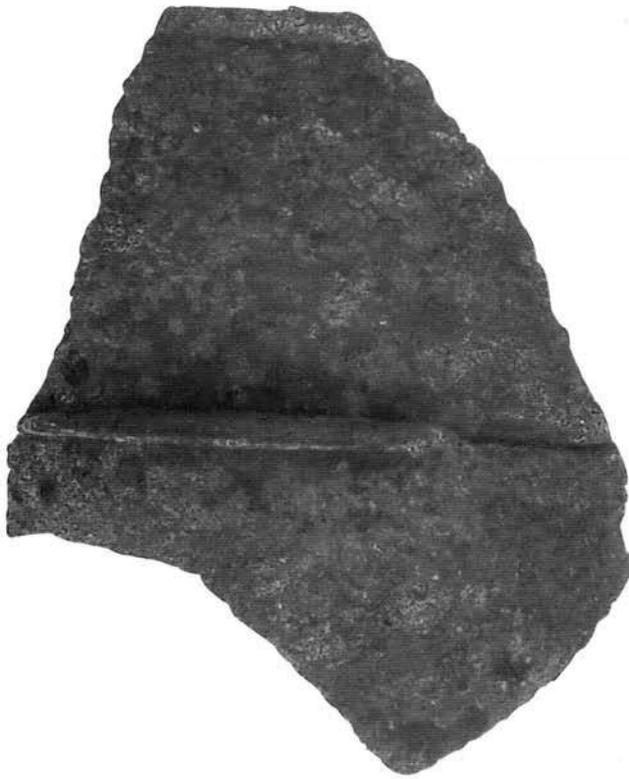
〈사진 VII-99〉



②

〈사진 VII-98〉





〈사진 VII-114〉



〈사진 VII-115〉



〈사진 VII-116〉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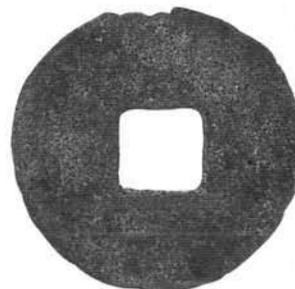


②

〈사진 VII-117〉



〈사진 VII-118〉



〈사진 VII-119〉



〈사진 Ⅶ-120〉



〈사진 Ⅶ-121〉



〈사진 Ⅶ-122〉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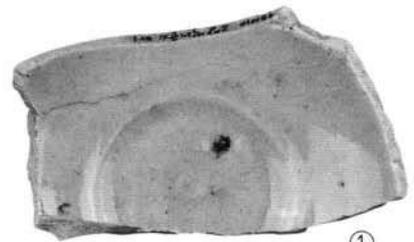
〈사진 Ⅶ-123〉



〈사진 Ⅶ-125〉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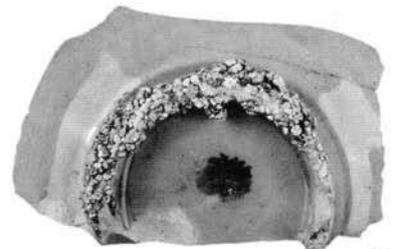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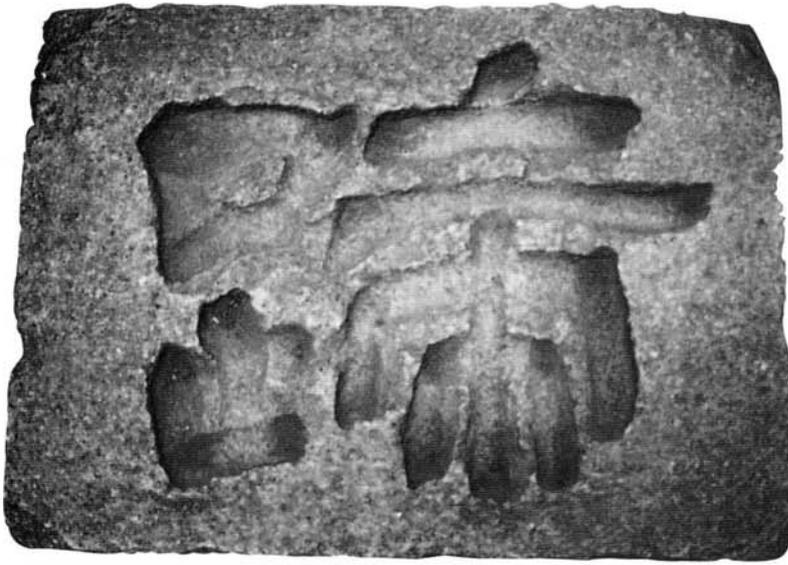
②

〈사진 Ⅶ-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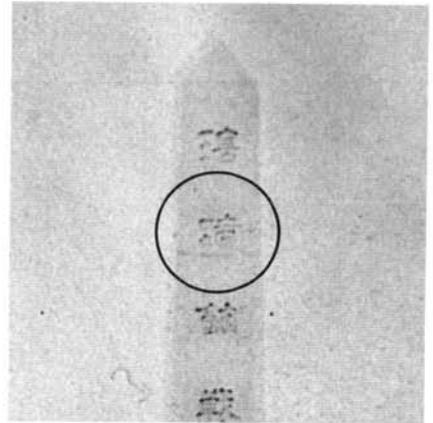
②

〈사진 Ⅶ-127〉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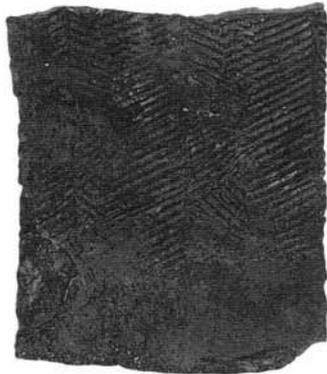
〈사진 VII-128〉



②



〈사진 VII-129〉



〈사진 VII-130〉



〈사진 VII-131〉



〈사진 VII-132〉



〈사진 VII-133〉



〈사진 VII-134〉



〈사진 VII-135〉



〈사진 Ⅶ-136〉



〈사진 Ⅶ-138〉



〈사진 Ⅶ-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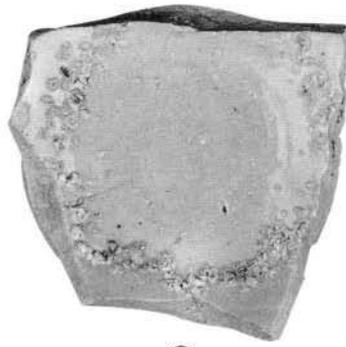
〈사진 Ⅶ-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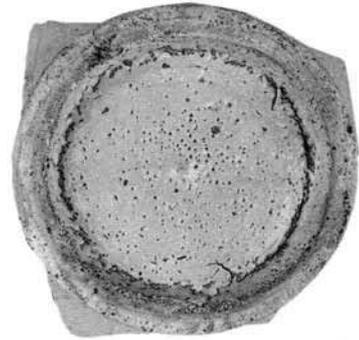
〈사진 Ⅶ-141〉



〈사진 VI-148〉



①



②

〈사진 VI-149〉



〈사진 VI-150〉



①



②



③

〈사진 VI-151〉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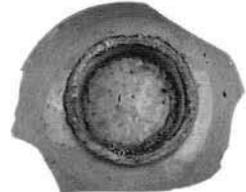


②

〈사진 VI-152〉



①



②

〈사진 VI-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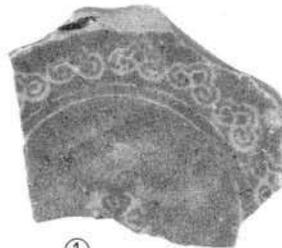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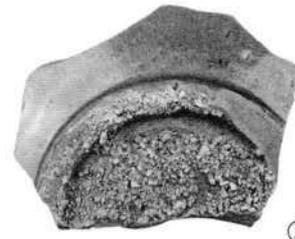


②

〈사진 VI-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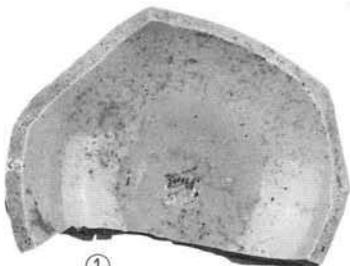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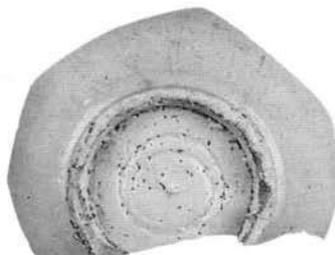


②

〈사진 VI-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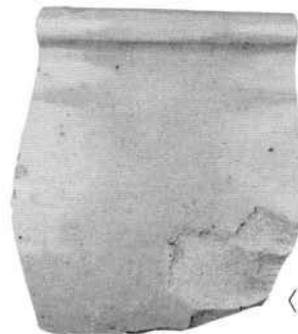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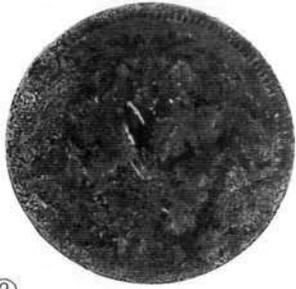


②

〈사진 VI-157〉



〈사진 VI-158〉



〈사진 Ⅶ-159〉



〈사진 Ⅶ-161〉



〈사진 Ⅶ-160〉

〈사진 Ⅶ-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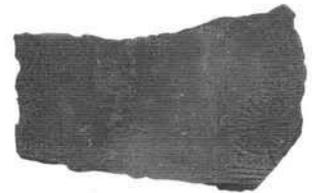
〈사진 Ⅶ-163〉



〈사진 Ⅶ-164〉



〈사진 Ⅶ-165〉



〈사진 Ⅶ-166〉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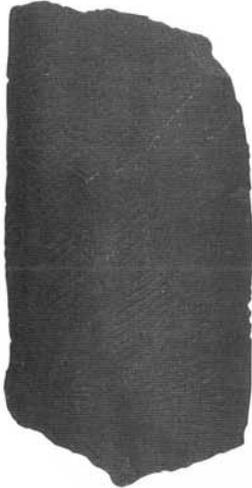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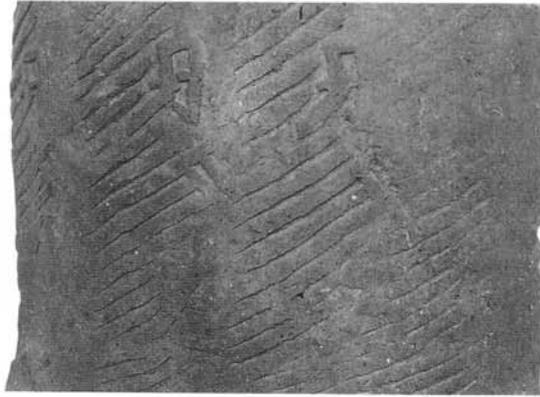
〈사진 Ⅶ-167〉



〈사진 Ⅶ-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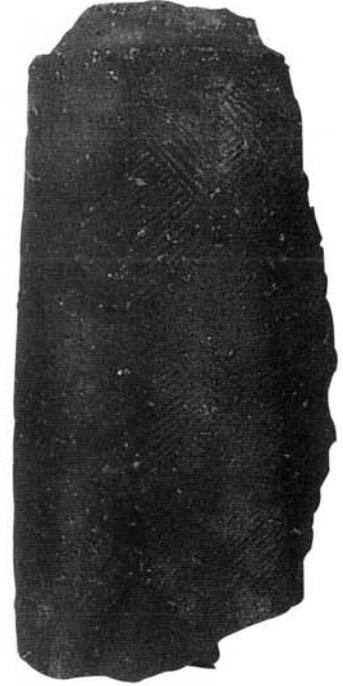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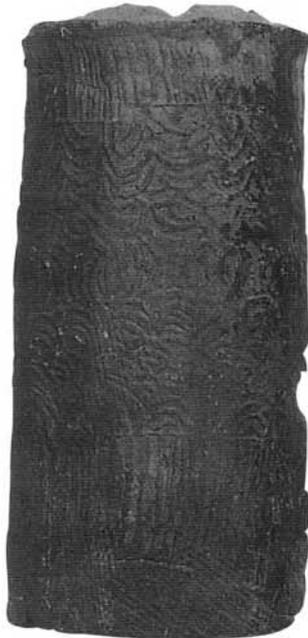
〈사진 VI-169〉



〈사진 VI-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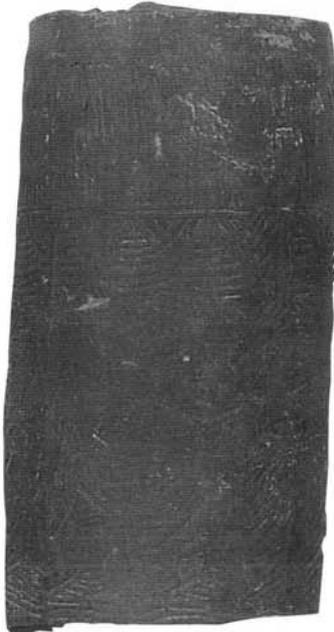
〈사진 VI-171〉



〈사진 VI-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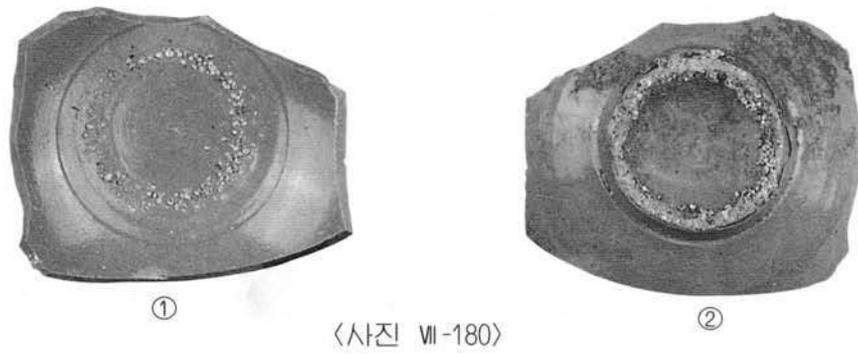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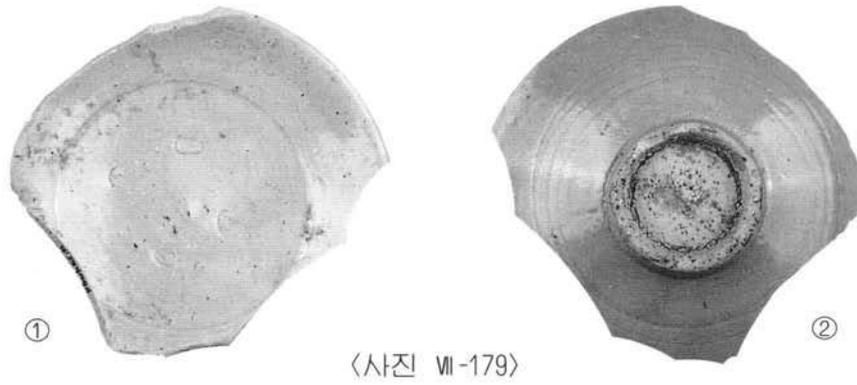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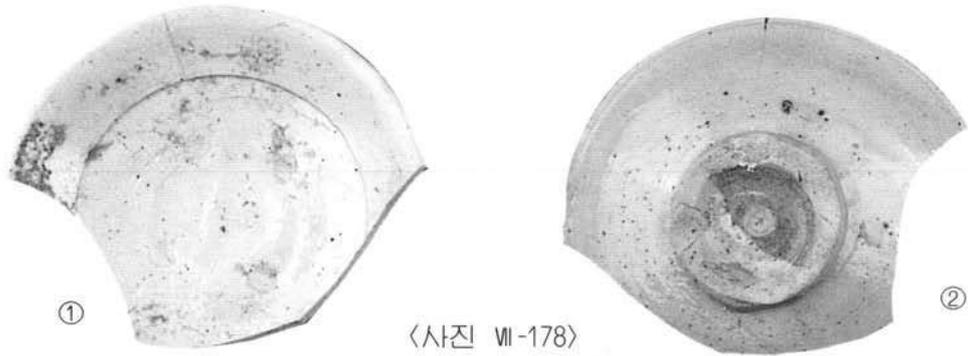
〈사진 VI-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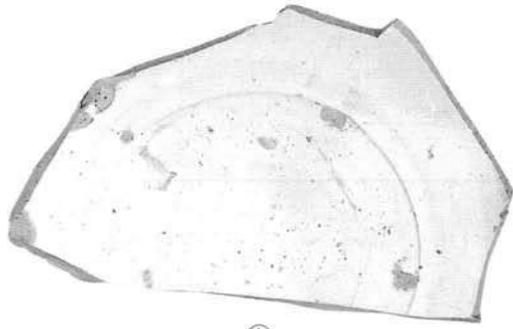


〈사진 VI-172〉



〈사진 VI-175〉





①



②

〈사진 VI-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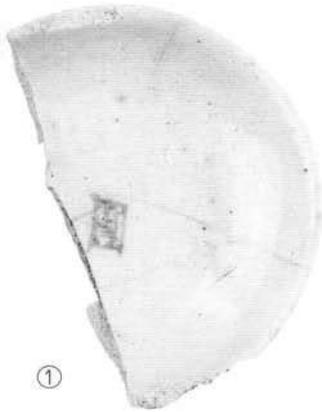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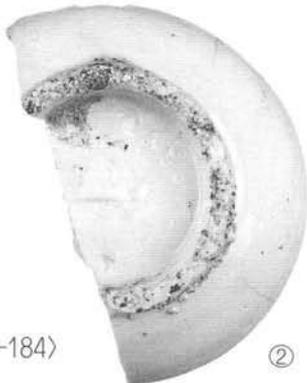


②

〈사진 VI-183〉



①



②

〈사진 VI-184〉



〈사진 VI-185〉

〈사진 VI-186〉



①



②

〈사진 VI-187〉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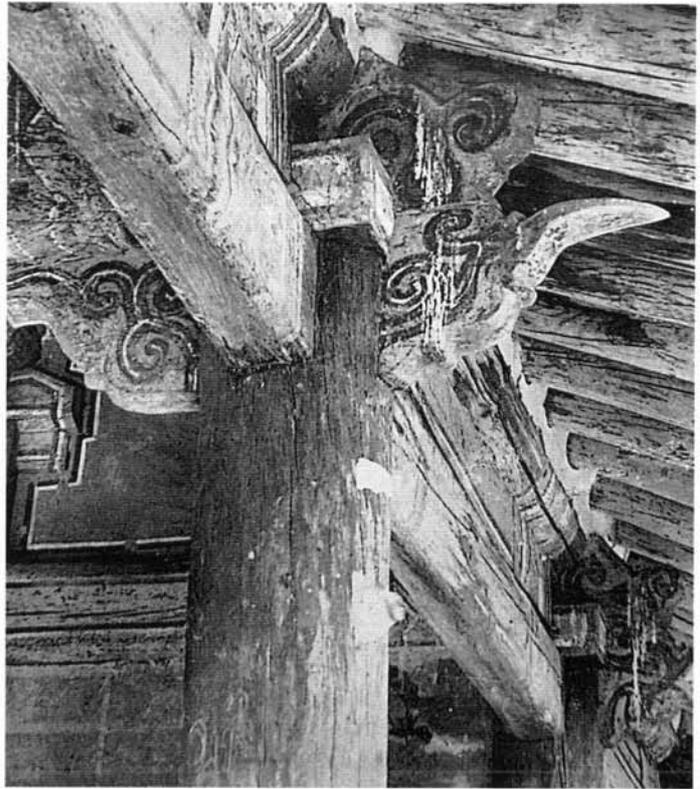
- 사 진
- 도 면
- 참고문헌

사진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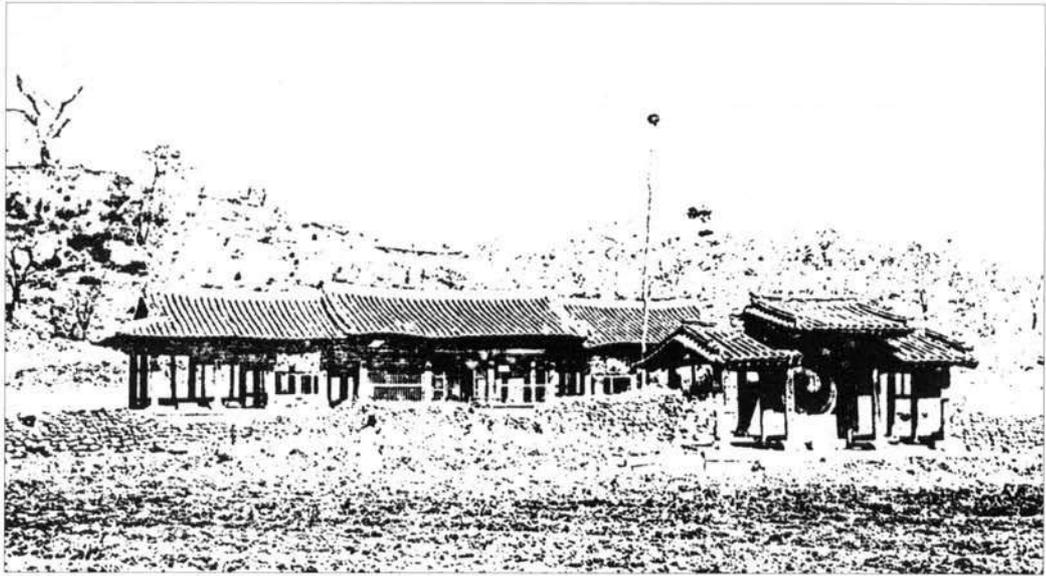
정청과 익헌 (『朝鮮古蹟圖譜』)	259	주건물지 계단 (다2-4·동→서)	274
익헌의 공포 (『朝鮮古蹟圖譜』)		정청 앞 서측 계단 (다3·북→남)	
벽제관 전경 (『高陽郡誌』)	260	서익헌 앞 계단 (다3-4·북→남)	
정청과 익헌 (『寫眞으로 보는 韓國百年 1』)		주건물지 밖 서쪽 앞 계단 (다4·남→북)	275
정청과 익헌 (『碧蹄館』)	261	선대 아궁이 (나3-4·서→동)	
삼문 (『碧蹄館』)		선대 아궁이 (나4·북→남)	276
정청과 익헌 (『高陽案内』)	262	선대 아궁이 (나4·동→서)	
삼문과 정청 (『碧蹄館』)		선대 아궁이 (나2·동→서)	
삼문 (『高陽案内』)		문지 (공중촬영)	277
벽제관지 발굴 전경 (공중촬영)	263	문지 (바2·북→남)	
주건물지 (공중촬영)	264	문지 (바2·서→동)	
주건물지 (서→동)		문지 계단 (바2-3·동→서)	278
주건물지 밖 동쪽 탐색트렌치 서벽 토층 (동→서)	265	문지 계단 (바2·남→북)	
주건물지 밖 서쪽 탐색트렌치 남벽 토층 (북→남)		문지 남쪽 트렌치 서벽 토층 (바2·동→서)	279
A11 초석 남쪽 탐색트렌치 (나1·남→북)	266	문지 동쪽 온돌 유구 (바1-2·공중촬영)	
A12 초석 남쪽 탐색트렌치 (나1·남→북)		문지 동쪽 온돌 유구 중 동쪽 부분 (바1·남→북)	
나3 트렌치 서벽 토층 (동→서)		마당 (공중촬영)	280
정청 B7 초석 (나2·남서→북동)	267	월대 유구 (공중촬영)	
정청 A7 초석 (나2·남→북)		정청 앞 중앙 계단 및 보도 장대석 (다2-3·남→북) ...	281
정청 C7-8 사이 석렬 (다2·남→북)		보도 석렬 및 장대석	
정청 A5 남동쪽 전돌 (나3·남동→북서)	268	부석 (라2-3, 마2-3·공중촬영)	282
정청 A6 서쪽 전돌 (나3·서→동)		부석 (라2-3, 마2-3·동→서)	
동익헌 (공중촬영)	269	부석 (마3·서→동)	
동익헌 온돌 추정 유구 (나2·북→남)		적심석 형태의 유구들 (라2-3·공중촬영)	283
동익헌 C12 남쪽 석렬 (다1·동→서)	270	월대 석렬 (라2-3·서→동)	
동익헌 A11 남쪽 원형 선대 적심석 (나1·동→서)		부석 위 적심석 형태 유구 (라3·동→서)	
서익헌 온돌 추정 유구 (공중촬영)	271	월대 내 적심석렬 (다2-3·동→서)	284
서익헌 B3 동쪽 기와열 (나3·남→북)		월대 내 적심석렬 (다2·남→북)	
서익헌 추정 구들장 (나3·서→동)	272	월대 내 적심석렬 (다3·남→북)	
서익헌 B3 초석 (나3·남서→북동)		마1 시굴트렌치 동벽 토층 (서→동)	285
서익헌 C1-C2 사이 석렬 (다4·남→북)		가1 시굴트렌치 (북→남)	
주건물지 전면기단 부분 (다3·남→북)	273	라4 시굴트렌치 (동→서)	
주건물지 전면기단 동쪽 부분 (다1·서→동)			
주건물지 후면 기단 일부 상세 (남동→북서)			



정청과 익헌 (『朝鮮古蹟圖譜』)



익헌의 공포 (『朝鮮古蹟圖譜』)



벽제관 전경 (『高陽郡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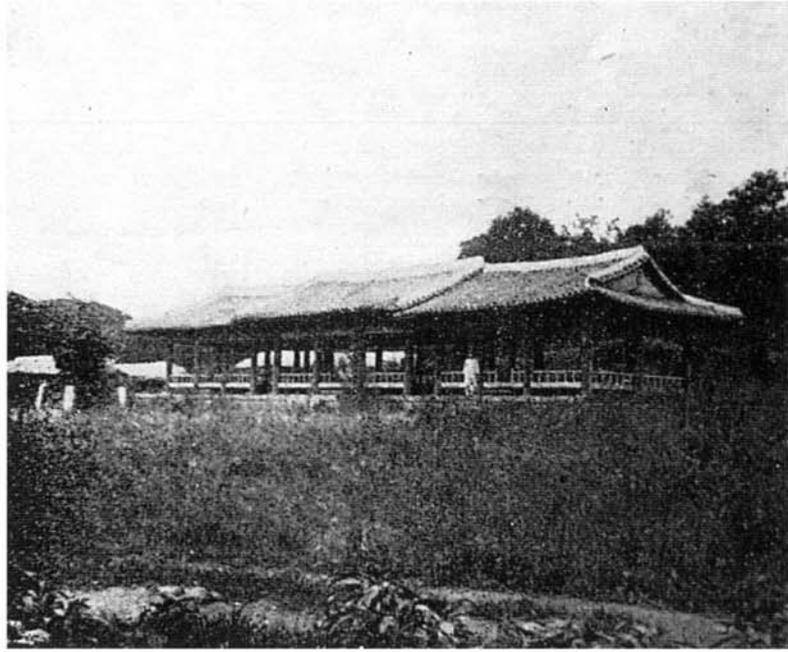
정청과 익헌 (『寫眞으로 보는 韓國百年 1』)



정청과 익헌 (『碧蹄館』)



삼문 (『碧蹄館』)



정청과 익헌 (『高陽案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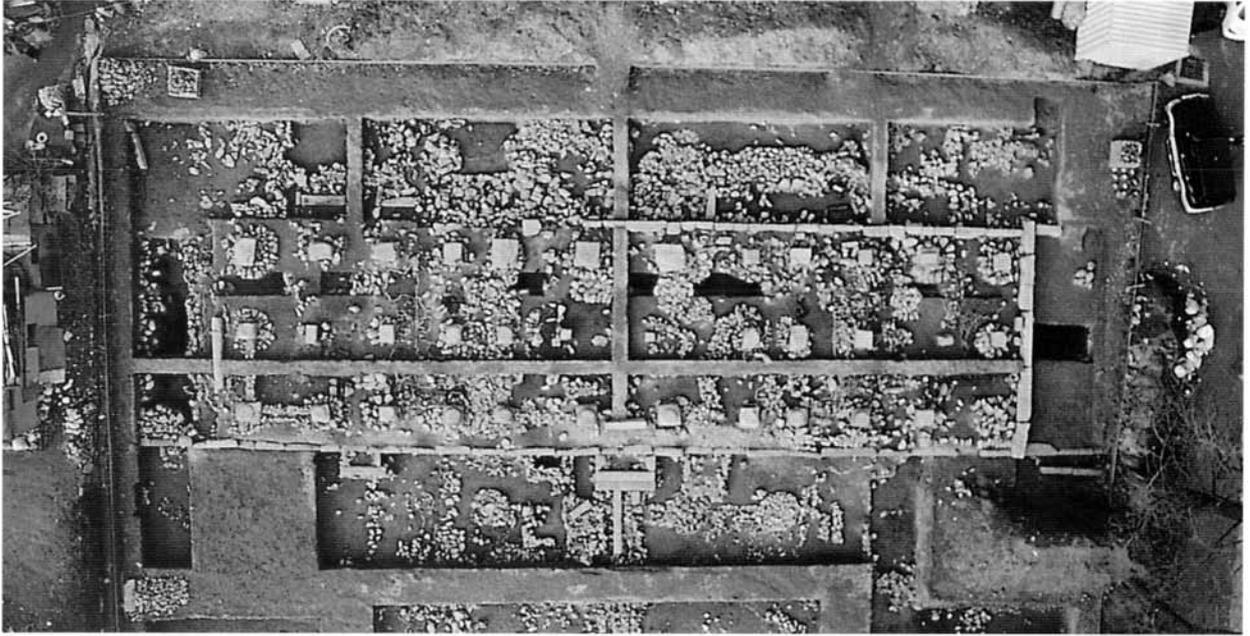
삼문과 정청 (『碧蹄館』)



삼문 (『高陽案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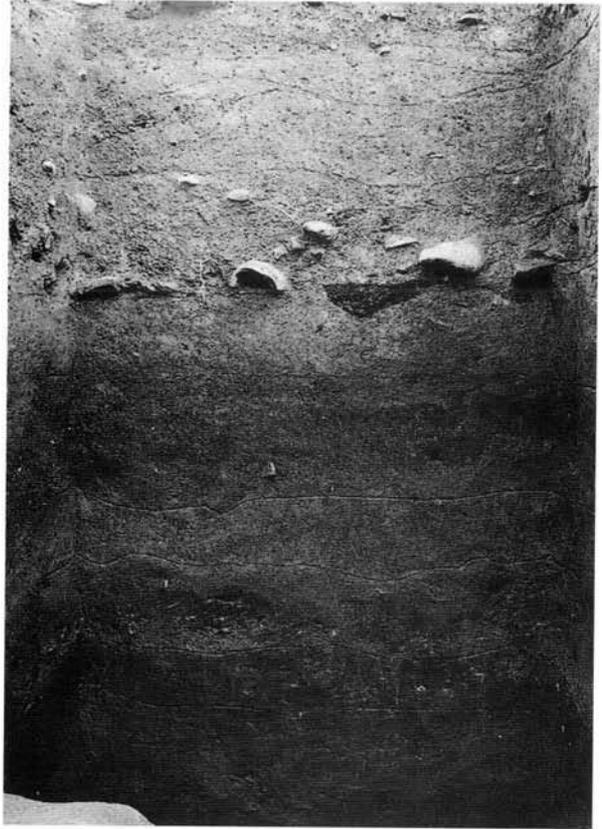
벽제관지 발굴 전경 (공중촬영)



주건물지 (공중촬영)



주건물지 (서→동)



주건물지 밖 동쪽 탐색트렌치 서벽 토층 (동→서)



주건물지 밖 서쪽 탐색트렌치 남벽 토층 (북→남)



A11 초석 남쪽 탐색트렌치
(나1 · 남→북)



A12 초석 남쪽 탐색트렌치
(나1 · 남→북)



나3 트렌치 서벽 토층 (동→서)

정청 B7 초석 (나2·남서→북동)



정청 A7 초석 (나2·남→북)



정청 C7-8 사이 석렬 (나2·남→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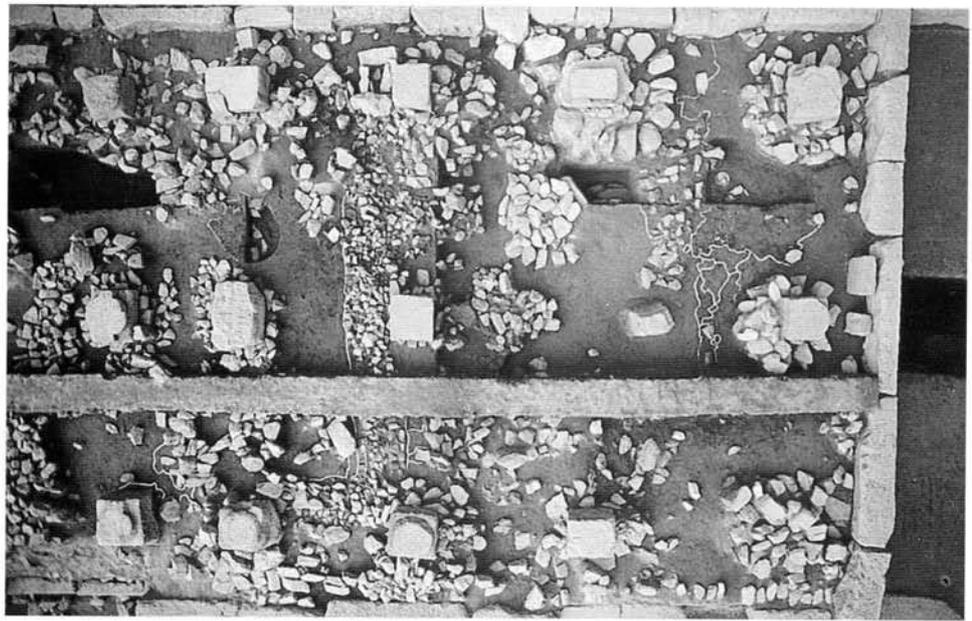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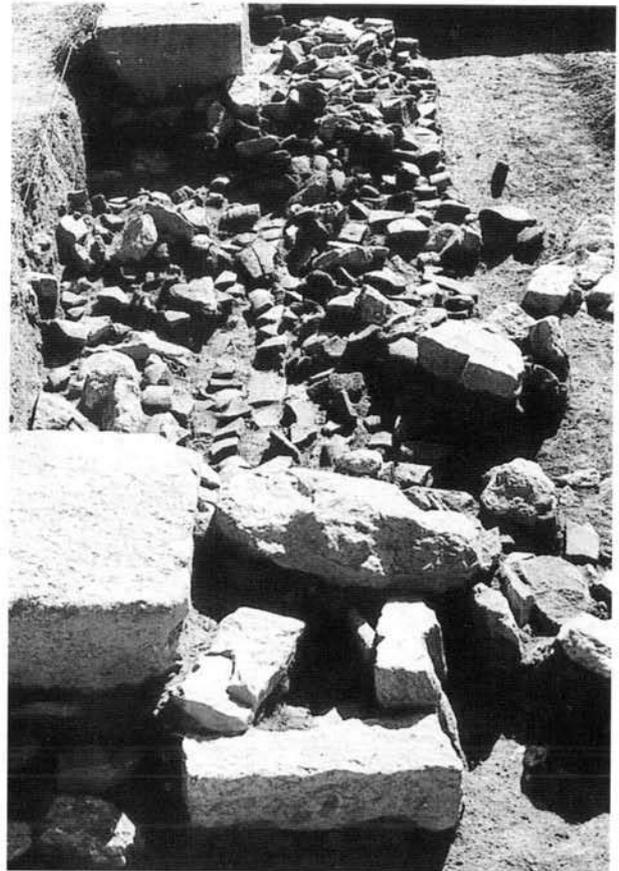
정청 A5 남동쪽 전돌 (L3·남동→북서)



정청 A6 서쪽 전돌 (L3·서→동)



동익헌 (공중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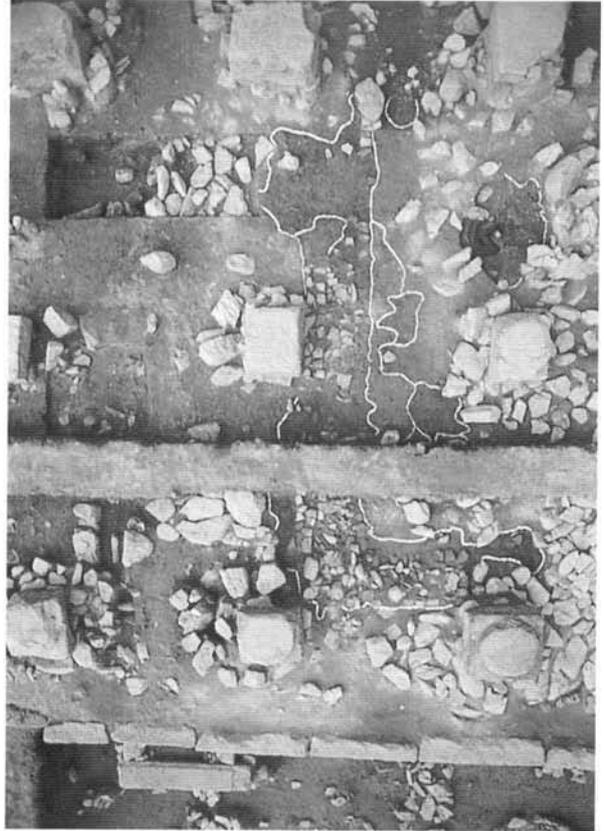
동익헌 온돌 추정 유구 (나2·북→남)



동익헌 C12 남쪽 석렬 (다1·동→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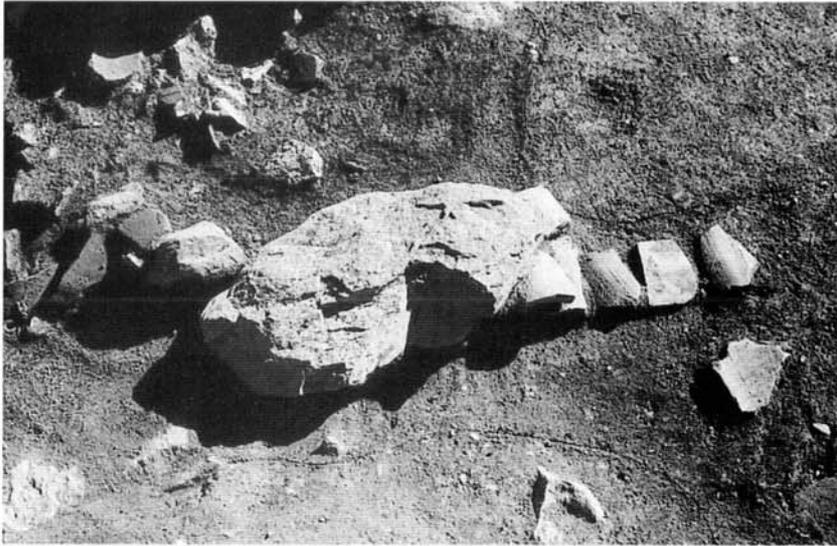
동익헌 A11 남쪽 원형 선대 적심석
(나1·동→서)



서익헌 운동 추정 유구 (공중촬영)



서익헌 B3 동쪽 기와열 (나3·남→북)



서익헌 추정 구들장
(나3 · 서→동)



서익헌 B3 초석
(나3 · 남서→북동)



서익헌 C1-C2 사이 석렬
(다4 · 남→북)

주건물지 전면기단 부분
(다3·남→북)



주건물지 전면기단 동쪽 부분
(다1·서→동)



주건물지 후면 기단 일부 상세
(남동→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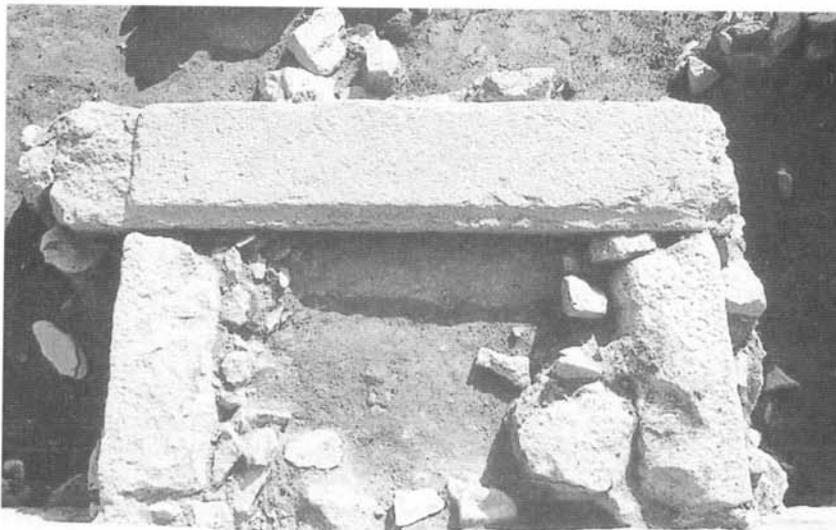




주건물지 계단 (다2-4 · 동→서)



정청 앞 서측 계단 (다3 · 북→남)



서익헌 앞 계단 (다3-4 · 북→남)



주건물지 밖 서쪽 앞 계단 (다4·남→북)



선대 아궁이 (나3-4·서→동)



선대 아궁이 (나4 · 북→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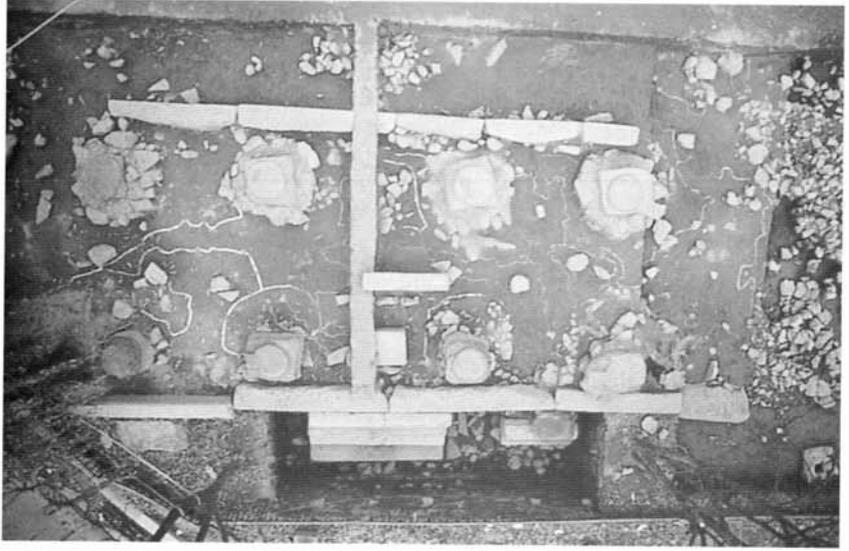


선대 아궁이 (나4 · 동→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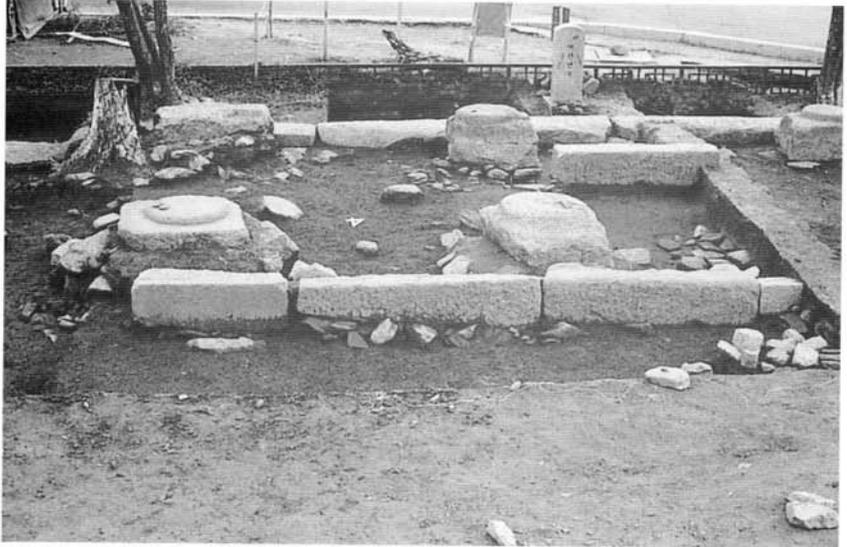


선대 아궁이 (나2 · 동→서)

문지 (공중촬영)



문지 (바2 · 북→남)



문지 (바2 · 서→동)





문지 계단 (바2-3 · 동→서)



문지 계단 (바2 · 남→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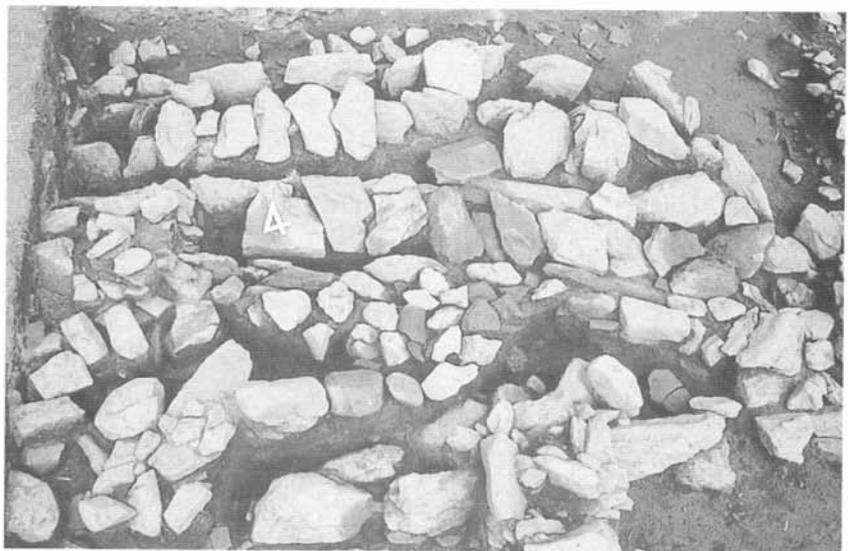
문지 남쪽 트렌치 서벽 토층
(바2·동→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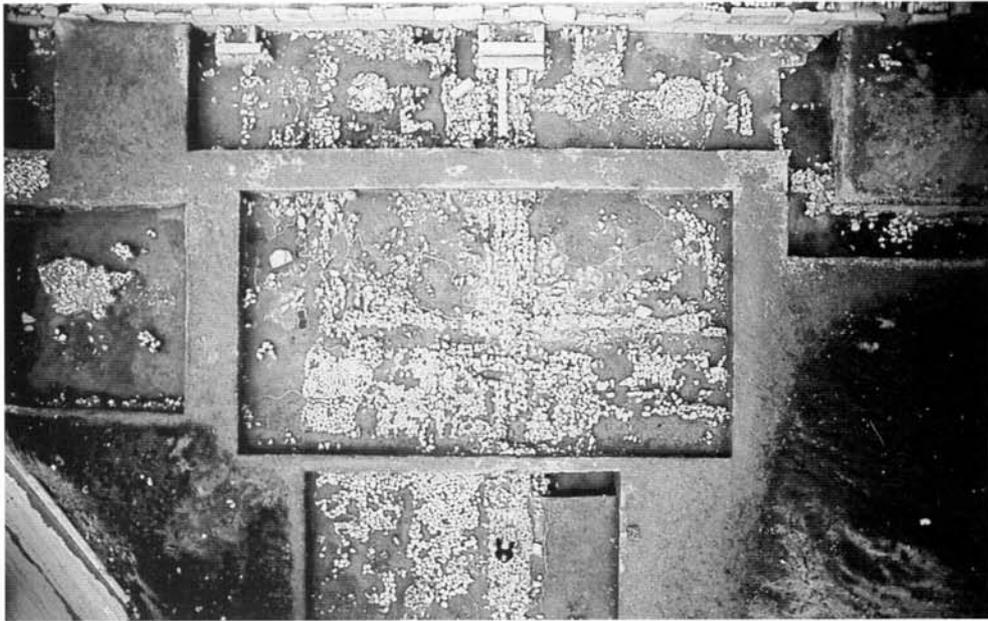


문지 동쪽 온돌 유구
(바1-2·공중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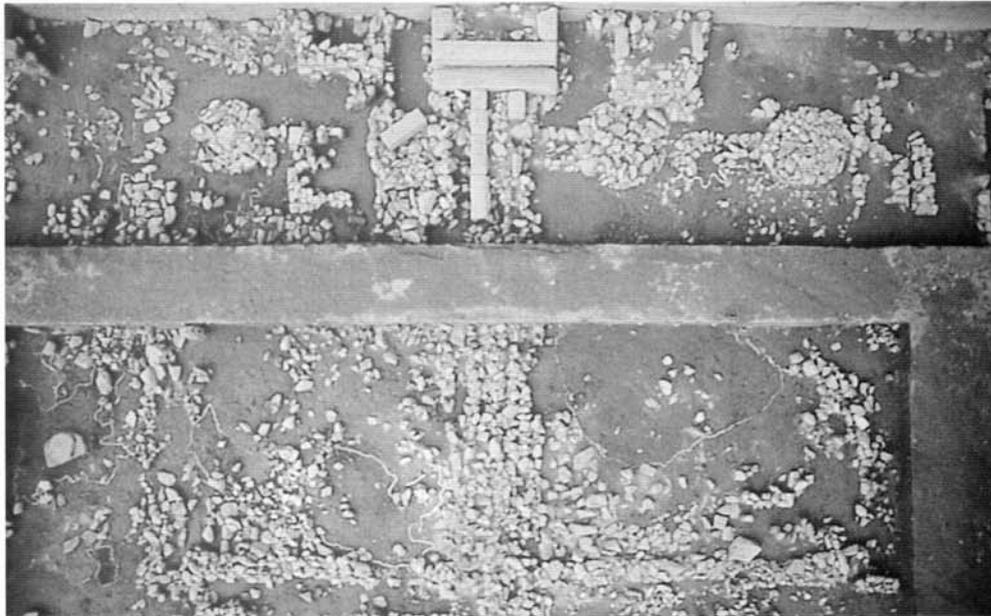


문지 동쪽 온돌 유구 중 동쪽
부분 (바1·남→북)





마당 (공중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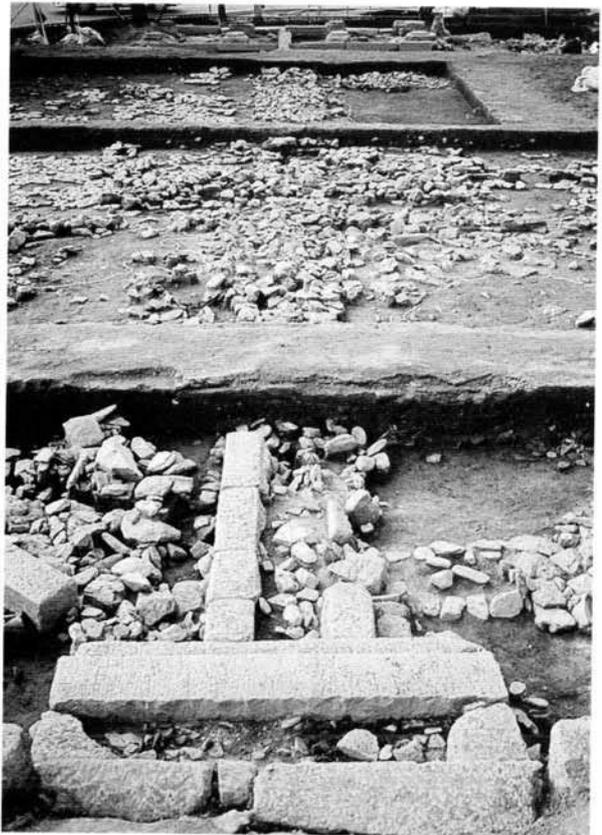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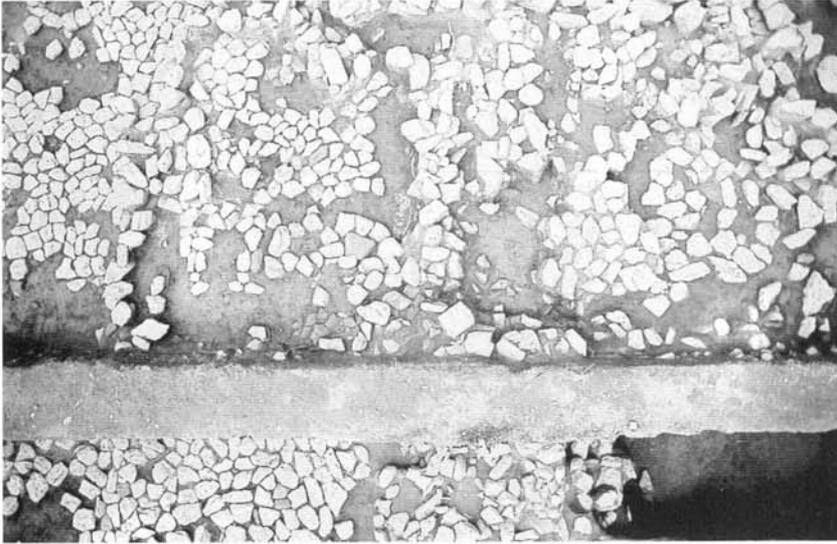
월대 유구 (공중촬영)

정청 앞 중앙 계단 및 보도 장대석 (다2-3 · 남→북)



보도 석렬 및 장대석





부석 (라2-3, 마2-3 · 공중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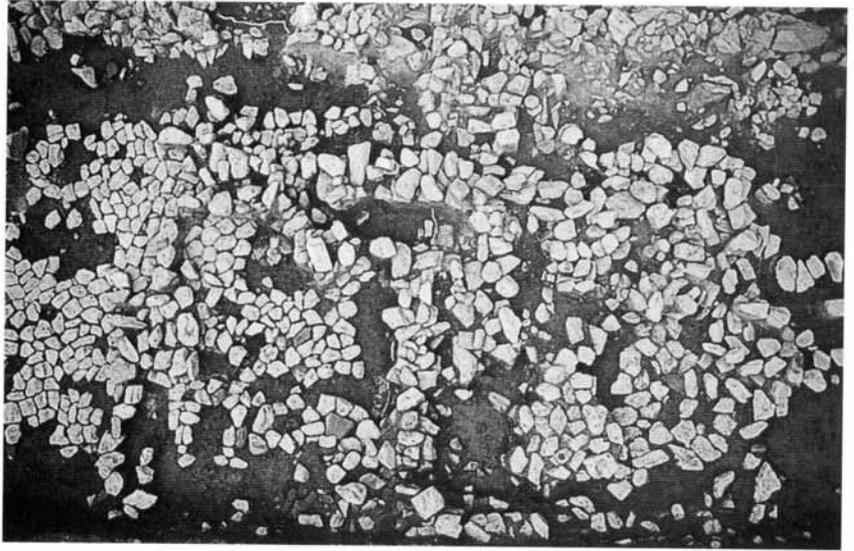


부석 (라2-3, 마2-3 · 동→서)



부석 (마3 · 서→동)

적심석 형태의 유구들
(라2-3 · 공중촬영)



월대 석렬
(라2-3 · 서→동)



부석 위 적심석 형태 유구
(라3 · 동→서)





월대 내 적심석렬 (다2-3 · 동→서)



월대 내 적심석렬 (다2 · 남→북)



월대 내 적심석렬 (다3 · 남→북)

마1 시굴트렌치 동벽 토층
(서→동)



가1 시굴트렌치 (북→남)



라4 시굴트렌치 (동→서)

도면 목록

벽제관지 전체 유구 배치도	289
주건물지 유구	291
선대 아궁이	293
주건물지 내 동서 탐색Tt 북벽 토층도	294
주건물지 밖 동·서쪽 탐색트렌치 토층도	296
다1-4 북벽 토층도	297
문지 유구	298
바2 서벽 토층도	299
문지 계단 서벽 토층도	299
라1 시굴트렌치	299
마1 시굴트렌치 및 남벽 토층도	299
라2-3 마당 유구	300
마2-3 마당 유구	301

N
가
나
다
라
마
바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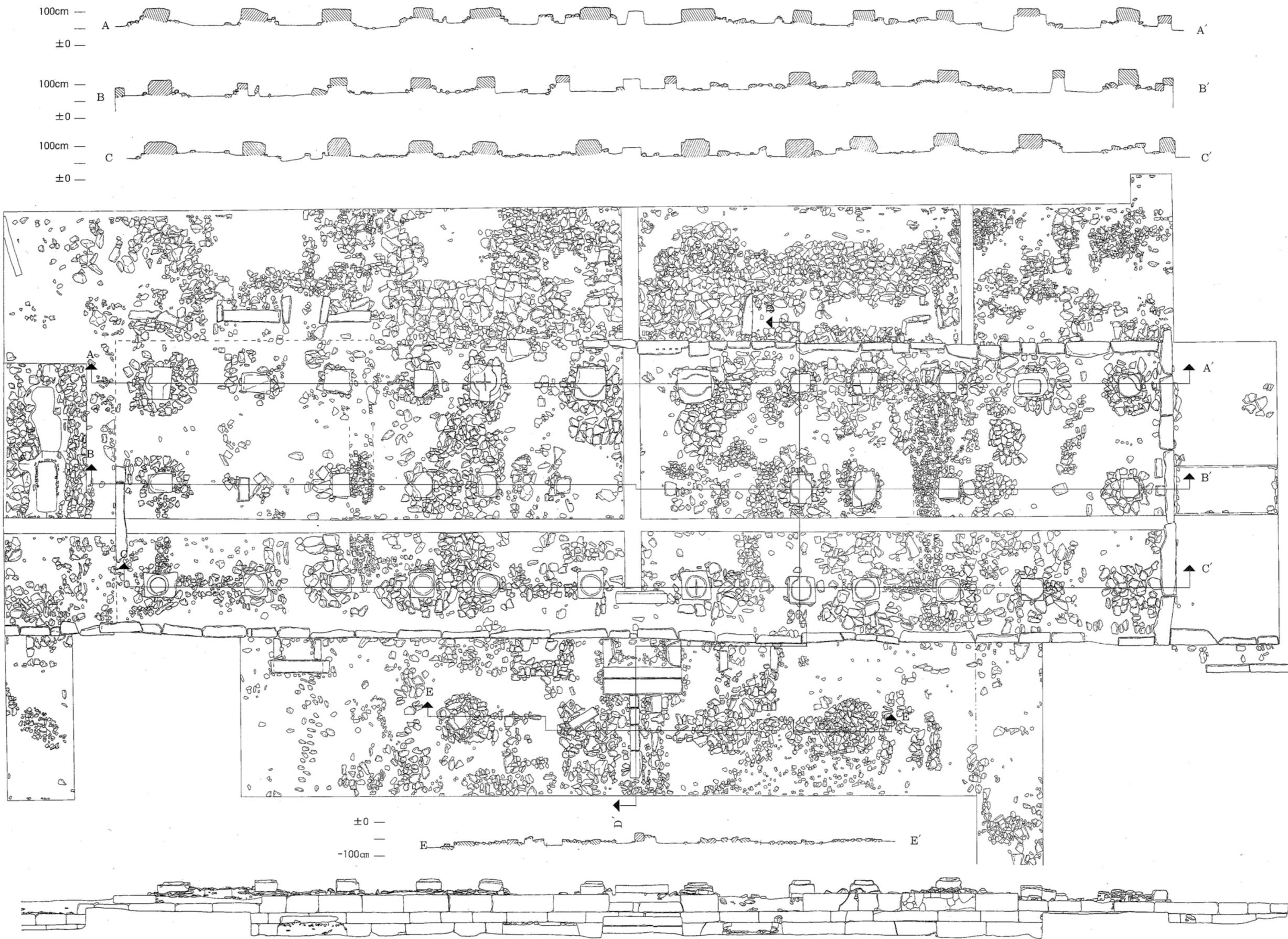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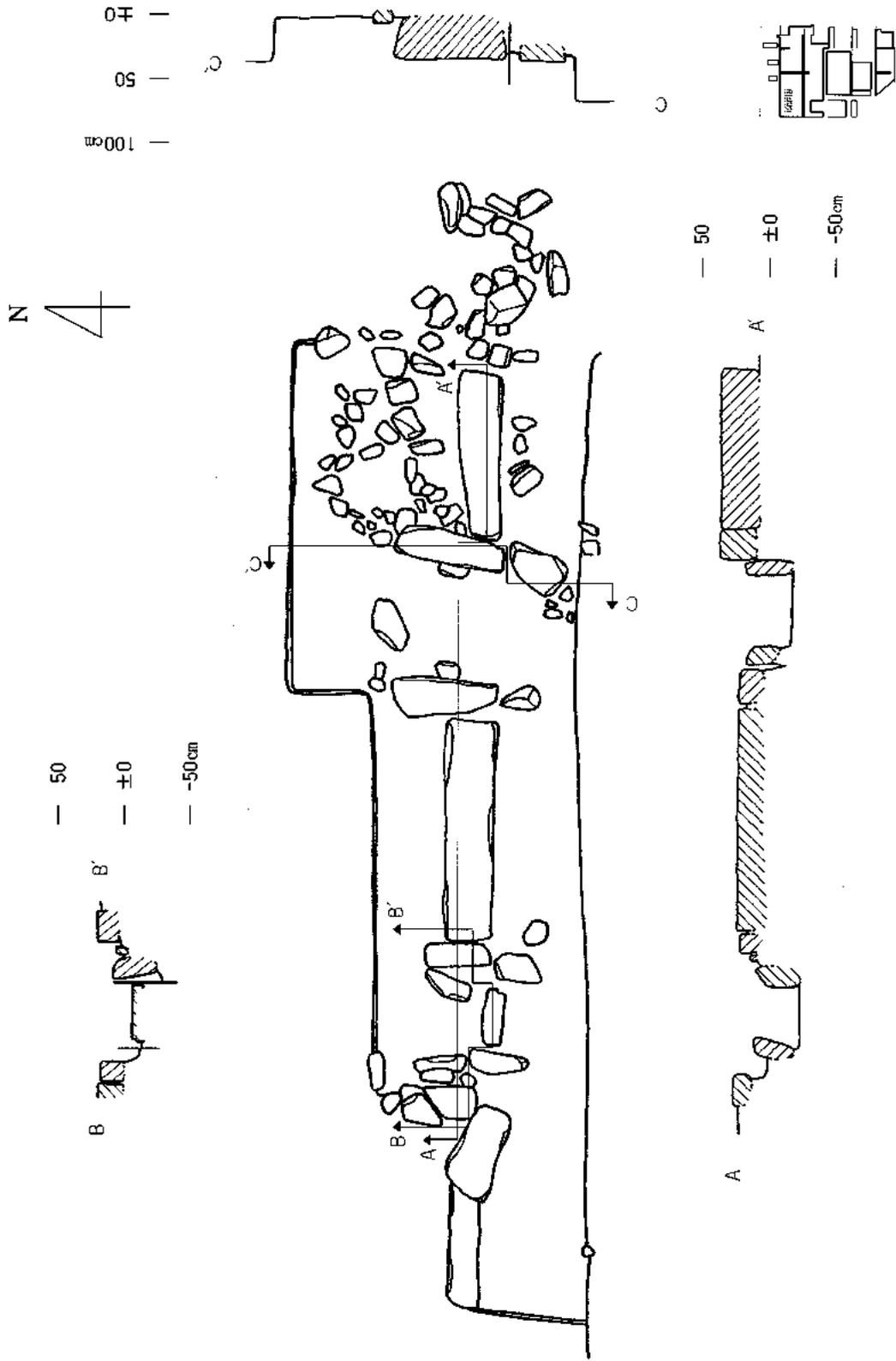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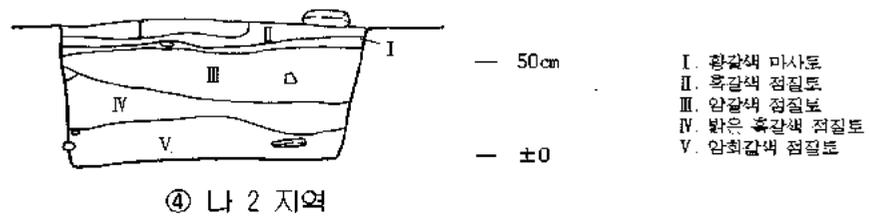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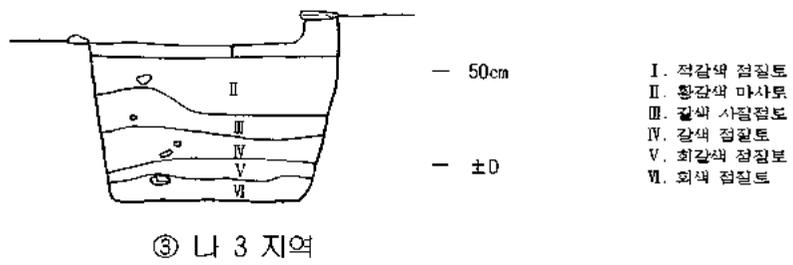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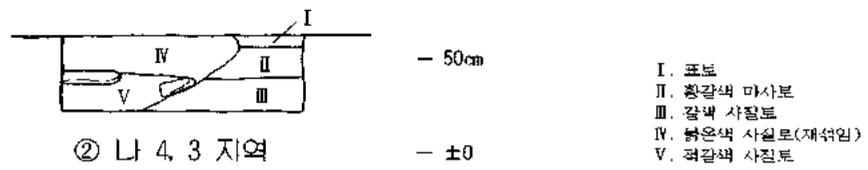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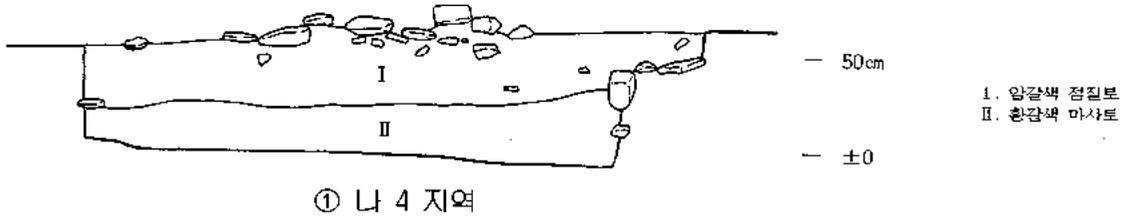
벽제관지 전체 유구 배치도 (축척 : 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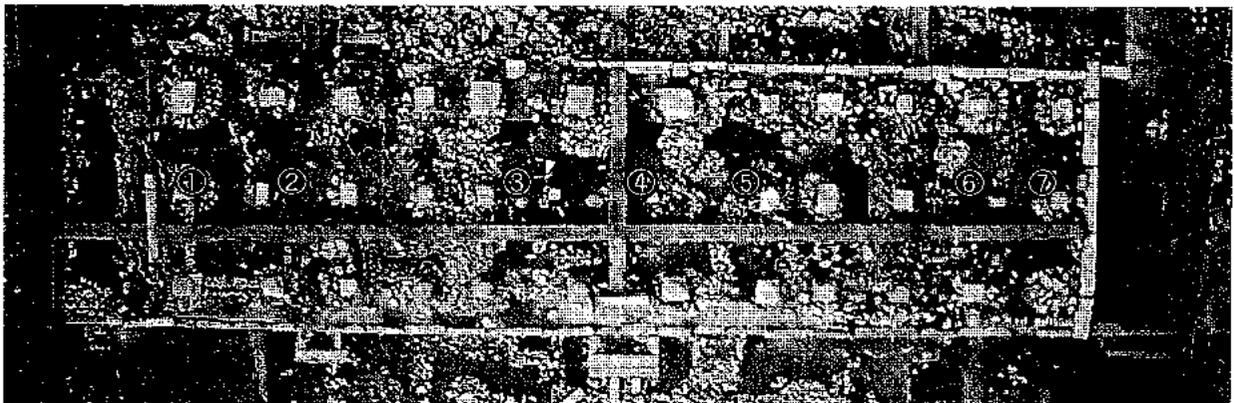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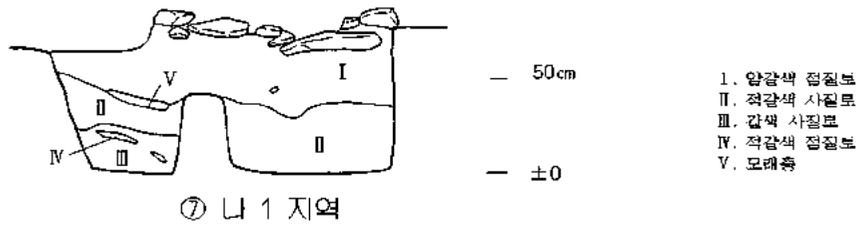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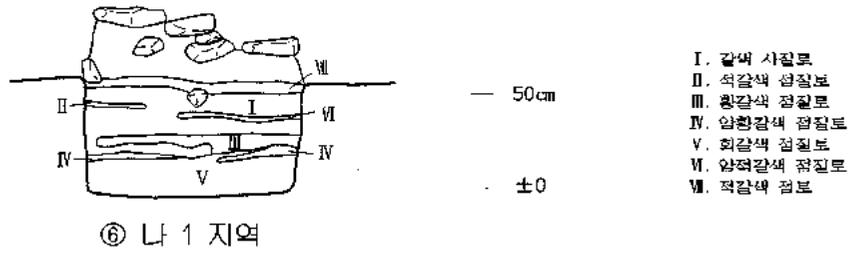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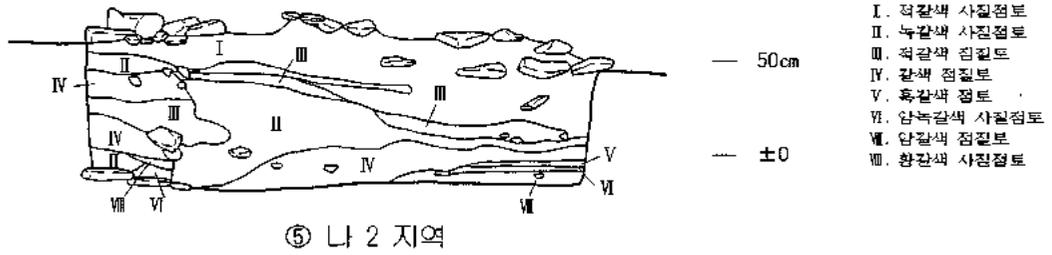


주건물지 유구 (축척 :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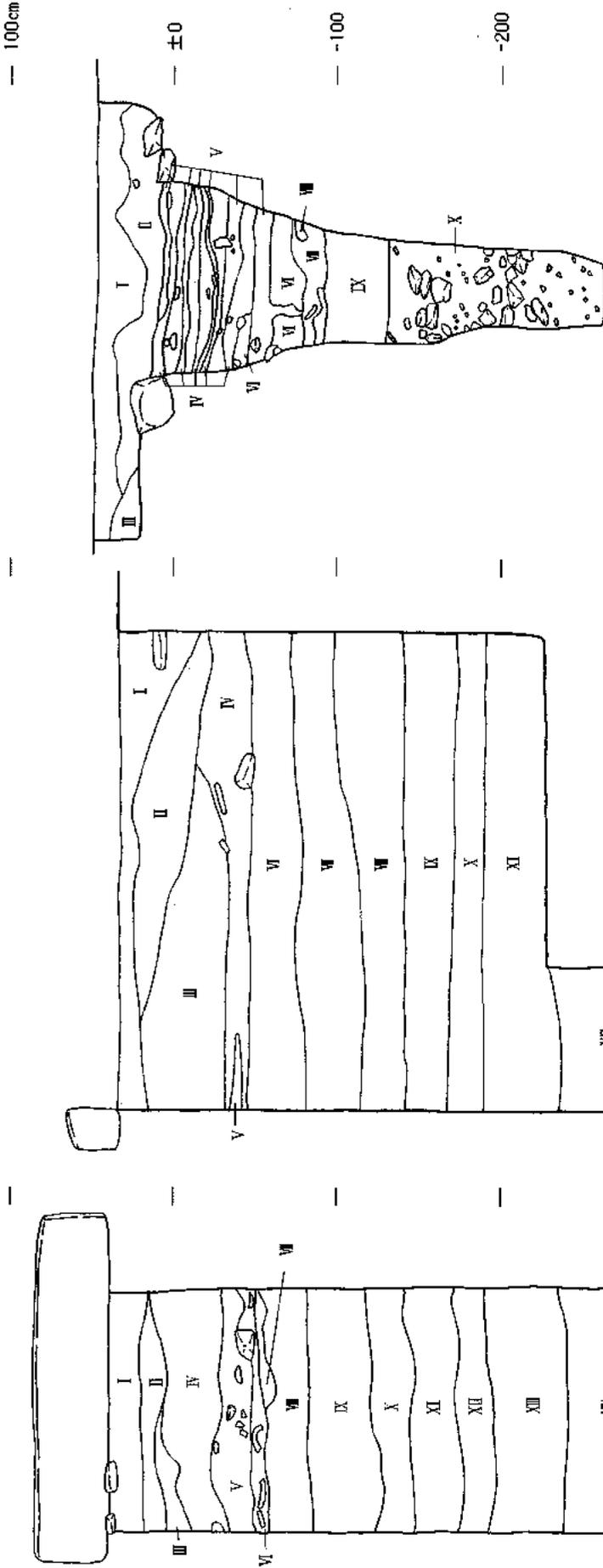
신대 아궁이 (축척 : 1/50)





주건물지 내 동서 탐색Tr 위치

주건물지 내 동서 탐색Tr 북벽 토층도 (축척 : 1/40)



서쪽 탐색트렌치 남벽 토층도

동쪽 탐색트렌치 북벽 토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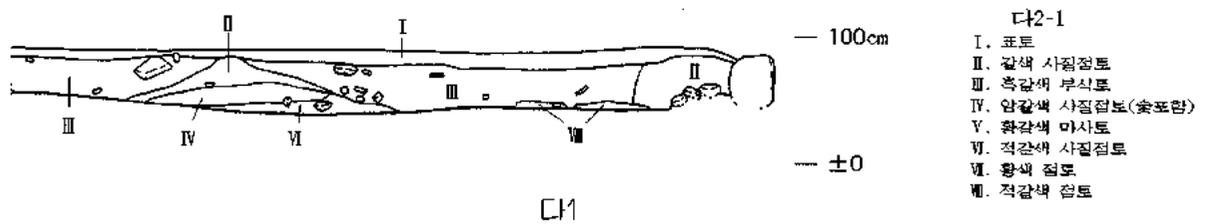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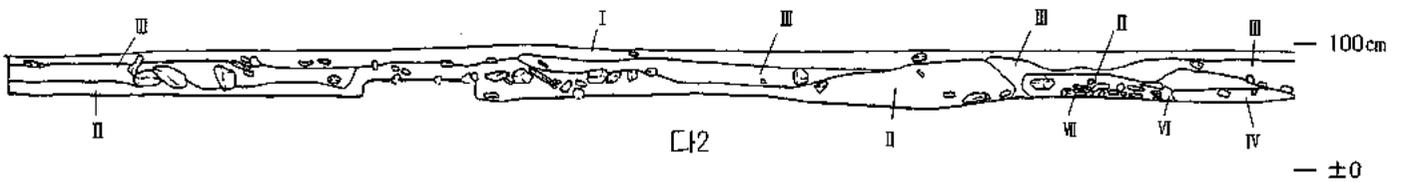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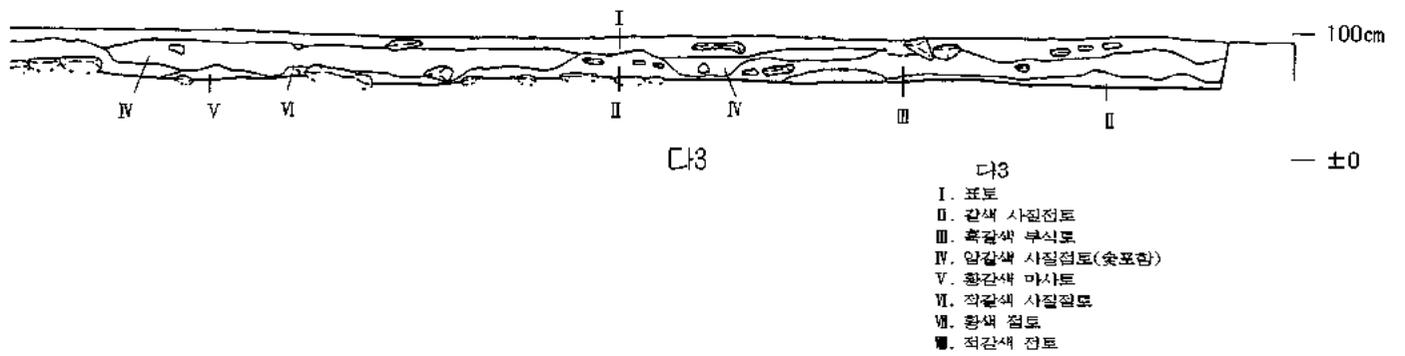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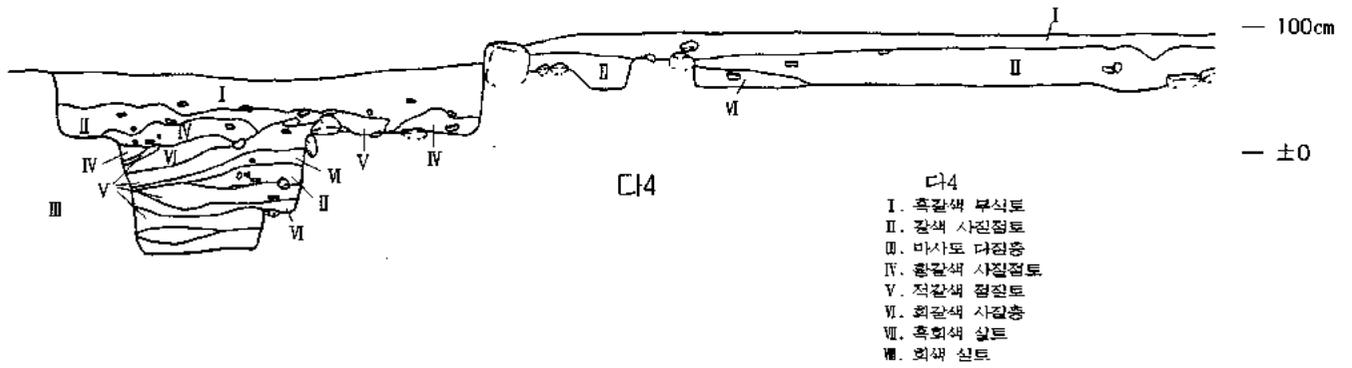
동쪽 탐색트렌치 서벽 토층도

주건물지 밖 동·서쪽 탐색트렌치 토층도 (축척 :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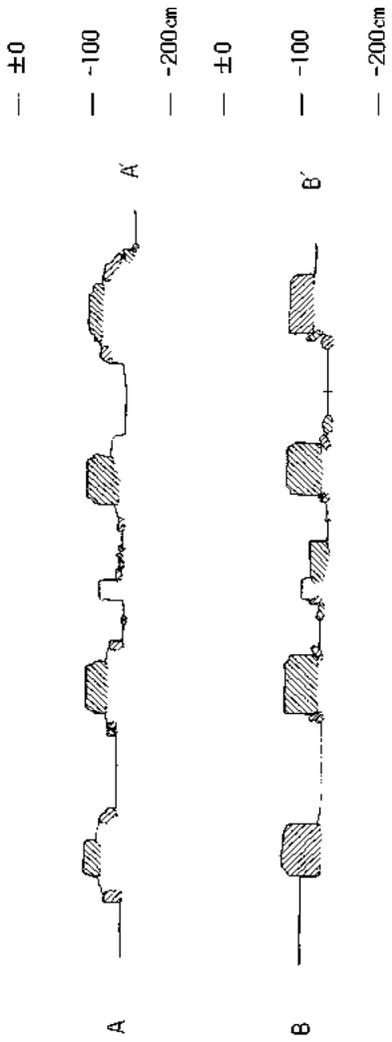
- I. 육갈색 부식토
- II. 갈색 사질점토
- III. 황갈색 마사토 다짐층
- IV. 적갈색 사질점토
- V. 적갈색 점질층
- VI. 황회색 실트층
- VII. 황갈색 사질층
- VIII. 갈색 마사토
- IX. 회백색 실트층
- X. 사력층 - 자연층

- I. 육갈색 부식토
- II. 적갈색 점질토
- III. 갈색 점질토
- IV. 암갈색 점질토
- V. 암갈색 점질토
- VI. 갈색 사질점토
- VII. 암갈색 점토
- VIII. 회갈색 점토
- IX. 회갈색 점토
- X. 회갈색 점토
- XI. 회갈색 점토
- XII. 사력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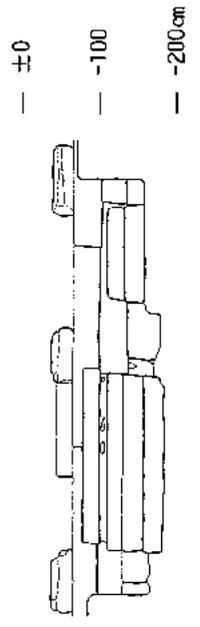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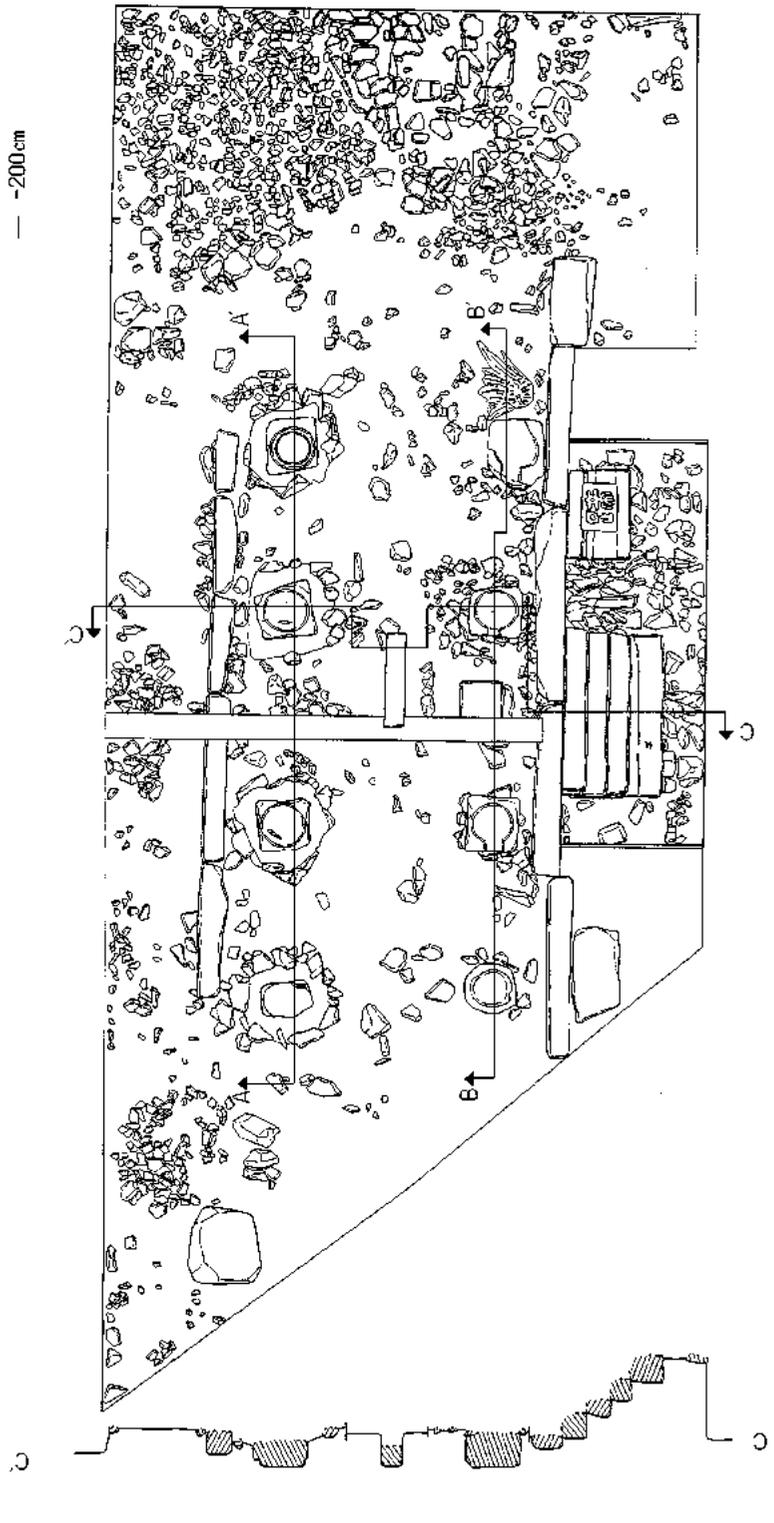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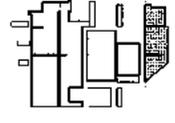
- I. 육갈색 부식토
- II. 적갈색 점질토
- III. 암갈색 점질토
- IV. 갈색 점질토
- V. 암갈색 점질토
- VI. 황회색 점토
- VII. 갈색 사질점토
- VIII. 암갈색 점토
- IX. 갈색 점토
- X. 회갈색 점토
- XI. 회갈색 점토
- XII. 회갈색 점토
- XIII. 회갈색 점토
- XIV. 사력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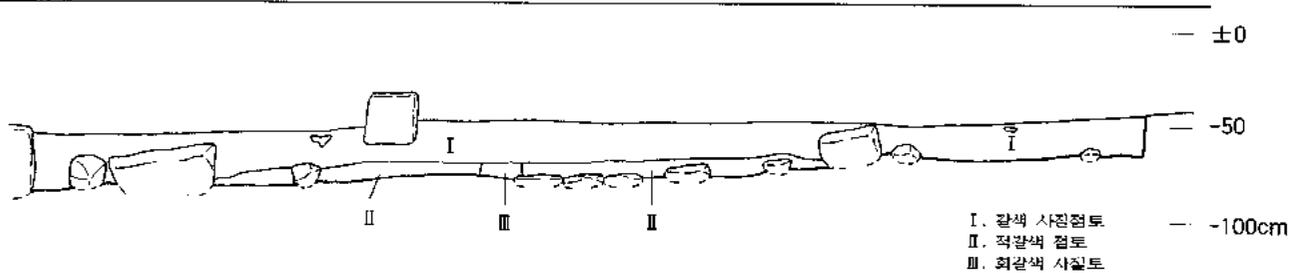
다1-4 북벽 토층도 (축척 :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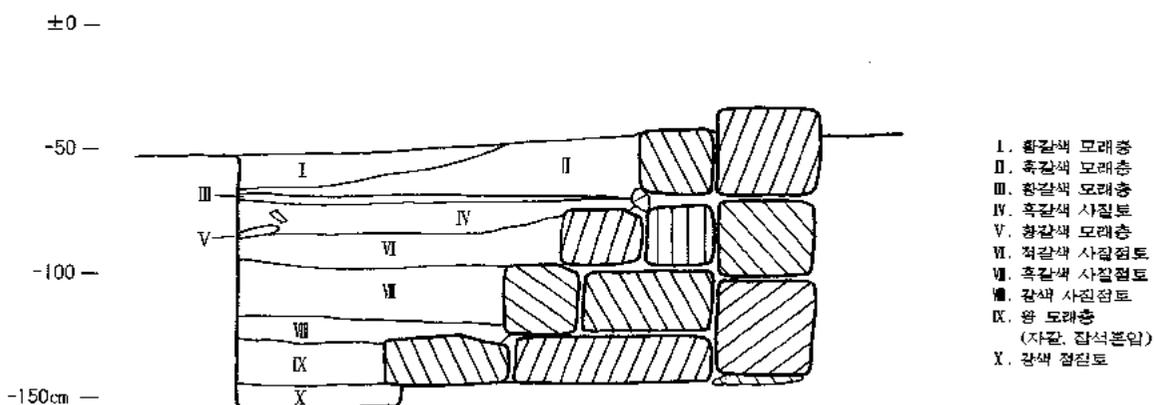
N 4



문지 유구 (축척 :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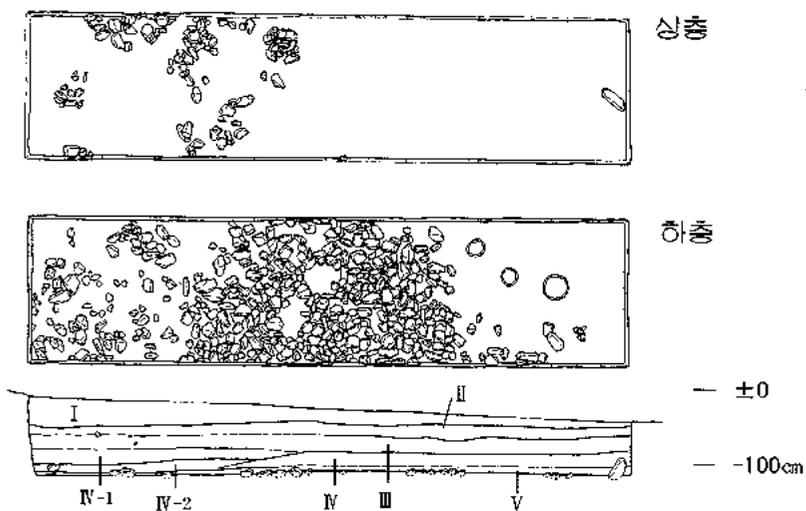
바2 서벽 토층도 (축척 :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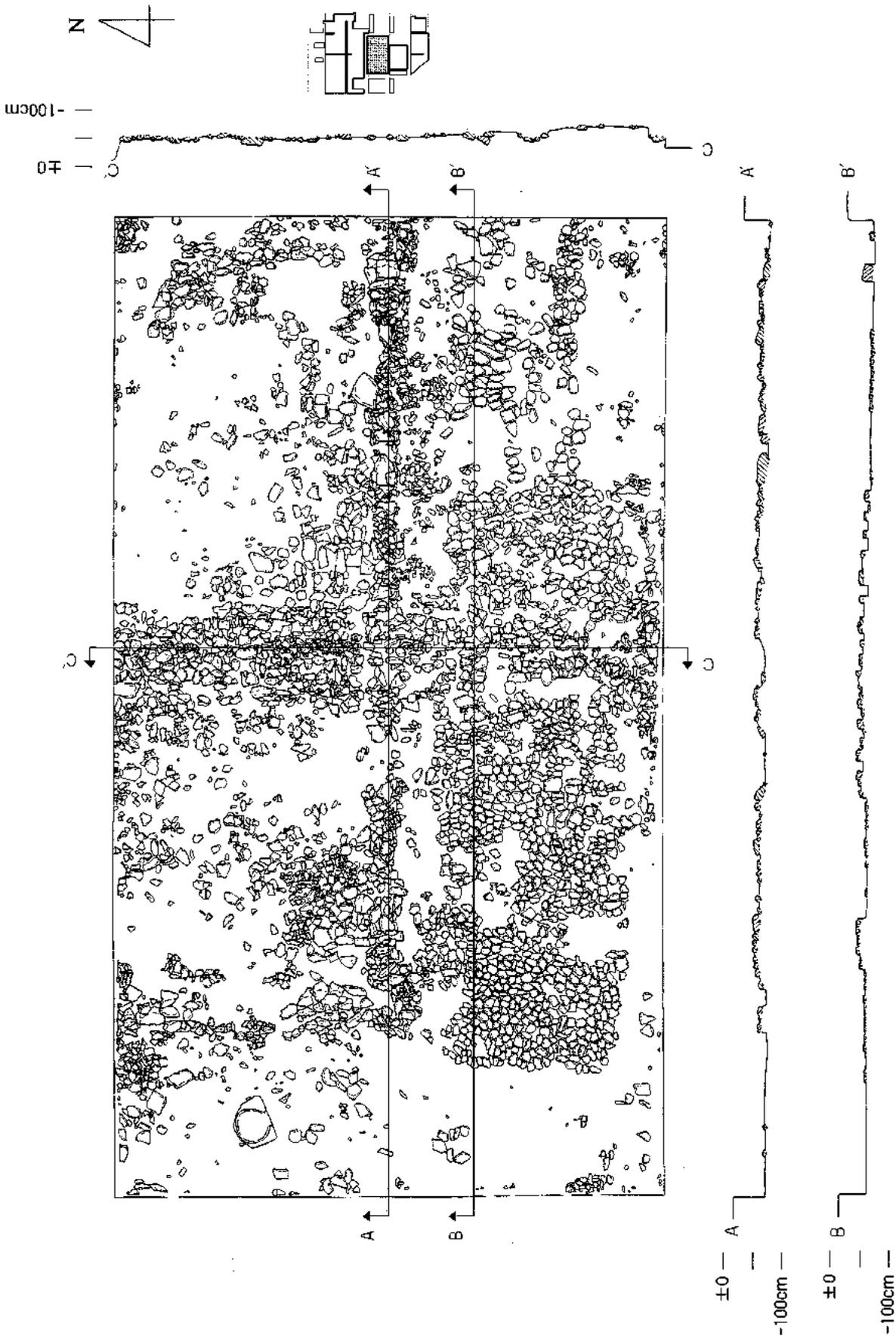
문지 계단 서벽 토층도 (축척 : 1/30)



리 시굴트렌치 (동쪽 소토층 제거후) (축척 :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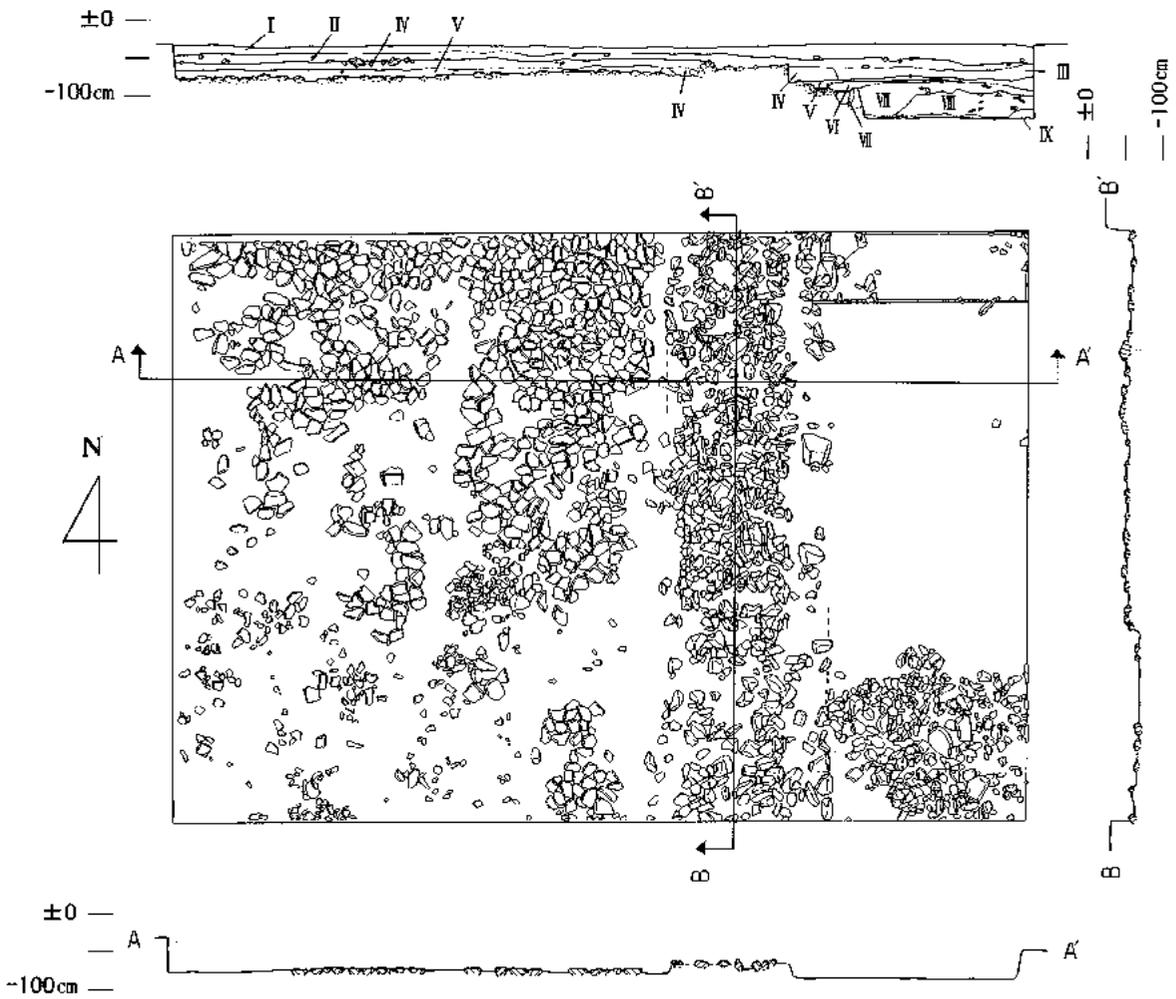
메이 시굴트렌치 및 남벽 토층도 (축척 : 1/100)



리2-3 마당 유구 (축척 : 1/100)



- | | |
|--------------|--------------|
| I. 灰토 | VI. 적갈색 사질점토 |
| II. 갈색 사질점토 | VII. 적갈색 점토 |
| III. 명갈색 사질토 | ■ 갈색 점토 |
| IV. 적갈색 점토 | K. 황갈색 점토 |
| V. 회갈색 점토 | |



마2-3 마당 유구 (축척 : 1/100)

參 考 文 獻

- 『三國史記』
- 『高麗史』
- 『朝鮮王朝實錄』
- 『新增東國輿地勝覽』
- 『增補文獻備考』
- 『輿地圖書』
- 『海東地圖』
- 『高陽郡誌』(1755)
- 『高陽郡輿地勝覽』(1891)
- 『高陽郡邑誌』(1899)
- 高陽協贊會, 『高陽案内』, 1915. 8.
-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11』, 1931. 3.
- 京城電氣, 『碧蹄館』, 1938. 5.
- 高陽郡誌編纂委員會, 『高陽郡誌』, 1987. 9.
- 서울대학교박물관, 『幸州山城』, 1991
- 서울대학교박물관, 『高陽郡花井地區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991
- 한국선사문화연구소, 『일산 새도시 개발지역 학술조사보고 1』, 1992
- 고양시·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토지박물관 학술조사총서 제3집, 1999
- 金元龍, 『韓國史前遺蹟遺物地名表』, 서울大考古人類學叢刊 第2冊, 1965
- 이희권, 「고려의 군현제도와 지방통치 정책」, 『고려사의 제문제』, 삼지원, 1986
- 梅原末治, 「朝鮮出土 銅劍銅鉞の新資料」, 『人類學雜誌』 48-4, 1933
- 金武龍, 「坡州 交河里的 支石墓」, 『考古美術』, 第2卷 1號 (通卷 6號), 1961
- 李白圭, 「奈遊里 造山里 遺蹟 - 橫山資料 5 -」, 『全北史學』 第7輯, 1983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修理報告書』 87, 88上, 90中, 92上·中
- 忠南大學校 博物館·瑞山郡廳, 『海美邑城 內 建物址 發掘報告書』, 1981
- 仁川直轄市, 『仁川文化財 實測調査 報告書』, 1990. 12.
- 平澤郡, 『彭城邑客舍 實測調査報告書』, 1994. 12.
- 南原市, 『龍城館 地表面調査 報告書』, 1995. 7.
- 江陵大學校 博物館·江陵市, 『江陵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江陵大學校 博物館 學術叢書 14冊, 1996
- 安城市, 『安城客舍 解體·重建工事 報告書』, 2000. 4.
- 東亞日報社, 『寫眞으로 보는 韓國百年 1』, 1991. 8.
- 주남철, 『한국건축의장』, 일지사, 1997. 2.
- 한국문화유산답사회, 『경기북부와 북한강』, 답사여행의 길잡이 9, 돌베개, 1997
- 삼성문화재단,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학교재, 1998. 8.
- 金聖雨, 「漢陽의 定都過程」, 『建築』 제35권 제2호, 1991. 3.
- 柳泳秀, 『朝鮮時代 客舍建築에 관한 研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9. 12.
- 柳基元, 『安城客舍 木構造 樣式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7. 6.
- 崔榮喆, 『朝鮮時代 監營의 職制와 建築의 構成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 흥익대 박사학위논문, 1994. 12.

고양 벽제관 건축유적지 발굴조사보고서

2000년 12월 1일 인쇄

2000년 12월 9일 발행

발 간 : 고 양 시

조사편찬 : 경 기 도 박 물 관

연세대학교 건축과학연구소

인 쇄 : 대 명 기 획 (02-2279-3835)

비매품 · 한정판